

40 50 음악세상



프롤로그

40-50대 음악세상 1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방송을 아끼고 사랑했던 분들에게 무엇인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마음뿐, 그렇다고 막상 책을 만든다고 생각하니 줄필이 될까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50의 나이에 개인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40-50대가 하는 말로 왕초보에 컴맹인 내 자신이 용케도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접하고 나서 40-50대 방송도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처음은 ‘미친놈’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첫 마디가 “그거 돈 되는 거야? 돈 안 되는데 뭘하려고 하느냐” 는 빈정거림은 오히려 나에게 오기로 작용하면서 이 방송 1년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젊은 친구들이 3개월 정도하면 그만 둘 거라는 예상을 했고 실제로 3개월 방송을 하면 대부분 지쳐서 방송이 없어지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1년을 지킨 것도 대단한 일이 되었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이 1년 동안 지겹게도 방송으로 외쳤던 멘트로 40-50대 음악세상을 2-3개월 정도 들었던 분이면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루에 몇

번씩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들으면 웃을 얘기지만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라니, 컴퓨터도 잘 모르면서 주인공이라고 외치면 되는가 라는 빈정거림도 있을 법한데 다행히 40-50대 음악 세상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아직 그런 글은 보질 못했습니다.

인터넷은 세대별로 뭉치는 응집력이 대단히 강하고 나름대로 세대별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세상에 40-50대 인터넷 문화가 중심이 된다면 인터넷으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회문제들이 조금은 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 40-50대 음악세상은 24시간 신청곡과 사연중심의 생방송으로 40-50대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축을 만들기 위해 방송 목표를 설정하다보니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슬로우진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글을 써 본적도 없습니다. 다만 의욕하나만으로 방송을 시작했고 이제 또 새로운 도전으로 40-50대 음악세상이 1년간 함께 해온 40-50대들의 사연들을 모아 우리가 인터넷 세상속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2년을 향한 방송에 나름대로 명분과 가치를 찾아내려는 의욕이 이 글을 쓰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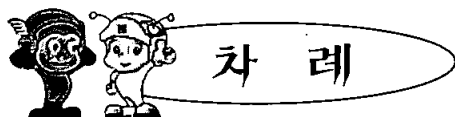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이 만들어 가고자하는 인터넷 세상은 무엇이며 40-50대가 인터넷에 진정한 주인공으로 아름답고 믿고 신뢰하는 전통과 습관을 물려줄 것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 첫걸음으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묵묵히 40-50대 음악세상을 함께 지켜온 CJ 비올레타, 효조, 꽃천사루루, 가인, 하진, 능소화 이 분들이 40-50대 음악세상을 무보수 무땀가로 자원봉사의 정신으로 방송을 지키고,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 책을 통하여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자로서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많은 음악세상 가족들에게는 자긍심과 더불어 40-50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으로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뜻에 이 책이 자그마한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40-50대 음악세상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젊은 청년들의 조직인 한국JC 회원을 위한 JCB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개국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개인인터넷 라디오방송이 단순하게 취미영역을 벗어나서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로 활용되는 방송분야로 자리 잡기를 기대 해봅니다.

40-50대 음악세상을 위해 재정적 도움을 주신 모든분들과 지금까지 조용히 내 곁을 지켜준 내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40-50대 음악세상 CJ 인생



제1장 인생의 인터넷 세상이야기

프롤로그	3
추천의글	11
40-50대가 인터넷 세상의 주인공이다	15
40-50대가 만들어야 할 인터넷 세상	19
인터넷을 자신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23
인터넷 세상만큼 쉬운것은 없다 무조건 시작하라.	26
인터넷 세상은 자신이 하기 나름이다.	33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35
인터넷속에 채팅 사람들	39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상	43
가족이 함께 하는 인터넷 문화	47
내가 누구인지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50
40-50대 음악세상 10년의 약속의 의미	53

제2장 40-50대 음악세상

탄생과 배경	59
40-50대 음악세상 방송을 함께 하려면	61
방송프로그램 소개	69
40-50대 음악세상 캠페인	85
4050게시판을 돌아보며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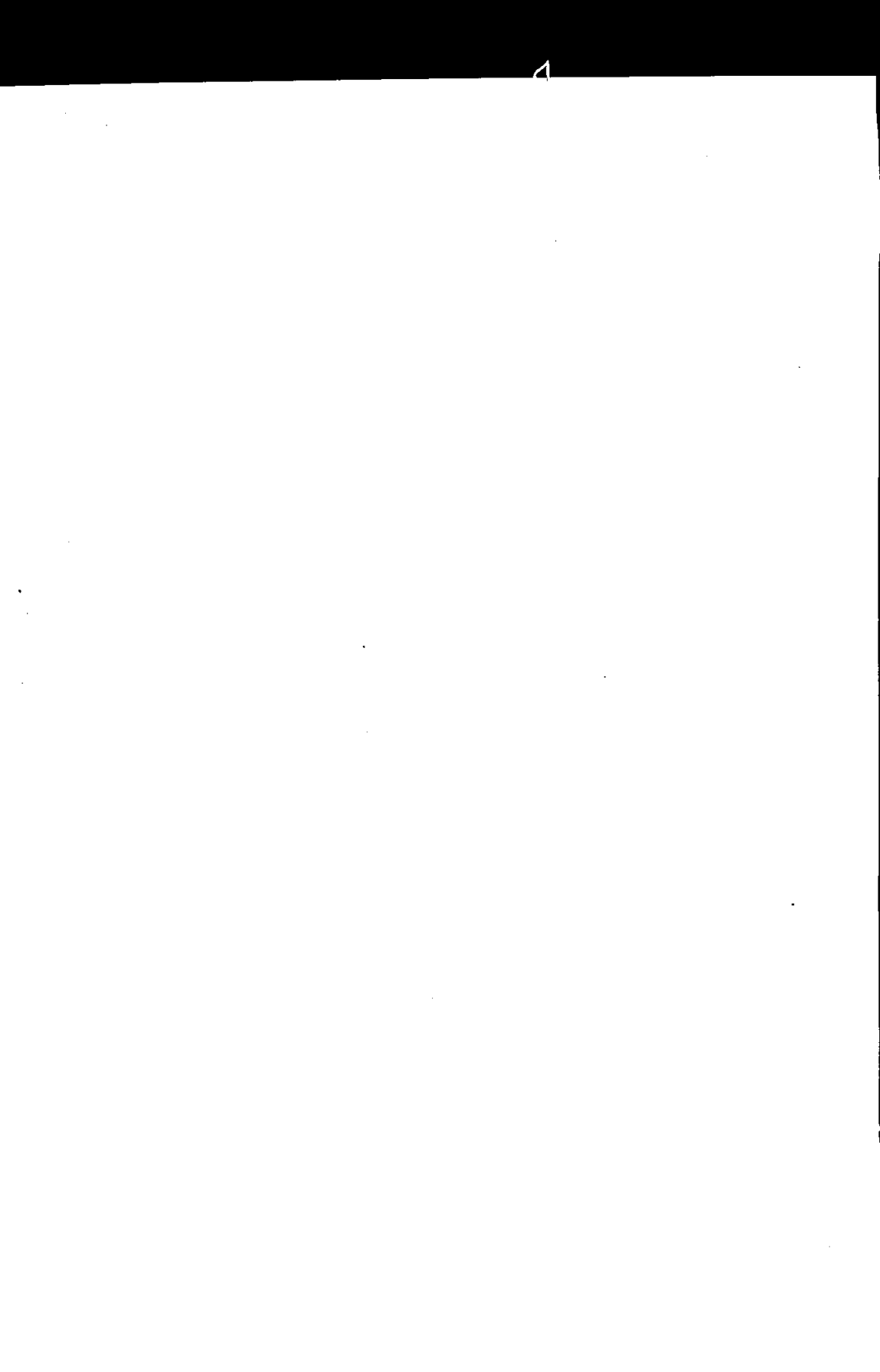
제3장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149
축하합니다.	180
인터넷 경험소개 게시판	188
가족, 개인 홈페이지 소개	216
공개채트방과 동호회 소개	232

제4장 40-50대 음악세상이 꿈꾸는 인터넷 세상

JCB 인터넷 방송을 만들며	249
40-50대 음악세상 방송을 지킨 사람들	266
40-50대 음악세상을 도와주신분	283
글을 마치며	299





강원도 의회 부의장
이 훈 (백슬)



40-50대음 악세상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40-50대 음악세상 애청자로 함께 한지가 어느덧 6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옛 추억속에 음악다방을 그리며 틈나는대로 컴퓨터 앞에 앉으면 습관적으로 40-50대 음악세상을 열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습관이 되버렸습니다.

의회 활동을 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우는 동기가 되었고, 웹서핑을 하면서 갈 곳을 찾던 중에 만남곳이 40-50대음악 세상이었고 오프라인 모임에도 참여를 하면서 인터넷 세상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을 체험하며, 인터넷 문화가 얼마나 우리사회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감을 합니다.

40-50대들에게는 아직도 컴퓨터와 인터넷이 낯설지만 두려움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는 막연히 모른다는 것 때문에 많은 40-50대들이 망설이고 있는 지금 40-50대 음악세상 1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발간된 이 책자는 많은 40-50대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줄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합니다

인터넷 세상이 젊은 세대들 중심에서 벗어나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자는 40-50대 음악세상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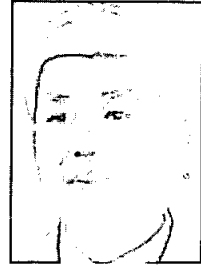
송 슬로우건이 오늘 이 책자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세상은 시험무대로 각 세대별로 열정과 용기를 가진 분들이 자그마한 희생들에 의해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40-50대 음악세상은 상업성을 배제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통해 40-50대에게 옛 추억을 더듬어 머물게하고 40-50대들의 삶의 사연들을 모아주고 주눅들은 40-50대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노력하는 방송으로 청취자로서 40-50대 음악세상 CJ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40-50대 음악세상이 꿈꾸는 인터넷 세상을 위해 40-50대 음악세상 가족의 한 사람으로 오늘도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실겁니까 라는 방송 멘트를 상기 하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인터넷 공간에서 내 자신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정을 나누는 공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에게 1주년 기념책자 발간을 축하드리며, 이 방송을 지켜주신 CJ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10년 방송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를 외쳐보면서 믿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에 당당한 주인공으로 40-50대 음악세상 10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주년 책자발간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보코리아
대표 최용준 (어어어)



40-50대 음악세상 방송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방송 슬로우건이 공감 가는 나이가 된 것을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터넷 세상은 오프라인보다 몇 십배 빠른 속도로 변화 하는 것을 벤처 기업인 보보코리아를 설립운영을 하면서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이제 우리 생활속에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네티즌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을 접하면서 다양한 솔루션과 콘텐츠도 결국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을 개인인터넷 라디오방송인 40-50대 음악세상을 보면서 생각하게 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방송과 차별화 되어 40-50대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건전하고 믿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노력하는 40-50대 네티즌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이 방송 1년 동안 40-50대의 축 쳐진 어깨에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데 나름대로 개인방송의 영역을 뛰어넘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10년을 목표로 오늘도 24시간 방송을 지키는 CJ들의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에 찬사를 보내고 40-50대 음악세상을 아끼는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축하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인터넷 세상은 솔루션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자의 순수한 의도와 네티즌의 건전한 활용능력이 결합될 때 그 힘이 배가되는 것처럼 보보코리아의 웹브라우저 Mmb도 40-50대 음악세상 가족 여러분께 사랑 받을 수 있는 웹 브라우저로 성장될 수 있도록 40-50대 음악세상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대표로서 한국JC 중앙회장을 역임하면서 2만여 현역 회원들에게 정보화 원년을 선포하고 이메일 갖기 운동과 함께 인터넷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했던 저로서 40-50대 음악세상 처럼 개인인터넷 방송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JC 회원들이 사용한다면 JC 조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책이 건전한 인터넷 방송문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 믿으며 적극 추천을 하는 가운데 40-50대 음악세상을 만들고 방송을 하시는 인생님과 CJ 모든분들 40-50대 음악세상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다.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0-50대는 주인공이란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란 말이 생소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히려 컴퓨터와 인터넷 하면 10대와 20대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40-50대는 스스로 컴맹이라고 생각하고 주인공임을 포기한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각 가정에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준 세대는 분명히 40-50대가 대부분으로서 집안의 가장이자 우리의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연결되도록 전용선을 설치해준 주인공임을 알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준 것은 40-50대이고, 사용하는 것은 자녀 몫으로 40-50대는 컴퓨터를 구입해 주고는 주인공 행세를 못하고 완전히 객이 되어 버렸다. 더욱 푸대접은 컴퓨터가 고장난다고 아예 부모가 만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자녀들도 상당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서글픔을 느낀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40-50대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컴퓨터 구입과 인터넷 환경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온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컴맹이란 수식어를 붙이고는 21세기 한국의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분류함은 잘못된

쳐사라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40-50대는 당당한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으로서 자리를 찾아야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자녀들의 학습용으로 구입하는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이 아니라 40-50대 우리자신을 위하여 구입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가정에 구입되는 컴퓨터는 이제 일방적인 누구의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사용되는 것으로 가족 전체가 각자의 필요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로서 활용능력을 위해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협력하여 공부하는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으로 40-50대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인터넷 문화의 주인공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른다는 것을 핑계로 뒷짐을 지고 서 있는 자세나 또는 컴퓨터를 구입해 놓고는 필요에 따라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넷은 아직 시험무대로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은 이제 철저히 사용자의 몫으로 잘못 사용되면 가정을 파괴 할 수도 있고 개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으며 중독으로 인하여 일생을 망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으로 인한 그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개의 세상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세대는 40-50대이며 그 역할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시간이 없다는 것으로 핑계를 대서는 안될 것이다.

좀더 적극적으로 가족 전체가 함께 인터넷 세상에 나서야 할 때이다. 그 역할을 이 시대의 중심세대인 40-50대가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그리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노력할 때이다.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입니다 라는 말은 건전하고 믿고 신뢰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주역이 되어 아름다운 인터넷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물려주자는 40-50대 우리들의 약속이다.

컴퓨터는 켜고 끌줄만 알면 된다. 인터넷은 마우스를 가지고 인터넷속으로 뛰어들어가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배우고 익히면 된다.

부모와 자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족이 서로 찾아주며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게임은 무엇인지 정도는 서로 알고 새로운 사이트를 찾았을 때는 서로 알려주고 정보의 나눔을 가족부터 실천하는 인터넷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인터넷 세상은 한결 믿고 신뢰하는 문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출발은 바로 가정의 가장인 부모의 적극적인 자세로 자녀들의 인터넷 문화의 주인공으로 가족 전체를 이끌고 나아가

다면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나 범죄는 스스로 정화되어지고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외쳐본다.

40-50대여! 인터넷 세상에 진정한 주인공으로 이제부터 시작하자!! 라고 말입니다.

더불어 40-50대 음악세상은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 되는 그 날까지 여러분 곁에 함께 할 것이다.



신청곡과 사연

◎ 이름:강선자 (ksj3559@netian.com) (47 여)
◎ 2000/11/22(수) 13:46 (MSIE5.0,Windows98)
211.52.140.111 800x600
◎ 조회: 70 회
동감주제곡 부탁드립니다.
동감 주제곡 제목은 잘 모릅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좀 들려주세요
청송 12/01[00:28]
카~~~~ 강선자님 1호계시판 추카드려요^^*

40-50대가 만들어야 할 인터넷세상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전문인들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컴퓨터와 인터넷은 흔히 칭하는 네티즌이 사용자이다. 네티즌이란 사전적의미로 network(네트워크)과 citizen(시민)의 합성어로 인터넷의 가상공간을 일상생활과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어떤 컴퓨터에 있는지 컴퓨터의 사용자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어떤 다른 컴퓨터에도 접속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말한다. 기술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활용되어지는데 기술적인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 전문가의 몫으로 넘기고 우리는 사용자인 네티즌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이해하려고 한다.

40-50대 네티즌은 지금 인터넷으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인터넷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터넷의 효과와 가치는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여가활용의 입장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터넷 사용 용도가 달라진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적 가치는 투자에 비례하고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이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컴퓨터산업과 인터넷 관련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칭할 만큼 한 때는 벤처 열풍이 대단했었고 인터넷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최대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제 그 열풍도 주춤한 상태로 이제는 누가 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터넷 관련사업도 수익모델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같은 네티즌은 사업적 목적보다 순수한 여가활동 쪽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자기계발과 정보의 습득능력을 배양하여 좀 더 풍요로운 삶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인터넷을 접속해보면 뉴스 또는 영화 게임 증권 등 시간 때우기로 그 사용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은 결국 사용자 자신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인터넷을 생활속에 일부로 이젠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남성들은 직업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시간의 여유가 가장 많은 대다수 주부들에게 인터넷 세상은 자칫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내지는 탈선의 온상으로 인식되어지는 지금의 현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전에 인터넷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습득하고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

의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호기심 내지는 시간 때우기로 인터넷을 접하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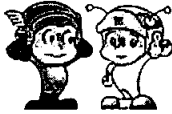
인터넷은 우리의 기본적인 오프라인 삶에 새로운 충격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40-50대는 직업에 따른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는 각자의 사업용도에 맡겨두고 대다수 시간이 많은 여유로운 네티즌인 40-50대 여성들이 인터넷에 대한 올바른 자기주체를 가지고 건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여가선용의 도구로써 사용되어진다면 인터넷 온라인세상은 그동안 가정에서 살림과 자녀교육으로 한정된 유타리생활을 벗어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기개발에 인터넷을 활용한다면 인터넷 세상은 분명히 40-50대 여성들에게 획기적인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도구로써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오프라인과는 달리 나이를 초월하고 남녀 차별이 없는 인터넷 세상은 어찌면 여성들에게는 집안에서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정보를 체험하는 소중한 날개라는 생각과 21세기는 여성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가 결코 허상이 아님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인터넷은 여유로운 시간을 가장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때는 가정파괴의 주범으로도 전락될 수 있으며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이

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이제 여가선용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범주에서 생각하고 자신을 위한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네티즌이 될 때 그 힘은 삶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신청곡과 사연

◎ 이름:시라소니 (leesh58@hanmir.com) (43 남 자영업)
◎ 홈페이지:http://www.mannung.co.kr
◎ 2000/11/30(목) 19:00 (MSIE5.0,Windows98)
211.104.174.218 800x600
◎ 조회: 37 회
목마와 숙녀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완성을 축하합니다
더욱 알찬 방송 되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듣고 싶은사람들이 있습니다
깜지님과 제제,초코님 하구요
475 주막 식구들과 듣고 싶네요
다시한번 홈췌 완성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인터넷을 자신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인터넷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적극적인 커뮤니티 즉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크나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불과 몇초만 투자하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그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가질 수 있다.

자신과 같은 취미나 특기를 가진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제공자를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친교를 목적으로 이성관계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의 대화공간인 채팅이 사회문제화까지 되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자칫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예를 들지 않아도 될 정도이며 채팅이 중독증세까지 동반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로 자제력을 가지고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자세가 적극 요구된다.

단순한 친교로서 이성간이나 인터넷 친구를 사귀기 위해 채팅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한 친교의 채팅도 3개월 정도만 해보면 정말 쓸데없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중독증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3개월 정도 경험 후에는 빨리 좀 더 전문적인 커뮤니티 영역으로 들어가 좀더 전문적이며 믿고 신뢰할만한 동호회를 찾아 활동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단계로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커뮤니티 활동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취미 특기하면 여행, 독서라는 식의 막연한 영역을 선택하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관심은 있었으나 감히 엄두를 못내었던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를 선택해서 과감히 도전해보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인터넷 커뮤니티이며 초보라도 얼마든지 받아주는 전문 동호회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컴퓨터에 초보라도 동호회를 찾아갈 정도면 하나하나 가입해서 물어보고 적응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오히려 40-50대 입장에서는 어느 동호회라도 나이 때문에 오히려 신뢰도가 높다는 것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마다할 동호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이 좋다.

나 역시 이미 20대들만이 주축이된 전문 동호회에 가입을 하여 활동을 하는데 상상외로 전문동호회는 일단 서로의 정보가

공개적이기 때문에 상호 신뢰도가 상상외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남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영역을 선택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곳이 바로 인터넷 커뮤니티임을 알고 찾아다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지구촌 어느 곳에 있던 인터넷으로 전문적인 영역에 사람들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시간 때우기 식의 단순한 친교의 만남은 자제하고 좀더 자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용하기를 권해본다.



신청곡과 사연

◎ 이름:은빛바다 (36 여)

◎ 2000/11/30(목) 19:36

◎ 조회: 31 회

비오는저녁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저녁입니다

음악세상홈페이지가 생겨남에 축하드리구요

이 음악세상을 알게 되어 너무너무 행복해 한답니다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좋은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터넷 세상 만큼 쉬운 것이 없다. 무조건 시작하라

우리 40-50대는 스스로 컴퓨터와 인터넷 앞에서는 웬지 자신이 없다. 컴퓨터하면 우선은 머리가 복잡해지고 무언가 어렵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어 하여튼 개운치 않다.

두번째는 용어의 어색함이다. 낯선 용어가 더욱 당황하게 한다.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선 나중에 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컴퓨터를 배운 다음 하겠다고 다짐하는 40-50대이다.

마음먹고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책자를 사다보면 초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쉬운 책자도 펼쳐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도 많아서 책을 덮게 되는 현실이다.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자신의 컴퓨터와 인터넷 학습능력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초보 수준이다. 당연히 초보수준 이어야 하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인터넷활용 능력은 다르다.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다녔느냐에 따라 다르다.

온라인 세상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용선을 통해 인터넷 세상으로 가게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로를 통해 목적지를 찾아가는다.

온라인에서는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것이며 오프라인에서는 주소를 찾아가는 것이다. 어쩌면 같은 행위인데 온라인에서는 컴퓨터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는 자동차나 그 외 교통수단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컴퓨터는 자동차와 같고 인터넷으로 가는 전용선은 도로이며 도메인은 인터넷공간의 집들인 홈페이지이다. 먼저, 인터넷 안에 있는 홈페이지를 찾아가려면 전용선이(두루넷, ASDL등) 연결 되어야 하며 그 다음은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

컴퓨터와 유사한 것으로 자동차를 비교해보면 쉽게 컴퓨터를 정복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

자동차가 처음으로 보급되던 시절을 생각해보자 자동차 운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에 대하여 먼저 배워야 했다. 자동차의 엔진구조부터 하나 하나 배운 다음 운전을 생각할 수 있었다. 자동차를 모르면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 구조를 배울 필요는 없다. 그대신 자동차 운전 배우기 필요한 교통법규만 배우고 그 다음은 바로 자동차 운전만 익히면 된다. 그 이유는 왜일까?

그 옛날 초창기 자동차는 모두가 수동이었다. 그래서 자동차 구조를 잘 모르고는 작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자동차는 거의 대부분이 자동으로 손쉽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졌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당시는 컴퓨터 언어를 모르면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없었다. 이때는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 언어를 몰라도 손쉽게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바로 윈도우라는 체제가 컴퓨터에 구동되면서 이다.

자동차 구조학을 배우고 운전을 배워서 면허를 취득하던 시대에서 교통법규만 배우고 운전을 익힌 다음 면허를 취득하는 것으로 바뀐 것처럼, 컴퓨터가 이제는 전용선만 연결되면 손쉽게 인터넷으로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0분이면 누구든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하게 된 현실이다.

유아기 4살 정도의 학습능력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이다. 아직도 자동차 운전 면허는 18세 이상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인터넷은 나이 제한이 없다.

인터넷은 나이를 초월하고 남녀 차별이 없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가 있는 그런 무한대의 세상이다. 오프라인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을 가려면 15시간이상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불과 몇초 정도면 문자로 음성으로 영상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한 세상이다.

40-50대가 70년대 팝송 한 곡을 들으려면 음악다방을 찾아가 들어야 했고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야 했던 그런 시간영역에서 이제는 세계 지구촌 어느 곳이라도 단 몇초면 알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인터넷 세상이다.

컴퓨터는 자동차의 종류와도 같은 것이다.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컴퓨터도 그 종류를 달리한다. 경차 중형차 대형차 처럼 컴퓨터도 속도에 따라 저장능력에 따라 구분이 된다. (486, 586 펜티엄3)

인터넷으로 가는데는 전용선이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야 한다. 즉 전용선은 도로와 같은 것이다. 좁은 골목에서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전용선은 도로의 폭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고속도로에서는 마음대로 속도를 내지만 좁은 도로에서는 그리고 또 달리다보면 도로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정체가 되는 경우도 있듯이 각자의 전용선 환경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정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전용선이 끊기는 경우도 있는 것과 같다.

컴퓨터를 잘 알면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잘 알면 운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고 자동차를 모른다고 운전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컴퓨터를 모른다고 인터넷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듯이 컴퓨터 구입은 사용자의 사용 용도에 따라 구입하고 전용선은 살고 있는 주소지에 따라 전용선 환경이 틀리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터넷 사용자가 적은 곳일수록 전용선 환경도 속도가 느리게 된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컴퓨터 도로와 전용선 주소지와 도메인으로 생각하면 쉽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해 할 수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전용선 환경이 가장 잘 패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며 또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일명 PC방이 가장 많은 곳도 대한민국으로 이제는 노트북을 가지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시간 당 1500원에서 2천원 정도면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이 정보화 입국으로 가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자동차 운전을 배우기 위해 운전면허학원이 필요하듯이 PC 방은 40-50대들에게 좋은 인터넷 교육장이 된다. 그러나 PC

방마저도 40-50대가 드나들기에는 아직 어색함이 있는데 PC방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게임장으로 인식되어 40-50대로서는 이곳마저 출입이 어색한데 요즈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컴퓨터를 양보하고 PC방을 이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 지방출장 중에도 PC방을 이용하여 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장소로 활용되어지고 있고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PC방에서 컴퓨터작업을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40-50대도 이제 PC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 자신도 인터넷을 배운 곳은 PC방을 찾으면서 남보다 좀 더 빠르게 인터넷 환경을 접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모르는 것은 빨리 알아보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하기는 PC방만큼 좋은 곳이 없으며 컴퓨터가 고장 날것 때문에 망설이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인터넷을 배울 수 있는 환경으로는 최적의 환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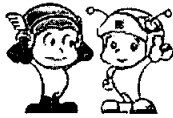
인터넷은 무조건 시작하면 된다. 독수리가 되었건 제비가 되었건 키보드의 자판을 보면서 천천히 시작부터 하면 된다.

옛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인터넷은 바로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이 든다. 컴퓨터가 고장나면 고치면 된다. 걱정말고 시작하라.

인터넷에 가장 막히는 것이 자판인데 언제 자판을 다 익히고

1분에 150타 이상 친 다음 하려고 하는가 1분에 2타면 어떻게
1분에 10타도 상관없다. 우선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가자
그리고 그곳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위해 1시간 걸려도 좋으
니 치기 시작하면 자판실력은 늘게 된다.

당장 시작하자 40-50대!.....인터넷은 4살짜리도 할 수 있게
만들어져있다. 즉시 시작하자 !!



신청곡과 사연

◎ 이름:미 (line560) (line560@hanmail.net) (45 여)
◎ 2000/11/30(목) 19:05 (MSIE5.5) 211.108.81.208
1024x768
◎ 조회: 23 회
축하합니다 홈페이지 완성을~~
2~3일 되었네요 이방송을 들은지 ~~
475.com 의 4050 음악세상 을 알게해준 부산의 한인성님 그
리고 코빅님께 감사드려요
차~암 좋아요 무미건조한 일상생활에 커다란 활력소로 충분하
구요. 홈페이지 완성을 축하 드립니다
475.com 산사랑동호회의 더큰 발전을 기원하며 산을 사랑 하
시는 475 모든분들과 음악세상 모든분들과 함께 듣고 파요
박상민의 비원을 신청합니다

인터넷 세상은 자신이 하기 나름이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했던가 인터넷 세상 이곳 저곳을 다니다 보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할 수 있다. 모른다고 포기하지말고 모르면 배우면 되는 곳이 인터넷 세상이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해답은 결국 인터넷 세상에 먼저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고 거기서 해답을 얻는 것이 빠르다.

이 나이에 홈페이지를 가져서 무얼 하려고... 돈 되는 일도 아닌데, 그리고 이 나이에 어떻게 그것을 하지?.....

50나이에 방송을 하다니 애들이 하는 것을 돈도 안 되는 일을 왜하느냐고 빈정거린 많은 친구들이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신청곡을 올리다니....

생각을 바꾸는 것은 자신이며 행복도 결국 자신이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자신의 행복을 맡기고 있고 기대고 있다 내가 잘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데가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꾸고 잘해주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결국에는 행복해질 수 있는데라고 바꾸어 보자.

이제 가족홈페이지는 어찌면 1가정 1홈페이지 시대가 올 것

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인해 갖지 못하는 인간관계를 메꿔 주는 것이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출가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데 어떻게 매일 소식을 기대 할 수 있는가 인터넷 가족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서로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손주의 자라나는 모습을 매일 매일 가족홈페이지에 올려진 사진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가족들이 볼 수 있고 가족들의 대소사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 낱짜를 특별히 기억 할 필요 없이 기록해 놓으면 잊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없고.....

가족 홈페이지는 가족들을 더욱 더 결속력을 가지게 하고 얼굴은 못 보더라도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21세기가 가져다 준 선물 인터넷..... 그 가상공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열의만 있다면, 길은 열려있다.

이 역할은 여유로운 시간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주부가 적격이 아니겠는가 싶다.

인터넷은 누가 먼저 시작을 하는가 이다.

아무리 초보라 하더라도 길은 열려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자신이 주인공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본다. 인터넷을 처음 하는 초보자일수록 어깨를 숙이고 이곳 저곳 기웃거리기 바쁘다. 인터넷에서 초보자나 중급자나 전문가나 하는 것은 마우스를 조금 더 잘 다룬다는 차이뿐 별반 차이를 못느낀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모른다는 것이 더 큰일이다.

인터넷은 생활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잘 알면 그만큼 남보다 빠르고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모른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불편하고 남보다 정보를 습득하는데 조금 늦을 뿐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곳을 언제든 갈 수 있지만 운전을 못한다고 해서 못 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한 것이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갈 수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생활이란 개념을 가지고 내 자신이 생활속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따

라 인터넷은 약이 되고 독이 될 뿐이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터득하는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인터넷을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이 사 용하느냐는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먼저 이해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다리 품을 팔던 귀동냥을 하던 속도나 위치한 여건에 따라 그만큼의 댓가를 지불해야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원하는 정보나 또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얻고 또한 자신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곳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쇼핑을 생각해보자 백화점을 자주 찾는 고객은 몇층에 어떤 물건을 팔고 또 본인이 원하는 물건이 몇층에 어느 코너에 있는지를 잘 안다. 그러나 백화점을 처음 가는 사람은 물어서 본인이 원하는 물건 코너로 찾아가야 한다. 아니면 백화점 매장 내에 그려진 배치도를 보고 찾아가든지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도 처음 들어오면 물어서 찾아가는 사람이 되던가 아니면 각 사이트마다 소개되어진 내용이나 맵을 보고 찾아가야 한다.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생활하던 곳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

만 보이지 않고 거리나 공간을 의식하지 않고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있어서 좋을 뿐이다.

본인의 생활습관 중에 낯선 건물이나 처음 가는 곳에서는 소개되어진 안내 책자내용을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내 책자를 자세히 볼 생각을 안하고 꼭 사람들에게 물어서 내용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은 어떤 유형인가.

처음 가는 길은 누구나 생소하다. 그러나 자주 갔던 길은 생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처음 가는 길에서 헤매지 않는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남에게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개 책자나 안내 메뉴얼을 보고 이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언제까지 남에게 물으면서 다닐 것인가.

오프라인에서 거리를 나가보면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자동차가 달리고 각자가 자신의 목표에 따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 바빠 걸어가는 것처럼 온라인도 똑같다고 보면 된다.

백화점이나 시장엘 가면 물건을 사려고 고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으로 보는 쇼핑을 하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듯이 인터넷에서 포탈 사이트를 가면 채팅공간에서부터 다양한곳에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다니는 것과 같을 뿐이다.

인터넷속에서 낯선 곳으로의 여행을 즐기는 두둑한 뱃짱과 배포가 있어야 하며 상식선에서 대화하고 남의 뒤만 쫓아 다닐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행동하면서 경험되어진 곳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이 오프라인과 똑같이 존재한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멀리하면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거부하는 행동이 필요할 뿐이다.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해도 본인이 판단해서 싫으면 안 하면 된다. 절대적으로 자신이 주인공이며 자신이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인터넷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길이다.

인터넷속에 채팅 사람들

인터넷 세상속에 채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문자나 음성 또는 영상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인터넷에서 채팅은 오프라인에서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예의가 있고 나이에 따른 예절이 존재하지만 인터넷세상은 나이를 초월하여 친구가 되기도 하고 남녀의 차별이 없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 가슴속 못 다한 말을 아무꺼리낌없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인터넷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바로 채팅이다. 채팅은 자칫 중독이 될 수도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는 채팅으로 인해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기성세대에게는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기도 하고 탈선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채팅이 이제는 10대나 20대들의 무분별한 이성교제의 온상이 아니라 40-50대 우리들에게도 탈선의 위협으로 다가서기 시작했다.

채팅은 인터넷 세상속에서 공간을 초월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은 사람

들에게 땃땃히 공개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아가면서 채팅을 해야만 하는 현실도 부정할 수 없다.

사냥꾼에게 총은 식량을 구하는 도구이지만 범죄자에게 총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듯이 채팅도 이제는 사용자에게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채팅의 종류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공개 채트방, 동호회 방, 떠방, 전문인방 등 그리고 1:1로 나누는 메신저 기능의 채팅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팅은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면서도 막상 채팅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기도하고 의외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그러나 그 확률은 미지수이다.

채팅은 키보드의 자판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자판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들 하지만 글씨 그것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인터넷 공간 속에 채팅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가슴속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을 수도 있고, 대화명과 아이디만 바꾸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공개 채트방은 방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지 알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방이 불규칙하게 열리는 곳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방인지, 또한 그 방에 주인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다. 대화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나름대로 격이 있기 마련이다. 대화의 수준을 보면 그 방에 분위기를 파악 할 수 있다.

공개 채트방은 누구든지 아무때나 열 수 있는 방이다. 그러나 채팅 초보자는 공개 채트방을 혼자 오픈하는데는 다른 공개 방을 드나들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필요로 한다.

공개 채트방은 되도록이면 빨리 졸업을 하고 동호회 커뮤니티를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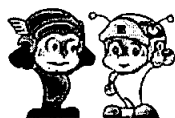
자신의 전문성이나 또는 자신과 같은 주제를 가진 동호회를 검색하여 찾아 가입하여 활동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부부는 채팅을 하게 된다면 꼭 같이 하기를 권한다.

아내따로 남편따로 채팅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그리고 채팅은 1시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1시간 이상 대화를 해보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채팅은 시간을 때우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채팅에서 만나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데는, 확실한 모임이 아

니면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번개팅이라 해서 갑작스레 모이는 모임은 결코 좋은 만남을 갖기 어렵다.

채팅도 결국은 자신이 주인공임을 명심해야 한다. 남에게 끌려 다니는 채팅보다는 자신이 대화를 주도하고 자신이 채팅방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방 저방을 기웃 거려봐야 소문만 날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신청곡과 사연

◎ 이름:kovic (남)

◎ 2000/11/30(목) 19:07 (MSIE5.01) 211.52.192.77
1024x768

◎ 조회: 42 회

축하축하....

예구

축하하유 날로 발전 하는 음악세상 넘넘 조타.

인생님. 비올님 효조님 루루님 여행님 거마버유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상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상 모두가 결국은 사람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프라인 세상과 인터넷 공간인 온라인 세상으로 크게 구별 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오프라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세상을 말하며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 되어져 있는 세상은 온라인 세상이 된다.

사전적 의미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지만 편의상 이제는 두개의 세상을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오프라인 세상의 인간관계와 정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이 따른다. 더불어 상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많은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뿐만이 아니라 좋은 인맥 형성과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 투자가 따르며, 쉽게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또한 나를 알리고 나의 정보를 제공 하는데도 시간과 돈의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든다.

반면에 인터넷상에 온라인 세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프라인에서는 상상도 못할 무한대의 정보습득과 정보의 나눔 그리고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그야말로 전파의 속도가 너무 빨라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된다. 그리고 온라인세상은

24시간 열려 있어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구촌을 하나로 단 몇초 만에 지구촌 곳곳의 기상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알리고 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오프라인에서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질 않는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상의 적절한 조화는 이제 21세기를 사는 우리 40-50대에게 크나큰 숙제로 실험무대가 되었다.

이제 우리 40-50대 에게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오프라인에서의 생활과 온라인이 적절히만 조화로운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 더 풍요로워 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인터넷의 온라인 세상이 무한대의 정보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100% 신뢰하는데 오프라인보다는 신뢰도가 떨어 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제공되어진 모든 정보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확인되어지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각종범죄가 이루어지는데 온라인이라고 다를 수는 없다. 결국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모두가 최종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의 그 민족의 전통과 습관이 온라인에서도 비슷하게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여 좀더 빠르게 정보의 나눔 정보의 공유가 실천된다면 인터넷 온라인세상은 한결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단순한 온라인상에서의 인간관계만을 가지고 오프라인에서의 검증도 없이 상호 인간관계를 신뢰하기란 아직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터넷 온라인 세상에 접근하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현재 인터넷의 온라인세상은 비즈니스 천국이다. 무차별적인 광고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다. 모두가 인터넷을 통하여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벤처기업들로 상호 믿고 신뢰하는 순수한 커뮤니티 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상업성을 앞세운 온라인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비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알박한 상흔을 앞세운 사이트의 범람 등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인터넷 온라인 세상을 이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볼 때다. 현재로서는 인터넷 온라인 세상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에겐 시간 때우기 좋은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천4백만 네티즌 중에 과연 몇%가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그 중에 40-50대는 과연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생각해 볼 때이다.

결국 사람과 사람은 서로 만나고 부대끼면서 정들고 믿고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우선한다.

40-50대는 오프라인에서 그동안 살아온 인간관계가 있다. 이 인간관계를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여 좀더 풍요롭게 활용하는데 인터넷이 사용되어지고 활용되어야 한다.

쉽게 달구어진 냄비가 쉬 식듯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는 결국 오래가질 못 한다.

우리 모두 가까운 내 친구 가까운 내 이웃끼리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나눔을 실현하고 더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자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먼저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오프라인에서 쉽게 얻지 못하는 정보들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과 자기 자신의 자기개발에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인터넷 온라인을 사용하기를 바란다.

가족이 함께 하는 인터넷 문화

인터넷 세상은 이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활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자녀들의 학습용으로 40-50대는 무관심했던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부분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바뀌어져 가고 있다. 자녀 방에 두었던 컴퓨터는 이제 거실로 옮겨지고 가족들 모두가 자유로운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인터넷세상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정보를 나누어주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은 가족 중에 한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모두가 TV 채널처럼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자기개발과 정보습득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가족이 함께 하는 인터넷세상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인터넷 문화라고 생각한다. 40-50대가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뒷전으로 물러서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터넷세상은 이제 가정을 더욱 행복하게 그리고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공간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부부가 따로 따로 인터넷세상을 외롭게 다니는 곳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서로의 취미와 여가를 선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자녀에게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건전하게 활용하는 공간으로 지도 육성할 책임을 가지고 자녀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에 있는 컴퓨터는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주부가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맞벌이 부부일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은 인터넷세상에 가족들의 홈페이지공간을 먼저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가족홈페이지는 가족 구성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더욱 더 결속력을 가질 수 있고 가족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대소경사와 가족들의 추억들을 모으고 서로의 일기장도 만들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진다면 먼 훗날 가족들에게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다.

아까운 시간을 가족들이 따로 따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홈페이지를 운영 하도록 하고 인터넷에서 모르는 것은 가족들이 함께 해결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가족들의 홈페이지 문화가 만들어질 때 비로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인터넷 문화와 네티켓은 저절로 살아나리라는 생각이다.

가족홈페이지 만들기 운동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이

가족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하는 주인은 주부들의 몫으로 백만인 주부 인터넷 교육은 가족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들의 행복과 가족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한국의 주부가 앞장서야 한다.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으로 가족 홈페이지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신청곡과 사연

◎ 이름:이소영 (mind56lsy@hanmail.net) (34 여 주부)
◎ 2000/11/30(목) 19:13 (MSIE5.5,Windows98)
211.118.155.112 1024x768
◎ 조회: 52 회
와~~~홈페이지 생겼당
홈페이지도 생기고 진짜로 대단한 라디오방송사가 오픈한듯이 기쁘네요...앞으로도 수고하시는 cj분들과 음악세상4050 애청자들 항상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님 ,비올레타님.효조님,꽃천사루루님,님 고생많으시고 앞으로 건강하십시오~~~~~
아네모네는 cj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남의 집에 방문할 때는 통보를 하고 빈손으로 가지를 못한다. 또 초대를 받아도 마찬가지이다.

남의 집을 갈 때는 이렇게 서로가 예의를 차린다. 이것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남의 집에 방문할 때 갖는 일반적인 상식이다.

인터넷 세상에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은 예고 없이 24시간 열려있다. 담장도 없고 물론 열쇠를 채우고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24시간 열어놓고 사는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이다. 대부분 손님으로 언제든지 둘러보고 가도록 해놓았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실컷 둘러보고 나올 때 방명록에 홈페이지에 인사 한마디 남기고 나오는 것이 인터넷 세상에 네티켓이다.

그런데 40-50대는 특히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둘러 보고 그냥 나와 버린다.

주인장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방문자수는 많은데 방명록을 보면 방문자수의 10/1도 안된다. 모든 것에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다. 기본을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 모든 질서는 파괴될 수 밖에 없다.

기본이란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남의 집을

방문 할 때는 꼭 "나 누구인데 잘 보고 갑니다. 언제 제집에 한번 놀러오세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우리가 먼저 인터넷 세상에서 배워야 할 아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세상에 만들어진 수많은 홈페이지들은 각기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들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가족홈페이지는 그 나름대로 가족들이 참여하여 하루하루 가족들의 얘기들을 모아가고 있고,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상품을 진열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으며, 동호회 홈페이지들은 회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다리품을 팔아야 세상을 더 넓게 구경하듯이 인터넷에서도 시간이라는 품을 팔아야 더 많은 곳을 보고 듣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여행을 가건 어디 먼 곳을 가면 사진을 찍어서 기념으로 남긴다.

인터넷에서는 방문록에 남기면 된다. 높은 산 바위마다 자기 이름을 새기듯이 인터넷에서도 자기 이메일주소와 함께 방문 인사를 남기고 돌아오면 당신의 이메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이 방문했던 주인장으로부터 감사의 글을 받을 수도

있고 더불어 그것을 기회로 그 주인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당신의 이메일을 보면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가 당신의 메일을 채우고 있는데 그것을 탓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메일에 사람들의 정이 담겨진 사연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는 이미 알려주었다.

쓸데없이 이곳 저곳을 다니지 말고 어디를 가든 당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당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주인공이 된다면 언젠가 좋은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고 더불어 당신의 삶이 그 만큼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40-50대 음악세상 10년의 약속의 의미

10년이라면 꽤나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10년을 바라보면 멀지만 지나온 10년 뒤를 바라보면 그렇게 빨리 시간이 흘렀나 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는 조금증과 더불어 그리고 무엇이든지 금방 빠리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다.

인터넷세상의 속도는 더욱 빠르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른 세상 속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 것인가.....10년이라는 세월이 긴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인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40-50대 음악세상 10년의 약속도 벌써 1년을 넘기고 2년째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 오늘도 방송을 하는 우리는 10년 후를 생각해보면서 오늘도 이 방송 듣고 있고 이 방송을 열심히 지키는 CJ들이 있다.

10년 후의 40-50대 음악세상은 어떤 모습일까.....혹시 없어지는 않을까.....10년 후 이 방송CJ들은 10년의 세월 속에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 것인가.....아마 10년을 하루도 빠지는 일 없이 방송을 한다면..10년 후 어떤 보람을 어떤 성취감을 얻을 것인가.

10년을 내다보고 이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니 인터넷을 바라

보는 시각도 그리고 방송하는 자신도 인터넷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10년을 자리매김 해서 10년후 보람과 성취를 맛볼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

이 방송 청취자들은 10년 후 어떤 모습으로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으로 있을 것인가.

10년의 약속은 이제 우리들에게 어찌면 가장 큰 숙제로 남을 것 같다.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은 10년을 어떻게 인터넷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 세상 10년의 긴 항해에 동참 하실 분들은 오늘 이 순간 하루 하루가 소중하게 여겨질 것이다. 시간을 때우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추억이 나의 희노애락이 나의 친구가 나의 가족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인터넷 공간에 자그마한 공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인터넷 10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10년을 내다보는 인터넷 설계를 하며 40-50대 음악세상과 함께 하지 않으시렵니까?

10년 동안 우리는 어떤 문화를 어떤 전통을 만들어 물려줄 것인가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속에 우리가 함께 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만남은 결코 한순간의 장난스런 감정으로 함께 해서는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10년의 약속은 40-50대 음악세상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하였

고, 함께 한 40-50대가족들은 1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평가 받게 될 것이다.

10년후 우리의 모습이 인터넷세상 속에 1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때 우리 얘기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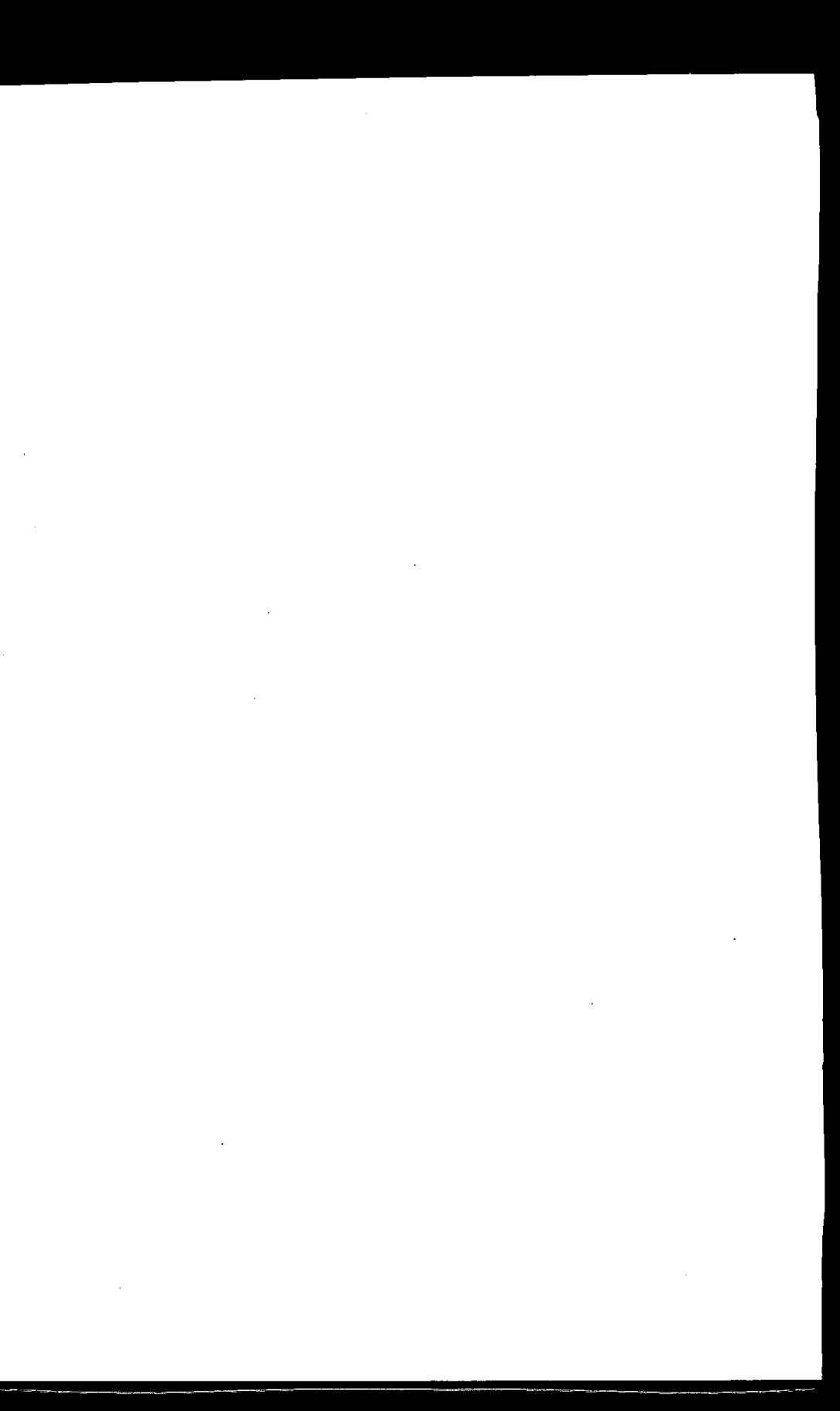
신청곡과 사연

- ◎ 이름: 서시열 (남)
- ◎ 2000/11/30(목) 19:24
- ◎ 조회: 31 회

그저 놀라기만 하네요

전 어제 처음으로 원앰프를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놀랐는데 님들이 오늘 또한번 저를 놀라게 하시는군요 대단하시다는 말씀밖에는

앞으로 정말 멋진 방송이 되서 인터넷 최고의 방송이 되길 바래요
1인 방송국이 생기고 티비나 라디오가 없어 진다고 하더니 그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음악 올려 주시는거 감사하구요
시간 되시면 송창식의 사랑 한번 신청 할게요



제2장 40-50대 음악세상



탄생과 배경

2000년 방송을 시작하면서

20대들의 CJ 문화 속에 인생이라는 애칭을 사용하여 40-50대 음악세상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시작한 것은 2000년 7월 초부터 비정기적으로 방송을 시작하여 40대들에게 인터넷 방송이 있음을 알리기 시작했다. 조이아시아를 통하여 방송 기술을 익히면서 세이클럽, 프리첼, MSN, 씨후렌드의 채팅방에 방을 열면서 방송이 시작되었고, 정기적인 방송은 8월 5일 저녁 8시-12시까지 4시간을 정규방송으로 하여 매일저녁 방송을 시작하였다. 8월 말경 비올레타가 방송에 합류를 하였고, 그뒤를 이어 사임당과 온마트가 합류를 하면서 9월 1일부터 시간을 배정하여 14시간 방송을 하였다. 낮 12시부터 6시까지는 비올레타님이 6시부터 8시까지는 사임당님 8시-10시까지는 인생인 내가 방송을 하고 온마트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40-50대 방송중에 24시간 전일 방송체제를 위하여 노력 하던 중 아침 방송에 가장 적합한 20대가 합류를 희망해와 일주일을 교육시켜 10월 15일 아침 방송을 개국하여 새벽 6시부터 9시까지는 음악만 송출하는 일을 비올레타님이 맡고 9시-12시까지 효조라는 애칭을 가진 24세 소녀가 40-50대 음악 방송에 합류를 하게 되어 방송시작 3개월만에 비로서 20시간 방송을 하는 40-50대 음악세상이 되었다.

40-50대 음악세상 24시간 방송

함께 방송하던 온마트와 사임당이 개인 방송으로 탈퇴를 하면서 방송에 위기를 맞이 하였고 5명의 CJ가 20시간 방송하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3명의 CJ가 (효조, 비올레타, 인생)가 20시간 방송 약속을 위해 시간을 늘려 방송을 하였다. 새벽 방송 합류를 희망하여 준비하던 꽃천사루루를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합류하여 4명의 CJ가 (효조, 비올레타, 인생, 꽃천사루루)24시간 생방송 체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40-50대 음세상을 출범 시키게 되었다. 40대들이 24시간 전일 생방송으로 바꾼 40-50대 음악세상은 20대들의 24시간 생방송에 최초로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40대들도 24시간 언제든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후 새벽 방송에 방송을 청취하던 가인님이 방송을 준비하여 새벽(23시-02시)방송에 합류를 하여 2000년 40-50대 음악세상이 5명의 CJ로 2001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방송을하게 되었다.

40-50대 음악세상 홈페이지 개설

2000년 12월 1일 청취자수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신청곡과 사연 중심의 방송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2001년 2월20일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여 40-50대가 인터넷 세상속에 주인공으로서 필요한 사이트로 개편하였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은 상업성을 배제하며 순수한 아마추어들이 모여 개인인터넷방송의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자존심을 지키는 방송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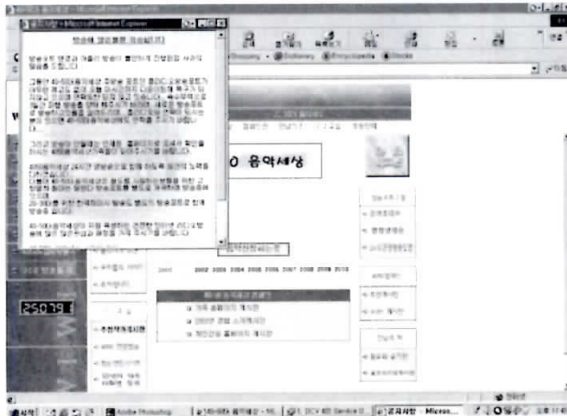
40-50대 음악세상 방송을 함께 하려면

40-50대 음악세상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전용선과 컴퓨터가 필요하며 윈앰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윈앰프 프로그램은 음악세상의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으며 윈앰프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윈앰프를 설치하신 후 방송주소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음악세상 홈페이지에서 방송듣기를 클릭하시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주소는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이 안 나오거나 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될 때는 항상 40-50대 음악세상 홈페이지(<http://wing21.co.kr>)를 클릭해서 방송을 점검해주시고 팝업창을 보시면 방송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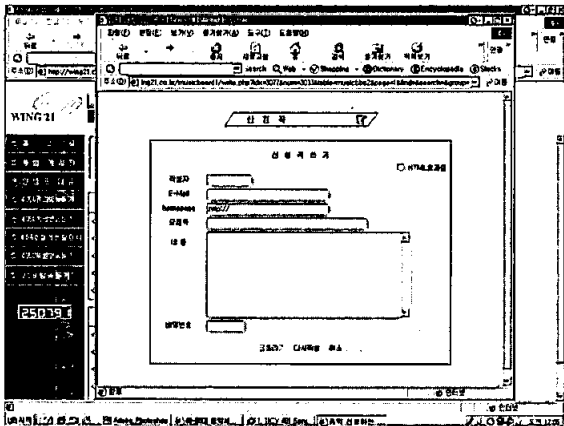
(<http://wing21.co.kr>)



40-50대 음악세상은 어떤경우라도 24시간방송을 멈추는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나 방송이 안들릴때는 직접 홈페이지방문을 부탁드립니다

40-50대 음악세상 신청곡과 사연 게시판 사용

작성자에는 대화명을 적어주시고 이메일을 기록하시고 홈페이지가 있는분은 홈페이지 주소를 적고 글제목에는 첫 번째로 희망하는 신청곡 3곡중 1곡 가수이름과 제목 적어주시고 두곡은 내용란에 적으신 다음 사연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때나 다른사람이 게시판을 임의로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정하는 비밀번호입니다.



10년의 약속 대화명을 가지신분은 등록번호 몇 번 10년의 약속 대화명이라고 적어주시고 되도록이면 작성자 이름은 대화

명을 한가지로 통일해서 꾸준히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방송을 청취하는분이 대화명을 기억하고 사연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은 로그인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40-50대 음악세상은 회원등록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신청곡을 선곡하실때는 다른분들의 신청곡을 보시고 중복되지않는 곡을 선정해주시고 혼자만 방송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곡 선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40-50대 음악세상은 CJ가 임의로 음악을 내보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신청곡이 없을때는 방송 진행상 CJ가 선곡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24시간 신청곡과 사연중심의 방송을 진행합니다

40-50대 음악세상은 거창한 인터넷 방송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만들어 운영하는 방송이 아니라 원앰프 방송을 사랑하는 개인들이 모여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무보수 무땀가로 40-50대 음악세상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40-50대음악세상가족이 되려면

-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되어야 한대를 실천하기 위한 주인공으로서 자긍심을 가진다
- 신청곡은 3곡을 신청하고 사연을 적어주면 24시간 생방송으로

- 신청곡란에 올라온 순서대로 방송을 한다
-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40-50대 음악세상 가족이 된다
- 전문동호회 가입을 통하여 자신의 자기개발과 아름다운 커뮤니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 10년의 약속 첫 번째 작은실천 대화명을 등록하고 40-50대 음악세상 모든 게시판과 채팅방에서 그 대화명을 사용한다.
- 10년의 두 번째 작은실천 가족 홈페이지 만들기에 참여하여 온가족이 함께 하는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40-50대 음악세상 방송듣기를 소개하면

윈앰프를 다운받고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윈앰프 (Winamp)설치 방법

프로그램 다운로드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서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Download) 받습니다. 윈앰프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램으로 손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윈앰프 다운 받을수 있는곳 40-50대 음악세상 홈페이지 에서도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http://wing21.co.kr>

설치 시작

바탕화면에 있는 다음과 같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윈앰프 설치를 시작합니다.



계약 동의서 (License Agreement)

윈앰프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Winamp 저작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Next 를 눌러서 설치를 계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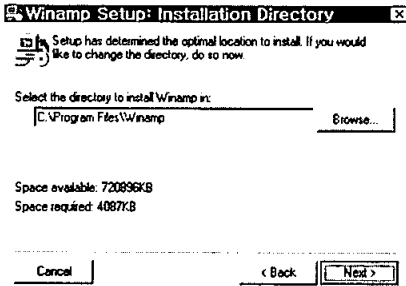


설치 선택사항 (Installation Options)



설치 옵션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Next 를 그냥 누르세요.

설치할 경로 선택 (Installation Direc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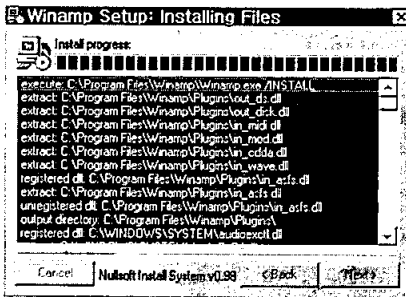


서 설정해주면 됩니다. 가능하면 기본 경로 설정을 추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 PC의 남은 공간과 Winamp 설치시 필요한 공간을 알 수 있습니다.

윈앰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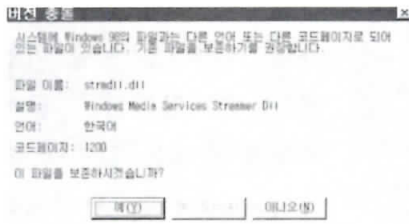
기본경로는 C:\Program Files\Winamp입니다. 다른 곳에 설치하고 싶으시면 Browse... 버튼을 눌러

윈앰프에 필요한 파일 설치중 (Installing Files)



윈앰프가 필요로 하는 각종 파일들을 설치하는 단계입니다. 그냥 지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버전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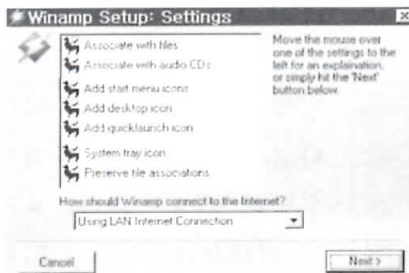
간혹 6단계가 끝나고 바로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예” 버튼을 눌러 주세요.

윈앰프에 필요한 파일 설치중(Installing Fi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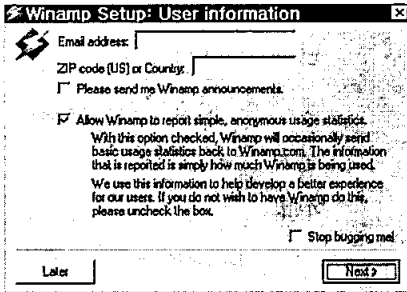
“버전 충돌”이 해결되면 파일 설치를 계속합니다. “버전 충돌”이 없을 경우에는 6단계와 이 단계가 연결되어 실행됩니다.

설정 변경(Settings)



윈앰프의 연결 파일과 아이콘의 위치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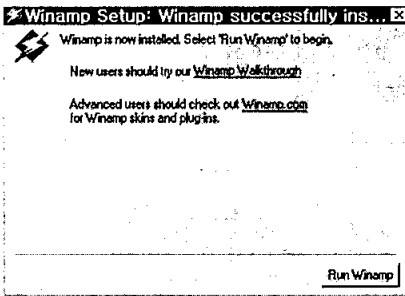
사용자 정보(User Information)



사용자의 E-Mail 주소, 국가명, 우편번호 등을 기입하는 단계입니다. 굳이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윈앰프를 실행할 때마다 이 창이 나타납니다. 정보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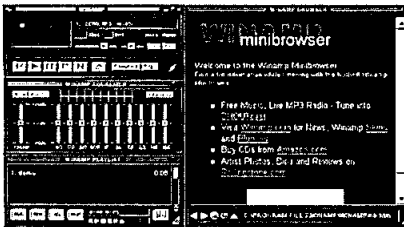
하지 않으면서 이 창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맨 아래 오른쪽에 있는 Stop bugging me! 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윈앰프 설치 완료(Winamp Successfully Install)



윈앰프 설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Run Winamp 버튼을 눌러서 윈앰프를 실행하면 됩니다.

Run Winamp (윈앰프 실행 중)



윈앰프의 4개의 창이 나타나면서 demo 라는 둔탁한 음악이 실행됩니다. 동시에 미니브라우저는 인터넷에 연결을 시도합니다.

40-50대 음악세상의 방송 프로그램

40-50대 음악세상은 거대한 인터넷 방송국을 꿈꾸는 방송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쉽게 믿지를 았더군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믿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40-50대 음악세상도 20대들 같이 40-50대를 위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하나정도는 있어야 하지 았겠나하는 작은 바람을 실현하고자 개인들이 모여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을뿐 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왕하는 방송이라면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방송은 다 해보자는 자그마한 욕심이 생겨 40-50대 음악세상은 다른 곳에서 하지 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이제 는 이 방송 프로그램들이 40-50대 음악세상에 작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 프로그램은 [수요초대석]. [현장생방송]. [24시간 생방송도전]. [전화리퀘스트] 이렇게 4가지 방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요초대석은 사정상 6회를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중단하였고 현재 [현장생방송]과 [24시간 생방송도전] 그리고 [전화리퀘스트]가 40-50대 음악세상의 정규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의 프로그램은 40-50대음악세상 가족들의 자존심을 위해 그리고 40-50대 음악세상 CJ들의 자긍심을 위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도전24시간 생방송 프로그램 소개

20대들의 전유물이었던 개인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 40-50대가 도전정신으로 시작한 40-50대 음악세상 입니다. 24시간 생방송으로 신청곡과 사연중심의 방송으로 여러분곁에 함께 하면서 40-50대 음악세상 CJ들의 방송의욕과 열정을 위해 24시간 생방송 도전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며 3개월이상 정규방송을 시작하여 청취자수 50명을 넘게되면 24시간 도전을 통하여 방송을 청취한분들에게 CJ 자신의 방송에 대한 열정을 보여드리는 24시간 생방송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도전자 CJ 개인의 명예를 위한것이 아니라 이방송을 함께 해주신 40-50대 여러분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도전입니다 더불어 40-50대 음악세상 CJ들의 방송에 대한 열정과 방송사랑을 보여주는 취지로 진행됩니다.

40-50대 음악세상에 24시간 생방송 도전은 일정한 자격에 따라 도전자격이 주어지며 도전방법도 엄격하게 검증 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0-50대 음악세상 10년의 방송을 통하여 많은 CJ들이 탄생 될것이며 더불어 자랑스런 24시간 도전 성공자들이 이 방송을 지켜 나가주기를 기대합니다.

40-50대 음악세상에서 CJ로서 활동하는 CJ들은 24시간 생방송

도전자격을 획득하고 24시간 생방송 도전에 성공하는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자신의 명예로 간직될 수 있도록 지켜 봐주시고 아름다운 CJ의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24시간 생방송 도전 기록 (도전자:인생)

방송국명: 40-50대 음악세상

행사일: 2000년 10월 21일 13:30-22일 13:30분 까지 (24시간)

장 소: 광주 염주 체육관 (한국JC 제49차 전국회원대회 본대회장에서)

시 설: 전용선 코넷 512K 임시설치

방송용 컴퓨터 1대 중계용 컴퓨터 2대

행사장음향 연결 컴퓨1대

참관인: 40-50대 음악세상 청취자중 방송24시간 참관인

광주에서 국방위원장, 포도대장 .대구에서 하마

경주 비올레 타, 대구 시월

축 전: 꽃다발 2 샴페인1 격려축전 13통

채트창: 세이클럽,프리첼,씨후랜드,

방송국: 조이아시아,졸라디오

효 과: 개인인터넷 방송에대한 cj들의 열정과 순수성 알림

한국JC회원들에게 개인인터넷 방송 홍보기회제공

40-50대 음악세상에 대한 관심도 제공

제2호 24시간 생방송 도전 기록 (도전자: 비올레타)

방송국 명: 40-50대음악세상

장 소: 서울 CJ 사무실

일 시: 2000년 11월25일(12:00)-26일 (12:00) 24시간

참관인: 인생, 정인, 아네모네, 송송, 우리들이

서버제공: 졸라디오 <http://211.171.243.71:9126>

전 용 선: 256K

최대 동시 청취자: 170명

경 과: 2회 연속 사용안함 컴퓨터 다운 1회

- 특기사항

여성의 24시간 도전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었으며 2호 도전자로서
한국CJ연합회의 인증패
수여 및 40-50대 운영후원회 감사패 수여

축전: 헤인, 아침바다, 바다와국화, 효조, 다래송

참석자

프리셀: 잠수리, 짬짬, 민들레, 주니삐로, 송송, 백일홍

씨후랜드: 팬더곰, 용가리, 생글

세이클럽: 문리버, 종이비행기, 아침바다, 저녁바다, 은빛꽃나무,

피플475: 코빅, 리마, 용구 엠에스엔: 가교, 123, 우리들이

음악세상: 효조, 인생, 비올레타

제3호 24시간 전화리퀘스트 생방송 도전

생방송도전 방법

도전자격

- 6개월이상 정규방송 경력 CJ (1일 3시간정규방송)
- 24시간 생방송도전에 성공한 CJ (신청곡과 사연중심방송)
- 동시접속 청취자 200명이상을 기록한 CJ
- 전화리퀘스트 방송경력 50시간 이상 CJ

도전방법

- 전화 사연 1통 신청음악 1곡순으로 진행하여야 함
- 10분간 전화가없을시 CJ임의로 음악선곡 3회에 한함
(10분간전화접속 3회불통시 도전실패)
- CJ가 연결하는 전화인터뷰 20회 이상 25회까지 실시 하여야 함
- 음악2곡 연속 방송 5회에 한함 (식사)

- 방송다운 5회에 한함 (5회가 넘을시 탈락)
- 24시간중전화신청은 1회에 한함(동일인2회전화신청못함)
(전화신청 2회이상신청자가 10회를 넘을시 도전탈락)

검증자

- 도전 인증 동호회 (피플475 40-50대음악세상 동호회)
- 도전 인증동호회에서는 검증자 5인 선정 도전방법에 따른
방송확인 인증
- 24시간 도전 생방송에 따른 행사 주관
(피플475 40-50대음악세상동호회)

도전자

- 40-50대음악세상 CJ 인생

도전자 경력

- 24시간 생방송도전 (2000년 10월21-22일 도전성공)
- 전화리퀘스트방송경력 (72시간)
- 정규방송경력 (2000년8월5일 시작---9개월20일방송)
- 동시접속 청취자 (최저150명-최고300명)

도전일시

- 2001년 5월31일 정오12시-6월1일 정오12시까지

도전장소

- 서울(시제이 인생 방송실)

24시간 전화 리퀘스트 생방송 도전기록

행사일시 : 2001년 5월 31일 12:00 - 6월 1일 12:00 (24시간)

행사장소 : 서울 CJ 사무실

도전자 : CJ 인 생

행사시간중 최고접속인원 : 413명

<참관인>

코빅, 비올레타, 주니삐로, 제주영근, 아리영, 자목련, 바람, 스잔,
로코, 루코, 박재현, 푸른별J, 노랑병아리, 나그네등대

〈전화인터뷰〉

1. 최해암님 ## 경북 철도청 안강역장
2. 김기락님 ## 4050청취자중 장애우를 대표해서 인터뷰에 응함
3. 이습님 ## 세이클럽 혼앤셴 시삽
4. 이훈님 ## 강원도의회 부의장

〈전화리퀘스트참여하신분 184人〉

- | | | | |
|--------------|------------|------------|------------|
| 1. 이경종님 | 2. 세린공주님 | 3. 깎순이님 | 4. 애랑님 |
| 5. 하루님 | 6. 빨강장미님 | 7. 레인보우님 | 8. 포유님 |
| 9. 탐라왕손님 | 10. 백조님 | 11. 미수님 | 12. 운무님아내 |
| 13. 호호아줌마님 | 14. 송송님 | 15. 스모키님 | 16. 스카렛님 |
| 17. 초원님 | 18. 동감님 | 19. 짱아님 | 20. 솔빛님 |
| 21. 간다천사님 | 22. 소리님 | 23. 설부님 | 24. 흐리멍텅님 |
| 25. 꽃을뜯남자님 | | 26. 소유새님 | 27. 고은이님 |
| 28. 이슬비님 | 29. 소리님 | 30. 테레사텐님 | 31. 예셋님 |
| 32. 킬리만자로님 | | 33. 하얀사랑님 | |
| 34. 푸른소나무님아내 | | 35. 아이리스크님 | 36. 헤미님 |
| 37. 웅달샘1님 | 38. 방콕아줌마님 | | 39. 선가을님 |
| 40. 나의태양님 | 41. 창원달님 | 42. 수선화님 | 43. 가산님 |
| 44. 자생화님 | 45. 뚝단배님 | 46. 루브코리아님 | |
| 47. 진주님 | 48. 가시나무새님 | 49. 황금빛숲님 | 50. 전천후님 |
| 51. 할미님 | 52. 으랏차님 | 53. 오드리헵번님 | 54. 라이파이님 |
| 55. 철수님 | 56. 여명님 | 57. 참술님 | 58. 여정님 |
| 59. 추억의시간님 | | 60. 송송님아들 | 61. 제주영근님 |
| 62. 바우님 | 63. 아마존님 | 64. 푸른청솔님 | 65. 나운아씨아들 |
| 66. 노래다좋아님 | | 67. 짚시님 | 68. 웅달샘2님 |
| 69. 깊은물따님 | 70. 개울님 | 71. 토란님 | 72. 올리브님 |
| 73. 물옥잠화님 | 74. 송죽님 | 75. 수지님 | 76. 요요치산님 |
| 77. 강산님 | 78. 벤댕이님 | 79. 깔꿈이님 | 80. 아이비님 |

- | | | | |
|---------------|------------|-----------------|------------|
| 81. 아리랑님 | 82. 진실님 | 83. 가르륵어머님(주방장) | |
| 84. 빨간솜사탕님 | | 85. 행복36님 | 86. 이대로님 |
| 87. 데카르님 | 88. 왕건님 | 89. 일장춘몽님 | 90. 헤세빈님 |
| 91. 수정님 | 92. 초보운전님 | 93. 이대로님아내 | |
| 94. 똥보마녀님 | 95. 짱아님막내 | 96. 허허실실님 | 97. 가인님 |
| 98. 하진님아내 | 99. 강산님아들 | 100. 터브님 | 101. 해기님 |
| 102. 덕팔님 | 103. 가르륵님 | 104. 원시인님 | 105. 추억43님 |
| 106. 왕오빠님 | 107. 심해님 | 108. 하진 | 109. 스잔님 |
| 110. 어리님 | 111. 하안비님 | 112. 와이젤님 | 113. 이페님 |
| 114. 음악듣는조각님 | | 115. 빈잔님 | 116. 알프레도님 |
| 117. 로코님 | 118. 종이여자님 | 119. 난나님 | 120. 강가에서님 |
| 121. 참솔바람님 | 122. 콩꼬물님 | 123. 한백사랑님 | 124. 파란하늘님 |
| 125. 미소티님 | 126. 하늘별님 | 127. 허일구님 | 128. 목련77님 |
| 129. 무림왕자님 | 130. 자유인님 | 131. 선아님 | 132. 국화님 |
| 133. 소라님 | 134. 여우님 | 135. 보라여우님 | 136. 새헌님 |
| 137. 동그라미님 | | 138. 아름방님 | 139. 통통님 |
| 140. 꿀꿀님 | 141. 사랑하는님 | 142. 민트님 | 143. 시사랑님 |
| 144. 연한배님 | 145. 부지깽이님 | 146. 행운님 | 147. 아네스님 |
| 148. 바람님 | 149. 노을님 | 150. 미림님 | 151. 이쁜이님 |
| 152. 깊은물님 | 153. 흥부형님 | 154. 장미님 | 155. 울보천사님 |
| 156. 빨간곰님 | 157. 첼로님 | 158. 땅콩님 | 159. 비와차잔님 |
| 160. 지우개님 | 161. 가막신님 | 162. 송정님 | 163. 톱과제리님 |
| 164. 아이비친구님 | | 165. 희빈마마님 | 166. 자목련님 |
| 167. 또보님 | | 168. 목련화님(증평) | |
| 169. 하얀길님 | 170. 미로님 | 171. 깜찍이님 | |
| 172. 목련화님(부산) | | 173. 네일크로바님 | |
| 174. 민들레님 | 175. 기쁨이님 | 176. 정보님 | 177. 소아님 |
| 178. 푸른목장님 | 179. 누리님 | 180. 산수화님 | 181. 오렌지님 |
| 182. 설래임님 | 183. 준님 | 184. 행복한남자님 | |

도전결과

2회 중복전화 10회에 한함---2번중복전화 3회
(꽃을든남자.호호아줌마.터프)

10분이상전화신청자없을시---30초이상기다림없이 24시간 진행되었음
음악2곡연속사용5회---한번도 사용하지않았음
방송다운5회에 한함---1회방송다운

축전

전보축전 참원달님의 21명 축하케익 1 꽃다발 2

생방송도전 총평

- 개인인터넷라디오방송으로 전화 신청전화가 24시간 쉬없이 방송이 진행되어 40-50대의 자존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 24시간 도전방법에 따라 도전 성공 인증 함

40-50대 음악세상 CJ들은 건전한 방송문화 만들기에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시도 하고있습니다. 개인 인터넷 라디오방송은 개인의 자유로운 방송이기에 다양한 형태의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방송에 꽃이라고 할수있는 CJ는 방송에 대한 건강한 목표와 철학이 방송을 청취하는 네티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40-50대 음악세상을 지키는 CJ들은 음악세상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여러분께 보답하는길은 CJ들의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방송에 대한 열정으로 40-50대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고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 되어야 함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것 입니다.

현장 생방송 프로그램 소개

40-50대 음악세상 현장 생방송은 우연하게 시작되었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 CJ로 활동하던 효조양이 신체적인 불편으로 세상 밖을 구경할 기회가 적어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보여 주기위하여 시작된 프로그램 이었습니다. 음악세상 100일 기념 하면서 효조양의 세상 밖으로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시작된 첫 번째 현장 생방송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하는 현장 생방송이라 모험으로 방송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날씨가 추워 방송을 하는 CJ들이 추위를 이겨내야하는 고통도 있었으나 파주 JC회원들의 현장지원으로 무사히 제1차 현장 생방송을 마쳤으며, 제2차 대학로 현장 생방송은 백혈병 어린이돕기 현장생방송으로 동욱이와 보람이를 위한 방송으로 진행되었고 그 후 효조양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중단하면서 제3차 현장 생방송은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의 만남과 40-50대 음악세상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과 봉사를 겸한 방송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생방송은 다른 방송과는 달리 현장 섭외와 방송 준비가 쉽지를 않아 현장 생방송을 중단하고자 했으나 40-50대 음악세상을 알리고 보급하는 기회를 포기할 수 없어 가급적 현장 생방송은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1회 40-50대 음악세상 100일 기념 생방송

추진배경

40-50대 음악세상 방송 100일을 기념하여 개인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40-50대들에게 인터넷에 대한 정보마인드를 조성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생활화를 위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남북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열원을 인터넷을 통하여 입진각에서 인터넷생방송을 개최하여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함

행사개요

행 사 명: 개인인터넷 라디오 생방송

40-50대 음악세상 100일 기념 통일로 가는길

행사일시: 2000년 11월 19일 (12시-오후 4시까지)

행사장소: 입진각 만남의 광장에서

방송 C J: 40-50대 음악세상 CJ 3인 (인생, 비올레타, 효조)

방송운영: -초대손님 코너 운영

(입진각방문객대상, 파주JC회장, 성우 배한성)-

-오프라인 음악신청 및 사연 소개

방송국사이트: 조이아시아, 즐라디오, 끼리, 사이버천국

채트방사이트: 세이클럽, 프리첼, 씨후랜드, 엠에스엔

기대효과:

- 개인인터넷 방송에 대한 홍보 및 인터넷 정보마인드 확산 기회제공
- 중, 장년층의 인터넷 방송 참여 기회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기회
-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인 입진각에 대한 관심도 증대 기회

특별행사: 40-50대 음악세상 청취자 정팅 개최 (서울, 경기, 강원)

행사 특별후원: 한국JC 파주청년회의소

행사후:

입진각행사내용 조이아시아 동영상 자료제공 (<http://joyasia.co.kr>)

행사장 참여자: 우리돌이, 리마, 주니삐로, 백일홍, 장수리, 가교파,

배한성, 조이아시아대표, 예로이카등

특기사항:

인터넷 라디오방송도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할 수있다는 자신감과 효조와 비올레타의 임진각 현장에서의 통일로 가는길이라는 주제의 방송은 40-50대 음악세상 청취자들에게 40-50대 음악세상의 신뢰도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임진각 방문객과 파주 청년 회의소 회원들에게 인터넷을 알리는데 공헌 하였음

제2회 40-50대 음악세상 현장생방송 사랑의 헌혈 캠페인

추진배경

이 세상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헌혈증은 그분의 신체의 건강함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마음 과 정신 까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은 서울 성북JC를 비롯한 8개롭과 함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어린생명을 지키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이웃사랑 실천운동중 하나로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과 8개롭 합동 헌혈 캠페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행사개요

행사일시: 2001년 3월25일 (일요일) 오전9:00-오후5:00

행사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공연무대

생 방 송: 40-50대 음악세상 오프라인 생방송
(비올레타, 효조생방송)

행사내용: - 헌혈 캠페인및 행사 생방송

- 음악세상 가족 3월 모임 개최

(세이클럽, 프리첼, 피플475닷컴, 씨후랜드, 네띠앙, 다음,
등 각사이트 40-50대음악세상 가족중 참여 가능한 분)

- 헌혈캠페인 인터넷 라디오방송 소개및 헌혈캠페인
자원 봉사

- 캠페인 참가자 현장에서 신청곡과 사연받아 생방송

- 헌혈및 모금 실황 생방송

행사주관: 한국JC 서울지구 성북청년회의소

행사로갈: 강북지역 성북제이시와 7개로갈 (400여명 참석 예정)

헌혈캠페인 행사를 마치고 성금및 증서 기증 명단

대학로의 헌정방송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백혈병 어린이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 40-50대 음악세상에도 많은 힘을 실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훌륭한 행사로, 그리고 보람있는 프로그램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결과는 우리 40-50대의 저력을 보여 주는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격려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직접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말들의 합창 동호회	70만원	- 세이클럽 아사모	10만원
- 세이클럽 아마존	10만원	- 세이클럽 장원달님	5만원
- 세이클럽 자스민	3만원	- 세이클럽 이브	3만원
- 씨프랜드 나무	5만원	- 씨프랜드 주니베로	3만원
- msn 은석님 가족	18만원	- msn 프론트	2만원
- msn 무명기탁자	6만원	- msn 솔리타리맨	3만원
- msn 철곡소희	5만원	- msn LB가교	3만원
- msn 북한산	5만원	- msn 구절초	3만원
- msn 깊은물	3만원	- 피플 475 루코	5만원
- 피플 475 설백	1만원	- 프리첼 푸른솔	3만원
- 프리첼 백일홍	5만원	- 프리첼 터프	3만원
- 프리첼 리마	3만원	- 프리첼 잼잼	3만원
- 프리첼 나그네45	5만원	- 스카렛	2만원
		합계	(190만원)

< 헌혈증서 보내오신 분들 >

보라왕비 6매, 참솔바람, 노랑스카이, 혁, 이지현, 스카폴라, 나무, 미래의희망님 각 1매
합계 13매

제3회 40-50대 음악세상 현장 생방송 새생명 국토대장정

추진배경

40-50대 음악세상 제3회 현장생방송 새생명 국토대장정과 강릉단오제를 찾아 떠납니다. 전국 백혈병 소아암 환자 완치를 기원하는 국토대장정과 강릉단오제에 40-50대 음악세상 JC30 음악세상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40-50대 음악세상이 3번째로 가지는 현장생방송은 JC30 음악세상 개국을 기념하고 40-50대 음악세상 개국 1주년 기념행사로 4번의 현장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대장정을 떠나는 속초에서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제 13호 강릉단오제 현장 생방송을 부산에서 제주도에 4번의 현장생방송에 지역에 계시는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의 좋은 만남과 봉사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사개요

행사명: 40-50대 음악세상 현장 생방송 새생명 국토 대장정

행사일시 및 장소

제3회 속초 현장생방송

속초시청 로비 6월 25일 09:00-17:00

제4회 강릉 단오제(중요무형문화제 13호)

강릉단오제 현장 6월 26일 09:00-17:00

제5회 부산 현장생방송

부산역전 7월 8일 09:00-17:00

제6회 제주도 현장생방송

제주도 7월10일 09:00-17:00

행사내용

- 헌혈 캠페인 소개
- 강릉단오제 현장 소개
- 현장 생방송 (현장에서 신청곡과 사연접수방송)

방송 C J :

4050대 음악세상 : 인생, 비올레타

JC 30 음악세상 : 푸른별

행사후기

속초시청에서부터 시작한 현장 생방송이 강릉단오제와 그리고 부산역 광장에서 그리고 제주시청을 끝으로 현장 생방송을 마쳤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 으로서는 보람있는 참가였고 속초시청에서 방송을 하므로서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신청곡란을 개설하여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이 속초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소개하므로서 속초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릉단오제 역시 강릉단오제 홈페이지로 부산역에서는 부산역홈페이지로 제주시청은 협조가 미처 되지않아 40-50대 음악세상 홈페이지에서 신청곡과 사연을 받아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생방송은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에게는 웹서핑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이트를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여 인터넷 활용 능력을 배양 하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 되었습니다

제 7회 40-50대 음악세상 현장생방송 102주년 철도의날 기념 추진배경

9월 18일 철도의날을 맞아 철미는 달리고 싶다는 철도인의 염원과 철도의 실�크로드를 꿈꾸는 40-50대 음악세상 청취자이신 안강역 역장님의 염원을 담아 현장 특별 생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개요

행사명 102주년 철도의 날기념 현장생방송

일 시 2001년 9월18일 오전 9시-오후5시

장 소 안강역 대합실

- 행사내용
- 철도이용고객의 신청곡과 사연 소개
 - 철도에 대한 내용 소개
 - 안강역 소개

행사후기

안강역에서의 현장생방송은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에게 철도에 대한 옛추억을 회상시켜 주며 철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안강역에 구내 방송으로 40-50대 음악세상을 방송하므로서 철도 이용 고객들에게 40-50대 음악세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안강역장의 적극적인 방송 협조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역에서 방송한 40-50대 음악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9월20일부터 별도의 방송포트로 철마는 달린다 방송을 하게되었으며 500여개의 역을 중심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전국의 역을 찾아 현장생방송을 하여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에게 철도 사랑운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철도 현장생방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현장생방송은 개인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는 40-50대 음악 세상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생방송은 기회가 제공 되는대로 계속 진행하여 40-50대 음악세상을 알리고 더불어 개인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보급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께서는 현장생방송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약속 작은 실천 캠페인

빠르게 변하는 세상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급하게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다. 이제 인터넷 세상속에서 만이라도 하루아침에 무언가 이룩하려는 욕심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세월과 함께하는 여유와 10년을 내다보고 인터넷 세상과 함께 하려는 생각이다.

40-50대 음악세상도 10년을 내다보면서...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였는가

10년의 약속 첫 번째 작은실천 대화명도 10년을 쓰다보면...

10년의 약속 두 번째 작은실천 가족 홈페이지도 10년을 바라보면서....

10년의 약속 세 번째 작은실천은.....

40-50대 음악세상과 함께 하는 우리는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진정한 주인공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훗날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로 남겨지기를 기대하면서 10년의 약속을 만들어 나간다...

아까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낸것이 아니라 노력하며 적응하는 40-50대 옹음을 말하고 싶다...

40-50대 음악세상은 그런 40-50대를 위해 오늘도 24시간을 방송을 지키면서,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인터넷 공간속에 고향이기를 바란다.

캠페인 취지문

40-50대 음악세상 제1차 캠페인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40-50대 음악세상이 별것을 다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요. 24시간 생방송 신청곡과 사연중심의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을 지키고 있는 CJ들은 무엇 때문에 방송을 할까요....

저희들 스스로 자문해 보면서 방송을 하는 이유와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인터넷 세상속에 수많은 상업 사이트속에서 순수한 아마추어방송으로 40-50대 음악세상이 10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무보수, 무땀가로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40-50대 음악세상을 지키는 CJ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24시간 방송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어렵게하는 것은 진실이 결여된 장난스런 신청곡과 사연, 그리고 때로는 몰지각한 20대들의 욕설과 장난들, 그리고 빛나간 사랑이야기들, 40-50대 음악세상 공개채트방에서 상식을 벗어난 대화글들로 서로 마음들이 다칠 때, 또 음악과 사연 신청곡란에 대화명을 바꾸어서 신청곡란을 자신의 음악과 사연으로 도배할때, 40-50대 음악세상 신청곡란은 쉬지 않고 올라오는데 다른 게시판들은 오늘도 비어 있을 때, 우리 CJ들이 가장 힘들답니다.

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그 자존심은 40-50대가 인터넷 세상속에 주인공이 되기위해 노력하는 40-50대들에게 24시간 생방송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진솔한 만남과 우정을 만들고, 부부와 가족들의 사랑이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고,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봉사속에 참된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면 저희는 40-50대 음악세상이 방송을 10년동안 여러분 곁에 함께 할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50대 음악세상이 10개월을 방송하면서 한 일이 있다면 오프라인 생방송 제1회 통일로 가는길 임진각에서 제2회 사랑의 헌혈캠페인 '동욱이와 보람이에게 새생명'을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목표는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40-50대 음악세상 방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40-50대 음악세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 머리에서 쥐가 나도록, 진저리가 나도록 외칠겁니다

제1부 오전방송에서는 오늘 당신은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실겁니까.

제2부 오후 방송에서는 지금 당신은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3부 저녁 방송에서는 오늘 당신은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4부 오늘 인터넷으로 하신 일을 올려 주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40-50대 음악세상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늘 하신 일들을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분들이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인터넷 세상에서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하루입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의 책임은 40-50대 우리가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40-50대 음악세상 CJ들은 처음 방송하던 그마음으로 돌아가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제 2001년도 벌써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은 이시간을 알차게 마무리 하는데 우리모두 함께 동참하여 40-50대 음악세상 CJ들의 축져친 어깨에 용기와 자존심을 주십시오.

40-50대 음악세상 24시간 생방송 10년을 향해 달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믿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데 주인공으로서 자기개발에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십시오. 40-50대 음악세상 24시간 여러분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과 사연

◎ 이름:정카바 (vetman18@hanmail.net) (41 남 수의사)

◎ 2000/11/30(목) 19:36

◎ 조회: 57 회

새 집장만을 추카 추카! ^^ ^^

네에...왜 이렇게 좋지요..^^

음악을 사랑할뿐 아니라 우리들의 나이가

가는것이 서러워~ 이곳에 모이게 되는것 같습니다.

꼭 우리한테 사랑방이 하나 생긴것 같아

디게 디게 좋군요...^^*

캠페인 참가

인생 05/14[16:57] 저희 40-50대음악세상 캠페인에 동참하시는분들은 여기 동참 하신다는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화명과 동참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비올레타 05/14[17:21] 냐..열심히 캠페인에 참여하겠습니다....그러려면 여러분들 도움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루카 05/14[17:25] 나두 동참 확인

알프레도 05/14[17:28] 인생님 글 잘 읽었고요, 저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같이 하고싶어요

여우 05/14[17:31] 좋은방송을 위해 여우도 함께 할게요

고운 05/14[17:34] 음악만 들려 주시는 줄 알았더니 좋은일들도 많이 하시는군요.이렇게 좋은일 하시는데 동참 하지 않을수가 없죠? 그럼 계속 수고 하세요....

창원달님 05/14[17:45] 인생님 안녕하세요,창원달님도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라이언 05/14[17:47] 잘 읽었습니다.말로만 하는 약속이 안될까..걱정이 앞섭니다만...동참하겠습니다.

스피드 05/14[17:50] 물론 동참해야지요, 여러 a님들께서 수고를 너무 하시는데요.

갯내음 05/14[17:54] 동참...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볼게요...

백술 05/14[17:58] 비올레타님과 인생님에게 약속했으니 나도 함께 할 겁니다.

툼n제리 05/14[17:59] 4050방 동참에 기꺼이 동참해야져!~~~~~

별님 05/14[18:05] 전.창원달님신랑별님도..참여하겠습니다

온누리 05/14[18:05] 집에서 하는일이 있어서 하루를 여는시간부터 방송만들고있는데,오늘은 CJ님의 좋은 생각에 앞으로 동참하고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박정 05/14[18:18] 동참...제가 도움이 된다면 있는 힘껏 노력해야죠...많은님들의 동참 바랍니다...

요요치산 05/14[18:20] 4050음악방송에 동참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05/14[18:21] 우리가 50대-60대가 되어도 늘 함께하고 싶습니
다..언제까지나^^ 화이팅!!!

나그네45/등대 05/14[18:23] 우리 모두 함께하는.. 40-50음악세상
화이팅!

장풍 05/14[18:24] 수고가 만읍니다.....고생두 만구요...잘돼길 바
랍니다

류모 05/14[18:26] cj 님들과 함께 동참 합니다/다음 주부터 인터넷
교육받으러 가는데 열심히 배워서 동참해 보겠습니다

새벽종 05/14[18:29] 중년의 4040대의 영원한 휴식처 되시길 바랍
니다.

oO오렌지Oo 05/14[18:40] 동참을 어케하쥐~강 막따라감 되남요?
구랍 함 따라가보지 뭐~쩍!!

김신숙 05/14[18:45] 님들과 함께라면 기꺼이.....

별빛나무 05/14[18:54] 힘껏 도와줄게요...열심히하세요..

로코 05/14[18:59] 4050대 음악세상과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
다. 10년을 향해 달리는데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barona96 05/14[19:00] 좋은길은 같이함께^^ 저두 동참합니다^^

뚜레박 05/14[19:02] 안녕하십니까?모처럼 화창한 하루였습니다.신
록의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오늘 하루가 음악세상 4050에 더 없이 기
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송송 05/14[19:04] 4050 음악세상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세계를 열
어줬습니다. 얼마든지 , 기꺼이 난 4050 음악세상과 함께 하렵니다. 10
년을...아니 그 이상도...^^*

미소 05/14[19:07] 뽕뽕...좋은일에..싸인이라든...멋지게....흠흠...동참
합시다요..여러분..ㅎㅎ

프리지아 05/14[19:15] 좋은음악 감사하구요 40-50음악세상 5월 캠페
인에 동참합니다

캔디 05/14[19:15] 40-50에 넘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우리또래가 즐

길수 있다는 게 넘 행복해요!!맨발로 동참해야죠!^^*

이석철 05/14[19:16] 안녕하세요,고생하시는 씨제이님들에게 무어라 감사에 말씀을 드려야할지... 컴퓨터앞에서 음악을들어가며 일을하리라고는 상상들을 했겠습니까.4050음악방송을 날마다 들으면서 피로도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계속해서 좋은방송이되길바라면서 다시한번 c님들의 노고에감사드리며 계속발전하길바랍니다.4050음악방송이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박청 05/14[19:17] 처음 들었는데 좋은일 하신다기에 동참 서명을 하였습니다. 항상 즐거운 음악 재미난 맨트 부탁드립니다. c님들 "화이팅!!!"

슬기비 05/14[19:32] 친구들이여!우리 들만의 젊음과 낭만을 위하여....

진실 05/14[19:35] 좋은방송 항상감사하구요,, 4050 좋은일 동참합니다

여울 05/14[19:36] 도움이될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끼꺼이참여하겠습니다.

최연석 05/14[19:37] 진실한 삶을위하여

이모작 05/14[19:37] 시간과 세월만 흘렸을뿐.....마음은 언제나 젊음이어요

권명희 05/14[19:42] 남에게 즐거움을 줄수있다는것은 가장큰 행복입니다.인생.효조님.비올레타.꽃천사루루님.가인님 정말 행복한분 이십니다.앞으로도 더욱 좋은노래 부탁드립니다.열심히 응원해 드릴게요 ^^*

안충모 05/14[19:45] 방송하시느냐 고생도 많으시구 우리는 이방송을통해저녁은길을갈수있어 넘좋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즈네프 05/14[19:45] 남"들이 안하는것을 한다는것!.....남"들의 앞길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다사랑 05/14[19:47] 인생님 아주 조은방송을 하시구 계십니다 이4~50대 방송이 꼭 1~20 대의 잘못된 인터넷 세상을 바로 잡아주는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인생님 화이팅~~참고로 저는 아직 30대입니다

빈 잔 05/14[19:47]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난 그 말을 믿는다. 넘에 뒤을 따르리요.~!~

여포 05/14[19:49] 누구든지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늙기는 원하지 않는다

참사랑(안동국) 05/14[19:51] 안녕하세요^^

여비 05/14[19:52] 좋은세상 살아가는데 엄청도움주는 4050음악방 cj님들 화이팅!더 좋은 방송문화 창조좋시길~여기에 저 여비도 동참 선언합니다~

찌루찌루 05/14[19:58] 인생행님 수고 많으십니다염.

참사랑(안동국) 05/14[20:00] 에구...미안해요^^ 인생형아,비올레타누나,가인누나,루루누나,그리구 이쁜효조님.정말 고생이만으시네요. 제가 도움이 될수만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노력할게요.전 어리지만 동참할수 있게 배풀어주시구 귀여워해주세요^^여기선 제가 켈막내걸랑요.컵이 저 두 초보라 정말미안해요. 제가 4-50대방에 들어온지도 벌써 5개월이 넘었나요?.정말 이방에 와서 전 많은걸 배우고 있어요. 가끔 몰지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을 흐려 놓키?

찌루찌루 05/14[20:02] 실수로 다 안적었는데 엔트키 눌렀또염.인생행님 음악으로 세상을 열어주시는 분들의 땀은 정말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행님 댓가를 바라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만 분명 좋은 댓가가 있으리라 봅니다..행님 힘내세염

kovic 05/14[20:10] 이것안하몬(서명) 동참안하는것되능건가유? 서명 하는곳을 따라맹그러서 허시지우째든지 서명형께로 동참은 허능깁니다요~%`

금오산 05/14[20:11] 인생님 비올레타님 가인님 루루님 호조님 수고가 많으시내요 저두 여기 온지가 작년 여름이니까 좀뒹네요

참솔바람 05/14[20:13] 475와 네띠의 참솔바람입니다.....인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저 자신도 많은걸 느끼게 되는군요....비록 부족하나마 동참 하겠습니다....우리 40-50방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구요....음악을 들려주시는 cj님들...음악을 들어 주시는 님들..모두 고맙구 감사합니다...

디자인56 05/14[20:17] 오늘 처음들어와서 음악도 신청하고 여기 서명도 해보고...이렇게 40대들도 인터넷으로 즐길수있는 코너를 마련해

주셔서 진정 감사드립니다. 제 40대친구 13명을 대신해서 서명합니다. 끝없는 활동 부탁드리고 이방송 10년이 아니고 100년정도 아니 그이상 이어지길 바랍니다.

겨울햇살 05/14[20:19] 동참 저도 합니다. 앞으로 10년후면 내나이 53세..와.. 우리 아들이 28세..와와와 우리 남편 56세..온몸이 아파 오겠다. 그죠,나이를면 여기저기 쏘신다는데...10년후도 모든 분들 건강하십시오.

愚石人間 05/14[20:23] 선서 : (1)나 우석 오늘부터 인터넷 서핑으로 좀더 유용한 정보를 사냥할것입니다 (2)나 우석 오늘 인터넷으로 미지의 벗님들과 가슴으로 대화를 할것이며 유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3)나 우석 저녁에는 많은 하루를 반성하며 미지의 벗님들의 삶과 이야기를 듣고 반성도 하고 자각도 할것입니다 (4)나 우석 오늘 참으로 오랜만에 싸이버 공간에 여기 작은 공간에 쪽쪽 남기고 갑니다 가

리베 05/14[20:24] 부모가 인터넷을 알아야만 애들 지도가 가능하드군요.이상한사이트같아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하면서꺼버리기 일수니...아무튼 이런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키 05/14[20:35] 아무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인터넷으로 넘도 보고 뽕도 따야죠..

빈센트 05/14[20:42] 좋은 일이죠,반가운마음으로 ..동참하며..

고담봉 05/14[20:44] 메일 메달려도 소득은 .?

조이0216 05/14[20:58]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저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드렸지만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앞서는군요. 그러나 노력은 하겠습니다

준358 05/14[21:06] 때론...아무생각없이 ..하루를 보내버리기도 하는 인터넷세상..이젠 인생님 말씀처럼 무엇을 할것인지 무엇이 남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것 같군요...소중한 만남의 이곳에서 삶의 여유를 찾았으면 합니다

하누리 05/14[21:09] 참 들려본 오늘 많은 걸 얻고 가네요...인생님 더욱 발전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리 05/14[21:54] 소중한신 하루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

생님 감사합니다,저두 열심히 방송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이파리 05/14[22:07] 40 50대 음악세상을위해 수고하시는 씨제이님들을 위해서 ~~~화!!!팅!!! 울 사십대를 위해 동참함^^

둘리 05/14[22:15] 4050음악세상...매번 느끼는 바이지만 오늘은 더욱 신선함을 느껴봅니다.이 캠페인이 모든 가족들과 함께할수있는 작은 몸짓의 시작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낌없이주는 방송 4050 화이팅!!!

초보운전 05/14[22:20] 씨제이님들 모두 힘내세요 우리처럼 순수한 팬들이 있잔아요

수지 05/14[22:22] 여러가지로 4050대를 이끌기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잘 모르지만 많이 배우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음악세상 화이팅!!!

하늘 05/14[22:25]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세대끼리의 음악방이 만들어짐을 늘 고맙게, 즐겁게 생각합니다. 모든 c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4050 식구들의 따뜻한 마음에 포근함을 느끼며 삽니다. 한 물간 세대가 아닌, 아직 삶은 청초함을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을 물론 발휘하며 살아봅시다!!

텐더 05/14[22:29] 4050음악세상을 열심히 듣는 것도 나름대로의 동참이라 생각합니다. 로코님의 소개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맘보 05/14[22:31] 좋습니다.언제나 4050음악세상을 사랑한다면서 뚜렷하게 말할수있는게없었는데 오늘 답을 찾은것같습니다.그냥 소일하는게 아닌 분명한 인터넷세상을영위할방법과 길을 찾았다는 느낌입니다.인생님,이하시제이여러분,앞길에 서광비추리라 확신합니다.4050음악세상 화이팅

버들가지 05/14[22:38] 4050음악세상 열심히 들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러.....힘내세요

아르미 05/14[22:48] 항상 인생님을 비롯 여러 c님들 음악 보내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잊을 수 없는 ..4-50대 음악 세상이 되기를 ..그리고 "뜻하신바" 에 동참 합니다..

통통 05/14[22:48] 열심히 하시는 c님과 함께하고싶습니다

철보 05/14[22:50] 인생님 말씀에 진실로 동감입니다. 저도 하루하루 뭔가 배우고 또 쳇방에서 정보를 교환 할수 있다면 더욱 발전 하리라 믿고, 앞날의 4050 음악세상의 길이 환하게 비추어 질것을 확신합니다....화이팅!!!

가인 05/14[23:10] 4050음악세상의 캠페인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하진 05/14[23:39] 이방송을 위하는길이라면 뭐든지 해야죠 그리고 방송을 듣는 여러분을위해서라두 함께 할거예요 어디까지라두 끝까지 따라갈것입니다

예쁜하루 05/14[23:44] 안녕하세요.저는 우연히 4050 음악방에 들렀다가 아주 상주하고있는 하루입니다.아무런대가도 바라지않고 24시방송을 해 주시는 cj여러분 덕분에 항상 맑고깨끗한 방송을 들을수있어서 감사합니다.그리고 비록저는 30대초반의 나이지만 이방에서 좋은분들을 알게되어서 참 행복하답니다. 세상은 정말 아름답다 생각합니다.4050cj여러분 앞으로도 쭉~ ~'욱 좋은방송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힘 내세요.

안개꽃 05/14[23:58] 전 여기씨제이하시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저희 애 아빠가 좋아하셔서 저두 좋아하게되었습니다 정말 좋은곳이에요 저두 동참하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씨제이님들 힘내시구요 파이팅하세요 그리고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라구요 10년지기 저두 옆에서 내조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주의하시구요 내내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버라더리 05/15[00:01] 압!!화이팅 40-50대

꾸니 05/15[00:10] 40-50대 음악세상이 존재하는 한 인터넷 세상 또한 밝고 건전한 e세상을 이룰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생님 비롯한 여러 cj님들 건강에 유념하세요 그래야 님들의 뜻을 이룰수 있을테니요... 저 또한 밀알이 되겠습니다

보라왕비 05/15[00:30] 이쁜보라도 도장 콕~~~~~

꾸미 05/15[02:06] 꾸니님의 동반자 꾸미입니다 울 신랑덕분에 항상 40-50대 음악세상을 함께 하곤합니다 서명할 때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1시 42분까지 안 주무시고 서명란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인생님

의 열정이 느껴져 그냥 스쳐가면 도리가 아니다 싶어 이리 흔적을 남길
까해요 제 메일 아디가 이나누미예요 울 신랑이 e세상에서 많은 사랑을
나누고 나눠주라하는 뜻에서 만들어 주었답니다저도 울 신랑과 함께 밀
알이 되겠?

쥬니빠로 05/15[02:12] 다들 손도장을 찍으니 나는 인감으로 꾸~욱!!!

깊은물(맑음이) 05/15[03:00] 도장은 커녕 서명도 힘드네요 세번이
나 들렀다가 도로갔어여 ^^& 휴우 ~~~~~ 이제 맘놓고 짹!!! 찍었
어여^^인터넷에서 우리가 할일 넘 많아요...

인터넷에서 시간도 다운 받을 수도 있으면 좋을텐데여.... 하고싶은일
할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지요...

꽃천사루루 05/15[03:07] 저두 물론 동참하죠^^

효조 05/15[07:44] 효조도 86번째로 서명, 즐겁고 신난 기분으로 동
참합니다~ ^^

칠곡소희 05/15[08:05] 오랫동안 게시판에 들렀더니... 읽을거리가.
너무 많군요~^^....이렇게 늦게나마...(지각생?) 작은 발자국을 남기고
갑니다.. 40-50 음악세상. 화이팅!!~ (이렇게 일찍 부지런 떨었으니..
지각생은 아니겠죠~^^)

미래의희망 05/15[09:33] 좋은일이고 좋은 의도이신데 당연히 서명
해야죠....4050음악세상 화이팅~~!!

삼천카페 05/15[10:44] 2001년 참으로 저에게는 또다른 세상을 열었
고 인터넷에 무지였던 제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도 얻고 이처럼 좋
은 방송 40-50대 음악 세상을 만났고 많은 c님들의 목소리에서 나름대
로의 슬픈맘을 위로도 받습니다.항상 수고하시는 c님들 고맙습니다.그리
구 항상 건강하시구 수고해 주세요.,이난을 통해서 보고픈 일들을 또다
시 만날수 있는 계기도 이루워 졌음 합니다...좋은 일에 앞장 서시는 모
든c님들께,다시한번 고맙다

첫걸음 05/15[10:51] 수고하십니다 시제이님들...이런 서명란이 있는줄
모르고 음악만 들으며 일을 하던중효조님의 서명란 소개를 듣고 하던일
을 멈추고 이렇게 달려와서 서명을 합니다 정말 많은 노고에 무어라 감

사를 드러야 할지 모릅니다 몇년전만 해도 인터넷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때로는 왕따도 당하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젊은 사람들의 눈치속에 지내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40-50대 ?

하얀목련 05/15[10:51] 더욱더~~~발전있으시길 바라며 동참합니다...이방송르 알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꼬옥찍어 서명합니다^^

두메 05/15[10:51] 청아한 목소리 효조님, 감사합니다,

리베 마누라 05/15[10:54] 저도 이곳에서 하는 의도대로 동참해 보렵니다.저위에보니 제 남편도 서명해 놨네요.저는 아직 인생님이 어떤분이 신지 모르겠는데 오늘늦게 방송 들어봐야 겠네요

첫걸음 05/15[11:01] 40-50대 음악세상을 열어주신 시제이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이.....떨려서 올라갔네요^^

레인 05/15[11:11] 저두 동참합니다.. 애구 평소애 말씀잘 문드렸는데 올 씨제이님들 파티!!!!

산유화 05/15[11:15] 인생님을 비롯한 여러 시제이님 감사해요.이방을 사랑하시는 모든분들과 함께 기꺼이 동참하는바입니다 화이팅!

싸낙배기 05/15[11:19] 모처럼 가려운데 끊어주신 것 같습니다. 시원한 소나기처럼 청량제 같은 양심의 소리 듣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거듭나고 성숙한 우리모두 되도록 노력도 필요 하겠쥬. 좌우지간 적극찬성 하고 화이팅!!!!!!

초록 05/15[11:28] 좋은 일은 함께...

장영석:터프 05/15[11:30] 뚜벅뚜벅 발자취만 남기고 가면서 먼훗날 나를 돌아볼때

쏘닉 05/15[11:36] 저도 동참합니다 40-50대음악세상 화이팅입니다. 여기는 한국제이시 사진부입니다.방송이 영원하기를 기대합니다

장영석:터프 05/15[11:41] 소리없이사뿐이 들어와 뚜벅뚜벅 발자취만 남기고 간곳을. 먼훗날 뒤돌아볼수있는 시간이 있길빌고빌며, 다시한번자 성하고 반성하면서,그저 내가해야할일이 무언지 다시한번 생각합니다..!마스터/인생님 나그네/등대님 송글송글/송송님 썩/쥬니삐로님 대를위하여 소를희생 하세여..! 복받으실겁니다..필승 또 필승

가을픈지 05/15[11:47] 전 4050이 아니지만 4050음악세상의 캠페인
넘 조아요.

월계수 05/15[11:49] 불모지였던4.50대음악세상을열고 인터넷 소외된
중년들에게적극참여 나아가 주인공이 돼야한다는 인생님의뜻에동참합니
다 참으로 힘든 길이기에 그용기와고집에 경의를표하며박수를보냅니다

가을픈지 05/15[11:50] 오잉~~ 엔터치니 그냥 쓱~ 올라가는군요.
아무튼 많은활동 기대하구요 좋은음악 매일 듣고 싶구 매일매일 인터넷
에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어야 할것 같습니다. c)인생님 화이팅~~

해국 05/15[12:13] 남편의 손에 이끌려 컵을 만진지 일년 4050방을
통해 많이도 자랐구요 이제는 부부가 같이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남고 싶어요 애들이랑 이방에서 같이 공유할수 잇구요 특히 녀
고생하시는 씨넵님들에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장미에게절 5월에 한아
름에 마음의꽃을 보냅니다

간다천사 05/15[12:33] 두번째행사에 참여하여..아이들에게 실제로
보여준 엄마의 인터넷 세상 참으로 뿌듯했어요....남편에게도 이야기 할
수있는 이방을 사랑합니다

민트초코칩^^ 05/15[12:34] 스피드 아줌마 딸이에요^^* 저두 동참하
고 싶어서요.. 제가 40, 50대가 되고 더 나이가 들어두 꼭 인터넷을 바
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꺼라구 약속할게요~~♡

빨간장미 05/15[12:35] 여기까지 찾아오기 힘들었어요..저도 5월 캠페
인에 참여하기를 서명합니다

스칼렛 05/15[12:37] 인생님에 글 잘보았습니다 네 컵으로 많은걸
할수있다는거 다른사람들도 많았으면 좋겠네요

풀잎 05/15[12:38] 늘 좋은날들을 위하여...행복한 인터넷세상을 위
하여...

새벽비 05/15[12:40] 멘트 듣고 해보는데...도움이 되신다면..몇번이
라도 해야죠!!!4050화이팅!!

진아) 05/15[12:41] 저 또한 인생님 동감입니다..나 자신 돌이켜 보
면서 이운동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비와찻잔 05/15[12:41] 안녕하세요 효조님,,,비와찻잔이가 대구식당에 왔는데요 우짤까나 식당아자씨가 이 방송을 듣고 있어요 구래서 비와찻잔이가 잠시,,,우째 이런행운이,,,,,,찻잔이두 서명에 동참하고 시포소리 아자씨에게 이렇게,,,,,짐말로 행운이네요 찻잔이가,,,,,찻잔이도 도장 꼭 찍어요 씨제이님 인생님 비올레타님 효조님 루루님 가이님 모두모두 건강하세요 40-50 음악세상을 사랑합니다 찻잔이는 지금 무척 수다 떨고 있는

차돌이 05/15[12:43] 석양 아래 노부부가 살며시 껴안고 황혼녘의 아름다움을 함께 구경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부부의 다가오는 미래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중에 나도 40대에 40-50 음악세상을 사랑하고 즐겨 들었노라고 손자녀석에게 이야기 해 주고 싶어요 모든 CJ님 힘내세요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러브인 럽 05/15[12:55] 4~50대 음악세상에서 좋은일을 하신다니 저는 잘 모르지만 함께 동참하고 싶군요 그리고 CJ 님들 항상 건강하시구요

베인 05/15[13:51] 동참합니다....

카바 05/15[14:14] 형님누나들이 모두 하시는데... 저도 당연히 동참입니다. 충성!

번개 05/15[14:24] 저도 물론 동참합니다. 좋은음악 들려주시고 소중한 사연을 올려주시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싶습니다.조금 바빠서 채팅도못하고 요즘은 신청곡도 못올리네요.그래도 40-50대 음악세상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랍니다.제가 70대 할아버지가 되어 ,80대 노인이된 인생님의 그목소리를 들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그러스 05/15[14:30] 우리4-50대음악세상이 더욱발전하고,우리들이 주축이되는 그런날이되길 기다리며~~

스카폴라 05/15[14:37] 좋은일하시는 씨제이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캠페인에 저두 동참합니다..

목련77 05/15[14:37] 저도.....당연히 동참합니다....좋은길로 가는길에.....목련이도 열심히 노력하면서..마음에 양식이 꽉~찰때까정.^^*

허일구 05/15[14:39] 안녕하세요

와이젤 05/15[14:40] 보여 주시고 정해 주는 이정표를 따라서 가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왕유 05/15[14:42] 4050음악세상을 통하여 밝은세상을 여는 한줄기 빛이 되기를 바라며... c님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하여 삶속에 힘들어하는 이들의 가슴을 어루 만져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동참합니다.

허일구 05/15[14:47] 안녕하세요 키를 잘못눌러서....다시씁니다....모두들 잘 해보자고 하는 일(봉사)인데....동참 안할사람 없을것 같아요..강원도 촌놈두 여기에 동참합니다.....컵에대하여 불쌍한 4~50대 모두들 컵을 주도합시다....넵 과격했나....ㅎㅎㅎㅎ암튼 좋은현상입니다.....마음에 양식이 되도록 합시다....

국화 05/15[15:10] 인터넷이 얼마나 고마운지여~~~ 힘들이지 않고도 물건을 구입할수 있구여~~ 전 자주 자주 하물며 프린터 잉크를 구입할때도 클릭 하나로 끝낸답니다.저희 아들 오디오도 구입거든요? 요즘엔 인터넷 써핑을 통해서 사업 계획도 세웠답니다..이정도면 얼마나 우리에게 인터넷이 필요하고 고마운 것인지 저 늦었지만 얼릉 좋은 생각에 참여 하겠습니다..

노숙자 05/15[15:13] 수고들 하십니다. 전 동참은 물론 동침까지 하렵니다. 인터넷을 대한지 벌써 5년째...33.6모뎀으로 시작된 나의 인터넷 생활은 전용선을 통하여 스스로 많은 자기발저전을 가져다 주었다 자부합니다. 20-30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는 인터넷 생활이 우리 4-50대 선배님들과 친구님들의 마인드 개발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동참은 물론 동침까지 하렵니다. ㅎㅎㅎ 근데 동침이라니깐..좀 이상타! 암튼 인터넷 세상의 ?

§늘봄§ 05/15[15:19] 성화에 못이겨 떠밀려 서명합니다^^정말 수고하시네여~~~무어라 감사해야 할지 심심한 사의를 포함니다...해해...사실은 정부에서 나서서 해야할일 아닌가요???암튼 우리40~50대 화이팅^^

날~개 05/15[15:22] 전 피플 475에 자주 들락 거리는 40대인데요... 전 그냥 작업이나 다른일 할때 이방송을 듣죠....특별히 대화방에서 듣는

게 아니구요..

서귀포*~* 05/15[15:33] 참으로 좋은일 하십니다 c님! 맘은 있으나 쉽게 나서기가 어려운일일텐데...앞서 가시는 녀들의 캠페인 팻~팻 밀어 드리겠습니다. 4-50음막세상 좋은세상이지요 I LOVE YOU^&^

하르 05/15[15:36] 말로 말하면 뭐해요 당연지사죠

설래임 05/15[15:40] 4-50대 음악 세상에서 수고 하시는 시제이님들.

설래임 05/15[15:44] 4-50대 음악 세상에서 수고 하시는 시제이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좋은음악 들려 주시고,정말 존경 합니다.이비뿐 세상에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으로인터넷에 주눅든 우리 4-50대를위하여,힘스시는 우리 씨제이님들 정말 존경 합니다.

누리♫ 05/15[15:49] 예고~~ 저 한참 해메다 왔어요~ 좋은일이라면 언제나 참여를 해야죠~~모두~~ 화이팅 하시고 행운이 듬뿍 따르길 빌께요

하얀울타리 05/15[15:49] 정말 수고하십니다,,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시제님들덕분에 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기♫ 05/15[16:03] 늦게나마 동참 할수있어 감사 하구요 늘 수고 하시는분들을위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페인터s 05/15[16:34] 이구 귀송해여 저역시 동참합니다요 그리고 답변란 관리자님이없애주시소^^*

마리 05/15[16:41] 저도 당연히 동참합니다.4050음악방송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줄립다아빠 05/15[17:00] 우리아들ID가 줄립다랍니다. 나도 즐기고있긴하지만..

히아신스 05/15[17:31] 나도 동참할랍니다~고맙구요~항상 잘들구 있답니다 .오류르의여왕 잠미의 계절에 더정열적으로 음악방이 불타올랐어면 좋겠네요

산들바람 05/15[17:39] 동참합니다. 4050음악방송 "화이팅"

자유인 05/15[18:03] 자유가 있고 자유스러운 인터넷 세상에서,방중

하지않는 참 자유인으로 동참 하겠습니다!

할수있다 05/15[19:10] 저도 미약하나마 동참해서 밝은세상을 만드는데 한몫을....

파란하늘 05/15[19:19] 어느날 새벽, 우연히 알게된 음악세상, 항상 좋은 음악 감사드리고..무조건 동참 할게요..^^*

수정 05/15[19:26] 건전한 인터넷 세상에서 음악과 함께 할수있으면 하는 바램 저도 간절합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c님들과 함께 항상 즐겁게 반듯한 인터넷 문화를 접하고 싶어요...좋은일 많이 하시고 항상 밝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만드는데 저도 동참합니다

평정 05/15[22:32] 늦어 송구스럽네요..건전한 인터넷은 곧 인터넷을 문화를 평정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사공. 05/15[23:12] 인터넷을 알고 음악방을 처음들어와서 반겨준곳이 여기 입니다....편안하고 느낌이 좋았어요..이쁜 마음과 아름다움을 만들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더욱 좋았습니다...첫사랑과 같은 곳입니다..잘은 몰라도 열심히 동참하고 참여 하겠습니다....여기 아니면 갈때도 없어요...아주 고마운 곳입니다.감사 하며 감사 드립니다..

새벽 05/15[23:39] 당연히 동참해야죠...ㅎㅎㅎ 수고하세요..

바람 05/15[23:39] 네 인생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인터넷 많이 배워야 해요 전 요사이 하드웨어 공부 하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통신에 관한 모든것 올려 드릴게요 그냥 사용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지에 대하여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올려 드릴게요 그럼 이만 *입니다

한백사랑 05/16[03:20] 늘.항상 생각은 많이하지만.뒤 늦게나마 동참하니 기분 뿌듯하네영....인터넷 좋은거죠... 단 활용을 잘 한다면, 물론 많이 알고 계시는분.그리고초보자님들, 이런 걸 없애고 서로 서로 공유하면서 수평을 이루길 바랄 뿐입니다... 많은 대화및 인간 우대 관계가 우선이라 생각 됩니다...서로 아끼면서 사랑 할수있는 음악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꾸벅

천지 05/16[03:51]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여기에 들르게 되

었는데,

천지 05/16[03:54]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천지도 동참하겠습니다. CJ님들 늘 즐겁고 행복하세요...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원시인 05/16[11:09] c님들 수고 하시구요 계속 좋은 음악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원시인 05/16[11:10] 예궁 글을 다 마치기 전에 글이 올라가 버렸네요 좋은 일에 동참하는건 생각만으로도 좋은일이죠

마리아 05/16[13:43] 인생님,비올레타님,가인님,루루님,우리에쁜효조님과 다른c님 념 수고하십니다. 암튼 좋은 일이라 생각하구 동참합니다. 4050음악방 c님들 화 이 팅!!!!!!!!!!!!!!!!!!!!

鸞峽茶棗鴉 男便 05/16[15:15]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동참하겠습니다. 좋은일이니까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찌그렁박상 05/16[15:17] 인생님! 저도 4050캠페인에 기꺼히 동참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행 05/16[15:34] 좆으면 술이나 한잔먹고 잃어버리든가?.....에고.....술먹자니 머리가 더 아프고 여행하자니.시간과 경비가 들어가고.....음.....그럼 인터넷으로 여행을 떠나자.....또 다른 세계를 찾아 떠나봅시다.....

이오 05/16[16:37] 인생님 ! 그리고 c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이 하십니다...

물욕잡화 05/16[17:18] CJ님들 고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4050캠페인에 동참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힘내시라고 말하고 싶네요 "화이팅"

우리백조 05/16[17:41] 잘못 눌렀나? 어디 가버렸네요? 다시 씁니다...동참합니다..항상 우릴위해 애쓰시는 cj.여러분께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날이 우리의 공간이 발전하고 건전하게 유지되길 바라면서 저도 반성해봅니다..난 오늘 인터넷으로 무엇을 했는가???

내일에희망 05/16[17:42] 오늘방송하는법을 배우고 잇엇답니다.. 홈페이지 만드는것을 어떻게 배우나요.. 배우고 시퍼여....ㄷ

푸른솔 05/16[17:44] 좋으신 캠페인에 저도 동참 합니다..더 좋은 잇는 4050이 되시기를요...

솔솔 05/16[18:30] 앓..쑥스럽군요..동참은 안하구 음악만 들었는데..앞으루 잘 할께요..^_^..

제로 05/16[19:30] 열심히 참여 하겠습니다

더부러모두 05/16[20:17] 더부러모두 공감합니다..!!

넵프 05/16[23:09] 수고하십니다여~~^^*

테레사 텐 05/17[00:13] 인생님 여기 이곳을 못찾아서요 참으로 이틀이 걸렸어요 저 역시 도와 드려야죠 홍보 요원이라구요 그럼요 저도 네티즌 한사람으로서 동참하고자 합니다 전 일어공부에 넘 도움을 많이 받고 잇어요 목표 잇는 인터넷 생활 정말 보람되고 권장 할만합니다 제겐 너무나 소중한 교육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구 잇답니다 그럼 인생님 수고 하시구요 조그만 도움이 된다면 너무 즐겁겠읍니다 대구 테레사 ?

풀꽃 05/17[02:15] 4050 음악세상의 회원은 아니지만 음악만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좋은 뜻에 동참입니다...

콩꼬물 05/17[04:59] 인감 도장을 잊어서 좀 늦었네여^^* 꾸~~육 놀랍니다 화이팅~~~

아웃싸이더이지만 기꺼이 동참하며 더욱 발전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보 05/17[08:08] 이상하네 첫날 나도올렸는데 ???

,또보 05/17[08:18] 괜이 열받네.....

,또보 05/17[08:19] 왜 지워졌을까

,또보 05/17[08:20] 이제 내서명 없이는 지우지마세요.....우썬~

할미꽃 05/17[11:10] 십년후에 이방 함께 지킴이가 되면 포상도 하나요? 하하하! 좋은음악,아름다운시간 아낌없이 주셨으면....서명끝

하얀해변 05/17[12:59] 멋진 운동이네요. 건투를 빕니다

또보 05/17[13:58] 난 이제 컴한지 6년 이제 요고 컴없이는 못살아

저는 자영을하는데요 정말 가게 지키기에는 진짜 좋아요 ^^*

깔루아 05/17[14:07] 며칠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캠페인에 동참하기를....

시마 05/17[22:26] 우리를 선세대 아닌 낀세대로 발전 하시길 기원 하나다 충성!

이영희 05/18[00:02] 캠페인 하는줄 몰랐어요.좋은일 많이하시고,복 많이받으세요,

노랑스카이 05/18[08:27] 좋은 생각입니다.....하지만 사실 어디서 부터 무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작은 떨림과 두려움이 밀려오는군요... 하지만 여러분들에 도움으로 천천히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씩 배워서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날이 올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힘을 주시는 4050음악세상 가족 여러분과 씨제이님들에게 감사합니다.....여러분 우리 모두 힘냅시다..

또보 05/18[08:38] 누가 아무도 안하는겨 이론..... 전부 다해여~~

모모 05/18[10:05] 전 4050방에서만 있었지요 지금까지 정보교환보담 더많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취지가 잘 이행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바다 05/18[13:26] 컵으로 세상을 만나면서...사는 즐거움을 알았습니다....40-50음악 세상으로 인해...같은 세대를 함께 즐길수 있다는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무어라 말할수 없을만큼...c님들께 감사...또 감사드립니다...40-50음악세상 화이팅!!

당신 05/18[18:32] 찬성합니다

美淚[泪] 05/19[01:39] 30대인 저도 동참합니다... 기운들 내세요..

피리 05/19[02:45] 저는 집에서 사이버증권거래를 합니다...매일 남들이 신청하신곡을 즐겁게 배불리 드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c님을 수고많으시구요.....항상 감사합니다...건강하시기를....(모든일엔 음악이 활력소!)

한마음 05/19[03:33] 40-50대 음악세상의 앞 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면서..한 마음 도 여기에 좋은 마음으로 흔적을 남겨봅니다.....

이래서 ...아직은 살만한 세상 인가 봅니다....힘 내시길 바랍니다..^^

서라 05/19[05:45] 저는 왜 이렇게 쉬운 것도 잘 못해서 이제야 서명을 하는지....그래도 늦게하나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해요

서라 05/19[05:48] 할말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엔터를 쳤어요..[우리] 선배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라도 따라가서 동참 하고 싶어요..ㅎㅎ

돌돌리 05/19[11:06] 먼저.cj님들께 엮드려 사과 합니다...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제눈에긴 때를 씻어야 겠습니다.부끄러운 일입니다.그리고. "인생" 님 고맙습니다. 마니 마니 힘드시져!전 컴 초보입니다. 진정 10년 후엔 음악세상4050 이 저의 인생노트가돼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그저 ...채팅하면서 타자연습이나 해야지.했는데...정말 전 오늘 엄청 .감격을 안고....맘을 다잡아봅니다.정말 이제부터는 한모퉁이에서 기도 못?

북향기 05/20[17:32] 40-50대 음악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서명해야지요저는 컴초보입니다40-50대의 자존심을 지키시는 cj 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더욱더 발전되는음악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진정으로 서명합니다

나드리 05/20[21:44] cj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항상 음악과 함께 할 수 있고 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마니마니 사랑 할거예요.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전을 멈추지 않을겁니다.

이대로 05/21[02:50] 스카이라브, 이대로 방장입니다 인생님을 비롯해서 모든분 수고 만으신줄 알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드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40-50대 음악세상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항상 CJ님께 감사합니다 스카이라브 40-50방을 건전한 방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인생님 감사합니다.

야생마 05/21[02:54] 오랜만에 이렇게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네요. 참으로 오랜만이에요.40-50대 음악세상은 20-30 대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들이 10년후에40-50대가 될때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12년동안 컴퓨터를 해왔지만 처음 몇년은 신나하고 뿌듯해 했는데지금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걸로 남의 돈을 받아가며 생활해야하는제자신이 비참할 때가 있습니

다. 매일 수?

진영칠성 05/21[08:45] 가식없는 씨제이님에 음성이 어느한적한골짜기 어린소녀의 귀여운 동요처럼 들려오네요 이시간에 하는씨제님 감사

홍사미 05/22[20:31] 몇번째던가? 이 사이트에 들어온뒤로 40-50 음악세상을 즐겨 듣습니다. 좋은일도 많이 하시고음악도 좋고.....좋은님들도 많고.....물론 저도 동참이죠

dawn1224 05/22[21:54] 40-50대 음악세상으로 인해 제 저녁시간이 여유로와 졌어요

토끼 05/23[09:04] 좋은일은 무조건 동참..노래도좋구..씨제이 목소리도 넘 좋구요..하루가 즐거워요..매일수고??

1004 05/23[12:29] 4050 !/ I am agree for your idea. / And I think, your idea is very good./ Sorry, my keyboard have problems, so only English typing./ Good luck. and God bless for 4050 members.

감자바우 05/23[17:00] 아침저녁이면 제일먼저 자연적으로 헤드폰을 쓰게되는게 습관처럼되었네요.루루님.인생님,하진님,비올레타님...CJ분들 넘 수고가 많으십니다.음질도 다른 음악매체에 뒤지지 않는 괜찮은 방송 인것같습니다.앞으로 이 방송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릴날이 멀지않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저도 4050음악세상저도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CJ님 화이팅,4050음악세상 화이팅

아카시아향기 05/23[18:52] 일주일전 사택 형님(이웃사촌)으로부터 이 방송을 소개 받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카시아향기 05/23[18:54] 참 좋은일 하시네. 감사합니다.

바우 05/24[11:58] 바우도요, 사실 이제 알았네요.4050 알은지 이제 겨우 한 보름정도...암튼,저두 끼워주심 감사드립니다... 글구, 이렇게 하면 동참이 되는 건지요?.. 많이 가르켜 주십시오

서방님 05/25[02:43] 만나서 반갑구요 십년은 기대가 되구요 오 늘동참합니다

그린 05/26[14:47] 역시 멋진곳이네요.....^^ 저도 국민된 도리로 한표..... 아니 음악세상의 청취자로서.....

한우리에 05/27[08:26] 왜 이런 사이트를 진작 몰랐었을까 ? 운영진
님들의 고마운 마음 간직하고 힘자라는데 까지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산노을 05/28[01:54] 음악세상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합니
다.....

telos 05/28[03:23] 안녕하세요 음악세상을 함께 한지도 벌써 10개월
이 다 됐네요 물론 동참하고요 저도 홍보요원 될게요.앞으로 많은 발전
있길.....

imkooya 05/28[03:32] 안녕하세요.우리 음악세상 을 모르는 분이 없
을정도로 유명한 인터넷 방송이잖아요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cj님들 힘내
요. 파이팅^^

우리 05/28[04:18] 여기 까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올렸습
니다전 서명은 벌써 했는데 오늘은 몇명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또흔적을
남기면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될까 싶어서요^^넌 궁금하다 967명정도 될
것같은 예감 때문에^^모두 동참해요 어서 우리처럼 ^^

dodo 05/28[04:36] 늘수고하시는 인생님 또 여러 cj 님들 고생많으세
요 저두 서명운동에 동참합니다

사랑하는 05/28[12:12] 여러 cj님들덕분에 편한 방송 잘듣고 있답니
다 인생님의 좋은 뜻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

레드 데빌 05/29[03:15] 인생님 외 모든C님들께 고마움을 항상 느낍니다

나누리 05/29[07:39] 인터넷을 통하여님들의 조건없는 나눔에 감사 합
니다.인생님을 비롯 모든.cj님들에게도 찬사를 보냅니다.행복하세요.^~

버들개비 05/29[11:39] 40-50대가 인터넷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luvekorea 05/30[10:06] 저 역시 동감 프러스 동감입니다. 인생님의 글
을 보니 마치 몇백년 전 미국의 서부 개척자들의 결연한 개척정신을 보
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님의 새로운 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난나 05/30[19:36] 인생님, 화이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애써시는 4,50대 CJ님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모범적인 인터넷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안나 05/31[05:06] 저도 동참합니다

이순필 06/01[17:20] 40 ~ ~50음악세상 c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 이 텅!!!! 촛불은 자기몸을 태워 주위를 밝히듯이 c님들의 사랑으로
40 ~ ~50음악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음악이 있기에 행
복한 세상 ~ ~ ~ ~ 동참합니다

문태석 06/02[00:54] 인생의 중심에서 아래와 위를 넘나들수 있는
우리 475세대가

문태석 06/02[01:08] 인생의 중심에 있는 우리 475세대가 아래 세
대를 올바른 인터넷 예절을가르치고 , 인터넷을 모르는 윗세대를 올라
인상 으로 모시고 오는 가교역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40-50음악
세상c님들 !힘 내세요.성공 하시길 기원 하겠읍니다.그리고계속 지켜
보겠읍니다.지화자!

kimPD 06/02[04:24] 저도 인감으로 도장 콕 찍습니다

미소티 06/04[23:03] 5월캠페인은 가족이 체트방을 함께 찾을수있는
확실한 명분을 주신것같네요.4050음악세상의 방송취지가 좋아서 머물렀
던 음악방인데 이제 음악방에 머무는 이유가 좀더 분명해졌어요 4050
음악세상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이대로 06/06[14:09] 이대로,,1997년 인천 시장님께 표창을 받고
소년가장을 10년가 도와주었서요 시장님께표창을 받고 이대로 면함없이
만은 분들께 편안한 생활 과 봉사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대로 쓰기시작 했서요 지금도 이대로 변함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0-50대음악세상에 상호간 존중하면서 정다운 대화 즐거운 음악
이대로 10년 유지 하렵니다

L . B & 가 교 06/07[23:31] MSN 음 악 세 상 시삽입니다 늦게나
마 서명에 동참함을 미안 스텝게 생각하며.../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임의 모든 분들...여러모로 감사를 드립니다 / 이렇게 많은 성원이 있
을 줄 몰랐습니다 / 앞으로 더욱 더 올드맨이 인터넷에 분명한 자리메
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힘차게 느껴 봅니다 / 다시 한번 깊은 성
원에 감사를 드리며... /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요즘... 통 신경을 못 썼습니다 /

L . B & 가 교 06/07[23:37] cj 님들의 무안한 수고스러움에 수많은 찬사를 보내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유유이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보에 06/20[13:14] 40/50 음악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처음에 신문에서 이곳 사이트 기사를 읽고 무턱대고 뭔지도 모르고 대화명에 등록하고나서 40/50의 이용방법도 현재로서는 잘 모르는 상태라 뭐라 말씀은 없으나 서명을 하라 하시기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명을 합니다. 사실 서명하라는 공지문도 오늘에야 보았습니다. 서명 안하면 내◎길까봐 합니다. 저는 컴 초보라 음악듣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산사랑 06/21[18:45] cj선생님 여러분들 복 받으시길 정말 이시대에 좋은 일들 하십니다힘 내세요 저희들이 있잖아요!!!화~이~팅!!!!

행복36 2001/5/28(월) 04:44 서명..뭐가뭔지 이해가 안되지만 모두 반가워여..저두읽어 봤지만 뭐를 서명하려는지 이해가 안가서 아무글이나 적어 봅니다40-50대 음악세상이 10년 목표달성 하리라 믿습니다.그러나 모든님들이 끝까지 지켜봐 주시지 않으시며는 달성은 힘들거라 생각 합니다..저두 홍보에 앞장써서 더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10년목표 달성을위해 파이팅 인생님 전화 리퀘스트 24시간도 전두 성공도 빕니다

:탐라왕손 2001/5/15(화) 19:27 4050음악세상 홍보요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도 서명을 합니다 무척 바쁜 일과로 오늘 에서야 잠시 들어 와 봅니다 세상에서 이런일 하시는 분들도 몇명 없으실 겁니다누가 월급 주는것도 아닌데 우리4050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음악과 사연을 읽어 주시고,음악 보내주시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저도' 4050홍보요원'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팟넷475동호회 시삽 탐라왕손 올림

가산 2001/5/14(월) 22:23 저도 당연히 참여합니다 저도 당연히 참여해야죠 나도역시 회원이니께요 감사합니다

이뿌니 멋쟁이 05/15[00:03] 40-50 음악세상 CJ님 감사합니다.

나라 05/15[11:40] 40-50 세상과 회원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임경이 05/15[12:55] 40-50대 음악세상 시제이님들 노래 너무 감사 하구요.수고가 많으세요, 어떻게 서명하는지요. 저두 서명할게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주부여요 노래 고마워요.

발그미 05/15[18:57]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인터넷 이라는 세상이 익숙해진것 같습니다만 넓고 넓은 큰바다에서 아직도 한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것 같아서 열심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을을 하루같이 힘써주시는 CJ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동참할것을 서명합니다....
딱! 딱! 딱!

녹차향기 05/16[03:11] 이렇게하면 서명이 된건가요?

녹차향기 05/16[03:12] 예구 글을 더쓸 공간이 열리는 것을 몰랐네요..

비와чат잔 05/16[09:40] 가산님 안녕하세요 요기에서 가산님을 만나 뵈오니 너무 반가와요 모든애청자들이 서명에 참여하는데 당연히 비와 찻잔이두 참여하려고 들어왔다가 가산님을 뵈는 순간 뭐랄까???? 하여튼 반가와요 항상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항상 좋은음악을 주시는 인생님 효조님 비올레타님 가이님 루루님 감사해요 항상 좋은 음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40-50대 음악세상 5월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방송으로 멘트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제1부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실겁니까? 제2부 인터넷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3부 인터넷으로 오늘 무엇을 하셨습니다니까? 이 말은 결국 방송을 하고 있는 CJ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었으며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신청곡과 사연을 들으면서 순간 순간 내가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인터넷의 하루를 돌이켜 보는 그런 24시간 방송이었

습니다.

이 방송 캠페인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것이 10년의 약속 첫 번째 작은 실천 대화명 지키기가 시작 되었고, 10년의 두 번째 작은 실천 가족홈페이지 갖기가 시작 되고 있습니다.

결국 40-50대 음악제상은 24시간 무엇을 할것인가를 위해 서로 고민하고 정말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의 주인공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행동하고 도전하는 방송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장 생방송 임진각에서

10년의 약속 첫 번째 작은실천 대화명 지키기

40-50대 음악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10년의 약속 대화명은 계속 될 것입니다. 40-50대 음악세상을 지키는 CJ 대화명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건전하고 믿고 신뢰하는 인터넷 채팅문화에서 자신의 얼굴과 인격으로 대화명이 만들어져 지켜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본인이 이름을 만들 선택권이 없지만 온라인 세상에서 대화명은 자신이 짓는 제2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대화명을 만들어 평생을 호적에 이름처럼 가지고 생활하는 40-50대 음악세상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40-50대 음악세상 대화명 등록 캠페인

40-50대 음악세상 캠페인 40-50대 건전한 채팅문화 만들기를 위하여 그 첫번째로 대화명등록 캠페인을 펼칩니다.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의 바른 대화명 갖기와 대화명 10년 사용하기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40-50대 음악세상 10년후 2011년 등록 된 대화명에 도전합니다.

대화명은 채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나의이름입니다.

등록방법

10년의 약속 대화명 게시판에 대화명을 등록해 주십시오 제
목란에 대화명을 써주시고 사연란에 대화명 소개와, 성별, 나이
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10년의 약속 대화명 등록번호와 대화명 그리고 이메일 남녀
성별 나이를 소개드립니다.

1인생	남50	wing21@wing21.co.kr
2비올레타	여43	ppph1@yahoo.co.kr
3봄햇살	여37	mijan@netian.com
4아이리스	여43	btfyj@hanmail.net
5빨간장미	여43	bachoi@dreamwiz.com
6도도	여48	dodo2004@hanmail.net
7애란	여43	gojhs114@hanmail.net
8탐라왕손	남48	m4001@paxnet.co.kr
9쥬니베로	남44	grate5@know4u.ac.kr
10나의태양	여36	skdmlxodi@sayclub.com
11사랑하는	여	yibbunna@freechal.com
12허일구	남43	h590113i@freechal.com
13해기	여42	wogioc@hotmail.com
14로코	남44	nipark@pilliptech.com
15하얀길	여40	aehee62@hanmail.net
16난나야	여	ses3562@hanmail.net
17능소화	여	oioiop@netian.com
18코빅	남	kovic@wingkorea.net
19희야	여31	ninanim@naver.com
20나그네/등대	남44	han@tomitech.com
21세린공주	남40	lily7089@hanmir.com
22깊은물/맑음이	여43	kis0612@yahoo.co.kr
23가인	여42	jasmine60@hanmail.net

24송송	여45	wmcap@hanmail.net
25여행	남	thdsoehd@hanmail.net
26해	여40	klahn69@netian.com
27바람	남43	twists@hanmail.net
28담보	남	soad6742@netian.com
29하얀목련	여45	damyung2@hanmail.net
30참솔바람	남47	pinusden@yahoo.co.kr
31푸른청솔	남50	cjs751@lycos.co.kr
32진아	여36	2411718@hanmail.net
33정희	여41	dudmlwn@hanmir.com
34참사랑	남	dksehdrnr@sayclub.com
35시그날	남41	grey5383@hanmail.net
36여우	여	redapple@i5425.com
37무지개여우	여36	rainbow_fox@hanmail.net
38미소티	여43	storysop@netian.com
39방콕아줌마	여43	ok1221@sbsmail.net
40준358	남43	joon8949@lycos.co.kr
41번개	남42	slbae@netian.com
42신기루	남43	leesepey@korea.com
43진솔	여35	djaak34@hosanna.net
44수정	여38	ksheui813@hanmail.net
45유성	남44	kwonjg58@hanmail.net
46하얀민들레	여42	jhm1102@hanmail.net
47콩꼬물	남43	rickyjsk@sayclub.com
48스칼렛	여39	ksh7314@sayclub.com
49사공	남45	kalon99@sayclub.com
50더불	남45	kori2@dreamx.net
51별님	남51	a0980s@hanmail.net
52달님	여46	a0980s@hanmail.net
53툼과제리	여41	Asdfas001@sayclub.com
54우리백조	여44	gsjs5292@hanmail.net

55갈색추억	여38	kjk2000@ewebmail.com
56이쁜이	여37	beutykwon@yahoo.co.kr
57등그라미	여48	cyh9724@sayclub.com
58아리랑	남48	xoghkdsia@sayclub.com
59등감	여41	qose1461@yahoo.co.kr
60꽃이파리	여43	heya943@hotmail.com
61비와차잔	여43	tomato3223@hanmail.net
62내일에희망	여44	dmstjs55@hanmail.net
63프리맨	남34	young3369@i5245.com
64눈굽다이	남45	kweonjh0604@hanmail.net
65덕팔이	여	actto100@hanmail.net
66스카플라	여	hak4748@chollian.net
67철수	남	jeong21c@freechal.com
68등대불빵빵	남	ka25se@yahoo.co.kr
69누리	여37	happy931@people475.com
70나막신	남40	namaksin@altavista.co.kr
71하얀비	여44	happ58@lycos.co.kr
72경종	남50	lkj894@yahoo.co.kr
73세상사	남49	m12n21@freechal.com
74철송	남41	chulsong__kr@yahoo.co.kr
75짱아	여49	dhtnskr@yaoo.co.kr
76수지	여	skysea301@yahoo.co.kr
77헵시바	여43	ksr21@simmani.com
78등대	남38	HANS2@HITEL.NET
79와이젤	남52	yje1957@sayclub.com
80가을밤	남49	rlatjrjcf@tjrjcf.net
81국화	여44	a441b@hanmail.net
82자유인	남50	ljo957@sayclub.com
83설구	남44	liquidsky58@hanmail.net
84나운아씨	여35	kimhaeyoung67@netian.com
85하늘비	여38	mongshilii@hanmail.net
86통통	남44	ljh1239@kornet.net

87곰바우	남46	sin1614@sayclub.com
88캔디	42	ys8416@sayclub.com
89사랑은행	여	kk1012@hananet.net
90또보	남47	ddobo55@yahoo.co.kr
91중년	남	hee1121@korea.com
92하진	남43	hjopro@hanmail.net
93안개꽃	여41	cms3133@netian.com
94난오늘	남44	jumn00@hanmail.net
95감자바우	남48	kwon8238@ulsan21.net
96지리산	남50	sunkwk@hanmail.net
97산사랑	남40	cartop00@yahoo.co.kr
98해피	여43	yager23@sayclub.com
99너좋아	남41	mookimch@netian.com
100잉카	40	fire201@netian.com
101폼맨	남44	bang@win21.or.kr
102설까치	남41	samhyuntech1@korea.com
103호리명령	남	ksj422@yahoo.co.kr
104채송화	여43	jinhong59@hanmail.net
105바다사나이	남44	bada@dolphins.or.kr
106강산	남	elexchoi@hanmail.net
107분홍신	여42	cha_hyang@hanmail.net
108아르미	여	tesa2000@freechal.com
109이니셜cbc	남	relayon@hanmail.net
110틀리	남	joodooly@dreamwiz.com
111감칠남	남42	gam7nam@hanmail.net
112이모작	남42	cyr1225@netian.com
113칠보	남	ourslife@hanmail.net
114코일89	남41	scring@scring.co.kr
115하늘사랑	남44	RLDUDN@hitel.net
116돌돌리	남42	ksunjn77@hanmail.net
117꽃돼지	여46	young6867@hanmail.net
118뿐지	여28	misun9907@lycos.co.kr

119꼬마천사	여42	dreamjjang@netian.com
120겨울햇살	여43	philhyun@dreamwiz.com
121도은사	남34	doeunsa@kornet.net
122잠미	여39	hee1501@sayclub.com
123자목련	여	lms9215@hanmail.net
124깔루아	여	baby74107@netian.com
125별송이	여44	ccho1698@hanmail.net
126알프레도	남41	cheolwbae@hanmail.net
127사슴	여37	1217jwhm@netian.com
128아다세	여45	ghkd9191@sayclub.com
129그린	남40	seven7979@hotmail.com
130발그미	여	light245@hanmail.net
131홍사미	남48	chjw117@hanmail.net
132차들이	남	yi5710@hanmail.net
133감지	여	simsimhe79@hanmail.net
134잠미	여42	plove9099@hanmail.net
135벼리	여42	pmh3330@hanmail.net
136립다기	남46	hankj@kebi.com
137간다천사	여	jookk@hanmair.com
138비파	여40	rndisp@lycos.co.kr
139할미꽃	42	greenyim@yahoo.co.kr
140여치	여41	babo8844@hanmail.net
141백합37	여	benedicta2@freechal.com
142뉴질랜드	남37	silkroad@ihug.co.nz
143향기	여42	jmkmlove2000@hanmail.net
144체리주	여45	jongk4@hanmail.net
145우수수	여33	susu30@hanmail.net
146하얀이	여45	hks0904@hanmail.net
147소연	여	aelee123@miclub.com
148동반자	여3	soung2201@orgio.net
149여정	여42	yso60@freechal.com
150헤세빈	남46	hebin02s@yahoo.co.kr

151소다	남44	wooson@wooson.co.kr
152정들하나		park2211p@sayclub.com
153할 수 있다	45	burger1982@freechal.com
154산호세	남49	oty00@hanmail.net
155부지깡이	여40	son0812@netian.com
156바다소년	남38	qwqwqw@samsung.co.kr
157설유화	여40	kmsfj1118@hanmail.net
158원시인	남39	jyk174@hotmail.com
159찐디	여50	tina3001@freechal.com
160파란하늘	여40	tjdc124@yahoo.co.kr
161유리섬	여38	sck2005@hanmail.net
162좋은만남	남44	hdc2586@naver.com
163비설	남48	yjs9150@hanmail.net
164벗	여40	dlathdnjs@freechal.com
165의딤섬	남42	kangrw2000@hanmail.net
166토끼서회	여38	cnswk1306@netian.com
167세월	남43	tongsaem@hanmail.net
168차있는마을	남47	skkk44@hanmail.net
169바우	여45	bear3636@netian.com
170향긋한차가움	여41	sa0002@hanmail.net
171happy	남46	jpchung1@netian.com
172들국화	여42	msk1959@lycos.co.kr
173설래임	남43	samho3592@hanmail.net
174자스민	여42	bban1219@chollian.net
175봄비	남36	k0454@korea.com
176스모키	남	hohojumoon@hananet.net
177고운	여47	chyoeun@hanmail.net
178창희	남49	changhee2209@hanmail.net
179박화사	남47	pks55@sinbiro.com
180긴눈	남49	changhee2209@hanmail.net
181시아	여40	cia61@hanmail.net

182별	남54	abcabcabcooo@hanmail.net
183솔잎처럼	남47	ysool262@lycos.co.kr
184수정3	여44	856390@hanmail.net
185초롱이	여54	jajumin@freechal.net
186절믄오빠	남49	j5bba@yahoo.co.kr
187비~원	남	deluxep@netian.com
188하늘	여40	open62@hanmir.com
189참쇠주	남	j595959@hanmail.net
190하늘위바다	여22	littlejow@pusan.net
191고황산팬더	남38	leeprcom@netsgo.com
192민토	여46	5861017@hanmail.net
193등네사람	남43	byunghwanssi@hanmail.net
194펜슬	여	suya88@netian.com
195로즈마리	여40	wltnah63@netian.com
196하늘	여	open62@hanmir.com
197시마	남	jhh745@hanmail.net
198짹	여	ljy1928@naver.co.kr
199가산	남48	sseock21@hanmail.net
200하늘위	남	koyoung-kim@hanmail.net
201버들개비	남51	kikhk1951@hanmir.net
202라이언	남	th_lion@yahoo.co.kr
203갈매기	남	gal50@hanmail.net
204난초	여35	phr818@naver.com
205오보에	50	wsws33@naver.com
206소홀	남50	qiwip@hanmail.net
207녹양	남	lee2372@hanmail.net
208들국화	여44	aabb33@sayclub.com
209나그네	남	hee6006@hanmail.net
210소나기	남	ineechoi@hanmail.net
211첼로	여	zayaa@sayclub.com
212연꽃루비	여	hays2525@sayclub.com

213개울	남50	choy7211@hanmail.net
214파란들0301	여35	rujha@netian.com
215볼로초	남62	kimyh40@yahoo.co.kr
216가교	남48	itmlb@hotmail.com
217평정	남47	jky0075@netian.com
218계영	남38	ggangno3@sayclub.com
219해뜨는집	남47	zzssoon@hanmail.net
220매신저	남42	212833@hanmail.net
221별가람	남48	sangrack@yahoo.co.kr
222바다의품	남47	ksy1148@naver.com
223새벽비	여39	sunghe63@sayclub.com
224금오산	남54	saetue2001@hmail.net
225그리움	여43	cute59@hanmail.net
226민트	여43	csw829@yahoo.co.kr
227고향길	남46	kims56@hanmail.net
228솔비바람	여42	g7334@sayclub.com
229상록수	남44	ksd0937@hanmail.net
230능금	여47	samanda55@sayclub.com
231대청봉	남48	osaek1@hanmail.net
232유심	남41	dongboya@dreamx.net
233멜로우	남39	su8287@hotmail.com
234모래섬	여37	yepost@korne.net
235루코	남44	dorucoj@hananet.net
236섬아찌	남45	y55555@korea.com
237한결사랑	여31	jsp71@freechal.com
238청춘여찬	남46	pcmin7@kornet.net
239아름	여46	enrudghkdlxld@lycos.co.kr
240낭만신사	남50	aptnews@intizen.com
241단비	여41	bys2609@.co.kr
242미미	여42	hyosoon12000@yahoo.co.kr
243작은악마	남27	acma@netian.com

244짱구얼마	여40	kangjil@kornet.net
245nenoma	남49	w1384w@kornet.net
246blue	남45	jck-5726@hanmail.net
247가브	남43	leeyeong590@yahoo.co.kr
248데이지	여37	llqueen@sayclub.com
249무비	여46	move66@hanmail.net
250you&me	남57	jouel@hanmail.net
251규희	여39	sp2011@netian.com
252베인	남41	kj2249@lycos.co.kr
253초나	여40	cks0724@hanmail.net
254우리	남43	dbwww@i5425.com
255행운	남45	luckyman@cnoe.or.kr
256수선화	남46	ba550@hanmail.net
257한발	남47	HMWHAN@HANMAIL.NET
258보석동산	남49	kl4455@hanmir.com
259산자락	남44	so4252@hanmail.net
260추억	남41	oaworld@multi-cav.co.kr
261메론황기	여41	namadam@sayclub.com
262하얀새	여40	hyunsuk0000@yahoo.co.kr
263행복한하루	여50	sujung0@i5425.com
264회문과	남45	atomkbg7@hotmail.com
265마부 2	남48	pshotgo@hanmail.net
66정다훈	남49	zikim@jdhealth.co.kr
267미미	여44	anes1098@hanmail.net
268고운이	여39	qqww3278@yahoo.co.kr
269자울	남39	jaoll1963@netian.com
270하늘소	남44	jyt1418@hanmail.net
271새천기를	남29	wawogood@freechal.com
272애니아	여44	suny1119@hanmail.net
273야기	여38	mirror63@hanmail.net
274추자군도	남44	kyj0101@lycos.co.kr

275한서방	남52	videographer@lycos.co.kr
276이오	남51	yun5112@hananet.net
277철수(45세)	남45	ws2335@hanmail.net
278설산	남46	kim54792001@naver.com
279까리부인	여43	kej5912@hanmail.net
280마리	여41	ulsanlady@hanmail.net
281예쁜하루	여31	sunhoon7@netian.com
282빛과그림자	남57	kdm930@hanmail.net
283가이아	여46	ystars@shinbiro.com
284이쁜스마일	여43	astar0@hanmail.net
285감수니	여41	kkjinh9@hanmail.net
286베르디	여42	dhfffl@hanmail.net
287구름	남43	sh9068@yahoo.co.kr
288민들레	여41	als0606@sayClub.com
289파배기	여43	sotnr2001@hanmail.net
290하얀별빛	여43	hsyd1218@sayclub.com
291박재희	남40	pl14jh@yahoo.co.kr
292일구(47세)	남47	eoek3328@sayclub.com
293왕오빠	남48	byun5406@sayclub.com
294가시고기	남44	sintri@hanmail.net
295보라빛안개	여43	kyh8042@hanmail.net
296무심	남49	kyg9090@hanmail.net
297지나게나	남53	hjn5213@hanmail.net
298아스파라가스	여40	nakimga@korea.com
299아카시아향기	남31	chea0512@hanmail.net
300러브레터	여51	kok7850@hanmail.net
301노고단	여41	so0112@hanmail.net
302커피한잔	여47	kew912@sayclub.com
303나리	남38	leeym333@hanmail.net
304소낙비	여45	genben@yahoo.co.kr
305대금	남47	k7647@naver.com
306존칭구	남40	carsoop@hanmail.net

307나루터기	남28	jlm2j3@hanmail.net
308말뚝무	남36	jip2002@hananet.net
309안개비	여40	03031874@nanmil.net
310가시버시	남40	alscjd81@hanmail.com
311불사랑	남33	saulim@hanmail.net
312들국화	여41	ch2466@netian.com
313포포연	여43	popo59kr@hanmail.net
314포인세치아	여39	mogabida@hotmail.com
315터구리	남47	jeonjoon1212@hanmail.net
316마음의고향	남45	csw1405@sayclub.com
317출발	남41	rose233@hanmir.com
318들국화	여40	kang9410@sayclub.com
319hyunok산섬	여46	khyunokc@i5425.com
320금낭화	여39	suhoshin@postown.net
321빈센트	남42	na410@yahoo.co.kr
322목계장터	남37	goimgwee@hanmail.net
323흙사랑	남45	Kjy8030@hanmail.net
324꽃비	여42	skygml@i5425.com
325계양산	남46	kgit@hanmir.com
326토끼풀꽃	여41	simyearn@hotmail.com
327솔향기	여39	12239514@hanmail.net
328가재	남39	green04@hanmir.com
329돛새치	남42	neptunekdg@hanmail.net
330목련화	여40	kuang@naver.com
331유리	여45	hee80715@hanmail.net
332좋은날	여36	dentai@hanmail.net
333들풀	여41	alstnsghd@freechal.com
334나민	여45	hsmsjkh@yahoo.co.kr
335유이	여49	dannywon@hanmail.net
336마테우스	남44	hdc2586@naver.com
337아침이슬	여46	www.youn1840@hanmail.net
338물안개	여47	pyys1004@sayclub.com

339미림	여36	sooyjang@hanmail.net
340노랑병아리	여47	gmh0725@freechal.com
341금붕어	여48	bnnga@sayclub.com.kr
342이서방	남43	esb@esb.co.kr
343파란마음	남38	moochak@hanmail.net
344물길	여45	wateroad@hanmail.net
345노을	여37	jjkka00@yahoo.co.kr
346발렌타인	남43	gwanho408@hanmir.com
347나무꾼	남47	kih4466@yahoo.co.kr
348떨나무꾼	남46	firewood217@hanmail.net
349원봉	남45	k113b@chollian.net
350향기나라	여42	sh5773@hanmail.net
351sosojin	여38	sosojin@i5425.com
352소라	여35	sora672000@hanmail.net
353아사몽	남44	kj2043@hanmir.com
354하상	남42	eljeong@korea.com
355레인	여43	bb1821@hanmir.comsk
356휘파람	남48	kbd3000@hanmail.net
357세라비	여44	kk0805@hanmail.net
358빈초	남47	yunsuson@hotmail.com
359설대치	남43	ceo@igudok.com
360빅맨	51	bm205@korea.com
361추승	남42	sanhow@lycos.co.kr
362설백	남46	hamoon@hanmail.net
363낭자	여39	16soo@hanmail.net
364세모시	여42	semosi@i5425.com
365배꽃	여40	yi100@lycos.co.kr
366바다마음	남46	gentle110@hanmail.net
367유리	여37	aksjall@lycos.co.kr
368소리	여42	ghkdgotnr@hanmail.net
369감꽃	여32	myguing@netian.com
370여유	남45	jskcio@hanmail.net

371난향	여50	sujung0@i5425.com
372터프	남50	iyss7@freechal.com
373겨울	남45	pdh325@kornet.net
374꿀피리	남43	waterham@netian.com
375노을	여41	hso7822@freechal.com
376이방인	여34	bsh0052@sayclub.com
377바다	여38	sunlm64@freechal.com
378레모나	여33	cosmosuni@korea.com
379하늘호수	남48	elmino@i5425.com
380추억43	남44	khk6023@korea.com
381들꽃	여38	dltmfd138@skylove.com
382프렌치	여40	sook2784@hotmail.com
383미소	여47	jinbat708@hanmail.net
384수선화	여41	mihyang61@yahoo.com
385비비추	여50	chjhjh@hanmail.net
386라비타	남42	chch8741@sayclub.com
387행복2000	남43	romeozja@yahoo.co.kr
388시아	여40	tigerine@hanmir.com
389설화	여37	choi6033@hanmail.net
390아카시아향기	여40	whang619@netian.com
391침향	여44	chl-dhr@hanmail.net
392산수화	여55	ds5jsf@sayclub.com
393노랑스카이	여35	kung4224@netian.com
394하늬	여39	jeonjoon1212@hanmail.net
395하늘위	남38	koyoung-kim@hanmail.net
396무영	남47	jong9985@naver.com
397들나리	여37	bird0345@seefriend.com
398여울샘	여34	sudabang@korea.com
399참나무	남40	oaks@hananet.net
400구레나룻	남48	michaelkang33@hotmail.com
401해성	남42	jutael1@hanmeil.net

402곰발바닥	30	mypark925@HANMAIL.NET
403파스텔	여41	eden@bluestar.co.kr
404시사랑	여45	pellia@yahoo.co.kr
405목화아가씨	여43	mokwha2@yahoo.co.kr
406맹순	여40	rutqnf@hanmir.com
407남도머슴아	남46	jsh1332@hanmail.net
408울산현철	남44	mhc2000@kornet.net
409땅콩	여44	my5813@.sayclub.com
410뻘다꿀	남47	wmdsgr@hanmail.net
411종팔이	남31	cysoccer@daum.net
412청마루	남56	jsr47@hanmail.net
413책뮤직	남43	stampw@kornet.net
414여울	여37	hopesj01@dreamwiz.com
415기쁜우리	여39	isoryhouse@hanmail.net
416비비	여41	kii1982@hanmail.net
417스타렉스	남44	starrex@7396.co.kr
418별바라기	여44	seedia@hanmail.net
419초동	남43	soaam@orgio.net
420미소	여45	kl561@hanmail.net
421푸른별	남46	onamgi@say.com
422정민	남48	sdsuns@hanmail.net
423국향	여40	ksun0523@yahoo.co.kr
424풍운	남42	ccs2001@korea.com
425정선화	여47	www.@i5425.com
426야생마	남42	chonc516@hanmail.net
427헤미	여36	k7461@netian.com
428선비	남43	shvc59@hanmail.net
429최고봉	남44	eskybong@netian.com
430녹색향기	남40	ds5xma@hanmir.com
431호반의도시	남44	li0100@hanmail.net
432우리사랑	38	welove0928@hanmail.net
433은빛과도	44	ksoonsim@hanmail.net

434하얀눈꽃	여44	eunymom17@hanmail.net
435하늘새	여41	isfd@lycos.co.kr) (41 여
436참	남48	jkmin54@hotmail.com
437대연	남46	deayuen@hanmail.net
438인생열차	남45	wldus92@yahoo.co.kr
439멜로디	여39	heeju914@hotmail.com
440감상	남34	pmnsm22@netian.com
441바우지니	남43	gh57k@hanmail.net
442헤라	여38	hera_64@hanmail.net
443고설	남30	korsul@hotmail.com
444향연	여38	sh8399@hananet.net
445통일열차	남45	cjinho99@chollian.net
446리베라	남41	5745071@hananet.net
447김피디	남40	bcnkimpd@bcn.com
448소망	여33	rudnf-1@hanmail.net
449소녀	여46	hearan0102@hanmail.net
450천사지기	남30	jtk1214@kornet.net
451바담	남45	enskorea@unitel.co.kr
452강돌이	남45	lfj0810@hanmail.net
453거엽객	44	kkk1214@netsgo.com
454em55	남55	em47@hanmail.net
455여인아	여41	pah3535@hanmil.net
456하늘빛사랑	여40	gin5164@hanmail.net
457초우	여34	hhs1230@yahoo.co.kr
458아나타	여46	anatta@freechal.com
459야화	여37	mi3867@netian.com
460서귀포	남43	subsea@hanmail.net
461금돌이	남45	dbwodms@kornet.net
462행복36	남37	ui0989@shinbiro.com
463유아성	43	wls2001wls@sayclub.com
464푸우	남49	gsm031952@hanmail.net
465길벗	남45	jre2@netian.com

466가을하늘	여35	thwjd67@netian.com
467까망호랭이	남39	ssolbaram@sayclub.com
468뽕할매	여36	kiss-44@hanmail.net
469벼리	여45	anjacola@hanmail.net
470꽃돼지	여46	sky9709@sayclub.com
471행운2207	남47	gimsj2000@lycos.co.kr
472생노병사	남52	ref777@hotmail.com
473나는곰	남44	gil9495@hanmail.net
474스카이	남42	minkmook@hanmir.com
475울리	여41	kss0626@netian.com
476뿌리기폰구절초	남43	mysl000@hanmail.net
477괘상도머슴아	남40	lebokyu@hanmail.net
478아라리요	남49	lkite2000@yahoo.co.kr
479행복33	여47	lyh77x@hanmail.net
480보안관	남45	j-koo57@hanmail.net
481온시리움	남33	kurolamp@hihome.com
482오솔길	여45	vnfmsgksmf33@yahoo.co.kr
483소나무	여38	happymyeong@sayclub.com
484에버그린	여40	ire3927@hanmail.net
485초록공간	남38	jeep65@sayclub.com
486일지매	남45	dlfwlao112@say.com
487꽃이피네	여48	limkn53@hanmir.com
488어린별	여43	orion991@hananet.net
489수색대	남40	kennedy4501@lycos.co.kr
490시냇가	여35	sy203@netian.com
491연어	남36	khj2058019@hanmiall.net
492참사랑	남39	cchhoosc@netian.com
493왕초	남44	mount44k@lycos.co.kr
494아바론	남46	sunggugu9@sayclub.com
495카나리아	남30	pcas2000@korea.com
496비마	남46	s9181@korea.com
497서귀포항	남43	pjh2929@hanmail.net

498항천	여43	kyenghel@hanmail.net
499오렌지	여39	sml1019@yahoo.com
500아이쿠	남40	toin1219@hanmail.net
501해마루	남38	haemalu@hotmail.com
502슬기	여33	lovejazz32@hanmail.net) (33 여
503하날	남55	kimsk47@hotmail.com
504참우리	여52	chamwori@netsgo.com
505아이디	남57	assz@dreamwiz.com
506들잠미소녀캔디	여34	aedls@netian.com

지금까지 등록된 대화명입니다. 인터넷 세상 속에 건전한 채트문화를 선도하고 믿고 신뢰하는 커뮤니티의 주인공으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10년의 약속 대화명은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 속에서 사용되는 이름으로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등록된 10년의 약속 대화명을 가지신 분들과의 이메일을 통해 10년의 약속 대화명 엽서 보내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충분히 상대방과 신뢰를 구축하신후 10년의 약속 대화명 엽서를 보내고 엽서를 모으는 운동을 10년동안 계속 하려 합니다. 10년의 약속 대화명에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통해 서로 신뢰를 구축하신후 10년의 약속 대화명 엽서를 보내주시고 엽서를 받아보십시오. 10년후 10년의 약속 대화명 엽서를 가장 많이 가지신분은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멋진분이 될 것입니다.

10년의 약속 대화명 엽서 운동은 40-50대 음악세상 방송이 계속 되는 한 쉬지 않고 보내지고 받아야 합니다.

4050 게시판 돌아보면서

4050 게시판은 CJ들의 공지란으로 40-50대 음악세상을 청취하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글이나 40-50대 음악세상 CJ들이 펼치는 캠페인 내용들을 소개하는 곳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이 청취자 1위를 달린다는 것이 많은 부담도 되었고, 무료로 방송포트를 제공하던 사이트들이 유료로 전환되고 청취자수가 늘어나면서 방송포트는 부족해지고 24시간을 누군가는 체크하고 관리 해야 하는 일들이 결국, 누군가는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40-50 게시판은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에게 어려움도 털어놓았고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의 격려도 있었고 때로는 개인적인 인신공격도 있었던 게시판이었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에게는 이 게시판이 40-50대 음악세상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40-50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 40-50대 음악세상이 어떻게 이 방송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시판이었습니다.

4050 게시판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몇 개의 글을 소개 하면서, 지나간 글들을 통해 오늘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글들이 먼훗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사연으로 남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1/3/20(화) 03:21 40-50대 음악세상 방송을 왜 하는지

40-50대 음악세상 24시간 생방송 신청곡과 사연 중심의 방송 10년동안을 향해서 라는 그리고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과연 40-50대에게 이방송은 필요한걸까요.....

우리는 가끔은 어떤일에 몰두하여 일을 하다가도 문득 내가 왜 이 일을 꼭 해야만 하는거지? 내가 아니면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 무엇때문에 이일을 하는거지 할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꽃천사루루의 방송을 들으면서 루루님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을까? 루루님은 이 방송을 새벽에 7시간씩이나 컴앞에 앉아서 남편에게 눈치를 보아가면서 5개월째 비올레타님은, 또 오늘 신문사 취재때문에 경주에서 서울까지 자비를 들여서 올라오는 열정을 하루에 6시간씩 아니 어떤때는 10시간도 마다않고 방송을 하고 그것도 벌써 7개월을 효조는, 다리가 아픈데도 이 방송에 벌써 6개월째 몸도 성치 않은데도 상냥한 웃음을 잃지 않고 방송... 가인님은 낮에는 학교에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새벽 2시까지 3개월째로 접어든다.

인생, 너는 왜 40-50대 음악세상을 만들어서 비올레타, 효조, 루루, 가인을 고생 시키고 있는것 알고 있는지.... 누가 그렇다고 돈을 주는것도 아닌데...

이 방송에 목숨들을 거는지 우리 40-50대 음악세상 CJ들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미친 사람들인가보다 그런데 더 놀라는것은

음악세상 방송을 들어주는 청취자 아니 애청자 아니 우리음악 세상 가족들이다....

지금 시간이 새벽 3:03분 인데 68명이나 방송을 듣고 있고 신청곡은 끊임없이 올라오고.... 40-50대 음악세상 방송 정말 필요 한건가요. 이방송 없어도 안되나요? 세이에, 프리첼에, 각 사이트마다 방송이 수없이 많은데 이제는 40-50대 음악세상 문닫 으면 안되나

작년 이맘때 개인인터넷 방송을 듣고 이 방송은 20대들이 장난 삼아 재미로 취미로 하는거지 40-50대가 하기는 어렵겠군. 했던 것이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걸 작년 5월경인가 팬스레이 개인방송들다가 충격을 받는 바람에 이것도 방송인데 이럴수가 반말 에다가 욕까지 하면서....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그래서 시작한 방송이 이렇게 발목을 꼭잡고...오늘밤도 봐주지를 않는군요. 아침 8시30분에는 일어나야하고 갈때는 많은데 게시판 정리하느라 이밤을 세우고 게시판 많으면 뭐하나 글올리는 사람은 항시 올리는 사람만 올리는데...

3월25일 사랑의 헌혈 캠페인 백혈병 두어린이의 사진과 사연을 보면서 대학로에 과연 몇명이나 나올까? 회원이 5개 각 사이트 다합해서 900명이니까 10%로 봐서 90명 나올까 ?

아마 20명 나오면 많이 나오겠지 이 나이에 40-50대 음악세상 만들어 우리 CJ님들 고생시키고 3월 25일날 사랑의 헌혈캠페인 한다고 팬스레 방송듣는 여러 사람 고생 시키는건 아닌지 루루님 미안해요. 그리고 비올레타님도 효조님도 가인님도 그리고 이방송 듣는 여러분께 여러모로 미안합니다. 잠도 못주무

시게하고.... 인생이 빨리 떠나야지 지구를 지구를 떠날때까지
참아주세요...

언젠가 지치면 방송 그만두겠죠... 내일 지구가 멸망 한다
고해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요... 글썄요 나는 모르겠
어요.. 어떨지 ...

오늘은 오후 비올레타님 방송은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메꾸어
야 하는군요. 내일 오후는 꿈쩍없이 방송을 해야 겠군요. 나
혼자 고생하는것은 팬잖은데 이것참 갑갑하기만.....

누가 명쾌한 답좀 주세요. 이 나이에 정말 미친사람은 아닌지
인생이....

이름:hlmyr (hlmyr@hanimail.com) 2001/4/23(월) 15:03 눈물 이
날 것같군요.

부러움에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땀에는 그토록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밥줄과 연관이 되면서부터 더이상 즐거워 지지 않았습니다.순수함의
열정도 많이 죽어갔습니다.

더이상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질은 패배감으로 강릉으로 이사 온지 일 년
이 조금 못 되었습니다. 대놓고 함께 사는 사람에게 드잡이를 해댔고 흔들리
면서 휘청대면서 그렇게 시간을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
말 그건 우연이었습니다. 워드 작업 외에는 컴을 켜지도 않았는데 내가 드잡
아대던 사람의 어깨 넘어로, 결눈질로 배운 웹 써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
사이트에서 내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그러는데 함께 사는 사람이 이 방송
을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았더군요.그 후부터 일상에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고
어쩌면 스스로 만들어 버린 상채기를 또 스스로 치유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
했던 것입니다. 엠비씨니 케이비에스니... 방송국 디제이들의 잘 단련된 목소

리에 길들여져 있던 제 귀에 생경할 정도로 풋풋하고 청순한 CJ님들의 목소리...이제는 설겅이를 하면서 밤샘 작업으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도, 심지어는 티비 뉴스를 볼 때도 항상 커놓게 되었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힘내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면서...그렇다고 일부러 행복해지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마흔인데... 뜨겁던 이십대 삼십대 때의 그 열망을 아직도 품고자 한다며 그 열망에 타죽고 말겠지요. 귀한 공간에 불쑥 끼여들어 불청객으로 찍혔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것도 이를 악물면서 힘내려는 저의 발버둥이라고 너그러이 이해하시길...

이름:홍진섭 (pawool@sayclub.com) 2001/3/26(월) 00:07 40~50대 방송은 돼 하는지~~~~~:

인생님 잘 읽어 봤습니다, 너무 늦게 읽은것 같군요에디슨이 왜 전구와 축음기를 발명했는지를, 단순히 호기심과 명예를 위해서 일까요? 에디슨은 진정한 발명가랍니다 진정한 발명가는 자기 개인을 생각지않고 후세인들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인생님은 대화방의 건전하지 못함에 의하여 40-50 음악방을 만들어 괜히 남(CJ님들)들 까지 고생시키신다는 넉투리(실례)를 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의 혜택을 받고 있지않습니까? 나의 일로해서 남이 해를 입는 거라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몇몇분의 수고로움에 의하여 다수인에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면 칭찬 받을 일임이 분명한데 "미치"다니요, 에디슨의 전구와 2극진공관 및 축음기의 발명으로 현재의 컴과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MP3까지 이르렀고 마찬가지로, 인생님의 하시느일의 열매가 후세에 까지 이어져 우리 늙은이들의 햇빛이될 것임에 의심이 없습니다. 끝으로 인생님의 앞날에 축복이 내리길 기원 합니다.

이름:생노병사 (jhwn1004@hanmail.net) 2001/4/19(목) 03:11 40~50대를 우습게 생각.....

사이버가 젊은이의 전유물로 생각은 버리시길.....40~50대의 방송을 가버
이 생각하지 마시길.....자신만이 모든것을 할수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
험한 생각입니다.겸손함과 세상은 더불어 산다는것을 배우시기를.....

이름:sariyo 2001/3/20(화) 16:06 안녕하세요?

가끔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언제나 구수하게 그리고 편하게 말씀하시
는 모습이 좋아서 들어와 봅니다.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이자리
에서 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내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다 발휘하고 나면 나머지는 ,,.....
인생님의 이런 노고가 있기에 우리는 또 즐겁게 지낼수 있는 일입니다.여기 항
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 위안을 받으소서,그리고 건강하소서.

나그네45/등대 (han@tomitech.com) 2001/3/20(화) 10:55 힘내세요!
인생님!전 우연히 음악을 듣기위해 여러 사이트를 지나다 프리첼을 통해
40-50음악세상을 알게 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 한 평범한 사회인입니다.
방송 들은지 3주정도밖에 안됐지만 인생님을 비롯한 여러CJ님들의 노력은
전혀 생각지 않은채 혼자 즐겁게, 그리고 편안하게 음악을 들으며 시간이 날
때면 동호회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마냥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또 우연히 홈페이지의 인생님 글을 읽고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
습니다. 난 지금까지 과연 남을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자문하면 할수
록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자괴합니다. 시간이 없어서,돈이 없어서,능력이
없어서,혼자서는 안되기 때문에,,,변명의 단어를 꼬집어내면 낼수록.....모든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이었습니다. 인생님! 중년의 나이는 살아가
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일 때가 더 많습니다.
더욱이 열광하며 신명 날 일도, 가슴 뜨거울 일도 없는 나이입니다.허망함이
나 고독이란 단어가 입가에서 맴돌기도 합니다. 도착했음으로하여 다시 시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과 의무의 항목만이 우리에게만 빼곡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년은 사회구성원으로서도 책임이 가장 큰 나이입니다. 가정에서는 늘 위태위태하게만 보이는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내야 할 책임, 연로한 부모님을 보살펴야 할 책임, 게다가 낡은 의복처럼 헐렁해진 배우자와의 거리도 시시로 죄어줄 방편도 마련해야 합니다. 남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신한테는 더욱 엄격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네 중년이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거울 앞에서 문득 만나버린 흰 머리카락, 들성한 머리숱, 맛사지로도 더 이상 팽팽해지지 않는 탄력 잃은 피부, 어느새 건강용품 광고에 자꾸만 눈길이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가슴까지 파고 든 허전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 중년에게 이 40-50음악세상 방송은 새로운 활력과 함께 젊음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넉넉함, 따사로움을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님!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힘내세요!" 우리 프리첼 동호회원을 비롯한 40-50음악세상의 모든 분들이 인생님을 비롯한 CJ님들의 정겨운 목소리에 힘을 얻고 중년의 삶을 젊음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분들이 40-50음악세상의 취지에 공감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인생님/비올레타님/효조님/루루님/가인님
Fighting!!!! —프리첼 동호회원 나그네45/등대였습니다.—

이름:인생 2001/7/6(금) 10:31 4050음악세상 10년을 가야 합니까

40-50대 음악세상이 10년을 가기 위해서 꿈꿈이 생각해봅니다.
40-50대 음악세상 이제 1년을 마감하면서 40-50대 음악세상이 10년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몇날 며칠 꿈꿈이

생각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힘으로 이 방송을 끌어가기에는 너무 벅찬 현실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방송을 어떠한 경우라도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상업성을 위한 방송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소수의 몇몇 분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제 개인적인 능력 안에서 이 방송을 운영해 왔습니다.

동안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방송 10년을 위해 많은 제의를 해 주셨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 방법중에는 동호회를 구성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방법도 제시 해 주셨고 광고 배너를 부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등 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 자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인 제가 결국은 방송보다는 동호회 회원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광고 배너 주에게 신경을 더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수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치사하게 만든다는 것도 뼈저리게 그래서 차라리 제가 잘 아는 능력이 있으신 몇 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 방법을 선택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기에는 이 방송이 너무 저에게 많은 시간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24시간 방송포트를 점검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이 제게 다른 일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40-50대 음악세상 방송이 직업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40-50대 음악세상 다른 CJ들처럼 제 일을 하고 방송시간만 한다면 부담이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40-50대 음악세상은 결국 이 방송을 지키는 CJ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고 상의를 한결과 1년에 한차례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 1년을 지켜 보셨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 1년의 발자취를 보시고 40-50대 음악세상이 인터넷 세상에 10년을 지키고 갈만한 가치가 있는 방송인가를 냉정히 검토해보시고 판단하신후 방송 개국1주년을 맞아 2년차를 향해 달려 갈 수 있도록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재정적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40-50대 음악세상 신청곡과 사연중심의 24시간 생방송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며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방송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40-50대 음악세상을 지키는 것으로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의 도움주심에 보답하겠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 CJ들의 총무를 맡고 있는 비올레타에게 '음악세상'이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 개국 1주년을 맞아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을 가족 여러분께서는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40-50대 음악세상

시제이 인생 드림

비올레타 07/06[11:52] 인생님 어려운 결단을 하셨습니다. 여러사람들이 힘을 합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요..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내미는 손길은 거부하렵니다. 이제 1년을 무사히 넘어서고 2년차를 향해 달리는 음악세상 에... 순수한 마음으로만 참여하실분이 많았으면 합니다.

푸른청솔 07/06[13:24] 인생님 화이팅..좋은 결단을 하였습니다

포포연 07/06[15:53] 인생님 화이팅~~! 힘내세요~~^^

가인 07/06[19:14] 참으로 어려운 부탁하셨습니다. 인생님! 누구나가 돈 얘기 한다는것은 정말 쉽지 않은건데요, 우린 분명 같은 감정으로 사는 4050 음악세상의 식구들입니다.같은슬픔,같은기쁨,같은향기를 지니면서 사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원달님 07/06[19:24] 인생님,안녕하세요4050대음악세상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순수한 마음많이부탁합니다 인생님힘내세요..화이팅..

민트향기 07/06[22:54] 인생님 안녕하세요...가끔은 인생님의 지친 목소리가 무척 힘겨워보여 안타까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고싶군요 4050음악세상 식구이기에...힘내시기바랍니다...

깔루아 07/07[11:44] 인생님..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으리라 믿어요. 남에게 도움을 청한다

는게 결코 쉽지 않음을 알기에 힘내시라고 몇자 적어봅니다.인생님..화이팅!!!

장박사 07/07[20:11] 힘을 냅시다. 작으나마 힘을 보태지요. 전 이방송의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이소. 화이팅

하얀길 07/07[20:16] 저도 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아주 미약하고 작은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상업성을 배제한 4050 음악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이 모이면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 합니다. 힘내세요.

알콩달콩 07/07[20:59] 힘내세요. 순수한마음과 열정으로 여기까지 온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저도 우연히 알게돼 우리나라에도 신청음악이 있고 또 들을수 있다는것에 대해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좋은 뜻과 생각을 같이하는사람들이 있고 그걸 밀어부칠 열정이 있는한 계속 전진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에 이럴수 있다는것도 대단한 공지가 아닐까요.힘내세요. 화이팅!!!!

자목련 07/09[11:05] 인생님..어려운 결정 하셨네요?

자목련 07/09[11:09] 저두 항상 걱정이 되드라구요...작은힘이 모이면 안되는게 없을꺼니까....인생님 힘내세요.....

뿌리기픈구절초 09/07[16:27] 인생님...또한 비올레타님!!! 또한 모든 4050음악방송을 위해 수고하시는 c님 모든분들에게 박수부터 보냅니다.

뿌리기픈구절초 09/07[16:34] 가을 하늘 아래에서 추억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항상 고마움을 느껴왔습니다만 음악방송하시느라고 이런 힘든신 사정이 있다는것은 몰랐습니다. 저 또한 후원단체인...분당청년회의 소의 특우회원이기도 합니다. 작지만 도와 드리고 싶네요...부디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말았음 합니다.항상 사무실에서 님들 덕분에 음악과 함께하고 좋은 사연과 함께한 하루가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인생 2001/7/4(수) 13:25 방송 1주년을 맞이하면서

40-50대 음악세상 1년을 뒤돌아 보면서 음악세상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CJ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대들만이 개인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단순하게 40-50대 방송도 하나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시작한 40-50대 음악세상 방송입니다.

작년 5월에 방송을 배워서 3개월정도는 방송을 공개채트 방과 동호회 방을 기웃거리면서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다니던 그때는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지나면 40-50대 남성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점잖은 제의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노골적으로 늙은이가 무슨 속셈을 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느냐는 곱지 않은 오해를 받기도하고 대화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강퇴도 수없이 당하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그렇게 방송을 소개하면서 다니던 저에게 그동안 제 방송을 들

어주던 몇몇분이 정규방송을 공식적으로 제의하게 되어 8월5일부터 저녁7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을 하게 된 것이 어느덧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년동안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과연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 하면서 시도해온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40-50대 음악세상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그동안 해온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CJ들의 방송 열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CJ 도전 프로그램 24시간 생방송 도전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현장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임진각에서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이 드디어 제주까지 현장 생방송을 하게되는군요. 더불어 현장 생방송은 40-50대 음악세상가족들의 웹서핑 문화를 정착 하기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

건전한 인터넷 활용 문화를 정착 하기위해 시도되고 있는 캠페인으로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캠페인과 함께 10년의 약속 대화명 등록하기가 벌써 400여분이 동참하고 계시고, 동호회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동호회 정팅 생방송이 1주일에 1회 2시간씩 시험적으로 운영되는등 나름대로는 40-50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동안 40-50대 음악세상도 몇 번의 위기와 좌절이 있었답니다. 인터넷 라디오방송의 CJ 활동은 남성보다는 주부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40-50대 남성들은 아직 자신의 일을 하면서 방송하는 CJ 역할을

함께 하기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백수로 인식되기 쉽고 또는 팬스런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부 CJ는 방송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 자체가 신변잡기식 개인방송으로 흐르기 때문에 취미로 방송하는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약점이 주부들에게는 있더군요.

저 역시 아직은 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인생인 저도 몇 번 방송을 그만 두려 했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이 방송이 너무 커져 버렸고 지금으로서는 이방송을 떠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충분한 입장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저역시 불어닥친 IMF와 경제적 위기를 심하게 겪은 처지에서 이 방송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 이었지만 주위의 몇 분 도움으로 여기까지 어렵게 1주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40-50대 음악세상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몇 분에게 개인적으로 보답하는 길은 40-50대 음악세상 10년 방송을 지켜 드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 생각되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를 방송 목표로 40-50대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송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가는 현실에서 이 방송의 목표와 취지를 이해하고 열정을 가지신 많은 CJ들이 동참하여 이 방송이 10년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일에 다시 복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방송을 지키고 있습니다.

1주년을 맞이하면서 의미있는 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지금으로서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몸으로 배우는 일이야 제가 시간을 내어서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하면 되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큰 것은 감당키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보니 조금은 막연합니다만 하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주년을 맞으면서 함께 이 방송을 지켜주신 비올레타, 꽃천사루루 가인, 지금은 방송을 중단하고 있는 효조양등에게 정말로 감사하단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에게는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40-50대 음악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은 CJ보다 이 방송을 함께 하는 음악세상 가족 여러분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24시간 생방송에 신청곡과 사연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인격과 방송 수준을 알려주는 척도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진지하고 진솔한 사연들로 40-50대 음악세상 신청곡과 사연들이 한층 더 그 격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성의한 신청곡과 사연들은 CJ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더불어 40-50대의 자존심을 멍들게 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10년 후 이곳에 모여 함께 했던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이 알찬 시간들을 보내고 아름답고 믿고 신뢰하는 인터넷 문화에 주인공이었음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40-50대음악세상 CJ 인생드림

창원달님 07/04[15:03] 인생님.안녕하세요 1주년을.축가합니다 날씨많

이답네요. 인생님 항상감사합니다.^*^

비와찾잔 07/04[15:15] 인생님 안녕하세요 10년의약속대화명 비와찾잔입니다,,인생님의방송을 작년9월말인가부터 듣게 되었답니다,찾잔이가 컴맹탈출하기 위해 들어간게 40-50대음악방송..찾잔이두 인생님과감회가 깊어요 40-50대음악방송이 여기까지지는데 많은 수고를 하신것 찾잔이두 잘 안답니다 ,아어른 일주년을 축하 축하 드립니다,,앞으로도 영원하길 바래요 40-50대 음악방송을하고 있는 인생님을 비롯하여 비올레타님 하진님 루루천사님 능소화

비와찾잔 07/04[15:18] 40-50대 음악방송을 이끌어가시는 인생님을 비롯하여 비올레타님 하진님 루루천사님 능소화님 울보천사님 모두모두 감사하고 고마워요 건강하시고요 좋은하루 행복한하루 되세요,, ^*^ ^*^ ^*^

황금들판 07/05[01:11]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제가 요즘은 음악을 통 들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황금들판 07/05[01:18] 갱기도로 올라오면서 그만 노트북을 고속버스 화물칸에 싣고 왔다가 그만 박살이나고 말았죠...그래서 요즘은 넘 심심해 죽겠네요..그나마 ·X지에 혼자 나와서 더욱더 그러네요...그래서 이 시간은 하는수없이 PC방에서 멜 확인하구 돌아가려다 문득 생각이 나서 사이트에 왔는데 음악도 안되고 해서 몇자 인사 올립니다.오는 개국 1주년 행사에는 어떠한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노트북이 하루속히 마?

비올레타 07/05[11:57] 인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날이 쉬워지기 보다는 더 힘겹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방송에 기대하는분들도 많은데 인생님이 힘내셔야죠...!! 많은분들이 서로 힘을 합해 이방송을 지켜나갈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포포연 07/06[15:30] 인생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님덕분에 우린이렇게 음악을 즐길수 있어 얼마나 좋은데요 힘내시고 하이팅~~!

말동무 07/07[15:07] 한쪽 가슴이 상당한 무게의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마음은 이미 가 있는데 그 뒤를 따를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비애를 느낍니다.

인생님 힘내세요.

하얀길 07/07[20:25] 음악 방송 들으면서 씨제이님들의 정성과 노고를 생각할때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4050음악 세상에서 개설한 통장에 자유로이 얼마큼 해야 되는지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개설한 일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것이 운영하는 씨제이님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다면요.

하얀길 07/07[20:28]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는 무조건 무료라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비싼 회비를 지불하면서 정보나,취미를 제공받을 힘은 없겠지요. 4050음방의 특성을 살려 순수한 참여자들의 도움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40-50게시판에 올려진 글들을 보면서 새삼 지나간 일들이 얼마되지 않은 일인데도 오래전 일처럼 느껴집니다. 40-50대 음악세상 1년을 함께 한 가족들에게는 이 글들이 새삼스럽지 않겠지만 최근 이 방송을 함께 한 분들에게는 40-50대 음악세상이 힘들게 지켜왔다는 점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40-50 게시판에 사랑해주고 때로는 질책을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드리며 10년후 이 글들이 우리에게 자그마한 흔적으로 영원히 남기를 기대 하면서...

40-50대 인터넷 세상에 우리들의 이야기

40-50대 우리를 컴맹 세대라고 불렀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이 필요함을 알고 우리는 컴퓨터와 인터넷 전용선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40-50대 우리는 한국의 정보 네트워크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세대이다.

그러나 컴퓨터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는 컴퓨터와 인터넷세상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40-50대를 위한 사이트는 너무나 그수가 적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개발과 학업에 필요한 도구로서 활용을 기대 했지만 다수는 게임과 시간 보내기등과 불 건전한 인터넷 문화에 빠져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믿고 신뢰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40-50대 우리도 컴퓨터와 인터넷에 적응하기 시작하였다.

스타크래프트도 배우고 게임도, 이메일도, 채트방도 영화도 음악도, 홈페이지도, 동호회 활동도 비록 빠르지 못하지만 우리는 서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초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인터넷 세상에 한걸음 한걸음 다가서고 있다.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 되어 믿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자그마한 소리들이 40-50대 음악세상 24시간 생방송을 함께 하면서 1년의 새월속에 40-50대들이 만들어온 우리들의 작은 씨앗들이 여기 있다.

새로운 21세기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알리고 10년의 약속 작은 실천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 훗날 자랑스러운 40-50대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서투른 우리들의 행보를 격려해주고 작은 도움들을 주었던 젊은 세대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1년동안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신청곡과 사연

◎ 이름:먼산가랑비 (csy9293@hanmail.net) (43 여 주부)
 ◎ :신청곡
 ◎ 2000/11/30(목) 19:03 (MSIE5.0,Windows98)
 211.188.144.188 800x600
 ◎ 조회: 43 회
 wing21.co.kr 탄생을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비올님....
 늘 님의 방송을 너무 많이 듣는 가랑비입니다
 오늘 듣다 보니 흥피가 새로 생기셨다구 어찌나 사랑을 많이 하
 시든지...죄송ㅎㅎㅎ 그래서 만사 재쳐두고 와 보았지요
 정말 우리 세대를 위해 열시미 방송해주시는 님...
 아마도 우리 가슴에 짙 많은 사랑을 주시는분.
 가만히 두 귀만 내밀면 언제나 조운방송 노래 감사드려요
 저도 신청한곡할게요. 소찬휘/용서. 늘 수고 하세요
 전 여기 저기 다 둘러보고 나가렵니다. 수고^^감사^^사랑해요^^

우리들의 이야기

40-50대들의 평범한 이야기들이 묻어나온다. 40-50대 홈페이지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시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 몇 편을 고르기란 쉽지 않았지만 나머지 글들은 게시판을 통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년후 이 게시판에 올려진 글들을 통해 그 때 그 시절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 해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1번으로 글을 올린분은 누구

◎ 이름:쥬니베로 (43) ◎ 2000/11/30(목) 19:26 홈페이지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40대의 자존심을 지키시는 인생님,비올레타님, 존경스럽습니다. 아직도 우리의나이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할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힘이되 주어야 하는데, 마음 뿐입니다.

항상 열심히 방송을 듣는것이 우리들이 할일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인생님, 비올레타님!,효조님!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전 방송만 열심히 듣는것이 제가 모든 c.j님들에게 보답 하는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40-50 음악세상이 영원하게 지속 됐으면 하는것이 저의 자그마한 바람 입니다. c.j님들 뒤에는 늘 저희들이 있음을 기억 하시고 저희들도 항상 c.j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홈페이지 탄생을 정말로 축하 합니다. 이열정이 계속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 이름:은빛바다 (silent35@hanmail.com) (36) 그 여자의 하루.... 다섯시 오십오분 ...일어나라는 신호이다. 그여자는 비몽사몽인체 부엌으로 간다 쌀을 씻어 냄비에 얹혀놓고 불리기를 기다리는 동안무우를 뺄어 소고기국을

끓이느라 분주하다 연한 상추를 씻어 겉저리를 만들면서 가스에 불을 켜다
보글 보글 냄비속에 쌀이 끓으면 주걱으로 휘익 저어아주 약한불에 밥이 뜸
들이기를 기다리며 냉동실에서 꺼내놓은굴비 다섯마리를 후라이판에 식용류
없이 약한불에 굽기 시작한다 식탁준비가 대충된것같다. 찬함에 반찬을 하나
하나 담는다 이제 밥만 퍼서 담으면 된다. 밤새 엄마 병실을 지키시던 아버지
아침준비가 완료되었다. 많이 식기전에 가져가야 할텐데..중얼거리며 늦잠자
는애들을 깨운다

애들이 얼렁 일어나그여자는 소근거리는 소리로 애들을깨운다. 물론 그여
자의 남편은 세면장에서 씻느라 바쁘다. 며칠전 애들깨우면서 시끄럽게 한다고
핀잔을 들었던 그여자는 가급적 그여자의 남편이 있을땐 애들에게 큰소리 내지
않으려 노력중이다. 큰소리로 애들을 깨우던 그날 아침 그여자는 남편의 핀잔
에 작은 상처를 입었었기에가급적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중인 그여자에게는
늦잠자는 애들 깨우기가 힘이 든다

국에 밥을 말아 대충 아침을 때우고 오분이면 되는 그여자의 외출준비가 시
작된다. 머리 감고 스킨 로션을 얼굴에 바르면 그여자의 외출준비는 끝이다
얼마전부터 먹이기 시작한 애들 영양제를 먹인후 그여자와 아이들은 현관문
을 나선다...선생님말씀잘듣고 차 조심해라 하며 매일하는 잔소리를 한체터벅
터벅 버스정류장으로 향한다 어제까지 택시비로 지출이 많았기에 오늘은 버
스를 탈 작정을 했었다...마침 버스에 자리하나가 비었다

조심스레 그여자의 아버지가 드실 찬합통을 꼭꼭체 그여자가 눈을 감은체 즐
고 있다. 사십여분 시내버스에서 머무는 동안 그여자는 내내 눈을 감은체즐고
있었다 ..어젠 너무 힘든하루였었기에.....

병원이다.. 오늘도 휠체어에 그녀의 엄마를 모시고 검사실을 오르락 내리락 검
사도중에 그여자의 엄마가 실수를 하셨다 채워드린 지지귀가 빠져버린것이다
어제도 검사도중에 한바탕 소동이 났었는데 오늘도 실수를 하셨다

그여자의 엄마,,한달만에 반쪽이 되셨따. 뼈밖에 남지않으셨다. 하긴 한달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체링겔에 의지하시며 사셨으니 오죽하랴. 또 얼마나 깔끔

하신분이셨던가그런분이 검사도중에 실수를 하셨으니 당신자존심이 많이 상하
신가부다. 그여자가 엄마를 위로 해드린다" 엄마 괜얌아 엄마는 환자니까 괜안
이" 부부밖에없다 했던가!! 그여자의 엄마는 검사하러 갈때 남편을 곁에 붙들
어 두려 하신다. 그여자의 아버지도 당뇨가 심하셔서 지금 쓰러지기 일보직전이란
것을 알기에이른아침 아버지와 교대하여 집에가서 쉬게 해드려야 하는데 한사코
남편을 옆에두려하시는 엄마와 그여자와 잦은 말다툼이 생긴다. 오후가 되어서야
검사가 끝이 났다

겨우 숨을 돌리려고 창밖을 보니 한두방울 빗줄기가 보인다. 여러날 금식을 하
셨던 그여자의 엄마와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기위해또 잦은 말다툼이 인다.....
많이 서운해 하고 서러워 하시는 그여자의 엄마 경우 바르고 현명하시던 분이
어느새 어린이가 되버린것같다. 한달전 칠순잔치때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다..
볼과 한달조금 넘었을뿐인데너무나 변해버린 엄마의 모습에 그여자는 마음이
아파온다....어느새 집으로 쉬러 가셨던 아버지와 교대시간이다

비때문인지 어둠이 금방 이다. 차창밖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쉬지않고 내린다
양상한 가지에서 마지막은행잎들이 하나 둘 떨어진다
창밖을 보다가 다가오는 그리움에 가슴이 메어왔다. 힘들다고 느껴질때 말한
마디 위로받고 싶은 그리움이기에 그여자는 오늘도 기다림을 배우고 있는지
모른다. 혼자 지쳐버릴 기다림일지언정 혼자 아파해야할 그리움일지언정
그여자는.....꿈을 꾸다.....그리움을 향해서

◎ 이름: 김준호 (joyful89@hanmail.net) (12 초등5학년) ◎
2000/12/7(목) 00:07

나의 첫무대

컴퓨터를 잘 하시는 어머니덕에 오늘 나의 첫무대를 가졌다.
그것도 인터넷방송 전국, 아니 세계로 퍼져 나갈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무대에서..
어머니가 가입하신 people475.com이라는 음악사이트에서....멋진목소리의
아저씨 소개를 받으며저녁을 먹고 아버지는 티비를, 형은 시험기간이라서 형

방에, 나도 내일 있을 시험을 대비하여 내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컴앞에 계셨었다. 내가 한참 공부하고 있을 즈음, 어머니께서는 계속 전화를 돌리고 계셨다. 참 이상했다 왜 저렇게 전화를 돌리실까??

컴앞에서 헤드폰을 끼고 있었고, 어떤때는 혼자 웃기도 하시고...궁금했지만 참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나를 부르시는거다. 그리고는 전화를 나의 귀에 대시며 받으라는 거다. 좀 어리둥절 했지만 전화를 받으라는 뜻으로 알고 수화기에다 "어보세요?" 하고 했더니~ 전혀 낯선 아저씨의 목소리가 나오는거다..깜짝 놀라서 어머니께 손짓발짓으로 누구시냐고 물어보았다.

어머니께서 지금 인터넷방송에서 cj아저씨가 어머니하고 전화연결이 되었는데 내 말을 했더니 바뀌달래서 바꿔주었다고 연습장에 적어 나에게 보여 주셨다. 나는 아아~ 그렇구나 하며 침착하게 아저씨가 묻는 말에 대답을 확실히 했다. 목소리 좋은 아저씨가 40-50대 방송을 하시는 대화명은 인생 이라는 아저씨라는 것도 어머니께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어서 알았다.. 아저씨께서 나에게 "장래희망이 뭐예요" 라고 물으시길래 난 풀룻티스트예요 라고 말을 했더니 아저씨께서는 즉석으로 풀룻을 불러 볼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거다...얼마나 당황했는지. 소풍갔을때 스승의 날에 학급에서 행사 있을때 불러봤지만, 이렇게 갑자기 풀룻을 불러보라고 하니어떻게 할까?? 속으로 많이 망설였지만.....준호는 씩씩한 남자 이기 때문에 네! 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풀룻과 책을 가지고 와서 부를곡목을 고르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것이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giga 라는 곡을 불었다...어머니께서는 한손으로 교본을 한손으로는 전화를 붙잡고 계셨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뚝 벤눗?불었었다...틀리면 어떨하나?? 걱정을 많이 하면서 풀룻을 다불고 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모니터를 보았다....인생아저씨가 내가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풀룻을 연주했다고 축하합니다.. 라는 노래를 틀어주셨고, 많은 아저씨 아줌마들이 박수를 보내주신다고 했다. 130명쯤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는걸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준호의 리틀콘서트" 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하늘을 훨훨~ 날아갈 것만 같았다.

플룻티스트는 돈 보다 사람들을 음악으로 즐겁게 해주는 직업인데 그게 성공 하니까 기분이 좋을수 밖에~~~ 아줌마 아저씨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플룻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용기가 없어서 전화기에는 말을 못했지만..그리고 아줌마 아저씨들이 참 인생을 즐겁게 사시는 분 들어구나~~ 라고 생각했다. 아.....오늘밤은 참 즐거웠다! 준호일기 끝.

◎ 이름:추장님 (sdoorii@sbsmail.net) 하얀 마음으로 여는 아침...

밤바야~~~~~ 하얀 마음으로 여는 아침...

아침은 언제나 눈이 부시도록 새롭습니다.

어제 맞았던 아침을 다시 맞는 것인데도 어제와는 전혀 다른 낯선 신선함으로 다가옵니다. 그 아침의 마음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고운 목소리 좋은 음악과 함께 싱그러움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지금 채 어둠이 가지지 않은 도로 위로 꼬리에 빨간 불을 달고 미끄러지듯 달려가는 개똥벌레 같은 차들은 '움직이는 것이어야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합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의미일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만 삶도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더욱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은 결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직 나만의 삶이기에 더러 제약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내가 살아야 할 내 몫의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제히 열리기 시작한 수많은 하루의 문들...

이 수없이 많은 문들을 통해 하루의 삶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하나의 문으로 성과라는 순서가 정해진 채 한 줄이 되어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저기 창밖 나무 위에서 까치 한 마리가 소리 높여 '만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니야... ㅎㅎㅎ)

저 새의 하루는 또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지만 저 새는 이미 한 몫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벌써 하루를 시작하는 내게 기분좋은 하루에의 예감을 한아름 안겨준 것이니까요.

생각지 않은 까치와의 만남이 한껏 기분을 좋게 해 줍니다. 이런 까치와의 첫 만남이 박하사탕처럼 달콤하고 상쾌함을 주는 만큼 오늘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만남에 나도 나도... 까치와 같이 기분 좋은 예감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만남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거예요 하며 좋은 느낌을 선물하던 까치처럼 남아있는 길이를 알 수 없는 내 삶 속에서 허락된 이 은총의 하루만큼 나 또한 그러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하얀 마음속에 '행복의 강'은 크고 요란한 흐름이 아니라 이처럼 소리없이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게 흘러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방 유유히...~~~~~잔잔하게...~~~~~그러나 도도하게~~~~~

누구에게나 마음속으로 '행복의 강' 하나씩 흐르고 있음입니다.

쿠쿠... *** 늦어지만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하며 @)~%~~~~~

.... 우리의 마음속에도 '행복의 강' 하나씩 유유이

..... 흘러가게 하고싶은 마음으로 이글을 띄웁니다.

..... - 풍경이있는 아침에 추장님이...밤바야~~~~ ***

@!@ 날씨가 추워요 감기를 조심하고 행복하루 되세요.

♪ ♪ 신청곡 리알토(원곡) Rialto - Monday Morning 신청합니다.

© 이름:고운마음 (free1699@hanmail.net) 가슴이 따뜻한 아이들

안녕하세요. 이제 2000년도 쥐꼬리 만큼 남았군요.

싱그러운 생명의 초록빛깔로 새해에는 힘들게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면서 희망의 향기를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석희야! "이리와봐 여기와서 함께 놀자" 하지만 불려도 대답없고 고개한번 돌리지 않고 관심이 전혀 없는 아이 석희(가명 13살)항상 앞으로 뒤로 고개를 흔들흔들 거리면서 화가 나면 갑자기 책상을 두드리고 머리를 책상에 찜고

피아노 건반을 마구 눌러 요란한 소리에 신나고 신경질적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 석희를 처음 만났을때가 생각나는군요.

그때 석희는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곤 했지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특수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더이상 적응을 못해서 다시 제게 맡겨준 아이였습니다. 서서히 다시 제가 돌보고 있는데 이런 석희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상한 행동들이 없어지면서 함께 아이들과 천천히 어울리기도 하는 것이 정말 서광이 비치지는 했지요. 사실 말도 제대로 못할정도 였거든요.

석희에게 전 일명(엄마선생님)으로 불립니다 전 이호치이 아주 맘에 쏙들어요. 손에 힘이 없어 건반도 제대로 눌러지도 연필도 제대로 잡지도 못했던 예전의 석희를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지금 아이들은 서로 석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공책에 써내려가기도 하고 색칠공부도 한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고사리 손들을 닮게서도 직접, 천연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함께 놀아주지도 않고 짝궁도 서로 앉겠다던 아이들이 지금은 스스럼없이 친해진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하면 또 자기의 아이가 석희와 어울리는걸 꺼리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이거야말로 너무나도 한숨이 나오는 대조가 아닌지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석희 모습에 매일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무게의 고마움을 전하고 싶구요. 어떤 말에도 대답없던 석희가 함께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웃음을 머금은 모습. 그 모습을 얼마나 고대해 왔는지요. 사실, 저와 친해지는데도 몇달이 걸렸어요

단어하나 적는데도 몇달이 걸렸고요.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말도 알아듣고 행동도 온순해지구요.(깹깹)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던 아이가 아님을 이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어울려 놀면서 기쁨을 나눌겁니다. 진정한 나눔이 뭔지 아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의 무지개 그 일곱 색깔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이 부시도록 화사하게 핀 눈꽃 같은 아이들의 향기가 세상 모두에게 전해져서 모두가 향기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이자 우리 4050대의 소망이 아닐까요.

모든 님들도 건강하시고요...c)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운마음이가..

◎ 이름:칠곡소희 (jangmj09@netian.com) (39) 동래정씨 대구.경북 어머니 교실 " 을 다녀와서~

14년만의.. 1박2일 여행 !....이게 뭐냐구요?.

1월 10일.동래 정씨집안의 며느리들이..예절교육차.. 부산으로 연수를 다녀왔답니다. 연세 드신..할머니로부터.. 이제 갓 결혼한 1년차 신혼 주부도 동참을 하였습니다

"동래 정씨의 내력과 전통성..말의 예절..성씨와 족보에 대하여".. 한글학자이신 정휘창 선생님의 강의도 있었고...

(예: 삼촌이란 말은 잘못된것 =====> 작은 아버지

사돈의 며느리 =====> 사하상 덕

사장어른의 동생 ==> 곁 사돈

시아버지를 남에게 호칭할때 ==> 발시어른

시어머니를 남에게 호칭할때 ==> 안 시어른)이라고 지칭한답니다

"베풀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 라는 성공사례담을 주제로 열변을 토하여 주신 박권용님 (자장면 아저씨 거지왕초로 더 잘통하는그는 거리의 부랑자들..심장병어린이들..고아원..양로원.등을 찾아다니며.. 많은 도움주신,이분은 이미 메스컴을 통하여 익히 알려지신 분입니다)

구구절절한 강의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코끝이 찡한 느낌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가난한 어린시절.. 굶주림에 지쳐 대구로 상경한 박권용님의 눈물짓게 하는강의 시간속에서..나는 과연 누구를 얼마나 위해주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어느정도 인지를 뒤돌아 보게끔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청소년들의 상담을 도맡아 오신.. 대구지방검찰청 상담실장 (정영순)님의 자식에 대한 따뜻한 사랑또한..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눈물 짓도록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셨다는 강사님의 말씀은. 매사에

자신감없는 저에게 한층 힘을 실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엔.. 동래정씨 화지선산 (부산시 양정구 화지산) 에서 제를 드리
는 절차와 방법등을 배우기도 하였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버선
발로..)하나라도 더 배우겠다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래정씨 가문의
어머니들..역시 대단 하셨습니다. 요즈음은 모두 핵가족의 시대인 만큼.....
커 나가는 어린 자녀들은.. 자기의 뿌리.. 자기의 시조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다른것은 모르더라도.. 시조가 어느분이신지.. 몇세 손인지
의 정도는 ..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향 = 본, 본관.....시조공, 1세공,2세공 ~

.....부모,조부모, 증조, 고조의 이름.....몇 세, = 몇 대, (항렬)

.....계보 (파)(저는 이제 확실히 배웠답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겠죠!~~~)

좋은 가문으로 시집을 가신 우리 나라의 주부여러분~~~~저처럼..

(늦게나마.). 예절 교육. 제례 교육을 다녀오신분 계시나여?~~~~ ^^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될 아들 하나와... 제가 없으면.. 밥을 굶고 있을 (?)
남편 걱정예..1박이 무리라구 생각이 드셨던지.. 어머니계선.. 손수 밥두 짓구
집두 봐 주시겠다며.. 걱정을 말고 다녀오라시던 그 말씀이 코 곳을 찡 하게.
합니다... 어머님 ! ... 어머님 덕분에.. 1박2일의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지
금 이렇게 컴 앞에 앉아 있습니다~~(어깨 우짖~ ^^~).....어머님 아버지님
고맙습니다.. ^^

◎ 이름:황은주 (jj22oo@hanmail.net) (24 금융업) 아빠에게 인터넷의
날개를 달아 드리자

인생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동생과 직장 생활하는 24살의 황은
주,22살의 동생은 지혜라고 합니다. 저희들의 아빠는 세이에서 별명을 [지나
게나]로 쓴다고 하시더군요. 아빠는 구미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인생 아저씨에게 글을 올리게된 사연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어서 입

니다. 아버지는 저희들과 오랜 세월 떨어져서 지내셨답니다. 극성스럽다 싶을 정도로 저희들에게 사랑 표현을 잘하셨지요. 대학생활을 시작하며 차례로 아빠 곁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게된 저희들이기에 아빠가 늘 안스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창시절에는 방학두 있고해서 그나마 자주 뵈을수 있었는데.....많이 쓸쓸하고 많이 허전하고 많이 외로우실 꺼예요.서울에 이사 오셔서 함께 지내는것두 좋으려만 한사코 마다 하시고, 새엄마 얻으시라고 해도 빙긋이 웃기만 하십니다. 인생아저씨 도대체 아빠는 무슨 재미로 사실까요?

그저 우리들이 커가며 성숙해가는 모습에서 삶의 보람을 찾으시는 걸 까요? 아버지는 참 젊게 사시는 분이랍니다. 개방적이고 지성적이며 유모어에 잔정도 많으시고 잘생기셨지요. 우리들은 궁리끝에 한가지 멋진 생각을 떠올렸읍니다. "그래! 맞아 아빠에게 인터넷이란 날개를 달아 드리려는거야"

그래서 컴을 사서 보내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반의 성공은 한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번씩 전화하셔서 막으면 묻곤 하시더니 지금은 아예 컴학원에 등록 하셨답니다. 인터넷에서도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음악방이있습니다. 점잖게 음악감상만 하신다는데 저희들 생각엔 키보드 운영이서투셔서 그러실 겁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 하셨을 꺼예요.

인생아저씨 요즘은 아버지는 자랑거리가 많아 지셨답니다. 지금부터 인생아저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빠의 자랑중에서 음악세상4050과 cj님들과 그리고 인생아저씨 자랑제일 많아요. 얼마나 좋아 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글까지 올리게 되었지요.

글씨 인생아저씨 pen이래요. 아빠의 나이에도 pen을 만드는구나 어이없어 하면서 한편으론 은근히 놀랐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진행도 잘하시고,특히 열정같은걸 느끼신데요.오십의 나이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일에 몰두하는것에서지금이나 용기 같은것을 받는게 아닐까 하는 제어린 소견입니다.

인생아저씨는 분명 멋진 분이세요. 왜냐하면 베풀며 사시니까

마음이 풍요로울 테고, 즐거움과 기쁨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시니 보람 느끼실

테고, 줄와서 하시는일이니 행복하실테니까 그래서 멋진거지요. 인생아저씨 아
빠께서는 요즈음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밝아 지신것 같아 저희들도 기쁘
답니다. 한번은 인생아저씨하고 전화 리퀘스트 연결이되서 방송됐다고 어린
애처럼 줄와 하신적도 있습니다. 딸들이 컴사서 보냈다고 자랑도 하셨다는데
저희들도 행복 했답니다. 글이 너무 두서없이 길어진것 같네요.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음악세상4050 cj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구요, 무궁
한 발전 기원 합니다.기쁨과 즐거움 전해주시는 행복메신저 인생아저씨도 건강
하시고 오래도록 우리 아빠 마음의 동지 되어 주세요.

참 세이방에 계시는 음악가족 여러분들께도 아빠 대신해서 인사 올립니다.
건강들 하시고 행복하세요.

PS:인생아저씨 전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아빠에게.....

" 아빠! 해치우세요 아셨지요? 자꾸 웃기만 하지 말구요. 앓하시는 이유 알
아요 저희들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도 다 컷다구요. 걱정 안하셔도 되구 이
젠 이해할수 있답니다 . 아빠안녕! " 인생아저씨 고맙습니다.

◎ 이름:황정남 (jj22oo@hanmail.net) (53 회사원) 인터넷의 날개를 달아
아빠는 행복하다

오늘 문득 너희들의 모습에서 세월을 읽는다. 마치 아무도 모르게 훌쩍 커버
리곤 어느날 갑작기아빠앞에 나타난것 같구나 사랑하는 은주,지혜야 너희들
이 더 어른스러워지고 성숙해진 모습이기에 아빠는 기쁘다. 덧없다 느껴지는
세월속에서의 안타까움 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속에서 삶의 또다른 의미를 찾
지못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날들을 아빠는고뇌 했었다

너희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기쁘데, 이쁘고 반듯하게 커서 좋은데, 어엿
한 사회인이 되어 모든것에 잘 적응해가는 아빠의 딸들이기에 행복한데 안타
까움은 무엇이며 두려움 또한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모든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세상엔 변
치안는것 또한 무수히 많단다. 사랑하는 딸들아 아빠는 변하지 않는 무수한

많은것들중에 하나이고 싶다. 언제나 그자리에 있고 너희들의 손닿는 그곳에 있고 싶다

2년전의 어느날이 생각 나는구나. 그날은 오랫동안의 나들이였고 호프집에서 술도 많이 마시고 대화도 많이 나누었고 특히 지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큰애 너는 늘 어른스러울려구 노력했고 언제나 씩씩해 보일려고 애썼었지. 그날도 그랬고 오늘 게시판의 글이 또한 그렇구나. 하지만 그날 보여진 지혜의 눈물에서 아빠는 많은것 느꼈다. 그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도 잘안다. 은주가 늘 씩씩해하며 행동하는것을 아빠가 잘 아는것 처럼 말이다. 사랑스런 딸들아 아빠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컴사서 보냈것 아빠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 했단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것 처럼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가 보자. 현란한 세상이 펼쳐진 그곳에서 힘차게 날개짓 해보자꾸나. 그러나 아빠에겐 조그마한 변화일 뿐이다. 은주 지혜야 모든일에 한번더 생각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렴. 남을 위해 조금이라도 베풀며 살줄알아야 한다. 그럴수 있을때 진정 멋진 삶이 될게다. 그리고 성당 열심히 다니구.....

◎ 이름:이니셜cbc (relayon@hanmail.net) 사랑을 듬뿍 듬뿍 담아서 여보/당신 인터넷 출발!!!

5월달 4050음악세상 캠페인의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봉사와 희생의 아름다운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섯분의 cj님과 가족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님들이 있기에 그래도 세상은 살아볼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4050음악세상을 애청하고 새롭게 찾아오는 가족들 모두가 인터넷의 주인이 되는날까지 끊임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무한히 정보를 얻을수 있는 능력을 갖을때까지 캠페인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업무와 관련된일을 하기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얻기위해 관련된 책을 주로 검색하고 야후, 다음, 네이버,라이코스등을 이용합니다. 현재 이용하

는 대화 사이트는 없습니다. 2-3년전 대화방에 호기심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만 그곳에는진실이 없더군요.

사실 아내 몰래 이용하면서 e-mail도 주고 받고 한 경험이있지만요. e-mail
사용시 www. send2you.co.kr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상대에 따라 일에따라
서 저는 그에 맞는 카드와음악을 선택해서 보냅니다. 직원간에 업무상 메일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사이트 서너
군데 회원으로 가입해서가끔 듣고 있구요.

아내도 학원에서 인터넷을 배운되로는 자신이 필요한것을 스스로 찾아다니면
서 정보도 얻고 같이 좋아하는 노래도 들으면서 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050음악세상에 가족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듬뿍 듬뿍 담아서 5월달 챔피언
의 출발을 힘차게 희망찬 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의 모든 정보는 내
손안에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보/당신 출발!!!!

◎ 이름:우리 (mbc7@simmani.com) (43 기타) 40-50대음악세상 CJ님
들 사행시

[비올레타]의 사투리 사행시.....^^[공원에서 두친구가]

비//비가 올라나카나 와이리 어깨쪽지가 쑤시고 아퍼지? 친구야 우리 음악이
나 들어보까? 몸도 찌푸등하고 날씨도 글꼬 하니까. [친구:여기서 우째 음
악듣노?가꼬잇는 것은 이노트북 뿌인데??] 잘 보그래이 니 폰좀 주바라
[폰은 며할라꼬?]

울//울개 연결하문 된다 안카나 이게 요즘 디따 유행하는 인터넷 수물네시간
음악방송 40-50대음악세상 이라고 칸다아이가 지금은 비올레타 방송시
간인데 모르는 사람이 엽다아이가 니도 마 함들어 보거라.[구라마 나도 함
들어보자]^^

레//레잇비 아이가 이노래는?비틀면서가 부르는것이고 우리니가 마 가요방가
뿌리면 돈받고 부르는 그노래아이가? 와~참말로 음질도 죽이뿌리네^^
이런것도 있나 참말로 디따 좋은시상이네^^ [친구:차갔고 울개 잠시만 음

약들고 있거라^^

타//타라 이제가자 시간없다아이가. [친구;어딜갈라꼬?] 바보야 일개 하문 니
폰 요금 디따 마이 나오고.. 좋은방법이 잇다아이가..^^ 피시방으로 가자
말이다. 비올레타 7시가정 만 한다아이가. 고기 가면 마 마음데로 들수가
있제 ^^퍼뜩 타라 빨랑가자^^40-50대음악세상으로...끝.

다음은 [인생]

인//인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인생의 참맛을 아는 분같오....

생//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멋진분이야.....40-50대 음악세상..화이팅" 인생님
늘 건강하세요^^

다음은 [효조]

효//효조님은 역시 40-50대음악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마수코트야 항상
맑고 밝은 모습 잃지마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조//조만간 우리가 효조님 만나뵙고 맞난것도 사주고 쟈넌 얘기 많이 들려줄
게요^^

다음은 [가인]

가//가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길이 아닌곳으로 가보는것도 우리들의
삶을 여유롭게 또 윤택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은 평화와 행복만으로는 시종 할수가 없습니
다. 괴로움도 외로움도 때론 고독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
고 최선을 필요하겠죠? 괴로움이나 외로움 고독함을 두려워 하지말고 슬
프도 하지않시다. 참고 견디며 이겨 나가는 것이 참다운 인생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망은 늘 가까운데 있는 것입니다. 40-50대음악세상
과 함께 한다면 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꽃천사 루루]입니다.

꽃//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천사를 싫어할사람도 있을까요?

사//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할것입니다..

루//루루님은 그래서 40-50대 음악세상 인기CJ합니다.
루//루루는 그래서 매일 매일 행복하답니다...건강하시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합니다..
=====대구에서 우리가=====

◎ 이름:카바 (vetman18@hanmail.net) 카바의 인터넷 수기~!!!!
벌써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타고 흘러내린다. 작년 무척이도 덥던 어느날 저희 병원에 조그마한 혁명이 있었다. 그날은 바로 모뎀을 걷어내고... 드림라인이라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고,라인을 설치하는 그날! 그날부로 우리 동물병원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항상 전화비에 신경쓰며 인터넷에 인색했는데.....정액제 서비스를 받으니.. 시간 신경 쓰지않고 인터넷의 바다를 향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 별로 할게 없어서..... 접속했다가 강 바로 접속을 끊고 나오기를 몇일 그러다 제가 쥔 싫어하는 챗팅을 하기시작했다. 근데.....챗팅이 너무 너무 재미나서,밥먹는 것, 진료하는 것 등등 모든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고,,,,급기야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집에는 일이 많아서 늦어 진다고 거짓말까지 하게되었다. 그러기를 두어달 하지만 그것도 맨날 같은 대화 내용에 식상하고 말았다. 한때는 세이클럽 최고의 킹카를 자부하면서 챗계의 신동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던 내가 챗팅계를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씨프랜드로 이사해서.....이 4050음악세상이란데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챗팅만 하는게 아니라.....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방송도하고... 음악감상도 하고.. 파일도 나눌 수 있고...많은 사람들과 음악을 통해서.... 친구도 사귄수 있었고, 많은 형님 누님 동생들도 새로 생기게 되었구요...그리구 그 많은 사람들로 부터 새로운 컴 기술과 여러가지 유용한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배우게 되더군요...지금은 너무나 많은 컴 상식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구 저도 참 들어오신 많은 분들께 제가 배운것처럼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언제나 영원한 4050음악방이 되길 빌겠습니다

© 이름:juvekorea (theway21@korea.com) 40-50대의 불타오르는 저력을 보았습니다.!

"40-50대의 불타오르는 저력을 보았습니다!"

그저께 5월 15일 서울의 국립극장에서 있는 '한국익투스남성합창단의 제 7회 정기연주회를 관람하면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친구가 합창단의 단원이라서 저는 그저 친구가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아주기 위해 아무 기대없이 국립극장에 갔었지요.

한편으로는 '지들 주제에 무슨 국립극장에서 연주회까지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입니다. 그 합창단의 단원은 거의가 40-50인데, 몇명의 30대가 40-50대 선배들의 후광을 뒤쫓아 오고 있고, 몇 분의 머리 환한(?-대머리) 60대의 선배 단원이 40-50대와 함께 젊음을 나누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창단을 만들어 연습을 하고 정기 연주회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아들도 아니고, 음악의 전문가도 아닌 이분들이 저뿐 아니라 국립극장에 운집한 1500여명의 관중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많은 연습끝에 이루어진 기량으로 마음껏 재주를 부리면서 우리를 놀라게 만든 것입니다. 이들은 남성들만이 표현해 낼 수 있는 장엄하고도 육중한 음색으로, 그리고 40-50대만의 여유로움으로 관중들을 압도하면서 많은 박수갈채를 유도했지요. 특히 1-2막에서는 서로 다른 단복을 갈아 입고 나오는 섬세함도 보였지만, 3막에서는 티샤쓰, 남방 등의 일반 자유복장으로 나와 피아노 옆 등에 자유롭게 자리를 잡고 합창을 하는 모습으로 40-50대 중년의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더욱 큰 박수를 받았지요. 단원들의 대부분의 면면은 자유형으로 생겨 개성(?)들이 돋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도 아무렇게나 잘 생기신 한 단원이 곡에 심취하여 소프라노 조수미의 얼굴 표정을 지으려 애쓰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 우습기도 했지만, 그만큼 박수는 많이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클곡까지 끝난 후 마지막 막으로 단원들이 머리숙여 인사할 때는 단원들의 환한 머리 (?-대머리) 덕분에 객석이 순간적으로 환해지면서 관중들로부터 웃음과 함께 더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한국익투스남성합창단의 연주공연을 보면서, 무르익은 40-50대의 활화산과도 같이 타오르는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40-50대는 지는 해가 아니라 하늘 중천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이 세상의 모든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주역임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40-50대로서의 긍지를 자짐과 동시에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할 때, 우리의 선대로부터는 칭찬을, 우리의 후대로부터는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40-50대가 되리라는 생각을 이 아침에 가져봅니다. 아, 아름다운 40-50대여,그대

◎ 이름:리베 (kkn1639@kornet.net) 40-50대가 생각해볼 문제 [과연 우리가 40-50대 인가]

요즘 컴퓨터로 공중파 TV도 실시간 볼수있고,공중파 AM 과 FM 방송도 실시간 들을수가 있다.그리고 유명한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온라인상에 올려져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택해서 자신의 킴에 다운받아 언제든지 듣고싶을때 소리바다에 내장된 [파도]라는 재생기를 이용해 윈앰프에선 들어볼수없는 멋진3D음향으로 들을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방법이 있는데도 300여분이나 되는분께서 40-50대 음악방송에 동시 접속자가 되어있는 까닭은 소리바다를 통한 단순한 음악감상보다는, 공중파에서는 좀처럼 듣기힘든 추억어린 트롯이나, 학창시절 일반 다방보다 비싼 커피값을 내고서도 뮤직박스안에서 DJ가 곡에대한 자세한 설명과함께 우리의 신청곡을 들려주면 마냥 호뭇해서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감상하던 그런만남적인 시절을 회상하며, 또한 40-50대분들의 삶에 녹아 있는 호뭇한 사연, 가슴아픈 사연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뜻에서 40-50인터넷 방송을 듣고 있는게 아닌가요? 그런데 어제저녁 "인생"님 방송중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런일이 평소에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었겠죠?그러니 그런 멘트가 나올 수 있었던거구요,저도 어제 첨 알았습니다.

태진아의 노래가 끝나고 나서 인생님이 그러시더군요,접속자수가 몇명에서 트

로트가 나가니 몇명으로 줄었다고, 좀 있다 또 트롯가요 내보낼차례가 되었는데 내보내기전에 이리시더라구요 이번엔 또 몇분이나 나가실런지 하면서 고뇌에찬 멘트를 하시면서 음악을 내보내더라구요...그런멘트는 우리들은 그냥 음악만 듣다보니 모르고 있었지만 방송하시는 CJ 님들은 상당히 신경쓰이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아시아 사이트에 접속해서 음악장르에 따라 접속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새로고침을 눌러가면서 조금 지켜 봤습니다. 많은수는 아니더라도 그런현상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CJ 분들이 힘빠지지는 행동입니까? 트롯이 나온다고 접속끊었다가 끝날쯤되면 다시접속하고...물론 자신이 듣기싫은 음악은 안들을 권리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분들은 자신도 남이 듣기싫은 음악은 신청해서는 안되겠죠? 물론 몇몇분이시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신다면 보수없이 자신들이 좋아서 많은 시간할애해서 잠도 제대로 못주무시고, 식사도 제때 못하시고 자신의 사생활에 지장을 초래해가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CJ님들을 힘빠지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행동이 CJ님들이 음악선곡에 고민하게 되구요, 그런행동이 음악신청하시는 분들에게 갈등을 초래하게 합니다. 이곳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을수 있어야 합니다. 간접적인 시위는 장년세대인 40-50대에선 인격수양이 조금 부족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행동같아 보여서 몇자 적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음악신청하시는분, 듣고계시는분은 꼭 음악때문만이 아니라우리 세대의 삶을 느껴보고자 함께하는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조금만 더 맘의 여유로움을 갖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름:바우 (tsejr1117@netian.com) (45 주부) 딸아/ 우리도좀 먹자 하루종일, 다슬기를 (내, 남편은 꼭 올갱이란다) 까다가...남편은 유난히도 토속적인 음식을 좋아한다. 그것도 아주, 잔손이 많아기는 그런 음식을....그중에 하나가 다슬기 인데, 이게 얼마나 잔손이 많이 가냐하면.우선은, 콩즙듯 돌 밀을 떠들고, 한개씩 잡아서는, 우선은, 하루이상을물에 담그어 놓아, 지저분한 불순물들을 빼내야 한다. 그것도 여러번 물을 갈아주면서 (상할까봐). 하루에 몇번을...그리고는, 풀어놓은 된장국 팔팔 끓을때, 쟈싸게 집어넣어. 건져놓고는,

그 답이 정말로잔손질의 시작이다. 그걸 하나씩 왼손에 쥐고, 바늘이나, 이쑤시개 같은걸루살살 잘 돌려서 빼내야 하는데....그 작업이 장난 아니다. 째로롬한 된장물에 삶아 놓았으니, 한참을 하다보면,손이 따갑고, 통통 불고.....허리도, 등도, 온몸이 전국적으로 안 아픈곳이 없는데.문젠 딸이다.

요놈의 똥 강아지가, (H)이 엄마, 두지라고, 까서 놓으면.그걸 한 입에 툭~하고 털어 넣는다. 물론, 자식입에 들어가는거니까 아까워 해선 안되는줄 알지만...해도 너무 한다. 내 나이정도의 주부님들, 모두 같겠지만, 맛있는거 있다고, 남편, 자식 제껴놓고, 어디 내 입에 함부로, 들어가느냐 말이다.

나도, 사람이고, 입이 있는데, 먹고잡아도, 남편 잘 먹는거 생각해 꼭꼭 참고, 힘들어도 끄고그리고 앉아 (우린 식탁이 없음) 부지런히 까서 그릇에 담아놓으면, 실컷, 컴퓨터건, 아님 테레비를 보다가도, 쏘르르 와선 한입에 토~옥, 그리고곤 하는말.역쉬, 다슬기 맛이어.....차~암. 쥐어박을수도 없고, 얘/ 아빠도 좀 드려야지. 그리고 엄마도 이거 까느라 힘들어, 그러니 먹고 싶으면, 니가 까서 먹어. 알았어, 엄마/ 담건 아빠드려. 안 먹을께 단순한 이 엄만 또, 그말에 꺾박속고, 열심히, 아주 열심히....다슬기를 까서, 냉장고에 넣어 놓는다.

그리고, 남편이 왔을때. 아욱넣고 끓여놓은 된장국에 아까 까 놓은 다슬기를 넣으려 보니.... 호미 빈 그릇만 당그머니 앉아 있다. 그 황당함, 그 분함, 너무도 여처구니 없어, 말도 안나온다. 몇번을 그렇게 속다보니..... 이젠 나도 한가지 꾀를 내게 되고.아이가 학교에서 오기전에, 크고, 실한걸루 부지런히 까서냉장고 아주 깊이 넣어놓고, 시침뚝/아인 오늘도, 그 사실을 모르고, 부지런히, 까서 놓는죽죽 제 입으로 바쁘게 오물거린다. 너무 힘도 들고, 아이 버릇도 고칠겸, 아이한테 한가지 제안을 했다. 엄마, 녀 힘들거든, 그러니 이것좀 네가 까서, 아빠것도 남기고, 너도 먹고, 하되, 뒷 설겅이까지 마치면, 엄마가 2000원 줄께. 한참을 망서리던 아인 그러마 라고, 대답한다.

얼마나 지났을까?.....엄마/ 다했어요..... 아빠건?.....뭘 묻습니까?...당연한 결과를.....근데요, 아까, ㅋㅋㅋㅋ 아주 깊숙히 감추어 놓은 꺾질벗은 다슬기를, 이따, 남편 퇴근해오면. 후라이팬에 참기름넣고, 파와, 마늘 듬뿍넣고,

다글다글 볶다가...통깨도좀 넉넉히 뿌려.....술은 뭘로할까? 맥주도 한병있고, 썬주도, 반병정도.....이 낭만이 11시경 들어오니, 아인 분명 코~~하고 잘라고...ㅎㅎㅎㅎㅎ 그 다음?그거야 뭐....

딸아/ 예쁜딸아/ 엄마 아빠도, 입이 있고, 너만큼, 맛있는거 먹을줄 안단다. 너야, 앞으로, 맛있는 음식 먹을 날들..무지하게 많이 남았지만. 우리 그렇지 못하다. 엄마 아빠 입도 즐겁고 싶으니.우리도 좀 먹자.

내 말을 듣는분들.....날 너무 치사하다고 하실래나? 하지만 좀 봐주세요. 자식도 중하지만..... 우선은 남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도 먹고 싶고요.본성 들어 났네요

◎ 이름:나그네/등대 (han@tomitech.com) (45 회사원)40대...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부른다...

며칠전...동창회날 어떤 친구가 읽었던 글입니다.우리 너무나 공감하고..또 동감했습니다....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그리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의 말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서로에게 힘찬 희망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우리 4050남들께도 격려와 힘찬 희망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서로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40대...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부른다. 동무들과 학교 가는 길엔 맑은 개울물이 흐르고 강가에서는 민물새우와 송사리 떼가 검정고무신으로 퍼올려 주기를 유혹하고 학교 급식 빵을 얻어가는 고아원 패거리들이 가장 싸움 잘하는 이유를 몰랐던 그때 어린 시절을 보낸 우리는 이름 없는 세대였다.

생일 때나 되어야 도시락에 계란 하나 밥에 묻어서 몰래 숨어서 먹고 소풍 가던 날 보자기 속에 사과 2개 계란 3개 사탕 1봉지 중 사탕 반 봉지는 집에서 기다리는 동생들을 위해 꼭 남겨와야 하는 걸 이미 알았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이름 없는 세대였다.

일본 식민지 시절을 그리워 하는 사람들과 6.25를 겪은 어른들이 너희처럼 행복한 세대가 없다고 저녁 밥상머리에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 할 때마다

일찍 태어나 그 시절을 같이 보내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움과 행복 사이에서 말없이 고구마와 물을 먹고, 누런 공책에 “바둑아 바둑아 이리 오너라 나하고 놀자”를 침 문힌 몽당연필로 쓰다가 단칸방에서 부모님과 같이 잠들 때에도 우리는 역시 이름 없는 세대였다.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외운 국민교육헌장 속 어디에 있었는지 대통령은 당연히 박정희 혼자인 줄 알았으며 무슨 이유든 나라 일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빨갱이라고 배웠으며 학교 골마루에서 고무공 하나로 30명이 뛰어 놀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이름 없는 세대였다.

검은 교복에 뺨뺨머리 6년 간을 지옥문 보다 무서운 교문에서 매일 규율 부원에게 맞는 친구들을 보며 나의 다행스런 하루를 스스로 대견해 했고 성적이 떨어지면 손바닥을 담임선생님께 맡기고 걸상을 들고 벌서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름 없는 호떡집 짬뽕 집에서 여학생과 어울리다가 학생 과외지도 선생님께 잡혀 정학을 당하거나 교무실에서나 화장실에서 벌 청소를 할 때면 연애 박사란 글을 등에 달고 지나가던 선생님들에게 머리를 한대씩 쥐어 박힐 때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무용담이 되던 그때 우리는 이름 없는 세대였다.

4.19세대의 변절이니 유정회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자동 거수기니 애국자이니 말들이 분분하고 뇌물 사건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간첩들이 잡히던 시절에도 우리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디론가 잡혀갔다 와서 고문으로 병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술집에서 모여 숨을 죽이며 들었으며 책 한 권으로 폐인이 되어버린 선생님의 아픔을 소리 죽여 이야기하며 스스로 부끄러워했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이름 없는 세대였다.

빛깔 좋은 유신군대에서 대학을 다니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복날 개보다 더 맞고 탈영을 꿈꾸다가도 부모님 얼굴 떠올리며 참았고 80년 그 어두운 시절 데모대 진압에 이리저리 내몰리며 어쩔 수 없이 두 편으로 나뉘어 진압군이자 피해자였던 그때에도 우리는 이름 없는 세대였다.

복학한 뒤에는 시험지 답안의 컨닝 페이퍼인 책상 위에 후배와 같이 까맣게 컨닝 페이퍼로 더 나은 학점을 위해 도배하지 못하고 망설이던 그때에도 우

리는 이름 없는 세대였다.

일제세대, 6.25세대, 4.19세대, 5.18세대 모래시계세대...등등 자기 주장이 강하던 신세대 등 모두들 이름을 가졌던 시절에도 가끔씩 미국에서 건너온 베이비붐 세대 혹은 6.29 넥타이 부대라 잠시 불렀던 시대에도 우리는 자신의 정확한 이름을 가지지 못했던 불임의 세대였다. 선배 세대들이 꼭 말아 쥘 보따리에서 구걸하듯 모아서 겨우 일을 배우고 혹시 꾸지람 한마디에 다른 회사로 갈까 후배들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신세대 노래 부른 늙은 세대들

아직은 젊다는 이유로 후배 세대들을 대변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급료 인상, 처우 개선 등을 도맡아서 주장하던 세대 단장, 과장 차장 부장 이사 등 조직의 간부란 이유로 조직을 위해 조직을 떠나야 하는 세대들 노조원 신분이 아니어서 젊은 노조원들이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드러누운 정문을 피해 쪽문으로 회사를 떠나는 세대들 IMF에서 제일 먼저 수몰되는 세대 미혹의 세대 오래 전부터 품어온 불길한 예감처럼 맥없이 무너지는 세대 이제 우리는 우리를 우리만의 이름으로 부른다.

선배들처럼 힘있고 멋지게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어느 날 자리가 불안하여 돌아보니 ..늙은 부모님은 모셔야 하고 아이들은 어리고 다른 길은 잘 보이지 않고 벌어 놓은 것은 한겨울 지내기도 빠듯하고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고 도전하기에는 늙은 사람들 회사에서 이야기하면 알아서 말 잘 듣고 암시만 주면 짐을 꾸리는 세대 酒神의 마지막세대 컴맹의 제1세대 부모님에게 무조건 순종했던 마지막 세대이자 아이들을 독재자로 모시는 첫 세대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 처와 부모 사이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는 걸 미안해하는 세대 이제 우리는 우리를 퇴출 세대라 부른다.

50대는 이미 건넌고 30대는 새로운 다리가 놓이길 기다리는 이 시대의 위태로운 다리 위에서 바둑돌의 사석이 되지 않기 위해 기를 쓰다가 늦은 밤 팔리지 않아 애태우는 어느 부부의 봉어빵을 사들고 와서 아이들 앞에 내놓았다가 아무도 먹지 않을 때 밤늦은 책상머리에서 혼자 우물거리며 먹는 우리를 모두들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이야기할 때 이름 없는 세대였다가 이제야 당당히

그들만의 이름을 가진 기막힌 세대 바로 이 땅의 40대
고속 성장의 막차에 올라탔다가 이름 모르는 간이역에 버려진 세대 이제 우
리는 우리를 퇴출 세대라 부른다.

하지만...2,30대의 패기를 그대로 갖고 선배 50대들의 경험도 그대로 살릴
줄 아는 그야말로 진정한 Golden Age가 40대 일수도 있습니다. 우리 40대
가 진정 우리 역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딱 죽어지내는 대상이 아니라 젊은
애들과 나이든 어르신들의 <황금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낼수 있지 않겠습니
까? 이를위해서는 물론 뭐든지 새로 보고, 새로 공부해야 하겠지만요. 이렇게
만 되면.... 우리보다 나은 세대가 어디 있을까요?

알거 다 알죠. 모를거 확실히 모르죠.....ㅎㅎ 프리첼 나그네/등대

◎ 이름:덕팔이 (actto100@hanmail.net) 맨 바로 뛰고 왔쌔다.....!!

꿈에도 그리던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느라 그 머나먼 곳 두메산골을 달려
갔습니다. 아늑한 내 고향은 변함이 없는데,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러서 모든
게 예전 같지가 않아서..한편으론 조금의 설한 맘은 감출수 없었답니다..

아득한 옛날의 그 아담하고 이쁜 초가집에 노을이지고 어둠이 내리면 저녁을
짓느라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던때가 그리웠지만 그모습은 간곳없
고.....도시의 문명이 언제 거기까지 갔는지 이제는 작은 소도시가 되었으니...
수~~~십년만에 만난 코 흘리게 친구들은 어엿한 중년 사장님들이 되어 있
고 깜찍한 이쁜이들도 중년의푸짐한 아줌씨로 변해 있으니 가는 세월을 막고
잡을수도 없는일,흐르는 물이라면 막을수 있는데..애구....

모두들 추억에 젖어서 옛날의 교정으로 달려가서 한바탕 뛰었고.많은 상품이
걸려 있다는 피구 시합에서 난 우리 편이 이기길 바라며 발바닥이 얼릴 하도
록 맨발로 뛰고 도망 다니고 해서 결국 승리를 했쥬~~~(운동장이 꺼지라...
뛰었쥬~~~) ㅎㅎㅎ 드디어 상품을 개봉하는데 ~~~~~!! 다들 눈을
크게뜨고 상품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들여다 보는데.....크~~~은 상자안에
서 나온건.....우승팀은 빠~~~영~~~~~! 과자 세 봉지~~~!

진팀은 새우깡 두봉지~~~~! ㅎㅎㅎㅎㅎㅎ상품에 눈이 어두운 날 어케 알았는지 그런걸로??에이 ..상품이 대수냐??강 즐겁게 놀자하고 2박을 올 날 밤새고 그래도 아직은 근력이 남아 돌아가는지 그길로 부산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또 날새고 이번에 철의 여인이 되어서 돌아 왔씀다...!!

그 먼길을 야밤에 눈을 비비면서 아그들과 덕칠이가 기다리는 곳으로 무사히 돌아 왔습다(여기서 덕칠이는 ...울 신랑 임니다...) 이제는 한여름의 무더위는 꼬리를 내리고 물러 갔으니..우리 4050음악방 식구들 건강하세요.....!!

◎ 이름:초우 (hhs1230@yahoo.co.kr) (35세 가사) 봉숭아 꽃물 들이던 날 (초우의 실화^^*)

이글은 저의 실화 랍니다..^^* *십년의 약속 대화명 (475번 초우) * 동호회에 올렸던글이고 여기 음악세상 에도 올려보니다.. 음악 신청란에 올렸더니 가인님께서 아주 맛깔스럽게 읽어 주시더군요..

♡ 봉숭아 꽃잎 물들이던날 ♡

며칠전에 텔레비전에 6시 내고향에서 어느 노부부 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팔순이 넘으신 할아버지는 아직도 정정하시고 팔순을 바라보는 할머니 또한 정정하신 모습이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생활비도 보태주고 하는데도 노부부는 화초를 시장에 내다 파시며 즐겁게 살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 기차길 옆에다 화초를 내 놓을때는 두분이서 리어카를 끌고 밀며 그렇게 웃음을 머금고 행복을 머금고 즐거워 하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화초는 할머니께서 일일이 꽃에 대해 설명을 하시며 파시고 그 곁에서 할아버지는 자리를 지키며 미소를 띄우며 바라보고 계시고.. 점심시간이 되면 두분이서 손을 꼭 잡고 식당으로 가서서는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음식을 수고하신 다며 할머니의 그릇에다 덜어주시고 그러셨다.

노부부의 정다움에 부럽기 까지 했다. 할머니의 손톱에 예쁘게 물들여 져 있는 봉숭아 꽃물이 들여져 있었다. 리포터가" 할머니 손톱이 정말 예쁘시네요" 하니 이거 할아버지가 해 주었어.그러셨다..곁에서 지긋이 웃고 계시는 할아버

지께 리포터가 할아버지께서 해 주셨어요? 하니 지긋이 웃으면서 1년에 한번씩 꼭 내가 해주지..그러셨다.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두분의 모습에 가슴이 찡했다.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 할수가 있을까..남편과 같이 텔레비전을 보았기에 남편에게 우리도 저렇게 살아요.했다..빙긋이 웃기만 하는 남편...우리남편은 경상도 토박이 왕 경상도 사나이 그 자체다. 경상도 남자들은 집에서 세 마디만 한다고들 하지..아는(아이는)..밥도 (쥐) 자자..이런다 한다고 하는것은 그만큼 무뚝뚝하고 말이 없다는 뜻이다..우리 남편도 예외는 아니다..말이 조금 적은 편이다. 내가 애교 과라서 ^^* 그래도 재미나게 살고 있지.. 텔레비전을 보고 나서 생각 나는 김에 난 시골에서 봉숭아 꽃잎을 따 가지고 온것을 물들이려고 마음먹었다. 가만히 여유있게 봉숭아 꽃물 들일 시간이 없어서냉장고에다 보관중 이 있었다..딸아이와 함께 백반과 꽃잎을 찜으며남편에게 자기야^^* 이거 손톱에 올려주라 ^^*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애교 떨었다.

남편왈 " 봉숭아 물들이거 첫눈올때까지 안 지워지고 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하데..그러다..어디서 들었나 보다..내 답은 이랬다..자기야^^* 나 첫 눈 오기전에 지워져도 괜찮아. 내 첫사랑은 자기니까^^* 했더니 빙긋이 웃는 내 남편.. 손톱에 꽃잎 찜은거 올려주고딸 아이에게도 해주고 물 들일때까지 난 가만히 앉아서남편에게 이것저것 시키고^^* 자기야~^^* 목 마르다 물 마시고 싶어~^^* 하니 윙갓다 대령하고..ㅎㅎㅎ

난 속으로 이거 무지 괜찮네 ㅎㅎ 완전히 여왕 대접이었다..

난 봉숭아가 예쁘게 물들여 질때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남편이 모든거 다 해주었다..남편의 덕택에 예쁜 손톱이 되었다. 보는 사람들 마다 "어머 봉숭아 예쁘게 물들었네"한다.. 이거 우리 신랑이 해 주었어..^^* 난 자랑삼아 이야기 했다..ㅎㅎ 딸아이도 예쁜 손톱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했다.. 나와 딸은 아주 예쁜 손톱을 자랑하며 세상에서 가장 예쁜 봉숭아 꽃물을 들이던 날이 내게는 잊을수 없는 아름다운 날로 기억 되리라..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래도 행복함을 느낄수 있어서 무뚝뚝한 남편이지만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느끼면

서 오늘도 난 즐거움의 반찬을 만들어 내 식구들에게 행복의 밥을 지어 서 아름답은 하루 를 보내고 싶다.....언제 까지나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낀다면 이보다 더 좋을수는 없겠죠^^*
일지매님도 최근들어 연재로 글을 올려주고 계신다,,,바다이야기로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 이름:일지매 (dlfwlao112@sayclub.com) 바다이야기(1)

바다는 우리가상상할수없는 수많은 변화를보여줍니다.

수경보다 맑은바다,쪽보다 더 푸른바다,에머랄드빛 칼리브연안은 가히절경이지요. 지브롤타를 통항하며본 에게헤의풍광은 잊지못할 추억입니다. 25일간 지루한항해끝에 태평양을 횡단해 파나마운하를 지날때는 밤깊은시간, 갑문식운하는 정말 신기하더군요. 순식간에 도크에 물을채워 뜨게하고 다음도크로이동,다시 새로운도크에 물을 채우면 배는 떠오르며 한계단씩 올라가는 이른바, 계단식운하를 통항하는데 밤에본모습이지만그절경이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가끔씩 선내를 오르는 파나마원주민들의 기념품도좋았지만,호수같이 넓은 웨이팅포지션은 오색 탐조등의모습과 지나치는 배들의 휘황한불빛,그리고 밤벌래들의울음소리마저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같은 연주들을수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그때서야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수면이높다는걸 알게 되었고 아메리카에서 출발해 남아메리카의곳곳을누비며 새로운세상을보는재미가 무척쏠쏠하더군요. 대서양을 출발해서 검은대륙 아프리카로가는길은 일주일.. 뱃사람들은 이렇게 오래항해를할때가 제일 따분합니다.

브릿지에서 컴파스와 레이더를 응시하며 가끔은 쌍안경으로 철흑의 어둠을살피며 뱃길을 열어가 는 항해사들...커피와 음악이 있기는하지만,무료함을 떨구기엔 턱없이 부족하지요.아스라이 파고드는 향수를 느끼는 시간이지요. 두고온 가족과 보고싶은 친구들의모습을 그리며 밤배를 저어갑니다.(계속...)

40-50대 음악세상 추천작가 게시판

© 이름:여울샘 (sunmoon0@nownuri.net) © 2001/6/29(금) 10:13

© 홈페이지:<http://www.yezawa.com/entertain/humor/080501/080501.htm>

우리엄마의 건망증

★ ☆ 건망증에 대하여 ☆ ★

우리가 살아가면서 백가지중에 아흔아홉개 잘하고 한가지 못해서 아흔아홉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제 친정엄마는 성격도 좋고 음식도 잘하시고 거기다가 한미모까지 그런데 딱한가지 우리엄마가 가슴을 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건망증이란 놈이 가끔씩 와서는 우리엄마의 심사를 해집어 놓고 간단 말입니다 아줌마 = 건망증 애놓고 뭐하고 하다보면 그러려니 하면서도 속상한건 사실이잖아요.

불과 며칠전에도 저는 계란사다가 냉동고에 놔두고서 무진장 찾았는데 아예 못 찾는게 나을뻔 했습니다 아이 ! 탄탄해차갑기도 하네.. 아직 젊은 제가 이려는데 60이 가까우신 우리엄마의 건망증 정도야 봐줄만한 일인지도 모르는데 ... 그것도 어떤 종류의 건망증이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씀 어느날 새벽 1시경 참고로 울 아버지는 초저녁에 일찍 주무 시고 4시면 일어나셔서 논에 나가시는 아주 전형적인 농부입니다.

한참 달게 잠을 자고 있을 그시각에 울엄니는 눈 말뚱말뚱 뜨고 뭔가를 열심히 고민하고 계셨답니다. 그 고민은 저 윗동네에 사시는 영구아버지의 성이 궁금했답니다 ... 잘 아시는 분이었고 그분의 성씨가 뭐라는건 시집와서부터 알고 있던 거니까 30년이 넘게 알고 지낸 분인데왜 그 첫새벽에 그 아저씨의 성씨가 궁금해 졌냐 이 문제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 그저 팔찌랄뻘엔 ... 아버지한테 쿠사리 들고 싶어서옆에서 곤히 주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살폈답니다. 깨울까 말까 ... 그래도 엄마는 무진장 고민을 하셨겠죠? 아버지야 그 사정을 알리 없을테지만 말입니다.

'기냥 자 ? ... 궁금해 ... 잠이안와 .. 깨워 ? 욱 허벌나게 할텐데 할수 없지

고걸 모르면 도대체 잠을 잘 수 없는데 .. 알아야 잠이오는걸' 이렇게 생각한
울엄니 드디어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 잠이 덜깬 아버지의 건조한 음성 "몇신데 안자고 불러싸" 초조한
엄마 "아니 저기 잠깐만 일어나봐요 궁금한게 있는데" 잠이 덜깬
아버지의 쉼 음성 "이 첫새벽에 뭐가 궁금해 뭐여 얼렁 말혀 ..."
그러자 엄마는 아주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말여 ... 영구 아버지 있잖
우 .. 한서방 말야 . 그 한서방 성이 뭐더라 ..." 아버지 갑자기 용수철 튕기듯
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알죠 ? "이런 우라질 여편네가 미쳤나 ...
아니 한서방 성이 한가지 뭐긴 뭐여 쟈장 ..." 글구나 한서방 성은 한가
구나 온갖 쿠사리 다 받으신 울엄니 이제는 궁금증 풀려서 잠 잘랐을
것 같쥬? 무신 그런 썩한 말씀을 ...부부가 그 긴긴밤을 하얗게 새웠답니다
뭐 ... 잠 못잔 두분의 이유가 좀 틀리기야 하지만 등돌리고 누운 두양반
의 그날밤은 안봐도 천리안이쥬

아버지 : 녀 열받아서 분삭히느라 까만밤을 하얗게 새우셨쥬

어무이 : 그만거 잘쥬 대답 안해주는 남편 땀시 열받아서 까만 밤을 하얗게
새우셨다네요. 뭐 그정도 갖고어느때는 우리집에 전화하셔서 이런걸
 물어보신답니다. "야야 .. 네네집 전화번호가 몇번이나 ? 잠깐 생각이 안나서
.." 우씨 그럼 이전화는 어떻게 한거예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접전을
벌이는 두양반엄마 ! 아버지 ! 참 대단하십니다

담엔 권투하는 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글러브 끼고 정식으로 한판 붙어보심이 어떠하실런지 ...심판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나이다 철없는 딸내미 의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울샘입니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얘기들 풀어 놓겠습니다 저는요 수원살아
요 35살 양띠 주부고요. 남편과 9살 딸 5살 아들이 있습니다. 자주 봐요

심현용
(인생)

40-50대음악세상 방송을 만들어 CJ 인생이라는 대화명으로 처음 방송을 시작하였다. 2000년 8월5일 정규방송을 시작하여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를 방송 목표로 24시간 신청곡과 사연중심의 방송을 지키고 있으며, wing21.co.kr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4050 음악세상

발행일 : 2001년 10월 18일

역은이 : 심현용 (인생)

퍼낸이 : <http://wing21.co.kr>

퍼낸곳 : 대우문화사

이메일 : wing21@wing21.co.kr

〈비매품〉

이책을 끝내면서

1년을 기념하고 40-50대음악세상 운영에 도움을 주신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한 이 책자가 이제 서야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에 경험이 없는 인생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40-50대 음악세상을 하고 있듯이 이 책자도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전한다는 용기 하나만으로 만들었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에게는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인터넷문화를 되돌아보고 아직도 컴퓨터를 몰라서 인터넷하기를 망설이는 많은 40-50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이 책자가 기억되기를 희망하면서 1년을 마감하고 2년을 향해 달리는 40-50대 음악세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오늘도 흘러갑니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사회 전체에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를 마음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하는 이 방송도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하는 CJ들도 그리고 방송을 듣는 청취자도 막연히 재미삼아 하는 방송에서 벗어나 목표의식을 가지고 방송하는 자세와 청취자도 목표를 가진 청취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책자를 통해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의 슬기와 지혜가 아름다운 전통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지침서로 활용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채팅하는 목적을 확실히 해라

요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주제의 방을 정해서 채팅을 해야한다. 아무 생각 없이 채팅을 하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채팅에 빠져들 수 있다.

*공개채팅방을 피하라

공개채팅은 익명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상대의 얘기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나이 직업등 상대의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 여성들을 위한 전용 채팅방에 남성이 들어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명을 전제로 하는 동호회 채팅방을 이용해야한다.

후배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인터넷 문화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 불륜에 빠진 여자들이 많다는데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사이버자키 주부 한승희씨 제안 "주부가 인터넷 채팅 할 때 주의할점 6가지"

〈〈인터넷방송국스타 사이버자키 한승희씨가 말한다〉〉

이것만 조심하면 채팅에서 불륜 피할 수 있다

* '예, 아니오'를 확실히 해라

채팅을 하면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만나자는 유혹을 끈질기게 받게된다. 이때 우물쭈물 하면 상대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된다.확실하게 거부의사를 밝혀야한다.

* 대화명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상대하지 마라

하루에도 여러번 대화명을 바꾸는 이들은 심중팔구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아이디는 같은데 대화명이 자주 바뀐다면 일단 의심해야한다.

*긱속말에 주의하라

채팅에서 1:1로 몰래 주고받을 수 있는 긱속말을 조심해야 한다. 친하지도 않은데 긱속말을 날리는 사람은 절대 상대하지 마라.

*전화번호는 절대 가르쳐주지 마라

채팅을 하면서 전화번호는 필요 없는 정보다. 개인적인 연락을 할 필요가 있다면 이메일을 이용하면 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스토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이들도 웬만큼 커서 여유가 생기고, 집에만 있다보니까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죠. 이럴 때 만난 인터넷 채팅은 정말 요지경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익명성이 보장되고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모르는 사람들과 속 깊은 대화를 할수 있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남편하고는 예전만큼 살갑지도 않고...이럴 때,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칠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만남이 가상공간을 넘어서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불륜이 생기는거죠.”

한씨는 채팅이 올바르게 정착만 된다면 주부들을 위한 아주 좋은 문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채팅은 인터넷에 쉽게 적응하도록 만드는 훌륭한 도구이다. 주부들이 처음 인터넷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타자 속도가 너무 늦다는 것.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입력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어려움을 겪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기 힘들다. 검색 사이트를 통해 검색어를 치는 데도 상당한 수고를 해야 한다면 정보를 찾는 일 자체에 싫증을 느끼게된다. 하지만 채팅에 재미를 붙이다 보면 타자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지게 된다.

또 채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큰 장점이다. 문제는 이 사람들과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 요리나 인테리어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나눈다면 채팅은 더없이 좋은 취미생활이 된다.

”전 40-50대가 채팅에 더 많이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그들이 가지고있는 인생의 경험, 전문성 등 이런것들은

에 열정을 다했다.

”사실 10대와 20대를 위한 방송은 무지 많아요. 공중과 역시 대부분 그들을 위한 방송인데, 인터넷에서까지 젊은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2만여 개의 인터넷 방송중 우리 세대를 위한 방송이 불과 10개도 안되니.... 제가 이렇게 열성을 보이는 것은 40-50대를 위한 문화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방송을 진행하면서 돈을 일절 받지 않는다. 오히려 컴퓨터 사고, 경주에서 방송국이 있는 서울에 가끔씩 들르느라 경비가 쓸쓸히 든다. 하지만 한씨는 방송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오히려 이만한 취미생활도 없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다.

한씨는 요즘 주부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나쁜길로 빠지는 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인터넷을 하는 주부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할수 있는 일은 수만 가지인데, 왜 채팅에만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한씨가 방송을 통해 끊임없이 강조하는게 올바른 채팅문화다.

”한번은 40대 남성에게서 '아내를 찾아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있어요. '아내가 채팅을 하다 만난 남자와 살겠다'며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방송을 하면서도 전화로도 상담이나 신청곡을 받기도 하는데, 그 아내가 핸드폰으로 저희 방송국에 전화를 했고 그 기록이 남아 있었던거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아내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채팅을 오래 해봐서 주부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쉽게 빠지는지 이해가 안 가는건 아니예요. 주부에게 있어 30대는 나름대로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채팅에 한 세달 폭 빠졌어요. 저로선 정말 신기한 세상이었죠. 주부로 살면서 전혀 모르는 남자하고 얘기하고..... 채팅공간은 정말 주부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한 석달 동안 하다보니까 점차 싫증이 나더라구요. 그리고 제 주위에서 채팅을 통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도 보게 되고..... 그러다 만난 게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이에요. 특히 40-50대를 위한 방송은 여기가 유일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열렬한 청취자였는데, 운영자의 권유로 진행까지 맡게 된거죠.”

그녀가 본격적으로 사이버자키 활동을 시작한 건 작년 9월부터. 이때부터 한씨에게 방송은 하루 일과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 되었다. 매일 7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하면서 40-50대들의 애환을 함께 나눌수있었다. 때론 한씨가 직접 초보 주부들에게 조언을 하기도하고 그녀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수 있었다.

“남편도 적극 지지해주었어요. 제가 인터넷을 하기전에는 밖으로 많이 놀러다니는 성격이었거든요. 친구들과하고 놀러다니는 걸 좋아해서요. 호호호. 그걸 남편은 싫어 했는데, 방송을 하면서부터는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좋아하더라구요. 컴퓨터도 남편이 사준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의 불만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특히 작년은 큰아들이 고3이었던 때. 다른 엄마들은 아들이 고3이면 함께 수험준비를 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주는데, 한씨의 경우는 아들보다 컴퓨터를 더 많이 쳐다보았던 것. 아들이 ‘엄마 머릿속엔 판게 들어 있다’며 투정을 부렸을 정도로 그녀는 방송

건 아니다. 세 대 모두 한씨의 차지다. 아이들은 그저 엄마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뿐이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컴퓨터 근처에 절대 출입금지. 그녀는 이 시간에 라디오 DJ'비올레타'로 변신한다. 한씨는 40-50대를 위한 인터넷 라디오방송국 'wing21'(www.wing21.co.kr)에서 명성이 자자한 사이버자키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이라고 해서 쉽게쉽게 진행할수 있는 건 아니다. 생방송으로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고 신청곡을 틀어준다. 꼬박 7시간을 컴퓨터 앞에 붙어 있어야한다. 게다가 그녀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일 수천명에 달한다. 이미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는 스타로 부상했기 때문에 부담이 많다. 매번 방송에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인터넷 방송은 그날 그날 사연을 소개할뿐 아니라 그 이야기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을수 있습니다. 신청곡을 틀러주면 짤막한 감상문도 전해주고요. 기존의 라디오 방송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청취자 스스로가 함께 참여하는 거죠. DJ역시 자신의 의견을 마음놓고 얘기합니다. 어디서든지, 컴퓨터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구요.”

그녀가 처음 컴퓨터를 접하게 된 건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이었다. 눈만 뜨면 컴퓨터에 빠져드는 아이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배우기 시작했고 인터넷 서핑에도 재미를 붙였다. 그러다 채팅을 하게 되면서 부터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이들보다 훨씬 많아졌다.

제공하는 ‘음악세상 초대석’,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음악세상 현장 방송’, 전화로 방송에 직접 참여하는 ‘전화 리퀘스트’ 코너도 있어요. 언제 접속해도 늘 방송 중이에요. 24시간 방송 하거든요. 제가 중일 하는 건 아니구요. 인생, 효조, 꽃천사루루, 가인, 저 이렇게 5명의 CJ가 함께 한답니다.”한승희씨는 중학교 2학년 막내 아들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일요일 오후를 보낸다. 그녀는 식사를 하면서도 직장에 있는 남편과 서울로 대학을 가 하숙하는 아들 안쓰러워 걱정하는 평범한 주부다. 오늘도 청취자들의 신청곡을 찾고, 어떤 멘트를 하면 좋을까 즐거운 고민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녀의 삶이 즐거운 이유, 바로 용기있는 도전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먼센스 2001년 5월호 기사

사이버 주부 스타 40대주부 한승희씨

아이들보다 더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주부 한승희씨. 그녀는 40-50대를 위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의 사이버자키'비올레타'로 더욱 유명하다. 인터넷 채팅이 불륜의 씨앗이 되기도하는 요즘 한씨가 제안하는 올바른 채팅 문화를 소개한다. 수천명의 청취자 거느린 사이버자키 매일 7시간씩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경상북도 경주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인 한승희(43세)씨 집에는 최신 기종의 컴퓨터가 세대나 있다 스무살 열다섯살 두 아들이 컴퓨터에 한창 빠져 있을 나이라서 그런

위도 함께 했다. 일본 문무성 홈페이지에 다 같이 접속해서 새 로고침을 눌러 서버를 다운시키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시했다. “저도 방송 시작하고 삶이 즐거워졌어요. 가사일에 남편, 아이 들 뒤치닥거리만 하다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신감을 주는지 몰라요. 저와 함께 방송을 듣는 40, 50대들도 같은 생각이예요. 시시콜콜한 수다도 떨지만 사회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스스로 생각해도 뿌듯 하답니다.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지 생각보다 인터넷 참 쉬워요. 저도 아무 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사이트에 윈앰프(Winamp)와 리얼 플레이(Realplay)로 방송을 듣는 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두고 있다. 그뿐 아니다. 전화로 일일이 방송 듣는 법을 설명해 준 적도 있다. “인터넷을 알면 얻는 것이 많아요. 인터넷이 10, 20 대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세대가 주인공이 돼 야지요. 중년층이 낄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채팅을 하다 보면 간혹 불미스러운 일도 생긴다. 얼굴 없이 이야기 하는 세상이다 보니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인생’ 과 ‘비올레타’는 ‘채팅방에서 반말하지 않기’ ‘가족 홈페이지 갖기’ 등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 건전하게 즐기는 문화가 부족한 우리 사회에 그들의 이런 시도는 보는 이들을 흐 못하게 한다. 또 자신들의 인생 경험을 주로 인터넷을 하는 10, 20대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음악 들으러 오세요. www.wing21.co.kr이 주소예요. 정보를

악 다방 가는 게 취미였어요. 왜 드라마 보면 나오는 머리 길고 뒷머리에 빗 쏘고 다니는 DJ 있는 다방 말이에요. 낮 시간에는 여느 다방처럼 음악만 틀다가 저녁 6시쯤 되면 가수가 나와요. 이규대라는 가수가 나왔는데 전자 울진을 치면서 노래를 했었죠. 저녁에 가면 커피 대신 주스를 주문해야 했어요. 주스가 조금 더 비싼데 대신 악보를 나눠주고 가수가 노래부르면 모두 함께 따라 불렀어요. 양희은, 윤형주, 송창식 이런 가수들 노래를 주로 했지요.”

그 때 생각이 나는지 양희은의 ‘한 사람’을 흥얼거린다. 그녀는 요즘도 처녀 시절 생각을 하며 경주 동국대 캠퍼스 앞에 있는 음악 다방에 들른다. 예전처럼 통기타 가수 노래가 나오지는 않지만 좋은 음악을 듣는다는 즐거움에 한가할 때 들러 음악 감상을 하곤 한다. “그런데 거기도 젊은이들 일색이에요. 주부들 음악을 좋아해도 찾아 다니며 듣거나 CD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살림하는 사람한테 돈 만원은 꽤 큰 것이거든요. 기껏 사야 길거리포 테이프지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음악을 들려주는 무료 방송을 하는 것이 뿌듯하다.

비올레타 한순희씨, 그녀의 방송은 단지 신청곡 받고 음악만 틀어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신문을 꼼꼼히 읽고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정보도 찾아 전달한다. 집안 일 하다보면 신문도 못 볼 때가 많다는 것을 한순희씨도 경험해 알기 때문이다. 그것 뿐 아니다. 사회의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청취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지난 번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 났을 때는 사이버 시

해 구입한 컴퓨터는 애들이 나가고 나면 무용지물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애들은 컴퓨터로 오락하느라 정신 없고, 뒤늦게 돌아온 남편도 자판을 누르며 뭔가 열심히 했다. 컴퓨터를 알면 가족들과 이야기가 될 듯 싶었다. 유치원생 작은아이가 가르쳐준 게임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 무료 강좌, 문화센터 강좌를 찾아 들으며 하나씩 배워 나갔다.

“하루는 문화센터에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컴퓨터를 하며 깔 깔 웃는 거예요. 뭐가 그리 재밌나 싶어 물었더니 채팅을 한대요. 그래서 PC통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 대화방에 들어가니 온통 10, 20대였다. 말도 못하고 사람들 대화하는 것만 지켜봤다. 그러다 대화명이 ‘인생’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인생’이 대화방에서 음악을 틀곤 했는데 나이가 맞아서인지 음악 취향도 맞고 서로 이야기도 통했다. 또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꽤 규모가 커지자 인생이 따로 사이트를 만들었다. 일을 벌이고 나니 인생 혼자 하기에는 벅차 그의 제안으로 한 순희씨도 ‘비올레타’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때가 지난 9월이다.

‘가족 홈페이지 갖기’ 등의 운동 통해주부 네티즌들에게 도움 주고 싶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음악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담스러웠죠. 인생님이 많이 도와주었고 나름대로 인터넷 관련 서적과 방송 진행 책자를 읽고 공부했어요.” 가정 주부인 자신이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7시간이나 방송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학교 다닐 때는 합창반 활동을 했고, 치녀 때는 음악다방 단골 손님이었다. “음

2001년 여성중앙 9월호 기사소개

10, 20대의 전유물로 알려졌던 인터넷. 아줌마, 그것도 40대 평범한 주부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다. 방송 하느라 하루가 다 가도 사이버 자키(CJ) 한순희씨(42세)는 즐겁기만 하다. 그녀의 즐거운 삶이 시작된 비밀은 바로 용기있는 시작.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중학생 막내와 남편 챙겨 학교로, 회사로 보내고 나면 그녀만의 시간이 시작된다. 방송 시간만도 7시간, 준비하는데 서너 시간. 하루의 반을 음악 방송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낸다. 가사일 말고도 이것 저것 잔신경 쓸 일이 많은 주부가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렇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늘 즐겁다. 음악을 틀고, 또래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대의 컴퓨터와 높게 쌓인 CD, 인터넷 관련 서적들로 거실 한 칸이 꽉 차 있는 집. 여기가 바로 평범한 40대 주부 한순희씨가 신이 나 음악 방송을 하는 방송국이다. 서울 토박이인 그녀가 결혼해서, 큰 아이가 유치원 다닐 무렵 피붙이는커녕 친구도 하나 없는 이곳 경주로 내려왔다. 남편 직장 때문이었다. 그렇게 온 지 벌써 13년 쯤이다. “내려와서 몇 년은 젖도 안 땀 막내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막내도 유치원 다닐 무렵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애들 학교로 가고 남편 출근하고 나면 외롭고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맘때 주부들이 느끼는 소외감, 그녀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컴퓨터였다. 아이들을 위

"인터넷에서 중년층이 갈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채팅할 때 나이 밝히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지난해 여름 채팅사이트에서 서울에 사는 선살의 '인생' 님을 만났어요." 이미 개인 방송을 하고 있던 인생과 '40~50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 의기투합, 지난해 9월 1일 첫 방송을 했다.

"처음에는 평소 알던 10여명만 들었는데 '말이 빠르다' '발음이 부정확하다' 는 등 지적도 많았죠. 라디오를 들으면서 열심히 따라하니 많이 바뀌더군요. " 효조(인천).루루(대전).가인(전주) 등 20~40대 CJ까지 합류하면서 하루 4시간에 불과했던 방송시간도 차츰 늘어나 지난해 말부터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다. 비올레타는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일 7시간 방송한다. 현재는 6대의 서버를 운영할 정도로 규모도 커졌다. 신청곡과 사연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40~50대 음악세상' 은 어느 라디오 방송과 다를 바 없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동호회를 초대하는 '수요 초대석', 월.수.금 저녁에는 청취자가 전화로 참여하는 '전화 리퀘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현장 생방송도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임진각에서 실향민을 위한 '통일로 가는 길' 특별방송을 했고, 25일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백혈병에 걸린 두 어린이를 돕기 위해 모금.헌혈 캠페인 방송도 했다. "다양한 세대가 인터넷 세상의 주인공이 돼야지요. '채팅방에서 반말 하지 않기' '각자 홈페이지 갖기' 운동도 그런 의미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두가 CJ가 되면 제일 좋겠죠. "

원낙연 기자 <yanni@joongang.co.kr>

다. "어느새 취미영역을 벗어나버린 방송진행 때문에 중압감도 많이 느낀다"는 이들은 "임진각까지 찾아와 꽃다발을 안겨주고 고생한다며 떡을 만들어온 애청자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10주년 특집방송까지는 마칠 계획"이라고 '프로방송인'다운 포부를 밝혔다.

'40-50대 음악방송'은

끼리(www.kiri.co.kr) 조이아시아(www.joyasia.com)

넥스터(www.nexter.com) 세이클럽(www.sayclub.com)

프리첼(www.freechal.com) 피플475(www.people475.com)

등에서 들을 수 있으며, 진행자와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2001년3월26일자 중앙일보 기사

한승희씨는 경북 경주에 사는 마흔세살의 평범한 가정주부다. 하지만 안방의 PC를 켜고 인터넷에 들어가 사이버자키(CJ) '비올레타'로 변신하는 낮 12시부터 유명인이 된다. "매일 3백명 정도 제 방송을 듣고, 고정 팬은 1천명이 넘어요. 팬레터도 많이 받는데, 얼마 전엔 제 사진으로 만든 피즐 맞추기 선물도 받았어요." 비올레타는 24시간 생방송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40~50대 음악세상' (<http://www.wing21.co.kr>)의 인기 CJ. 이 방송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인터넷 문화에 익숙지 않아 주눅든 중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40-50대 음악세상을 소개한 기사모음

2000년11월22일 한국일보 기사

"인터넷 방송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난 일요일 임진각에서 100회 특집방송 '통일로 가는 길'을 진행한 '40-50대 음악방송' 사이버자키(CJ) 인생(48) 비올레타(41)씨는 수백명의 팬을 가진 스타방송인이다. 프리랜서 이벤트기획자였다가 사이버자키에 뛰어들어 심현용씨는 1년 전까지도 컴퓨터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몇 개월간 '독학' 끝에 여기저기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인터넷방송을 시작했지요. 10대, 20대의 전유물인 인터넷방송에 40대의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주부 비올레타씨가 운영하던 세이클럽의 40대를 위한 채팅방에서 방송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8월부터 함께 연합방송을 진행해오고 있다. 한씨는 "맨 처음 방송을 들었을 때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머리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다"며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방송을 맡고 있는데 힘들기도 하지만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 같다"며 즐거워했다.

이들은 개인 인터넷방송의 포맷을 바꿀만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임진각에 직접 컴퓨터와 마이크를 갖고 가 즉석에서 파주 주민과 네티즌의 사연을 받아 방송을 진행한 것도 그 같은 시도의 일환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시 동호회원을 초대해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인생이 진행되는 시간대인 오후 7시~11시에는 채팅이 아닌 전화로 신청곡을 받고 사연을 전해주는 '전화리퀘스트' 코너도 마련했

2000년 8월부터 20001년 9월까지 1년을 함께 도와 주신분 들

40-50대 음악세상 1년을 도와주신분 들에게 이 조그만 책자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말없이 도와준 JC 후배로부터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준 덕분에 1년을 마치고 2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도움을 주신 많은 40-50대 음악 세상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곳에 소개 드리는 것으로 그 고마움을 대신합니다.

재정적 도움을 주신분(무순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도움을 주신분들

암행어사. 이길호. 코빅. L.B&가교. 비올레타. 하진. 가인. 로코. 네띠앙. 목련. 추억43. 프리첼60년. 쥐띠방. 네띠앙. 글쎄. 부산해기. 뉴질랜드. 미소. 진인현. 통통. Bonna. 녹양. Lotte. 참솔바람. 맘보.

음악세상 통장에 도움을 주신분들

포포연 .이니셜cbc .말동무 .글쎄 .목련. .허일구. 사랑하는. 루루.김연옥. 버들개비. 산사랑. 등대불빵빵. 하얀 .카바. 미코노스의 풍차 .잉카 .덕팔이. 까만연인 .뿌리기픈구절초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분들은
국민은행 예금주 :음악세상
통장번호 : 604-01- 0553-874

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시작된 CJ 연습을 하면서 언제 였드라 시작한 날이...기억안남 큰애 생일 전 였으니 아마도 5월 중순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 딸 축하곡을 4050에서 들었으니 아마도 그때쯤으로 기억하는데...그렇게 4050음악 세상 CJ로 발돋움 했습니다. 첫 방송하던 날 그날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 속에 무사히 방송을 마치고 이날까지 왔습니다.

CJ로서 경험한 내용은 보람이라면...제가 들려주는 노래를 듣고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는거 제가 행복을 나누어 준다는점이죠.

4050음악세상 식구들에게 하고싶은말은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모든분들 항상 건강 하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좋은 음악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음악은 모든이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잖아요. 항상 노력하는 능소화가 되겠습니다. 잘되라는 격려와칭찬 부탁드립니다..잘못하는일이 있더라도 너무 너무라지 마세여. 그래야 잘하는줄알고 더 잘하니까요. 키 가는 새싹을 기 죽이면 안되죠~ 너무 틀에 박힌 그런 방송보다 좀더 편안한 그런 4050 음악세상이 되었음 합니다.

40-50대 음악세상은 이렇게 운영 됩니다.

40-50대 음악세상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배제하고 방송을 지키는 CJ들의 개인적인 시간 무료봉사와 40-50대 음악세상을 함께하는 개인들의 작은 찬조금으로 운영됩니다.

이 뭘지 음악방이 뭘지 그러다가 호기심으로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구 음악방에 들어가게 되어서 음악을 듣는법을 배우고.. 신기한 마음에 방송 하는법도 배우게 됐죠. 처음에 방송을 하려고 준비 하면서도 엄청 고생했죠. 누가 자세히 갈켜 주는 사람이 없어서 프로그램 다운받으면서 엄청 애먹구 또 방송을 하려고 준비하는과정 MP3 모우기등등.. 시험방송때는 아는 사람들에게 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문 받던일...참으로 엇그제 같은데.....벌써 반년이 지나가고...인터넷 참 좋아요. 멀리사는친구와도 연락을 자주 할수 있고 또 얼마전엔 동창 찾기 사이트에서. 동창생들도 찾고 신기하죠.. 알면 무궁무진한 보물이 많은곳.....그것이 바로 인터넷 아닐까 싶네요.

<4050음악세상을 청취하게 된 동기>

4050을 접하게 된건 아마 5월초순경인가요. 음방을 시작한지 이틀째 되었을 때 제 방송을 듣던 분이 이런곳에 가면 도움이 될거다. 하시면서 알려 주셨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 이런곳두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CJ님들이 하시느걸 들으며 나름대로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걸 느꼈죠. 나두 잘할수 있을까 하면서.... 조금은 신경질도 났구요. 난 언제 저렇게 잘할까 하면서 초보인주제에..그땐 가끔 아주 가끔씩 대태 방송을 했을때였으니까요..작은 음악모임에 가입을 해서 그곳 CJ가 안 오는 날에 대태방송을가끔했죠. 그러다 4050홈피에 CJ를 구한다는 글을 보구서 장난반 호기심 반으로 돌을 던진 병이 그돌이 맞을줄이야.. 개인방송 10회정도 하고 4050음악세상 CJ로 발돋움 할줄은 아마 아무도 몰랐을겁니다. 저두 그렇

혀 다른 오해를 받았을때. 40-50대 음악세상 CJ로서 좌우명이 있다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이며 40-50대 음악세상가 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CJ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당부하고싶은 얘기는 방송을 통해서 하는 말에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되고 내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줄 줄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40-50대 음악세상을 타 방송을 비교한다면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속에서 같이 호흡하는 그런 방송이라 생각하며 임진각에서의 통일로 가는길의 현장 생방송, 그리고 사랑의 헌혈 캠페인, 국토 대장정의 현장생방송, 철도의 날을 기념한 안강역 에서의 생방송을 통해서..감히 타 방송은 따라오지 못할것 같은 그런 뛰어난 방송이라고 생각 한답니다 고맙습니다

능소화

인터넷을 하게된동기는 제가 인터넷을 하게 된 동기는 큰딸 때문입니다. 숙제를 해야 하는데..어디서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참 막막했죠.. 그래서 이리저리 마구 다니다 보니 재미가 솔솔 하네요. 저는 처음 음악을 어떻게 듣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초보 였어요.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에 입문을 했으니 컴퓨터가 뭔지 인터넷은 또 뭔지 참 어려웠죠. 지금도 어렵긴 마찬가지긴하지만.....이곳 저곳 다니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만화(엄청 좋아함)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 냈구요. 그곳이 바로 네띠앙 이였습니다. 그래서 네띠에 가게됐어요. 처음 채팅

방송에 전념 하는게 제가 나 자신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익하고 알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CJ가 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새로 들어오는 CJ들 에게는 존경받고 믿고 신뢰하는 CJ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라고 부탁하고싶고 우리방송이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인

인터넷을 하게 된 동기는 교육정보과학원에서 연수중에 제일 먼저 접속한 사이트는 : <http://www.edune4u.net> 인터넷을 처음하면서 느낀 것은 네모난 상자 속에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을 다 내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으며, 40-50대 음악세상을 청취하게된 동기는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고 방송을 들으면서 옛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력 같은게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CJ를 하겠다고 마음먹게 된 배경은 틀에 박혔던 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또 다른 것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첫 방송의 느낌은 떨어져 아무생각도 못했고. 시제이로서 경험 중에 보람이 있었다면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도 열심히 방송하는 나의 모습을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겼을 때 가장 어려울때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음악을 신청해 주실 때 포트가 불안정해서 자꾸 다운이 될 때이며 가장 기뻐던 일은 소식이 끊어졌던 부산에 사는 친구가 방송을 듣고 연락해 왔을 때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

로 변신하게 되었고 욕심히 생겼습니다. CJ를 해보겠다는 욕심. 방송을 청취하면서 CJ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다 인생님과 전화 통화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인생님은 저에게 적극 권장하셨고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시더군요. 힘을 얻어 이것저것 방송에 관련된 것을 인터넷에서 준비하게 되었고 음악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인생님께서 방송 시작하라는 말씀이 있어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2001년 4월 7일이었습니다 겨우 400곡으로 말입니다 초년생이 간도 컸죠. 자신을 갖고 시작하라는 인생님의 말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첫 방송을 시작할 때 저의 마음은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그런 떨림 긴장 초조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생각이 안 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더 자신 있게 못했는지 하고 생각해본답니다 그렇게 시작한 방송이 이제 6개월이 되어가는군요 저도 방송하면서 어려웠던 일 보람있던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갑자기 저에게 한 개인을 방에서 강제 퇴장시켰다고 쪽지를 쥐서 황당해 했던 일 나중에는 오해로 판명됐지만 무지 마음이 아팠답니다. CJ가 손님을 강제 퇴장시키겠어요? 지금은 추억으로 돌립니다 그와 반면에 저에게 방송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글들이 들어 올 때는 저도 무지 행복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경험이 있기에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왕 시작한 거 40-50대 음악세상 CJ로서 10년 아니 20년이라도 이 방송을 지키고 싶고 이방송이 무궁할 수 있도록

4. 논쟁할 의도로 던지는 모든 질문에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라.
논쟁하지 말고 논의하라.
5. 남을 헐담하는 데에 끼어 들지 마라.
6.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라.
7. 자기 사랑을 하지 마라.
8. 상대방 의견에 동의는 못 할망정 인격은 존중하라.

어느덧 가을이다. 주야로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의 연속이다. 감기 조심하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란다.

하진

연일 저희 40-50대 음악세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인생 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2001년 2월경 제가 하는 사업이 침체되어 마음을 잡지 못하여 우연히 친구의 도움으로 인터넷에 들어가 여러 사람과 얘기하면 지금 사업의 실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리라는 조언을 듣고 인터넷을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처음으로 네띠앙 40-50대 음악 세상 채팅 사이트를 들어간 것이 저에 첫 동기였답니다.

처음 들어간 사람에게 거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를 환대 해주었으며 모르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방송 듣는거 원앰프 다운 받는거 등등 그래서 기왕 시작한거 나도 채팅 사이트를 운영해 보고 싶었죠 어느날 갑자기 여기저기 돌아다니 다 하늘사랑을 알게 되었고 거기다 40-50대 음악세상 방을 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명실상부하게 방을 운영하는 사람으

듣는 행사에 많은 분들의 참여로 어린 생명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새롭다. 그때 도움 받은 어린 친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건강해 졌을까...궁금하다. 밤을 낮 삼아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분들의 밤 친구가 되어 피로한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준다는 점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늘 감사하다는 내용의 사연과 또 그들 나름대로 삶의 애환과 즐거움의 사연들을 읽을 때마다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한다.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피로할 때도 있다. 방송하면서 의자에 앉아 꾸벅 꾸벅 졸기도 하고 또 사연을 읽으면서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더듬거리며 읽을 때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듣는 사람들은 알았을까.....졸면서 방송했던 것을... 하하~ 신청곡이 없을 땐 다들 음악을 듣지 않고 자는 건 아닐까...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얼마 후... 신청곡이 올라 올 때, 음악을 함께 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고 다시 기운이 생기곤 한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일은 40-50대 음악방송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과 운영문제로 힘들어했을 때 도움이 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다. 이제 문제도 해결되고 음악방송도 안정이 되었다. 새로 입문하여 방송 시작한 시제이들도 많이 생기고 약간 분위기가 산만 하지만 그런데로 신선한 느낌이 든다. 마지막으로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1. 생각하는 것 보다 늘 적게 말하라.
2. 약속은 삼가 해서하고, 한 약속은 충실하게 지켜라.
3. 누구에게나 친절할 말을 할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아라.

렇게 하기를 두 달 지날 무렵 줄라디오 사이트에 방문을 하게 되었다. 40-50대 음악세상 게시판을 보게 되었는데 우연히도 내가 개인 방송하는 시간에 40-50대 음악세상에서 음악이 송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게시판에 같이 방송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게 되었고, 인생님과 비올레타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40-50대 음악세상에서 릴레이로 방송하게 된 날짜는 11월 6일로 기억이 된다. 개인방송을 하고 있었던 터라 별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음악세상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이라서 신청곡을 쪽지로 받았었다. 컴퓨터 메모리가 딸리는 관계로 채팅방을 여러 곳을 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쪽지도 많이 받으면 다운이 되곤 했었다.

그 후 12월에 드디어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쪽지로 신청곡을 받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홈페이지 신청곡란에 신청곡을 올리는 것이 서투르고 익숙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말하곤 했으나 지금은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모른다.

일단 편리한 점은 대화방까지 오지 않고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방송을 들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듣고 싶은 곡까지 신청해서 들을 수 있으니 말이다. 방송을 한지도 어언 일년이 넘었다. 물론 40-50대 음악방송을 같이 하게 된 건 아직 일년이 되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현장 생방송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첫 번째 임진각 현장 생방송을 시작으로 여러 번의 현장 생방송을 가졌었다. 한 번도 참여는 해 보지 못했지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백혈병 어린이를

것 같다. 하지만 흘러간 가요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다양한 장르음악을 들을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변화를 시도하고 싶다.

〈방송시작한 날〉 2000년 9월 1일

꽃천사루루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늘 사이버 세상을 생각 할 때마다 어렸을 때 상상했던 4차원의 세계가 아닌가 한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세상. 인터넷에 들어오면 지구 뒤편에 있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그곳 소식도 들을 수 있다. 정말 놀라운 세상이 왔다. 예전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그런 세상이다. 인터넷 사용한지도 벌써 3년이 넘었다. 그전엔 전화선으로 인터넷에 연결해서 사용 했었는데 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잘 사용하지 못 했었는데 요즘엔 인터넷을 싸고 빠르게 접속 할 수 있는 서비스 회사가 많아져서 너무 좋다. 누구나 인터넷에 들어오면 대화방에 먼저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말주변이 없는 난 대화방에 가서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인사 한마디하고 나면 다른 대화 거리가 없어서 늘 말 없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바라만 보곤 했었다. 그러는 동안에 음악방송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음악을 들려주면서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 보였다. 그래서 방송국 사이트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보고 따라서 해 보았다. 안되는 부분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 가며 드디어 방송을 시작했다. 그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방송만 하다보면 컴퓨터와 인터넷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빨리 접하지 못하는데 몇몇 분들이 사용을 권하는 경우, 크게 도움이 된다. 지금도 윈도우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수일내로 시간내서 깔아 볼 생각 이지만, 조금 겁을 내고 있다는걸 인정 해야겠다.

〈CJ를 하고자 하는분들께 당부〉

1. CJ에 관심가진 분들은 바로 시작하라는 것과,
2. 이왕 방송을 하려면 쉽게 하는 개인 방송을 하지말고 목적의식이 있는 방송에 합류하라는 것이다.
3. 말은시간은 되도록 지키는 것이 성실성을 인정 받는다는 것. 우리방송에 합류할 CJ를 찾으러 개인방송에 찾아가 통사정을 해본다. 멘트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 파악을 하는데, 반듯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방송을 적극 권한다. 매일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한 마디로 잘라 대답한다. 시간을 지켜서 방송하는건 기본이라고...아무리 다른걸 다 잘 해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곤란하다고 답변을 보낸다.

〈타 방송과 비교 한다면〉

40-50대가 인터넷의 주인공이 되자는 케치 프레이즈가 아주 맘에 든다. 나도 주인공이 될 수있다는 신념을 심어주고 무언가 할수있을것만 같은 힘을 얻는다. 타방송은 그저 신변잡기 이거나, 음악의 장르로 차별화 하려는 것 정도가 보이지만 우리방송은 청취자들 스스로 자존심을 세울수 있도록 일깨우는 방송인

친구같은 이웃이 된것같은 느낌이 좋다. 그래서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편안한 나날이기를 기원한다. 방송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면 아마도 우리가족에게 미안함을 꼽을 수 있다. 간혹 방송시간과 겹치는 식사시간은 소홀한 반찬과 불규칙한 식사시간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고 비오는날 학교하는 아들녀석의 우산도 가져다 줄수없으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원래 무언가에 빠지면 끝장을 보는 성격탓에 아무도 못말리지만,,,가족들에게는 너무 미안하다. 작년에는 고3인 아들이 너무나 힘들게 했었다. 녀석도 힘든시기 인지라 엄마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투정할때는 정말이지 진퇴양난이었다.

〈4050시제이로서 좌우명이 있다면〉

좌우명이 있다면 성실하게 살자는 것이다. 내가 맡은 시간을 지켜서 방송에 임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듯.

〈음악세상 가족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

우리방송에서 주창하는대로 따라오는 분들이 너무 고맙다. 대화명 등록해주신 분들과, 요즘은 가족홈페이지 만들기에 관심가지는 분들이 고맙다. 그저 비슷한 음악만 듣고, 채팅방에서만 머물지 말고 무언가 얻을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는 청취자의 몫이다. 음악을 들으면서도 한번씩 인터넷으로 내가 무얼할건지 생각해보고, 홈페이지 만들기를 한다니 다른사람이 만든 홈페이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살펴본 내용은 모두 내것이 될테니, 인터넷 서핑을 권장한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할 몇분이 계시다. 컴퓨터 운영체제라든가, 방송을 위한 몇몇 프로그램을 추천해

때 들었던 0시의 다이얼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그저 채팅방에 있는 회원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던 것 같다. 그저 방에 들어와서 음악을 들어주는 것만도 눈물나게 고마웠기에...그래도 그 친구들은 진심으로 코치를 자청해 고칠점은 바로바로 지적해주었다. 음악선곡이 너무 좋다는 칭찬도 받았지만, 문제는 멘트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매시간 지적을 받으면서도 고쳐지지 않은게 말이 빠르다는것인데, 아마도 경험이 있고 없음의 차이이며, 당시로선 들으며 배울만한 방송이 없었다는것도 사실이다. 배운다면 인생님의 방송시간을 주의깊게 들었다는 것 뿐이었다. 텔레비전에서 코미디언들이 말을 빠르게 하는 묘기를 보이기도 하지만, 말을 천천히 하는것도 묘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다. 평소에 신문이나 책을 펴놓고 볼펜을 입에 문채로 큰소리로 읽기를 연습하고 아나운서들이 펴낸 책을 주로 읽었다. 그러나 아직도 목소리의 콤플렉스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가장 많은 시간을 방송했던 것이 나도 모르게 약간씩 틀어잡힌 목소리로 변하는건 인정해야 할 듯 싶다.

〈시제이로서 경험한 내용〉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다린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 생각한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리워오던 평범한 주부인 나를, 본명은 아니지만 "비올레타" 라는 대화명으로 기억하고 목소리를 기억하는 많은 이웃이 있다는 것이 보람이다. 이방송으로 잠시라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게되면 함께 마음아파 할수 있는

음 접했고 멋진 목소리에 감탄하게 되었다. 며칠후 세이클럽 안에서 방송하시는 인생님의 방송을 다른 친구들도 들을수 있게 링크를 만들어 보냈지만, 의외로 남성회원들은 외면하는 현상이 속출하고....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인생님이 이방저방 초청받아 방송하다가는 며칠못가 쫓겨나는(남자회원들의 반대) 모습을 보게되어, 방송을 편히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자 공개동호회 345.com을 만들어서 청취자를 위한 도우미를 자처하며 방송을 지켜보게 되었다. 매일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을 듣고, 더 많은 친구들이 들을수 있도록 알리기도 했지만 동시접속자가 30명을 넘지는 못했다. 당시 이접속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이정도의 방송이라면 더 많은 접속자를 요구하던 내욕심을 채우지는 못했던 것 같다.

<시제이를 하게된 배경>

시제이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저 좋은 방송이란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우미를 자청하고 참여했을뿐이었다. 당시 목소리에 대한 콤플렉스로 고민하던 시기여서 씨제이는 절대 못한다고 우기던 때였다. 갑상선염으로 한쪽 갑상선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은지 1년반이 되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른 것 같아 무척이나 신경쓰여서 외출도 삼가던 시기였다. 그러나 씨제이로 활동할 사람도 마땅히 없었고, 인생님 혼자 방송하는 것 보다는 합류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고, 마지못해 시작한 씨제이로 인생님의 뒤를 이어 2호 씨제이가 되었다. 처음으로 멘트방송을 할 때를 생각하며 정말 아찔하다. 전혀 방송경험도 없었고, 어릴

진이었다. 무료강좌가 있는곳이면 달려가서 배우기를 거듭하던 중 우연히 피씨통신에 접속해보니 지방에 살면서도 서울의 소식을 알 수 있고,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는걸 알게 되었다. 우선, 피씨뱅킹을 사용해보니 낮은 수수료와 송금하러 은행에 나가는 일이 줄었다. 차츰..피씨통신에 흥미를 느끼고 활용하던 중, 인터넷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비용부담이 많다는 말을 듣고 관심을 접었다가, 차차 전용선이 생기면서 활용하는 시간이 늘게 되었다. 어느날 신문의 문화면의 전면을 차지한 세이클럽을 알게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접속자인 채팅사이트라는 기사를 보고 바로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둘러보니 비슷한 나이또래들이 모여서 음악을 듣는 방이 있어서 들어가보니 신기했다. 밑줄친 음악제목을 클릭하면 음악이 들리는 미디어 링크 음악방에 흥미를 붙이기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인터넷은 신기하고 편리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정신없이 빠져들었던 시간이었다.

<40-50대 음악세상을 청취하게된 동기>

지금 현재 씨제이로 활동하고 있지만, 청취자 1호 일수도 있을 것 같다. 당시 또래들이 모여서 미디어링크 음악을 듣던 우리방에 인생님이 찾아온 것은 운명일지도.. 처음으로 우리방을 찾아오신 인생님은 인터넷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나는 허무맹랑한 생각이 들어서 시험방송을 부탁해보았다. 그러나 의외로 미디어플레이어를 통한 음악 한곡과 인생님의 멘트를 접하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는 클릭으로 시작되는 링크음악만 들어 왔었지, 멘트와 함께 듣는 라디오형식의 방송은 처

■ 가 재

방송시간 : 토, 일 PM 6:00 - 8:00

방송장소 : 대구

방송시작 : 2001. 9. 15.

직업 : 인쇄, 출판업

나이 : 63년생

좌우명 : 항상웃으면서 살자

음악세상 CJ들의 이야기

비올레타

〈인터넷을 하게된동기〉

서울에서만 살던 내가 경주에 살게 되면서 정보습득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들이 어느정도 자라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다가, 현거주지인 경주에서 할수있는걸 찾아보니 기술강좌가 주를 이루어, 양재나 공예등의 강좌에 참여해봤지만.. 강좌가 끝나면 모든게 끝나버리는 기술보다는 미지의 세계의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컴퓨터는 겁나는 물건으로 알았던 당시(1995년)는 도스명령어를 알아야만 하던 때라 컴퓨터학원에 한달을 등록하였고 교육이 진부하여 2주만 나가고 도스책을 구입해 보면서 혼자 배우기 시작했다. 컴퓨터는 나의 명령에 착착 따라주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지금은 마우스로 대충 클릭하면 되었지만...그땐 저장하기,지우기를 몇 번씩 연습하고 상위메뉴와 하위메뉴로 넘나다는것만도 흥미진

직업 : 주부
나이 : 68년생
좌우명 : 사랑하면서 살자

■ 조약돌

방송시간 : AM 7:00 - 10:00
방송장소 : 서울
방송시작 : 2001. 8. 30.

직업 : 주부
나이 : 67년생
좌우명 : 컴친구는 절대 안 만난다.

■ 에버그린

방송시간 : 목, 금, 토 PM 8:00 - 11:00
방송장소 : 경북 김천
방송시작 : 2001. 8. 29.

직업 : 회사원
나이 : 62년생
좌우명 :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자.

■ 수평선

방송시간 : AM 10:00 - 12:00
방송장소 : 대구
방송시작 : 2001. 9. 24.

직업 : 주부
나이 : 64년생
좌우명 :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나 이 : 65년생

좌 우 명 : 가정주부로서 인터넷에서 알찬 여가활동을
경험하고 여성의 전문성을 키우고싶은 것이
꿈이랍니다.

■ 가 인

방송시간 : 23:00 - 02:00

방송장소 : 전주

방송시작 : 2000. 12. 26

직 업 : 직 장 인

나 이 : 60년생

좌 우 명 : 가정주부이면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인터넷에서 여성의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 하 진

방송시간 : 일, 월, 화, 수 PM 8:00 - 11:00

방송장소 : 경기 안산

방송시작 : 2001. 4. 7

직 업 : 직 장 인

나 이 : 59년생

좌 우 명 : 정직하고 상대에게 편한마음

■ 꼬깔이

방송시간 : PM 6:00 - 8:00

방송장소 : 대구

방송시작 : 2001. 8. 28

40-50대음악세상 방송CJ 들

■ 인 생

방송시간 : 19:00 - 23:00

방송장소 : 서울

방송시작 : 2000. 8. 5

직 업 : 이벤트플레너

나 이 : 52년생

좌 우 명 : 새로 시작된 개인인터넷 방송에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만들고 건전하고 알찬
CJ들의 육성이 꿈이랍니다.

■ 비올레타

방송시간 : 12:00 - 19:00

방송장소 : 경주

방송시작 : 2000. 9. 1

직 업 : 가정주부

나 이 : 59년생

좌 우 명 : 40대들의 아름다운 만남과 진실된 인터넷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 꽃천사루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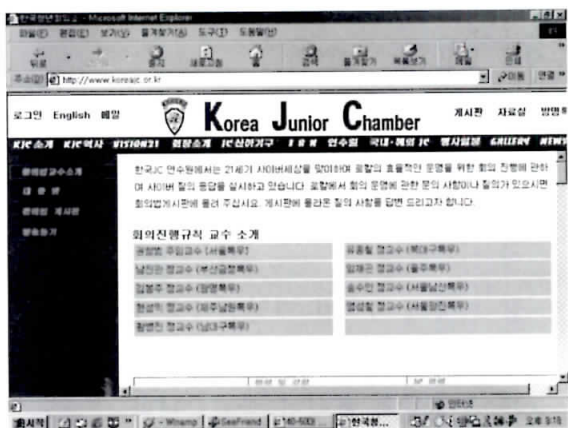
방송시간 : 02:00 - 09:00

방송장소 : 대전

방송시작 : 2000. 11. 6

직 업 : 가정주부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좌측 메뉴를 선택하시면 방송듣기와 방송 게시판 공개 채트방 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40-50대음악세상 방송을 지킨 사람들

40-50대 음악세상을 칭취하고 애청하던 청취자중 40-50대 음악세상의 CJ들의 순수한 아마츄어 정신을 이해하고 40-50대 음악세상의 재정적 도움을 주고 게시는 순수한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40-50대 음악세상을 알리고 사이트에 40-50대 음악세상 동호회 시샵으로 동호회를 개설하여 10년을 목표로 40-50대 음악세상을 함께 하시는분 들입니다.

40-50대 음악세상 운영후원회

2000년 한국JC훈련원장 이홍식, 한국JC 연수원 전문위원 이길호, msn 40-50대 음악세상 동호회시샵 L.B&가교, people475 40-50대 음악세상 동호회 초대시샵 코빅

JCB 인터넷 라디오방송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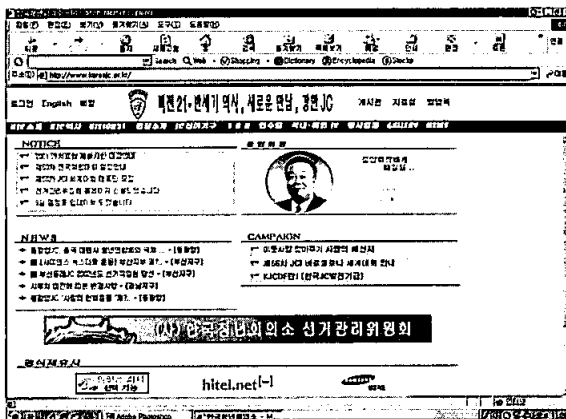
한국JC 연수원에서는 21세기 사이버세상을 맞이하여 로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회의 진행에 관하여 사이버 강의를 JCB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실시하여 왔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사항을 가지고 1주일에 1회씩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JCB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전국 378개 로컬 2만여 회원의 정보제공과 일반인들에게 한국JC를 알리는 방송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JCB 방송을 들으려면

한국JC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 연수원을 클릭하시면 원수원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한국JC 와 전국378개 지방회의소와 연결이 됩니다.



JC 회원확충분과위원장의 면담을 거쳐 지방JC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으면 가입됩니다

- ◎ 가입문의 : 한국청년회의소 (☎ 02-2244-9521)
- ◎ 회비납부 : 매월 JC활동에 따른 소정의 월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JC별로 다르나 보통 2만원~4만원사이)
- ◎ 월례회참석 : 매월 1회 개최되는 월례회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 ◎ 행사 및 사업의 참여 : 지방 JC에서 회원의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각종행사 및 사업에 참가하셔야 됩니다.
- ◎ 교육의 참여 : 지방JC에 가입이 승인되면 중앙(한국JC)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 해야만 지방JC 정회원으로서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 ◎ 활동영역의 기회가 부여되며 나 자신이 성장됩니다
- ◎ 4대활동 기회 부여
- ◎ -개인능력 개발기회 (Individual Area Of Opportunity)
-경영능력 개발기회 (Management Area Of Opportunity)
-지역사회 개발기회 (Community Area Of Opportunity)
-국제활동 개발기회 (International Area Of Opportunity)
- ◎ 소속 지방 JC의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으로 배속됩니다
- ◎ 연중 개최되는 국내대회(소속 지구의 지구대회,한국 JC전체의 전국회원대회) 및 국제대회(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 JCI 전회원국이 모이는 세계대회)에 참가하시게 됩니다

우리나라 NGO의 선두주자이다.

1951년 전쟁으로 폐허된 조국을 JC운동으로 살리자는 숭고한 정신아래 창립한 이래로 조국재건운동 및 형제애 발양운동을 실시해 왔다.

이후 시대적 상황의 요청에 따라 대 지역민 물질 지원운동, 사회문제 해소 및 추방운동, 지역간 격차 해소운동, 정신 계도성의식개혁운동을 비롯해 21세기 환태평양 시대를 위한 사회현실 참여운동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다원화 전문화 시대를 맞아 정보화 추진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다양화된 NGO의 물결속에서 한국JC와 뜻을 같이하는 NGO와 교류를 강화 NGO의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대외에 과시하고 있다.

한국JC 회원이 되려면

- ◎ 연 령 : 만20세이상 4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 ◎ 직 업 : 건전한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 ◎ 가입 JC 선정 :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 JC 이어야 합니다.
(단,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은 지역연고가 광역화 합니다)
- ◎ 입 회 금 :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JC에서 결정한 소정의 입회금을 가입승인이 되시면 납입하셔야 합니다.
(약 20만원 - 100만원)
- ◎ 가입절차 :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JC가 선정되면 지방JC의 사무국에 가시어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신후 지방

자발적 실천력으로 복지사회 건설과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총력을 다한다.

국제단체이다.

한국JC는 국제청년회의소(JCI)의 회원국으로 국제사회를 위
해 헌신하고 있다. 특히 천재지변이나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
는 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세계대회와 지역대회에 참가
전 세계 JC인과 JC우정을 나누고 있다.

한국JC는

청년이 중심된 단체이다

재능있는 젊은이를 발굴 엘리트 청년으로 육성, 이 사회에 유
익한 청년지도자를 양성하는 사회의 사관학교이다.

JC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을 넓히는 경영대학원이요, 젊은이의
재능을 키워주는 요람이요, 훈련도장이다.

민주주의 학교이다.

JC의 모든 지책은 1년 단임으로 회원들이 고르게 직위를 맡
고 있으며 선거와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선출된다.

각종 토론문화와 행사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JC 고유문화는 회원들의 발표력과
표현력을 향상시켜 능동적인 인간상을 만들어 간다.

한국JC는 각종 선거 때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 올바른 선
거문화와 대의정치를 실현 민주주의 사회를 선도해 가고 있다.

한국청년회의소 소개

한국JC는 'Junior Chamber'의 약자로서, 청년회의소를 말한다. JC는 1915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페기라는 소녀가 길가에서 놀다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어린이에게 공원을 만들어 교통사고의 재발을 막고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 해야겠다는 헨리 기젠비어의 숭고한 창시이념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JC는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년이 지도역량개발, 지역사회개발, 국제와의 우호증진이라는 3대 이념을 실천하는 국제 민간단체로 발전, 청년회원들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개발 및 세계회원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JC 신조

신앙은 인간 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인류는 국경을 초월하여 형제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하여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의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우리는 믿는다.

한국JC 강령

우리는 시대적, 사회적 사명을 자각하고 JC 본연의 이념을 같이하는 청년들의 응지와 정열을 한데 모아 자주적, 자립적,

한 많은 회원들이 조직 정보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인터넷 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조직 정보화의 인적 인프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소에서도 한국JC 정보화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 제언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 한국JC의 정보화 정착과 발전에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WING21과 심현용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전국의 JC가족과 네티즌들에게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JC의 주요 활동과 행사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매우 뜻깊은 기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한국 청년정책 연구소도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WING21의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정책연구소의 주요 사업들을 보다 많은 JC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의 평창 청년포럼과 9월 부산 청년포럼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하면서 많은 호응과 성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포럼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청년포럼의 생생한 내용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였습니다. 정책연구소 임원진과 실무진들이 그 효용성을 높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방송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뉴 미디어로 자리 잡을 것이며,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WING21의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이 한국JC 가족들과 더욱 가깝고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WING21의 날개짓이 더 높은 하늘을 향해, 더 크게 펼쳐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한국청년정책연구소
소장 안성수 (파스칼)



40-50대 음악세상의 청취자와 한국JC 네티즌 여러분, 반갑습니다. WING 21이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시작한다고 들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어 생일잔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보화와 인터넷의 빠른 속도만큼 우리의 삶의 시간도 나날이 초고속화 되는 느낌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WING 21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 '40-50대 음악세상'의 1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해 한국JC 부회장으로서 한국JC 정보화의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교훈과 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보화가 가져다 주는 효율성과 편의를 한국JC 조직의 발전으로 승화 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한국JC 조직 정보화의 노정에는 여러가지 난관과 해결 해야할 과제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제가 어렵게 구축해 놓은 정보화 사업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모습을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JC의 정보화, JC가족들의 정보 공동체는 비록 더디게 진행 될지는 몰라도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40-50대 음악세상을 함께 하면서 2002년도 한국JC의 중앙회장으로서 2만여 청년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문화에 함께 동참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한국의 청년 정보문화에 한국JC가 앞장서서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40-50대 음악세상이 목표하는 10년 동안 이방송이 계속 쉬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며 40-50대 음악세상을 만들고 직접 CJ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JC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특우회 선배님이신 인생님과 경주에서 방송하시는 비올레타님과 이외 CJ여러분 그리고 40-50대 음악세상을 청취하시는 여러분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20-30대 청년들의 조직인 한국JC의 인터넷 라디오방송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40-50대와 우리 20-30대 청년들에게 읽혀지고 알려져 40-50대 음악세상이 목표하는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추천에 가름합니다. 감사 합니다.

2002년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당선자 박대삼



40-50대 음악세상이 1주년을 맞아 그 동안 방송됐던 40-50대 음악세상 1년을 축하드리며 40-50대 음악세상의 개인 인터넷 라디오방송 개국 1주년을 축하드리며 인터넷을 통한 40-50대의 적극적인 활동에 20-30대 청년들의 대표로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청년들의 조직인 한국JC 2002년 중앙회장으로 당선되면서 그동안 몰랐던 개인 인터넷 라디오방송 40-50대 음악세상을 알게 되었으며 이번 2002년도 한국JC 선거직 임원 후보자 선거에서 한국JC 2만여 회원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 15개지구와 임시총회에서 선거과정을 생방송을 하는 기회를 가지므로서 한국JC 회원들에게 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이 벌써 1년을 맞이하고 40-50대들의 그동안의 활동을 결산해보는 의미있는 책 발간에 추천의 글을 의뢰받고 한편으로는 20-30대 청년의 대표로서 부럽기까지 합니다.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 되어 믿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자라는 슬로우건에 깊은 공감과 함께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에게 인터넷 세상에 진정한 주인공으로 불건전한 인터넷 문화에 앞장서는 모습은 우리 20-30대 청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송석중



40-50대 음악세상이 1주년을 맞아 그동안 방송됐던 사연을 담아 40-50대 음악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터넷 보급 확산으로 기존의 전파나 인쇄 매체와는 또 다른 형태인 인터넷 라디오 방송의 특징을 살려 특정 세대나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음악과 사연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무척 뜻깊다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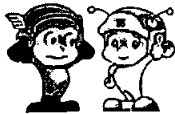
특히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JC회원이 함께 하기를 부담이 없는 공간으로 JC회원들이 이를 통해 인터넷에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큼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운영하는 심현용 원장은 JC특우회원으로서 누구보다 JC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방송을 통해 일반인들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JC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인터넷 음악방송이 청년세대의 아늑한 쉼터로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지침서로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세상속에서 40~50대의 튼튼하고 건강한 씨앗으로 성장하여 40~50대 음악세상이 목표하는 인터넷 세상에 건전하고 믿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만드는데 1년간 함께 참여하시고 노력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은 먼훗날 자랑스런 재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읽혀지고 알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40~50대 음악세상을 만들고 이책자의 발간을 위해 노력 해주신 인생님과 CJ 그리고 40~50대 음악세상 청취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과 사연

◎ 이름:해송 (hqsong54@hanmil.com) (47 남 회사원)

◎ 2000/11/30(목) 19:44

◎ 조회: 33 회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홈페이지 개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항상 수고하시는 인생님 / 비올레타님/효조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2일 13시에 msn의 연령별 39-50 꿈의궁전 정모가 망년회를 겸해서 열립니다. 시간이 허락 되시면 같이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홈페이지 개설을 다시한번 축하합니다.

시간이 허락 되시면 음악한곡 부탁 드릴께요!

곡명 : 야화 / 사랑의하모니 께서 부릅니다 꿈의궁전의 모든 회원 및 궁전방을방문하신 분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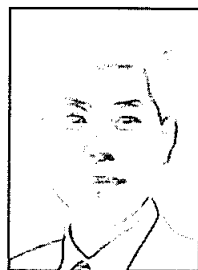
어려운 난관도 있었습시다만, 50대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남다른 열정으로 40~50대 음악세상 CJ로 직접 활동을 하신 인생님을 비롯한 비올레타CJ, 꽃천사루루CJ, 가인, 하진CJ, 능소화CJ님들의 정성어린 24시간 생방송으로 방송을 지켜주셨고, 홍보를 위하여 "통일의 염원을 담아 통일로 가는 길목" 임진강 현장생방송, 소아암협회에서 주관하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 홍보 현장생방송과 함께 CJ, 청취자들의 성금(200여만원)을 소아암협회에 전달하였으며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사이트에서 열심히 40~50대 음악세상 채팅방을 지켜주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이제는 동시 접속자 400여명(1일접속자 4000여명)을 가진 방송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암행어사라는 대화명을 가지고 40~50대 음악세상에 참여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하면서 많이 부족함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고 준비 할 것입니다.

특히나 40~50대 음악세상은 개인이 자유롭게 방송하는 개인 인터넷 라디오방송의 영역을 뛰어넘어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방송 목표를 가지고 40~50대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여타 공중과 방송과 인터넷에서 소외되어온 40~50대 문화를 만들었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 책은 인터넷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세대들에게 인터넷의 아름다운 문화가 있음을 알리고 40~50대들이 인터넷 세상 속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한국CJ 연합회 회장
이홍식(암행어사)



축하드리며

40~50대 음악세상 1주년을 기념하는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기념책자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터넷이 이제는 우리의 생활속에 21세기 정보 문화를 실현하는 도구이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은 저에게도 아직 낯설은 도구이며 공간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0년 한국JC 훈련원장 재직 시절 한국JC 회원의 첫관문이 1단계 훈련원에서 특별강사로 봉사하신 심현용(인생) 특우회 선배님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처음 접해본 스타크래프트라는 젊은이들의 게임도 터득하였고, 인터넷 채팅을 경험하던 중 저와 같이 컴퓨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치 못한 분들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생님과 논의를 통해 제가 배우고 익힌 한국JC 이념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건전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고자 개인 인터넷 방송 40~50대 음악세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송을 시작하던 1년전 불과 20~30여명 청취자로 매우

한국 청년들의 대표 한국JC 사람들

조국의 미래 청년들의 책임이라는 슬로우건 속에 50여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한국JC는 국제적인 지도력 단체로서 전국 16개지구 378개 로칼 2만여 현역 회원들이 오늘도 '지도력개발과 지역 사회봉사 세계와의 우정'이라는 슬로우건 속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은 연령대로 본다면 한국JC 특우회원들의 연령이며 20-30대는 현역들로서 미래 40-50대 음악세상을 책임질 세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세상이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문화로 자리를 잡으려면 오프라인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나 조직들이 온라인화 되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40-50대 음악세상을 1년간 이끌어 오면서 한국JC와 같은 국제적인 단체가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커뮤니티를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해 활성화 시킨다면 건전하고 믿고 신뢰하는 인터넷문화를 한층 더 앞당길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

20여년의 JC 활동을 통해 JC를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한국JC를 이끌어가는 대표들에게 40-50대음악세상을 통해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알리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며 40-50대 음악세상의 다음세대인 20-30대음악세상 JCB 방송에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의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어주기를 기대 해봅니다.

20-30대 한국 JC청년들도 멀지않아 40-50대 음악세상으로 그들도 세월을 거슬러 올라 온다고 생각하면 10년후 40-50대 음악세상의 주인공들이며, 오프라인 조직중에 전국적인 청년조직으로 또한 국제적인 단체로서의 위상도 함께 지니고 있는 한국JC에 40-50대 음악세상의 미래를 맡기기위해 투자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틈틈이 현역회원들을 만나면 인터넷을 알리고 있지만 한국JC가 인터넷 세상으로 오는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다행 스러운 것은 2002년도 한국JC중앙회장 당선자인 박대삼중앙회장 당선자가 2002년 1월부터는 한국JC임원에게 이메일로 문서 발송을 하고 2월부터는 지구,지방회의소 문서 발송을 이메일로 실천 하겠다고 후보자 소신에서 밝혔고, 또한 한국JC 50년 역사속에 한국JC 선거직 임원 후보자 홍보 방송을 실현했고 더불어 한국JC 제 101차 임시총회를 생방송 하였습니다

방송을 들은 회원은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시작에 의미를 둔다면 후보자 홍보과정과 임시총회 선거과정등을 생방송했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도 틈틈이 한국JC JCB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2002년도 전국 2만여 회원들의 새로운 인터넷 문화로 정착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후배들을 지도하고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먼훗날의 40-50대 음악세상 주인공들이 될 한국JC에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

내가 맺은 인연 한국JC JCB 방송을 만들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 화려한 성공적인 삶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남들 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 왔을 뿐입니다.

내 삶중에 직업 말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 있다면 한국JC라는 조직과 한국 보이스카우트 두 군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이스카우트는 고등학교 시절 연장대를 거쳐 부대장으로 봉사를 하고 스카우트 기본훈련과 상급훈련 예전에는 우드배지 코스라고 했지만 그리고 상급훈련에 훈련강사로 1년에 한 두번 정도 봉사를 하면서 30여년을 그리고 한국JC는 직업 때문에 관계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JC 훈련원 1단계 과정에서 특별강사로 과목을 진행한 것이 이제 벌써 20여년이 가까워 옵니다.

그동안 전국을 참 많이도 돌아 다녔고, 이제는 특우회원으로 마지막 현역들에게 봉사를 하고 싶은 것이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소개하고 만들어 주어 전국 378개 로컬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다양한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켜주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지도력 개발과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세계와의 우정이라는 3대이념속에 국제적인 지도력 단체로 50년을 맞는 한국JC에 '한국의 청년정보문화 JC가 앞장 서겠습니다' 라는 슬로우건을 만들어 JCB라는 방송국명을 정하고 2만여 한국 JC회원들의 인터넷 생활화를 촉진하고 건전한 청년 인터넷 문화의 주인공으로 만드는데 개인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통해 그 시작을 준비해 왔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은 이제 가족 중심의 방송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남편따로 아내따로 자녀가 따로하는 인터넷 세상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자녀가 함께하는 인터넷 세상으로, 40-50대 음악 세상은 가족들의 사랑을 지켜주는 개인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의 작은 꿈을 실천 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늘도 흘러갑니다. 40-50대 음악세상은 오늘도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실겁니까 무엇을 하고 십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CJ들의 방송멘트를 들으면서 하루에 한번씩 인터넷 세상 속에 자신의 행동을 생각 해보는 40-50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40-50대 음악세상은 도전과 모험을 계속 할겁니다.

2010년이 되는 10년 후 40-50대 음악세상 1년을 맞으면서 우리들이 함께 했던 이 작은 책자가 추억 속에 알찬 시간들을 보낸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



신청곡과 사연

◎ 이름:아침바다 (45 남 자영업)

◎ 2000/11/30(목) 20:13

◎ 조회: 37 회

홍피 탄생을 추카

우리 40-50대를 위한 공간이 생겨서 넘 좋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음악이 좋아서 오는줄 알고 있습니다.

cj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덕에 즐거운게지요

늘 고맙구요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을 축하 합니다

40-50대 음악세상이 꿈꾸는 인터넷 세상

건전하고 믿고 신뢰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작은 꿈들을 이 방송을 통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상업적인 전문 방송국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상업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방송국은 너무 많으니까요. 개인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개인의 자유로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다양한 모습의 방송들이 만들어 지는데 그 한 부분을 지켜 가는 40-50대 음악세상 이기를 바랄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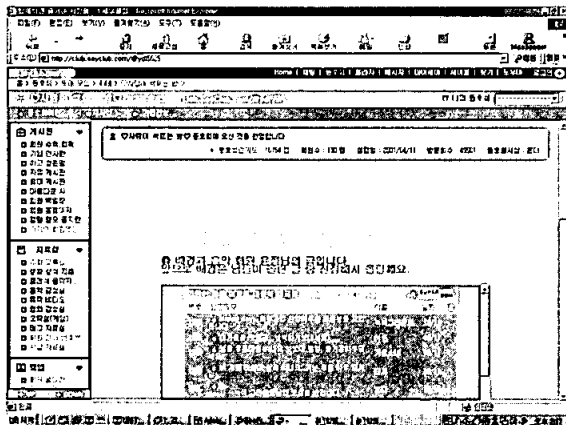
40-50대 음악세상 24시간 생방송으로 신청곡과 사연중심의 방송으로 10년을 지키면서 40-50대 음악세상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10년의 약속 대화명을 함께 지키고 두 번째 가족 홈페이지를 만들어 온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인터넷문화를 정착하고 세 번째로는 20-30대 청년들의 조직인 한국JC 회원을 위한 JCB 방송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이 있으며 가능 하다면 철도를 지키는 철도인과 철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500개 역을 다니면서 철도 현장 생방송을 통해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에게 우리 어린 시절 세상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수송수단이었던 철도역들을 소개하는 일을 꿈꿔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40-50대 음악세상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을 중심으로 가족 홈페이지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족 홈페이지를 가진 가족들의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 아름다운 중년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현하는 40-50대 음악세상이 되고 싶습니다.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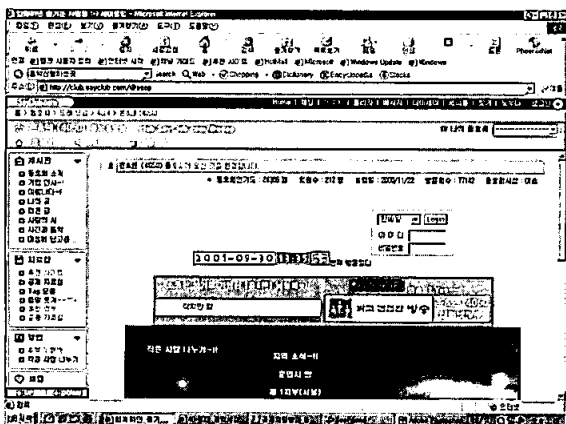
40-50대 음악세상이 꿈꾸는 인터넷 세상

세이클럽 사랑이 싹트는방 (http://www.sayclu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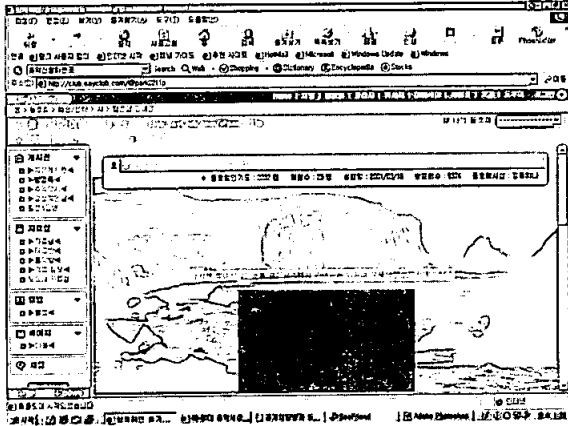
40-50대 음악
세상을 청취하는
타동호회 입니
다.

세이클럽 폰&센방 (http://www.sayclu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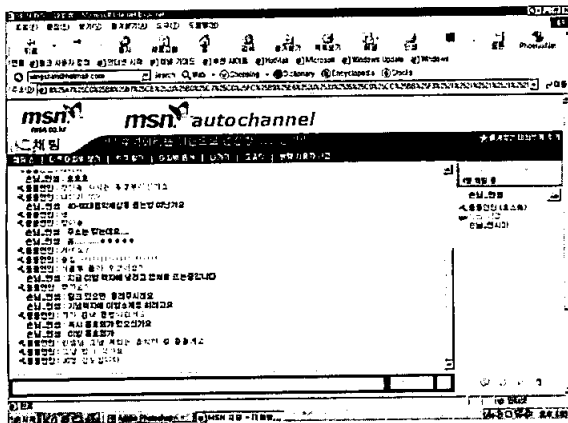
40-50대 음악
세상을 청취하는
타동호회 입니
다.

세이클럽 정물하나가 만든 짧은클기여운 동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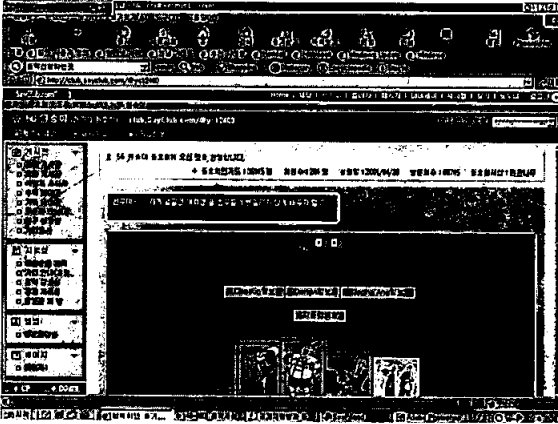
40-50대 음악
세상을 청취하는
타동호회 입니
다.

엠에스엔 초보 추억이 있는 방 (<http://www.ms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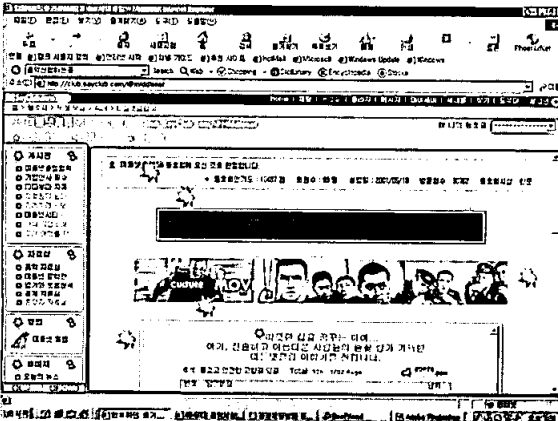
msn초보의방 추
억이 있는 방에
서 40-50대 음
악세상을 청취
합니다

세이클럽 56 원숭이 동호회(<http://www.sayclu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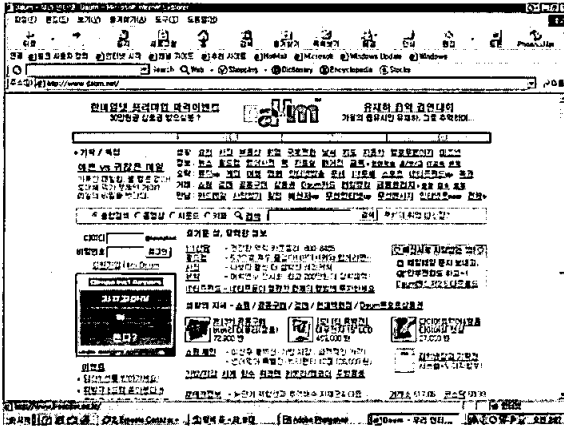
40-50대 음악
세상을 청취하는
타동호회 입니
다.

세이클럽 미들넷클럽58 동호회(<http://www.sayclu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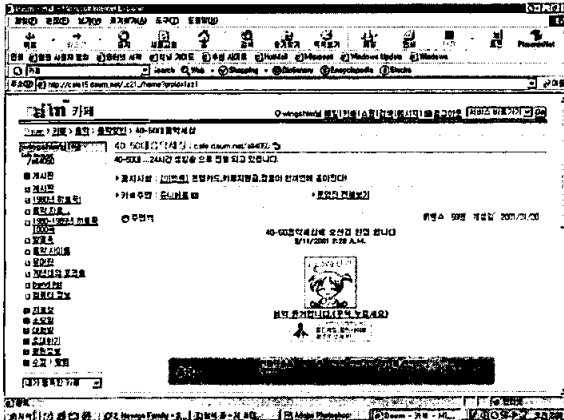


40-50대 음악
세상을 청취하는
타동호회 입니
다.

다음 카페 (http://www.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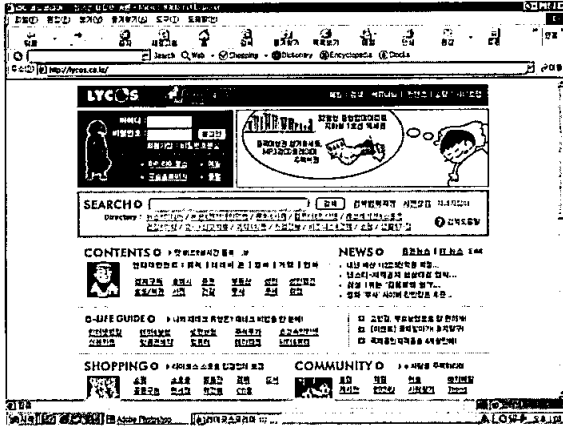


동호회명: 40-50대음악세상
 설립일 : 2001년 1월20일
 회원수 58명
 가입절차 승인후 가입
 초대시샷:인생
 현재시샷:유니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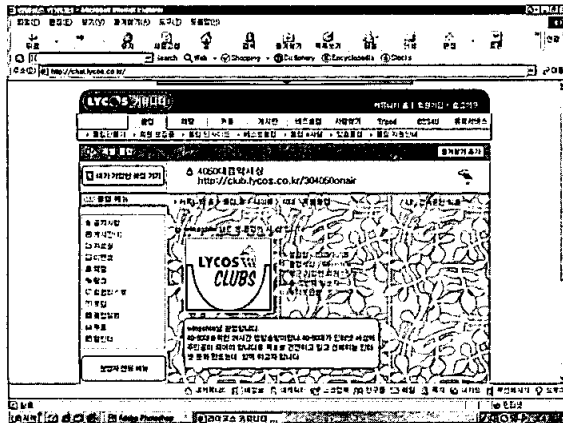
이외에도 유니텔 천리안, 하이텔등에서도 개인들이 40-50대음악세상을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라이코스 동호회와 공개채트방 (http://www.lyco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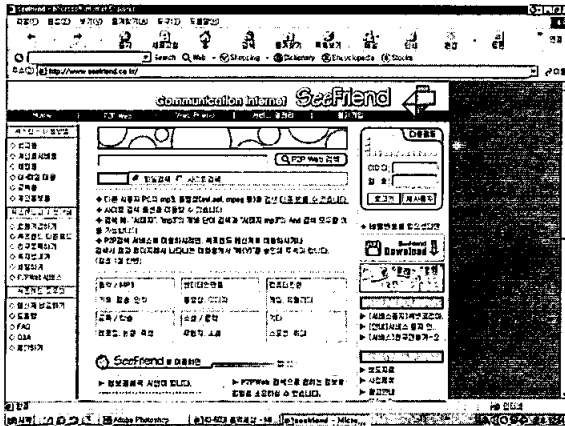
동호회명: 40-50
 다음악세상
 설립일: 2000년
 10월5일
 회원수 48명
 가입절차 승인후
 가입

초대시삽: 인생
 * 채팅스페셜에
 고정채트방 개설
 로 24시간 방운
 영중



(http://www.lyco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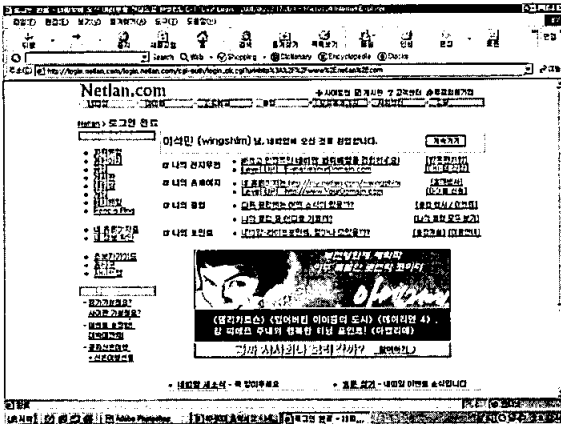
씨후랜드 공개채트방(시제이 방송교대방) (<http://www.seefrien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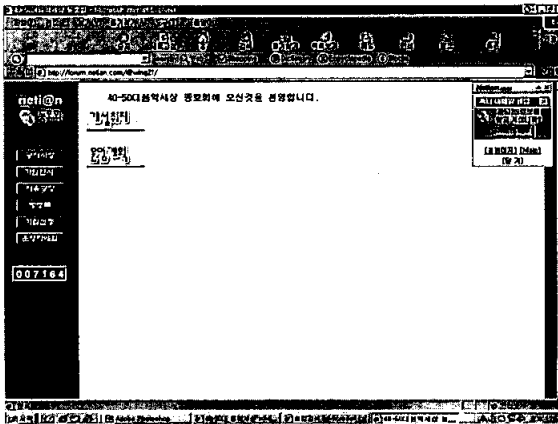
씨후랜드는 동호회 기능이 없어 동호회 개설이 불가능하며 시제이 상호간 파일 주고받기와 방송 교대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띠앙 동호회 (http://neti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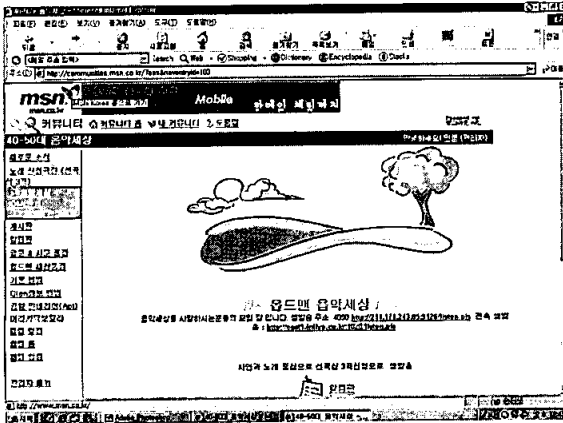
동호회명:40-50
 대음악세상
 설립일:2000년
 11월29일
 회원수 48명
 가입절차 승인후
 가입
 초대시삽:인생
 현재시삽:맘보
 개인홈페이지등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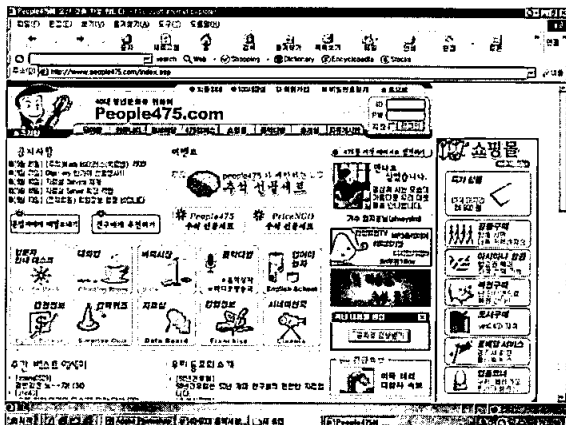
엠에스엔 동호회 (<http://ms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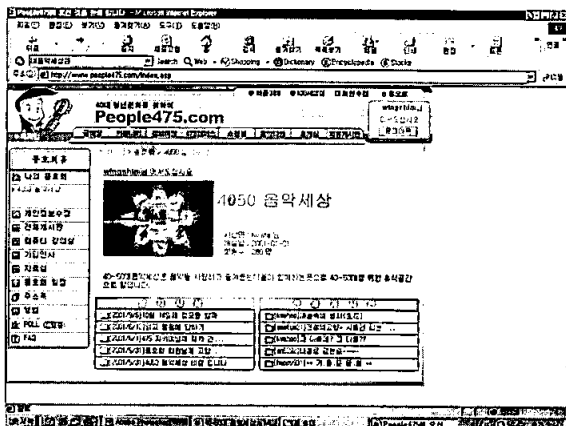
동호회명:40-50
 다음악세상
 설립일:2000년
 11월29일
 회원수 330명
 가입절차 승인후
 가입
 초대시샵:인생
 현재시샵:L,B&가
 교
 개인홈페이지등
 록수: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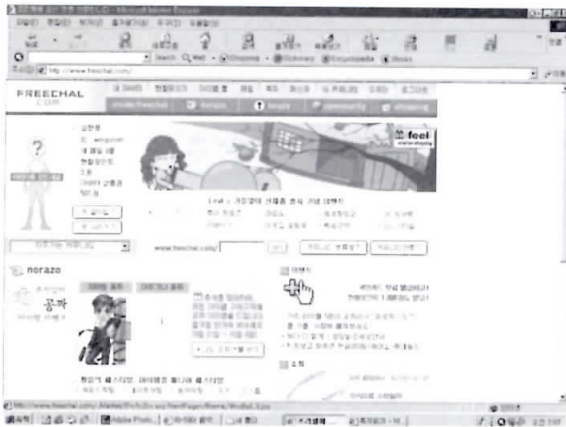
피플475 동호회 (http://www.people475.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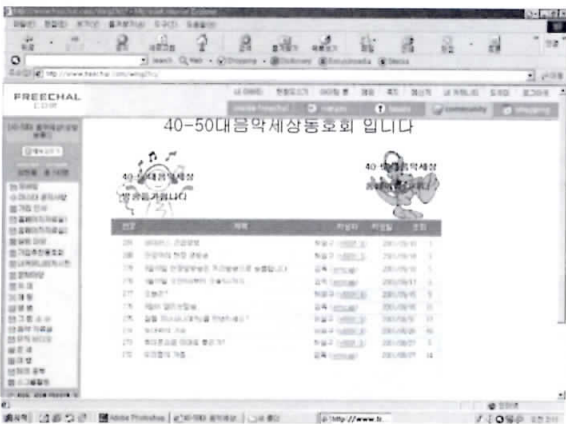
동호회명: 40-50
 음악세상
 설립일 2001년 1
 월일
 회원수 293명
 가입절차 승인후
 가입
 초대시삽:인생
 2대:코빅
 현재시삽: 바람
 개인홈페이지등
 록수:0



프리첼 동호회 (http://www.freech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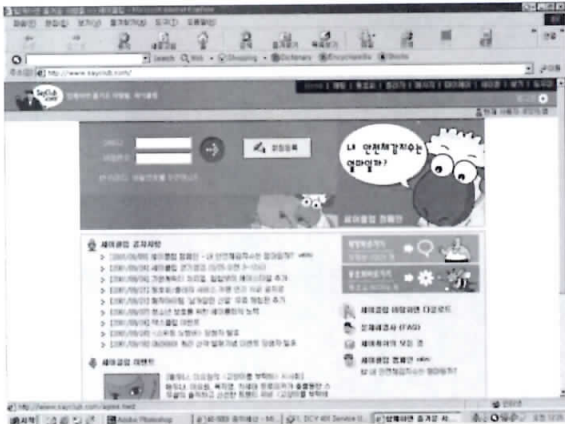
동호회명:40-50
대음악세상
설립일 2000년
9월22일
회원수 147명
가입절차: 승인후
가입



초대시삽: 인생
현재시삽: 인생
개인홈페이지등
록수:19개

호회 회원간의 모임으로 국한 되고 있으며 시제이들은 방송에
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세이클럽 동호회 (<http://www.sayclu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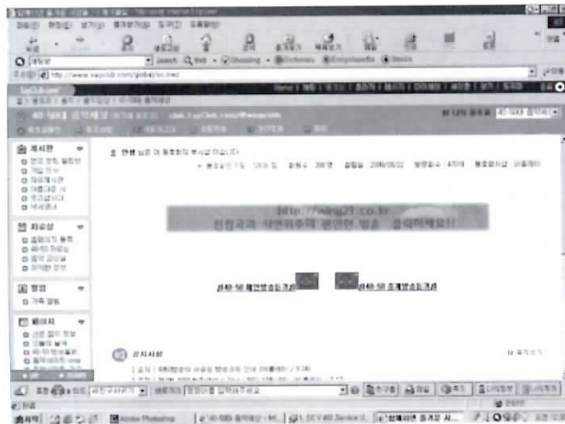


동호회명 40-50
대 음악세상
설립일:2000년 8
월22일

회원수 612명
가입절차: 승인후
가입

초대시삽: 인생
현재 시삽: 비올
레타

개인홈페이지등록
수:3개



4050대 음악세상 동호회 사이트 소개

40-50대 음악세상이 처음 정규 방송을 시작한곳은 세이클럽입니다. 그리고 CJ들의 방송 교대와 파일 주고받기를 위해 씨후랜드가 열렸으며 프리첼, 엠에스엔, 피플475, 라이코스, 네띠앙이 고정적으로 공개 채트방이 열리면서 동호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동호회에서도 40-50대 음악세상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 홈페이지에서는(wing21.co.kr) 회원 가입을 위한 그 어떤 로그인도 필요 없으며 누구든 신청곡과 사연을 올리고 다양한 게시판들을 통해 CJ들이 방송을 위한 게시판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은 가능하면 이 방법을 지속해 나갈것입니다.

앞으로 40-50대 음악세상은 별도의 홈페이지 wing21.com에서는 부부와 가족중심의 회원제를 생각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것입니다.

각 사이트에 40-50대 음악세상 동호회는 CJ 인생이 모두 개설하여 왔으며 회원중에 시샵을 위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 동호회는 이 방송 청취자로서 40-50대 음악세상을 알리고 함께 들으며 다른 전문 동호회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가급적 CJ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동

전문방송 끼리방송 입니다.



40-50대 음악세 상 유료방송포트 제공하는 사이트 입니다. 방송을 하 실분은 이 사이트 를 이용하십시오

<http://www.ki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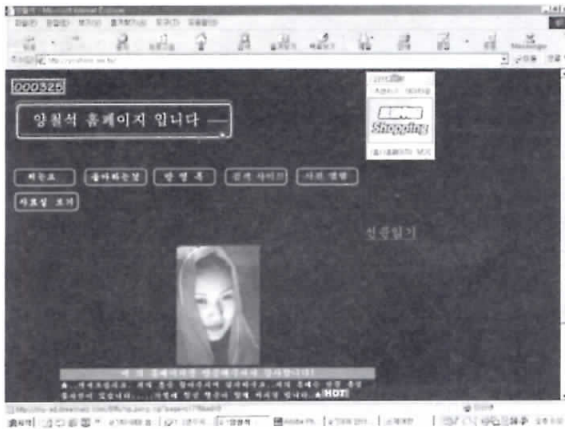
전문방송 조이씨제이 입니다.



40-50대 음악세 상 유료방송포트 제공하는 사이트 입니다. 방송을 하 실분은 이 사이트 를 이용하십시오

<http://www.joycj.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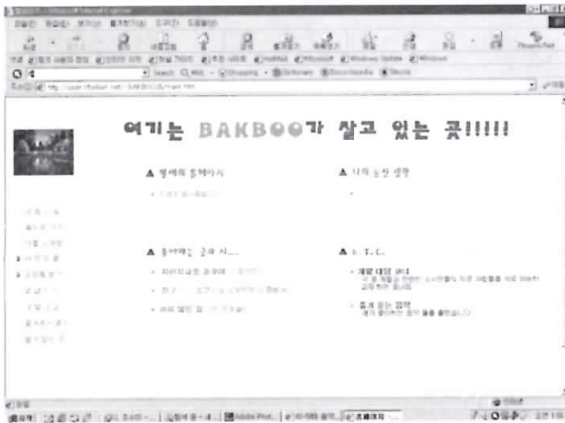
세이클럽 양철석 홈페이지입니다



저의 사진 홈 페이지 인데요...함 구경해 보시구요.. 잘못 된것이 있음 지적도 해 주시고요..요즘 시간이 없어서요 사진을 못 올리고 있거든요..계속 올리도록 할께요..좋은날 되십시오..

홈페이지:<http://ycshom.wo.to/>

msn.40-50대음악세상 동호회 글씨



그래서 뭐 부실한 집이지만 천천히 수리해나가면 될 끼고 해서랑 여기에 올려봅니다. 뭐 일부러 시간 내실 필요는 없구요, 심심하면 함들어와서 웃을 수 있으면 웃고 가시기 바랍니다.

홈피 : <http://user.chollian.net/~BAKBOO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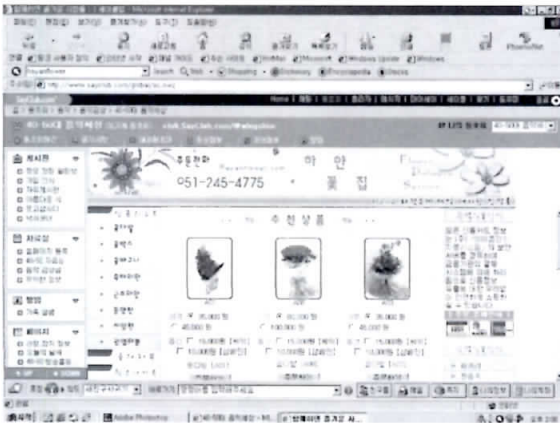
프리첼 설대치 홈페이지입니다.



게으름 피우다 일요일 의 한가로움을 만끽하며 똑똑 똑똑 망치질해서 대충대충 만듭니다. 곧 보수공사 하합니다. 누추하지만 들러서 남기실 글로 인테리어 부탁드립니다.

<http://www.freechal.com/helpchi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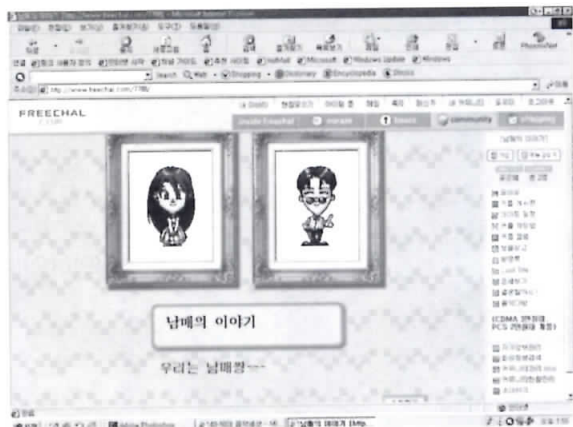
세이클럽 팅떼지다 안녕 하세요.....



부산 토성동에 조그만 화원을 하고 있지요..우리 동방 회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당연히 할인 혜택이 돌아 가겠지요 많은 애용 바랍니다. 주소는요

4775flower.com입니다 <http://www.sayclub.com/global/sc.nw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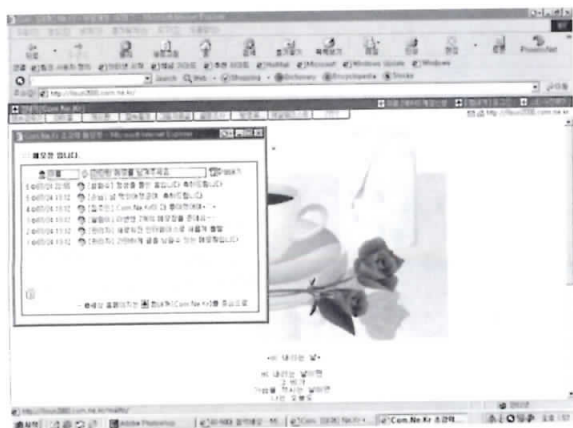
프리첼 [민들레의 꿈]이 대문을 활짝열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넘여러분들~ [장 애인 사랑] 에 관심을 갖어 주시면 고맙겠구요~민들레의 사진창고][민들레의 문학마당][민들레의 발자취]는 저만의 공간이니까~ 관심있게 봐주세요~하구요~헤

헤~참 주소는요~ <http://www.freechal.com/suk7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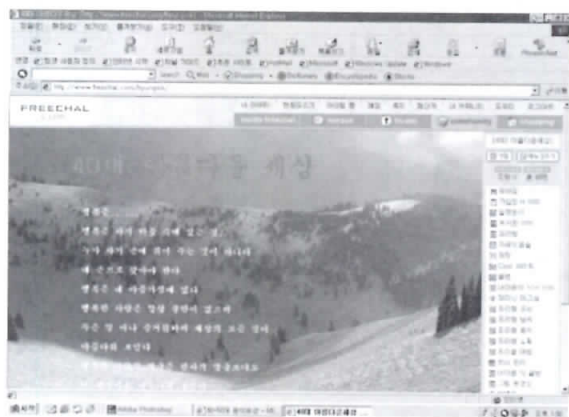
프리첼 ^*^로미오 홈페이지 입니다



빈약하지만 좋게 봐 주십시오하나 하나 이제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대문 장식은 나중에 다시 하려 합니다 내용도 아직은 빈약하기 그지 없구요^*^ 주소 소개해 올립니다

<http://ilsun2000.com.ne.kr>입니다

프리첼 김형식님의 홈페이지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도..... 챔피언
서 망설였어요!!!!

<http://www.freechal.com/hyungsik/> 행복의 원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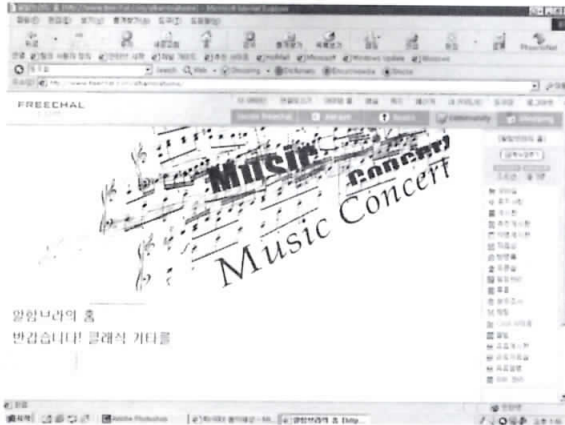
프리첼 김필남님의 홈페이지 입니다.



겨우 흥내만 냈습
니다

<http://www.freechal.com/jajumin>

프리첼 알함브라의홈 입니다



등록 부터 했습니
다
망설이고 망설이
다 홈은 배워가면
서 꾸미기로 하고
등록 했습니다.많
이 가르쳐 주십시
오.

<http://www.freechal.com/alhambra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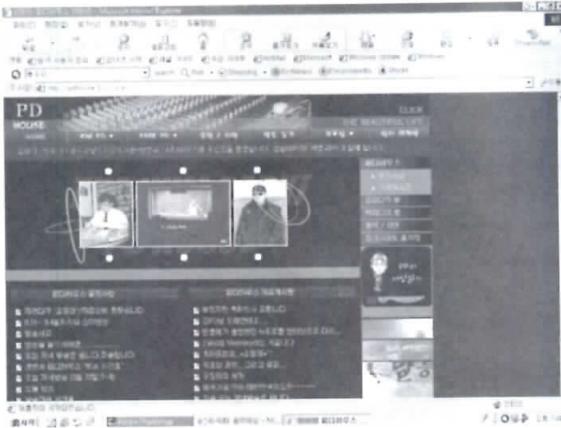
프리첼 정시환님의 홈페이지 입니다.



지나해부터 다른
사이트에서 운영
해 오던 우리 가
족 연락방인데..
다른 대책이 없어
서...공개방은 몇개
없습니다...놀러 오
시라는 소리도 않
하겠습니다

<http://www.freechal.com/jeong21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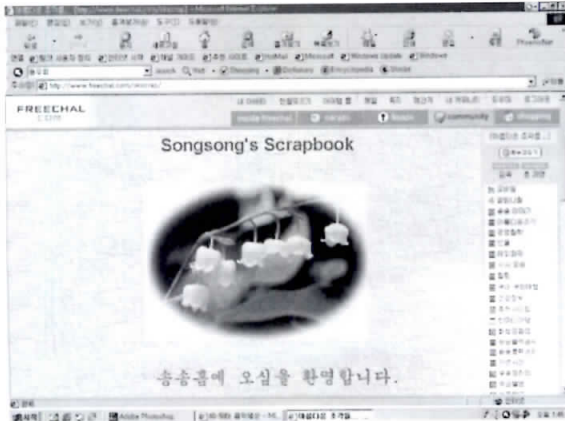
프리첼 마침내 PDhouse.....오픈 했습니다



이 오세요^^ <http://pdhouse.bcn.co.kr>

프리첼 송송 홈페이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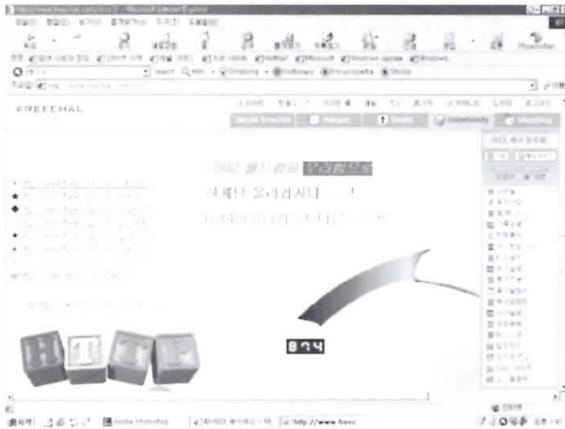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마침내 피디하우스가 오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환영합니다. 송송님 이제 오셔도 좋습니다.
김피드드림^^아직 부족한 공간이 좀 있습니다 바로 정리가 될겁니다 많



소개는 안하구... 한번 가보시고... 야단 좀 쳐주세요...히...아름다운 조각들...이라는 타이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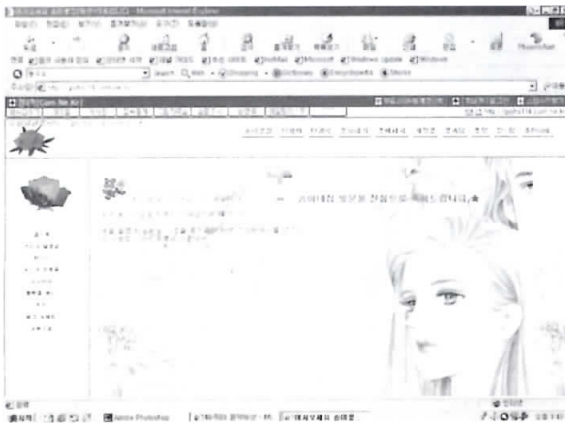
<http://www.freechal.com/okscrap/>

프리첼 터프 축구 동우회



<http://www.freechal.com/iyss7>

프리첼 애란의 홈페이지 입니다 .



<http://gojhs114.com.ne.kr>

정말힘드네여...!
 님들께서도 그러
 신지여 어찌돼였
 던 간에 해보라
 니.....!
 해보자구여 마스
 터님이 이기나 우
 리가이기나..ㅎㅎ
 서로 상호협조해
 가면서 생각하면
 서여.

동호회 가족 안녕
 하세요?
 저애란이에요 ,제
 홈페이지를 소개할게
 요 .
 아직은 뼈대만
 만들었어요.그냥
 한번 들려주세요
 ---님들이 예쁘
 게 글좀올려주세
 요 ---

프리첼 내도 커뮤니티 소개합니다..히히 (이영근)



56년생 나비들만의 모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커뮤니티를 만들고 나니 겁이 나네요. 좋은 모임이 될수있게 노력 하겠습니다 잠시들 들려보세요..히히... *^ ~ 우리커뮤니티로 오는 길입니다.

<http://www.freechal.com/56nabeb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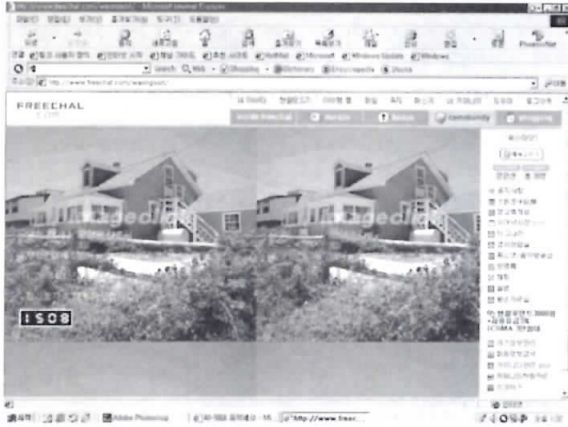
프리첼 10년의 약속 대화명 허일구입니다



안녕하세요.....허일구입니다. 홈페이지 저로서는 엄청 버거운일이네요... 앞으로 서서히 수정해 나가며 진짜로 전문성있고 뜻이 있는 홈페이지로 꾸며보겠습니다. 님들 도와주세요...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ttp://www.freechal.com/h590113i>

프리첼 탐라왕손 홈페이지 입니다



여기는 주로 주식에 관한 이야기와 영화관람실, 음악, 영상그림 등 지치고 힘든 분들이 들어와서 눈의 피로를 확 풀수 있도록 꾸며볼려고 합니다. 단 정회원이 되어야 관람 가능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freechal.com/waong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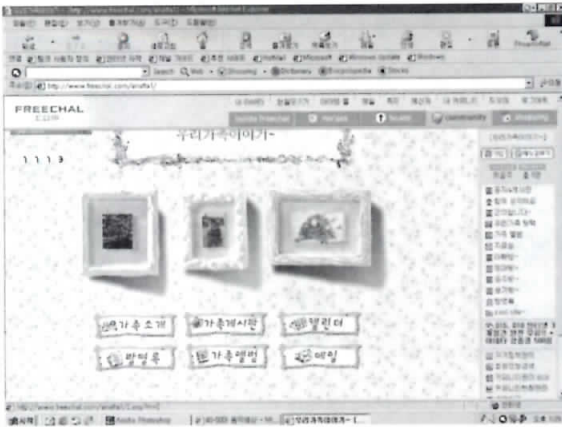
프리첼 저두 만들었어요 (김영희)



처음엔 무척 당황했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홈페이지 만들었어요. 딸한테 도움받아서, 방문하셔서 도움 많이 주세요. 늘르시면 갑니다

<http://www.freechal.com/kyh8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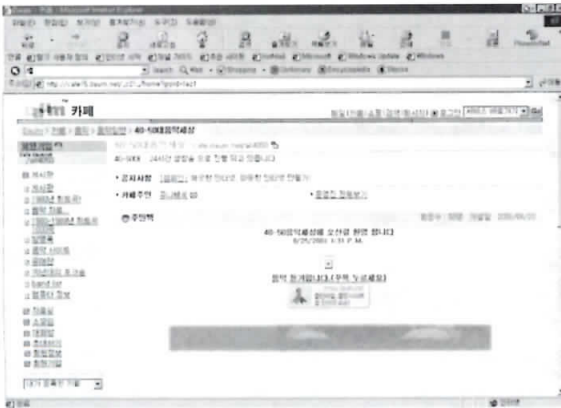
프리첼 우리가족 홈페이지입니다.-이광순-



이래도 안된다면
잘릴 수 밖에도
흑흑~그리고 기
왕 저희집에 들리
신 분들은 발자욱
남겨주세요.참고
로 다음 달 아이
와 함께 떠날 몽
고 여행으로 우리
집 홈피 자료실에
몽골에 관한 자료

가 있습니다. <http://www.freechal.com/anatta1/>

프리첼 쥬니베로



시간이 나시면 오
셔서 발자욱이나
남겨 주세요.....
이것 말고 다른홈
피를 제작 중입니
다. 그때가 되면
다시 소개 하기로
하겠습니다.^.*

: 요기입니다..... e.daum.net/all4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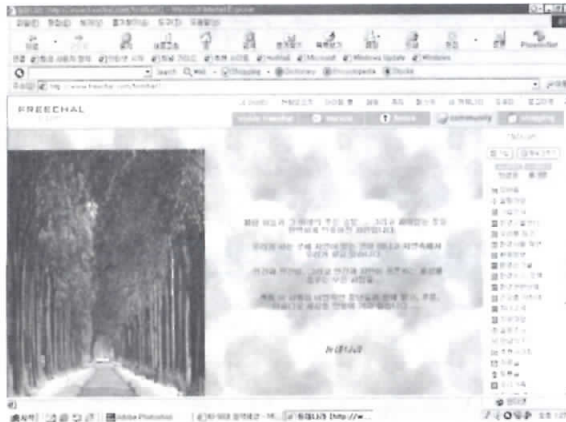
프리첼 백솔님의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우리동호회에선...
그래도 어른이신
(?) 백솔님께서
가만이 흠피를 가
르쳐주셨습니다.
새색시 마냥 패나
부끄러워하시면서
안 갈켜주시겠다
고 하시더니,..아
그럼 백솔님의 흠
으로 가보실까요?

홈페이지 <http://www.leewhon.com/>

프리첼 나그네/등대



4050음악세상에
서 추구하는 1인
1커뮤니티 갖기운
동에 동참하는 의
미로 커뮤니티를
공개할까 합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커뮤니티 주소 : <http://www.freechal.com/tomihan1/>

비올레타 홈페이지 랍니다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만들어보세요. 우선은 내용은 채우지 못해도 시작하시면 관심도 가지게되고 실력향상도 될겁니다

홈페이지 <http://violeta.w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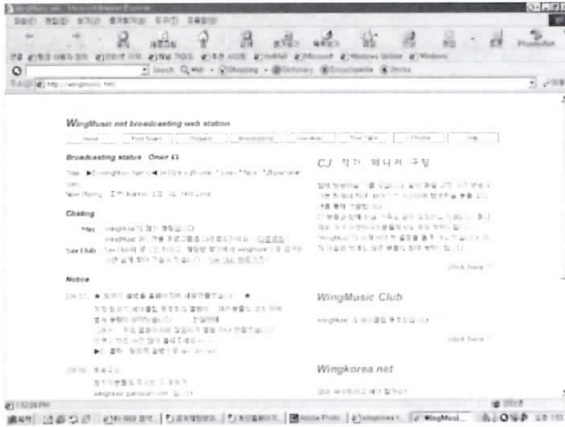
능소화 홈페이지 랍니다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만들어보세요. 능소화님의 가족 홈페이지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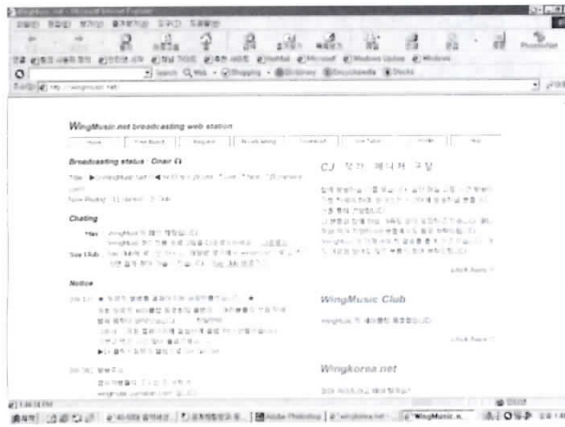
홈페이지 <http://my.netian.com/~oioiop>

코빅의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라디오방송
에 꼭빠져서 방송을
하고자하는 어린친
구들을 위해서 열심
히합니다 두 개의
홈페이지입니다

30-40대방송 <http://wingkorea.net>



10-20대들의
방송

10-20대 방송 <http://wingmusic.net/>

40-50대 음악세상은 40-50대가 인터넷 세상에 주인공이 되기 위한 첫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가족들의 몫입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가족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이 방송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족들의 홈페이지를 꾸미느라 바빴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이 되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시작하십시오.... 가족 홈페이지를 이렇게 시작한 우리들의 홈페이지입니다.

40-50대 동호회에서 만들어 올려진 개인 가족 홈페이지를 소개 드립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작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족 홈페이지 만들기에 많은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 없이 어려운 곳이 인터넷 세상입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가족 홈페이지가 만들 수 있습니다.

40-50대 음악세상 가족, 개인 홈페이지 소개

40-50대 음악세상이 새로운 1년을 함께 해오면서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함께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인터넷을 하게 되면 누구나 이메일 주소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어야 하듯이 40-50대 음악세상 가족이 되시면 두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10년의 약속 대화명을 만들어 자신의 대화명에 자신의 인격을 심어 대화명에 자긍심을 불어 넣어주는 일과 두번째는 가족 홈페이지를 만드시고 가족이 함께 인터넷 세상 속에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

각 사이트별 40-50대 음악세상 동호회 회원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족 홈페이지를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는 가족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방송하는 40-50대 음악세상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각 사이트별로 40-50대 음악세상에서 열고 있는 공개 채트방은 CJ들이 방문하여 방송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서서히 가족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방송하는 체제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공개 채트방을 통해 음악세상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보다 이제는 함께 하는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이 가족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가족들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가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하고자 합니다.

노래몇곡 나가고 맨트하고...상기된 얼굴로 진행자의 맨트에 귀귀울였다. 아~ 4050음악세상...나도 방송을 한다. 지금도...말도안되는 꿈을 가지고 방송을 한다. 4050음악세상이 나의 방송 모델였다.

"인생"님 "비올레타"님 맨트를 녹음해서 스타일과 발음을 수십번 듣고 연구했다. 4050음악방송은 나의 방송에있어서 큰 버팀목였다. 그 엄청난 이벤트를 소화해내는 4050음악세상이다. 자랑스러웠다.

그런데...안탑갑다. 지금진행자는 순간 순간 진지함이 없다. 보통 음악방송에 친구 몇명을 상대로 하는 그런방송과 다름바없다. 나의 모델이고 뿌리인 4050음악세상이 이럴순없다. 듣는이에 욕심이다.

그래도 욕심을 부려본다. 매시간 진행자가 누구이든 40대 50대들이 즐겨들을수있는 안정된방송과 진지한 방송을 보내주기를.....김씨가족에 막내동이가 말썽을부리면 그의 아버지가 욕을 먹는다.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건 하찮은 "인천땡구방송" 시간에 가끔은 4050음악세상을 자랑스럽게 맨트를 하기때문이고 4050음악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4050방송을 즐겨들던 그시절을 그리워 하기때문이다

40-50대 인터넷 경험 소개 게시판은 우리들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경험들이 소개되고 그 경험들을 나누어 가지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 가기를 바란다.

인터넷 세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좀 더 건전하고 믿고 신뢰하는 인터넷 문화에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중년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것은 그언니로 부터 챗을 바르게 배웠다는 것에 늘 감사하며 우린 지금도 언니 동생 하며 서로 안부를 묻곤 한다. 알고 보니 그 언니 어느 시청계장 이었고 신분이 확실하기에 믿고 따랐던 것도 일조를 했었다. 지난 가을에는 지역상품인 단감을 한상자 보냈더니 그 언니 고목나무 유자를 한 상자 보내 주었다.사회적문제가 돼가고 있는 이시절의 채팅을 좁은 고차원 적인 말 그대로 인터넷 문화가 되었음 좋겠다.

◎ 이름:산들바람 (48 여 주부) 컴퓨터를 한동기

세상을 살아가자면 배워야 할것도많고 알아야 할것도 많고 그중에 사이버 세상속에 우리 나이에 무슨컴퓨터냐고 무시하면서 외면했는데 나이핑계를대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것이라는걸 깨닫고 아들놈한테 컴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컴퓨터속에 내가 모르는 세계가 또있다는 사실에 또한번 놀라고 인터넷 속에 정보나 여러가지 문화생활 등등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것이 너무나 많은 점에 또한번 놀라게했다

나이에 구애 받지 말고 40~50대 주부님들 도전 한번 해보세요. 컴퓨터는 처음만 두렵지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우리는 자식을나아 키워서 대학까지 보낸 부모들이 아닙니까. 뭘못하겠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초보끼리 메일도 주고받고 아름다운 글도 교환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p.s:프리챌 ID:OJ7393 산들바람

◎ 이름:인천땡구 (41 남 자영업) 4050음악세상은 나의 뿌리...

늘 그랬듯이 컴을 켜다. 뭘할까...?순간 뭔가 할것은 많이있을듯했지만

마저...4050음악세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까맣게 잊고있었다.

나에겐 있어서 하늘같은 "인생"님 너무 좋아하는 '비올레타'님 약간은 설레임을 앓고 홈페이지로 그리고 4050음악세상 방송듣기 크릭 버퍼링후 방송이들린다. 진행중이던 음악을 들으면서 인생님 시간일까? 비올레타님시간일까? 노래가 P나고 ...예쁜 음성의 진행자 음성이 들린다.

태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다른 일을 해야 겠다 생각하고 사회교육 대학에서 컴퓨터를 배우게 되었지요. 처음엔 엄두가 안나서 잘 만지지도 못했지만 자꾸 하다보니 점점 컴퓨터라는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챗방에 들어온지는 3주정도..... 첨에 여기들어와보구 너무 놀랐어요. 40대 님들이 이렇게 많을줄은~~~~~. 나도 주위에선다른주부들보다 빠르다 했는데 저두 이제 여기 동참하여 하나 하나 새로운것을 배워 가려 합니다. 첨으루 이런 글도 올려보고..... 많은 선배님들 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름:자향먹 (45 여 자영업) 내가 챗을 처음시작할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나역시 겜(비주얼 고도리)에서 채팅으로 넘어 갈때의 일이다.세이에다 회원 가입을 하고선 음악방엘 살며시 드가 봤더니 ..여럿이 모여서 빠르게 올라 가는 글들과 순식간에 쓰나가는 영어스펠링들...주눅이 들어서 글한자 못쳐보고 강 나와버렸다. 다시 배회를 하다가 사오십대 음악 방이란 곳으로 드가 봤다. 거기서 고향이 같은 언니가 있었는데,이건 어느새 음악 올려놓고 또 금방 멋진 그림들을 올리는데..화~~~~분명 굉장한 수준의 사람이 었다.

그래도 여기선 더듬거리는 몇마디 말로 양해를 얻어 그 언니께 고향 운운 하며 친구등록을 얻곤 또 역시 나와버렸다. 그리곤 한달을 컴에 드가지 않았다. 왜냐면..나보다 다섯살이나 많은 그언니가 저정도로 컴을 잘할때는 분명 상류층이리라 생각 되어서 소외감에 초라함 마저 들었었기에 그랬다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언니가 있는 방을 두들겼더니 방갑게 맞이 해 주었고 어쩔하다 보니 언니와 나 둘만이 남게 되었다. 그래서 그간의 내심정을 솔직히 얘기 했더니 웃으면서 하나씩 갈켜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태그라는 것이었다.

메모지 사용법하고 복사 해서 붙여 넣기 하며.....marquee 태그를 첨으로 따라 했을때 손에 땀이 나던 그 희열감이란~~~차암 지금 생각 하면 그 암것도 아닌 것을,그땐 얼마나 대단 하게 생각 했던 지!!!

웃고있는 아이들이 원망스러워 급기야는 남편에게나도 데리고가게 해달라고 졸랐고 엄마도데리고 가라는 아빠에 엄명에 아이들은 절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의 첫 인상은 고약했습니다 탁한 공기때문... 그도 잠시 겁(?)없이난컴을 만지며 게임에 빠진 아이들에 도움을 받아 아이디를 만들고 데이트 신청을 받고 신기해하는 아이들에 눈길을 받으며 독수리타로 난생처음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대학생이던 상대는 많은 용기를 주었고 호기심과 새로운 세계로의 신기함에 후로도 PC방을 찾았지만 타자가 되지않았던 난 제대로 배워야 겠다고 생각했고 끝장을 봐야하는 성격인 전 집에서 자판을 밤낮 두드렸고 게임을 할때는 지는게 싫어 밤을 새기도 하면서 컴이랑 친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새컴을 들여 놓았고 스타그래프트가 무엇인지 몰랐던 저는 상당한 실력이 되었고 무엇이든 내가내가 하며 덤비는 탓에 아이들은 누가 엄마냐고 하지만 자랑스러워 하기도 하더군요

다른엄마와 우리엄마의 다른점이라며 친구 엄마는 컴이 조금만 안되면 딸아이가 아는데 우리엄마는 못하면서도 내가내가 한다고요 혼자서 메일주소를 만들고 친구들을 배우게 부추겨서 메일을 주고 받고 한다고 문서작성까지 배우라고 책을 사다주더군요 숙제로 남아있어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언젠가 배우겠지요

조금어려워 하면 엄마 내장된것 다날려도 괜찬아 무서워 말고 여기저기다 열어보고 다 두드려봐 하며 용기주던 컴에 스승인 우리큰딸이 지금은너무 고맙습니다 지난 4월16일 PC방서 만든 아이디가 지금도 있나 궁금하여 스카이를 열어본것이 40-50대방을 알게 되었고 음악을 좋아하는 전 이곳 정규(?)멤버가 되었답니다

요즘은 게임 디아블로도 열심히 하는 게임광이기도 하답니다

◎ 이름:깜수니 (41 여 주부) 40대의 놀람

20대의 사회생활 때는 무엇이든 의욕있고 뭐든지 배워보려고 했는데 가정을 갖고 보니 부모님 남편 그리고 아이들땀에 내 시간을 다 뺏겨 버려 나만 도

까지 더욱더 놀라울 발전을 거듭하여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나역시 그때까지 만이라도 살아남기를 바라본다. 난 지금 건강이 자신 할 수가 없다. 만일에 그때까지 이내몸 살아준다면 나를 불러주오.

내 두서없는 글도 그날에 소개되고 그날에 나를 찾아만 준다면 다시 한번더 감동을 할 수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자신할 수 없는 건강이 문제로 다. 지금은 돋보기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아마 인터넷을 하고 있다면 돋보기를 쓰고 웹서핑을 하겠지. 아~! 그러니 내 모습이 조금 상상이 되네. 오늘부터 아침 산책도 조금씩 하기로 했는데 밤을 꼬박 새어버렸으니 어쩐다. 한동안 인터넷을 멀리했는데 이곳을 알아 가끔은 들어와 볼 것만 같다. 시들해져버린 컴퓨터와 인터넷의 감동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 나이 60살 때 나의 인터넷 습관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도 궁금하다.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다시 홈페이지도 만들어봐야겠다.

그래서 그날에 나 살아 있고 이내몸 불러 주신다면 내 흠도 소개하고 싶다. 오래동안 방치해둔 흠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기력이 회복되면 작업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에 다시 무슨 집을 지을까? 그날에 살아있을 내 모습이 아름답도록 설계해 봐야겠다.

◎ 이름:짱아 (dhtnskr@yaoo.co.kr) (49 여 주부) P C방서 의 흥분

전 3년전 처음 인터넷 이 어떤것인지 알게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초등 학생일때 컴을 어린이날 선물로 사주었지만 난 절대 만지면 안되는 성스런(?) 물건이었습니다 방송매체에서 인터넷 이란 용어를 자주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이해 할수없었습니다

그시절 컴에 용량이 소극적 인데다 아이들 초차 집에서 게임 이나 하는 정도 였으니깐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컴 때문에 PC 방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초등학생 때부터 엄마랑 같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며 친구 처럼지내던 아이들은 자연스레 PC방 이야기 를 제게 하였고 아이들이 하는것이면 무어이든 하고싶어 하고 갖고싶어 하던 전 아이들에게 데려가달라줄랐습니다

◎ 이름:러브리 (lovely51@hanmail.net) (49 여 주부) [수필]내 나이 60살에의 모습은?

벌써 새벽 다섯시가 다 되어가는데 이밤을 훌쩍 새어 버렸다.

요즈음 많이 건강이 약해져 있어서 인지 잠을 쉽게 이루기가 힘들어 다시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한번 잃은 건강은 되찾을 수 없나보다. 몇년전 부터 컴과 인터넷을 접한 후부터 잠 못이루는 밤에는 컵을 켜다. 올 봄에는 여러가지로 건강관리를 더욱 못해서 힘든 봄을 보내야만 했지만 다시 용기를 가져 보며 컴 앞에 앉아보누나.

몇년전 내가 접했던 인터넷은 한마디로 감동의 도가니와도 같았다.

나아들어 의욕도 없고 맥빠진 나를 그 무엇이 그렇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 싶었다. 새로운 사이버 세계에 몰입했고 밤이가고 낮이오는 줄도 모르게 빠져 들었으며 가만히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동할 수가 있었다.

외로운 내게 너무나 다정한 친구가 되어준 컴퓨터와 인터넷이란 바다는 얼굴이 피어나도록 행복을 주기도 했었다. 혼자서 씨름하며 독학으로 배울 수 있게 된것은 순전히 컴퓨터 선구자들의 기막힌 숨은 헌신이 깃든성능에 탄복해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마치 천국을 만난듯이 감동이 되기도 했다.

텍스트의 색깔 변화와 글자하나 움직이는 모습마저도 신기하고 또 신기했다. 이세상에서 그 무엇이 이토록 나를 감동 시킬 수 있을까 싶게 나는 신대륙이라도 발견한듯이 기뻐했었다. 그러나 그 감동도 이제는 먼 이야기가 되어간듯 마음의 감동이 잠잠해져 버렸다. 이제는 그렇게 즐겨하던 인터넷도 인터넷뱅킹 사용시나 이메일 이용이나 동호회 활동등만을 겨우 이용할 정도로 가끔 들어와진다.

그러다가 너무 무료하던 요며칠 야후 검색기를 통하여 이곳을 알게 되었다. 이곳에 오니 앞으로 2010년 이곳에 올린 글의 주인공을 찾는다 하나갑자기 그때의 내 모습은 어떨까 상상을 해봐도 도무지 상상이 안가길래 이렇게 즉석에서 도전을 해보고 있다. 그때의 내 나이는 60살이겠지. 이 사이트가 그때



영향을 받아 물정이 하루 50분씩 빨라지는데 멀치잡이도 물정따라 전일 12 시에 나가면 당일엔 11시경에 나간답니다.

그날은 아침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아버님이 바다로 가셨고 아버님이 집에 오실려던 녀히 4시간정도 여유가 있는터라 친구녀석들을 불러 모았습시다. 자고로 친구를 잘만나야 앞길이 편하다는데...ㅠ.ㅠ 조심조심(혹시 그안에 사람 있을까바..) 내려서 부엌칼로 나사를 돌려 풀기 시작하는데 만감이 교차하던군요..사람이 없으면 개떡은 내것인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바램은 낫설은 사람들이 그안에 있어 이상한 세상을 직접 경험해 보고싶은 총동과 함께 사람이 튀어 나오면 무슨말부터 해야하고... 항시 듣는 바로는 어른들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려 아무리 작아도 어른들일텐데 친구로 해야하는가 존댓말을 해야하는가.. 인간적인 갈등 속에마른침을 삼키고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개봉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커먼 코운지와 커다란 말굽자석만 덩그러니 붙어있었고 모든 상상의 나라를 펼쳤던 자그만 소도시, 건물들...그리고 소인들은 눈을 씻고봐도 없었습니다. 내기에 이겨서 1년치 개떡이 내것이 됐다는 쾌감보다는 맘속 저깊이 은근히 바랬던 소인들과의 만남이 무산되는 동심의 상처가 제겐 더 컸습니다.

그래도 그럴것이 그냥 다시 조립했으면 될것은 그놈에 말굽자석이 얼마나 같고 싶었던지 스피커를 뜯어내어(소인을 못만난 화풀이였을지도...ㅠ.ㅠ) 망치로 두들겨 말굽자석만 떼어내어 바닷가로 달렸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은 모래뿐 아니라 자석을 밀고 다니면 엄청난 철가루가 묻어나온답니다.

개떡내기 진놈이나 이긴놈이나 해지는줄 모르고 백사장을 뒹구렸고 그렇게 서른 다섯해 전 내고향 바닷가는 저물어 갔습니다.

집마당에선 개박살난 뼈빠가리 앞에 부모님이 부들부들(?) 떨으며 장한 아드님 귀가를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은 친구들과 개떡내기에 이긴줄도 모르신체.....ㅠ.ㅠ;;이런 촌님의 인터넷 체험기를 몇자 올릴까 하오니 웃음으로 넘겨 주시길.. 담에 봐여~ 사이버 떠돌이 방랑삿갓.

겨 유자나무에서 떨어져 쓰디쓴 인생을 맛본 남도 바닷가 촌놈입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라디오속에 소인국사람들이 있어서 음성이 나오는줄 알고 라디오속을 꽤나 보고싶어 했던 어린시절기억이 납니다" 라는 인생님의 글을 읽고 아버지에게 디지게 맞았던 추억이 떠올라 몇자 굵적거려 봅니다.

동내방내 다뤄져도 시계하나 구경하기 힘들무렵 유일하게 시계를 대신해준 고마운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를 죽도록 맞게했던 "삐삐가리"였습니다.

지금의 유선방송처럼 집집마다 군대서 통신용으로 쓰는 삐삐선을 깔고 집안 처마밑에 덕하니 걸쳐논 물건은 다름아닌 스피커입니다. 가우똥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시 라디오는 존재유무조차 모르던 시절이였고 그값이 어마어마하여 마을회관에 라디오 하나 틀어 놓고 삐삐선을 통하여 집집마다 라디오 방송을 실황중계(?)했던 것입니다.

가끔가다 "시계라면 정확한 오리엔트 손목시계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삐삐 삐..삐~~~"그 고마운 존재에 시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시절...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저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친구녀석들과 저기 삐삐가리 안에 사람이 있다 없다로 개떡내기를 했던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다음에 집에 개떡찌면 한덩어리 갖다 주기로....

우스운 내기 같지만 굳것질이라곤 엄두를 못냈던 그시절 개떡은 지금의 피자보다 훨씬 크게 우리를 먹거리문화에 자리한 범국민적(?) 음식였기에 내기에 이기면 석달 열흘이갓도 잊어먹지 않게 공책뒷장에 꼬바꼬박 적어놔 기어히 받아낸 때어먹을수 없는 우리들 사이에는 큰내기 였습죠...

근데 이친구녀석들이 삐삐가리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걸리버 여행을 탐독 한놈이라 소인국도 알고 해서 긴가민가 했지만 설마라는 자신감으로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짓고 그중요한 내기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π.π D테이는 아버님이 멀치잡이 나가시는 날에 거행하기로 했는데 날마다 나가는 멀치잡이 인데 D테이가 왜 필요하냐고 물겠지만 바닷물은 달의

아빨새! 내용이 서로 뒤바뀐 것이었다. 얼른 두 사연을 다시 바꾸어 놓고 32살 되신 주부님에게 사과하는 이 메일을 보냈다. 거래처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와 다시 이 메일을 보니 얼씨구? 그 주부님한테서 또 다시 이 메일 두통이 와 있었다. 한 통은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고, 또 다른 한 통은 저 주부가 아닌데요 라는 내용의 이 메일 이었다. 고친 방명록에는 이렇게 썼었다. 그 만한 나이 또래에 아기가 있을 테니 제 실수를 이해해 달라고.....세상에 호적상 멀쩡한 처녀를 주부로 변신을 시켰으니 이런 실수가 어디 있겠는가.다급히 방명록을 고쳐놓고는 이런 사실을 떨었다. -이 홈페이지와 저와는 악연인지 인연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군요.한 방명록에 세 번의 글을 고쳐 쓰기는 처음이군요, 다음부터는 자신의 소개란에 이렇게 써 주세요, 저 주부 아니에요 라고 써 주세요.-

32살 된 이 아가씨는 무척이나 익살스러운 아가씨였던가 보다. 내 홈페이지에 다시 이런 글을 올려 주었다. 아가씨라는 소리를 다시 듣게 돼서 무척 좋다고.....그리고 다시 두 통의 이 메일이 날아 왔다. 감사하는 내용 한 통과 노래가 담긴 카드에 또 놀러 오시라는 사연이 담겨져 있었다.

한 사람에게 하루에 여섯 통의 이 메일을 받기도 처음이지만 이처럼 방향해 본적도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두 꼬마네 홈페이지를 방문한 방문자 명단란에 이 아가씨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이냐고 묻는 이 메일을 내가 보냈고 후에 확인 해 보니 내 홈페이지 방명록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로 홈페이지 방문을 하고 메모를 남긴 것이 인연이 되어 서로 알게 되었고, 또 같은 대구에 살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남의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방명록에 글을 남길 때는 그 사람의 이력을 자세히 살펴보고 글을 남겨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다.

◎ 이름:방랑삿갓 (45 남 자영업)남도 촌놈 사이버 체험기[1]

안녕하십니까? 소생은 일찌기 유자서리 갔다가 주인 할머니 작대기질에 못이

◎ 이름: 버들개비 (kihk1951@hanmail.net) (51 남 자영업)◎
2001/8/10(금) 15:28 뭐야? 또 실수야?

요사이 나는 남의 홈페이지 살펴보는 것을 취미를 붙였다. 사람마다 얼굴 생긴 모습이 제 각각이듯 홈페이지 역시 그 모습도 제 각각이었고 내용도 무척이나 다양했다. 동 식물 사진을 싣고 자세하게 설명한 홈페이지가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실은 홈페이지도 있고, 아름다운 시를 써 실어 놓은 홈페이지도 있었다. 엇그제는 홈페이지 자랑 코너에서 새로 등록한 두 편의 홈페이지를 볼 기회가 있었다.

한 곳은 서너 살쯤 되는 남자 아이 둘을 가진 부모가 만든 석희네 집 홈페이지였고, 다른 하나는 32살 되신 주부님이 만드신 홈페이지였다. 나름대로 두 분 다 정성을 들여 꾸민 홈페이지라 구경을 잘 했다 싶었고 또, 좋은 구경을 하고 그냥 온다는 것은 실례가 될 것 같아 방명록에 글을 남겨 놓기로 했다. 나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글에서 글을 쓰고 그 곳 방명록으로 옮기는 버릇이 있다.

그 이유는 그 자리에서 글을 남겼다가 오자나 혹은 내용이 부실하거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일단 글에서 작업을 한 뒤 다시 카피를 해 방명록으로 옮긴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어떤 방명록은 긴 글을 남길 수도 있지만, 어떤 방명록은 한정된 글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방명록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고 긴 글을 적어 놨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두 집 홈페이지 다 긴 글을 남길 수가 있어, 어린 아이 부모님에게는 아이에게 보내는 긴 사연을 남겼고, 32살 주부님에게는 아롱다롱한 홈페이지 구경 잘하고 간다는 간단한 사연을 담았다.

다음날 아침 이 메일을 펼쳐 보니 32살 된 주부님한테서 두통의 이 메일과 있었다. 한 통은 방문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고 다른 한 통은 -저 꼬마가 아닌데요.- 하는 이 메일 이었다. 이거 분명 무엇이 잘 못 됐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 분에게 띄웠던 사연을 다시 들여다보니 맏소사! 두 집 홈페이지 방명록난 만 열어 놓고 작업을 한 것이 탈이었다.

에 들어오면 인터넷 방으로 달려갑니다. 아무리 낯선땅을 가두 외롭지 않드라
구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있는분들이 너무나 반가이 맞이 해주어서 더더욱
그지역에 정이가구요 내가 그 지역 에 모르는 정보를 주셔서 사진 찍으로 다
니는데 많은도움이 되곤하죠. 이게 다 인터넷 덕분이죠

내가 하는공사에 정보두 연구 다른유명한 작가들께서 찍은 사진을보고, 사진에대
한 공부도 많이한답니다. 그리고 음악을 넘 좋아하는데 씨푸랜드에 오면 내가
듣고싶은 음악 구해서 들을수있어 너무좋아요. 여러분 인터넷 어려운거 아니
드라구요. 이곳 저곳 사이트를 다니다 보면 내가 좋아할수있구 느낌이오구하
면 그곳에다 등지 틀구요 그래서 많은 친구도 사귀어 두면 좋구요. 서로 정보
도 교환하구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다운 받구요. 그래서 난 인터넷을 한답
니다 . 할수있는그날까지요. 여러분도 용기를 갖이시구 도전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륜으로 인터넷도 잘할수있습니다. 요요치산~~~~~

◎ 이름:오영관 (44 남 제조업) 세상에 이런일이 있을줄이야??

어느날 주거래처인 모 대기업으로부터 견적의뢰서와 함께 도면1장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뭘까하고 한참을 고민하다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타사 연구부서
에 근무하는 고교동창생에게 전화를걸어 부탁했다. 원재 료에서 부터 용도까
지....그런데 이게 웬걸??? 친구가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라는데..

한심하게도 내가 운영하는 공장에는 제대로 컴퓨터를 이용할줄아는 직원조차
없었다니....이렇게 답답할수가..이제라도 늦지않았으니 배우자고 마음먹고 시
작했죠. 친구가 가르쳐준대로 인터넷세상으로 들어가보니 와우...독일 생산공
장에 문의하면 30분도 채안돼 답이날라고 중간수입업체도 필요없이 직접
수입할수도있으니 이 얼마나 신기하던지, 세상이 이렇게도 변하는가 싶고, 말
로만듣던 인터넷이 이런건가 싶더이다.

이제는 사업상뿐만아니라 잠시 여가를 이용하는데도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
를 제공받을수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글구 제가 모르는것도 도움받고 싶구요. (전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관련쪽으로 더 배우고 싶어요) 혼자배우는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지금에와서 보면 딱히 가르쳐 드릴건 없어요 그만큼 인터넷이 누구라도 할수 있다는거고 쉽다는 거예요. 네티앙에 이멜만드느거 가르쳐 줬고 자연히 이곳에 하이텔이나 나우누리 같은데 말고도 대화방이 있다는거 첨알았어요.

제가 처음땐 386 1. 2밖에 없었고 소박하고 아담한 사이트였죠. 전 개인적으로 여기가 젤 정든곳이에요. 어찌어찌 40-50대 음악방에 들어왔는데 음질이 넘 깨끗하고 음악이 조용하고 너무 맘에 들었답니다. 그때 비올레타님이 진행중이셨구요. 그곳을 참솔바람님이 지킴이로 계셨죠. 전 그후로 매일 들어왔어요.

이곳은 편해요. 노래도 편하구요. cj님들고 편하구요. 사람들도 편하구요

제가 이곳을 자주 찾는 이유예요. 글구 잠수해도 내@지 않는 네티방 여러분 좋구요. 글구 자신들을 지켜가시는 여러분이 많아서 좋아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이곳이 오래도록 어어져 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10년후 출석 체크를 해주시나요? 목표가 하나 생겼네요. 10년후 절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만큼 열심히 동참하고 싶어요. 대신 잠수하는거 조금만 봐주시면 감사..저 그동안 메일보고 홈페이지에 글 글적이고. 글구 여기저기 뒤지고...봐주실거죠? 40-50대 음악세상이 넘 좋아요.

제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구요 안녕히 계세요 꾸~~~~~벅,***

홈페이지:<http://my.netian.com/~myguing>

◎ 이름:요요치산 (52 남 자영업) 전국을 다니며 인터넷을~~그래서 친구가 많아요

나는 개인 사업으로 기계설비및 철강구조물 제작 설치하는업을하고있는 남자입니다 취미는 사진을 하구요. 그래서 쉬는날은 사진찍으로 다니죠. 내가 인터넷을 하게되고부터 전국에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하는업종이 지방가서 해야하는일이기에 지방갈때마다 일고 마치고 숙소

웃는얼굴에 침뿜 뺀다 하지 안습니까 그럼 행복한 웃음 지우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홈페이지:<http://ui0989.com.ne.kr>

◎ 이름:감꽃 (myguing@netian.com) (32 여 주부)2001/5/16(수)
00:59 컴을 켜면 인터넷이 되는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체험담을 적는다가에.. 나이로는 여기 필수 없는 자격이지만 받아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글까지 적어봐요. 맨날 잠수하는거 곳곳이 봐주는 네티방 여러분들 감사하구요.

그니까 제가 컴을 첨 접한진 우리 큰애 입학 선물용으로 산 작년2월이 첨이네요. 그렇게도 원하던 컴이 제곁에 있었는데 첨에 제가 할수 있었던건 타자 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글타자 프로그램도 없어서 사놓고 몇일 모셔두고 있었죠. 서점가서 국민pc길라잡이 샀어요. 거기에 한컴타자를 어찌어찌해서 깔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분당 60타 1단계도 수준도 안되는거였어요. 웃음만 나오더군요 언제 쳇팅을 하지? 그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팔이 마비가 될정도로... 목표가 한가지 있었는데 컴사면 짚먼저 쳇팅이 하고 싶은거예요. 살인적으로 연습을 해서 1개월쯤에 150타를 올렸답니다. 그와중에 밤샘을 해서 컴을 알아가요. 한달기간에 미치는줄 알았어요. 한가지 알면 다른한가지가 막히고 한개 잘못만지면 컴이 이상해지고. 컴퓨터 켜면 인터넷이 되는줄 알았는데..누구 가르쳐 줄사람도 없구 물어볼 사람도 없구. 여튼 1개월동안에 프로그램까는거 이메일 환경 맞추는거 대충대충 알아갔답니다.

그러다 3월에 고공촉진아학원에 입학하게 됐어요 신이 주신 기회인거 같아요. 3월에 입학해서 8월까지 거기서 따는 기본적인 자격증 4개를 땀어요.

난 거기서 하면된다는 진리를 얻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니 쉽게 배워가게 되더라고요. 저보다 모르는 분들께 도움이 돼드리고 싶어요.

은 가고 전 그렇게 몇일이 흘러 갔답니다..

어느날 컴퓨터을 키고 뭘 눌렀는데 세이가 나타 나되요. 그때서야 몇일전 있었던일이 생각 나더군요 순간 호기심 발동 무조건 가입했죠..막상 가입하고 들어가 보니, 어디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더 군요..순간 가슴도 두근두근 하더군요..분위기가 낮 설어서 그런가 봐여 어디에가서 어떻게 해야될지도 몰라 그냥 나오고 말았답니다

그 이후로 몇번 들어가 봤지만 말도 못하고 구경 일수.. 어디서부터 무슨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여..매일 눈팅 여기저기 그것도 사람이 많은곳만 골라서 다녀습니다 근데 어느날 어느방에 들어갔어여.. 그제 음악방인것 같아여.. 가자마자 원엠을 다운 받으라는거 아녀여..그게 뭐냐고 물었어여.. 원엠이 뭐하는건지 몰랐어여..받아보면 좋은거예요..라고 하대여.. 그래서 좋다는데 안받을 멍청이가 어디 있겠어여 다운받아 들으니 맨트가 나오는거에여 난 순간 너무 놀라워 황홀감에 빠져갔답니다..

그래서 원엠을 모시고 작년 8월달 까지 이리 저리 돌아 다녀죠.. 근대여 내 신청곡은 없느거 있죠 .. 제가 옛날 노래가 좋아서 그런거만 신청하니 그런가 봐요 그러던중 여기40-50대 음악 방송을 알게 되었답니다..여기서도 제신청곡 100%로는 안되었지만 많이 들려줘어여..그래서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와서 링크도 몰랐던내가 링크라는것도 알게되고 더나가 태크에 성질을 배웠읍니다..그래서 전 40-50대 음악 세상을 아직도 사랑 합니다

저는 여자구 남자구간에 믿지 않는 성격을 갖고있어쥬 그때는 항상 내 자신 만 믿었쥬 쪽지 100% 무시했어여..속으로 예구 바람등이 헛쥬 항상 저는 부정으로만 보왔답니다..지금은 100% 긍정적이 되었지만요 쥬렛을 하면서도 좋은 사람이 많은걸 알았어여여기서 웃음을 뒤찾앗고 행복도 찾았어여.. 제일은 제가 내힘으로 공부해서 태크로 흠을 완성 했다는거예요..그건 여기가 있었기에 가능 했쥬..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해도 허허 웃고 만담니다 여러님두 따지지 마셔요 그럼 같은 사람이 되닌까여..그냥 나누는겁니다 그럼 지 불에 지쳐서 포기하닌까여..자꾸 대응하니 더큰일이 자꾸 벌어지는것 같습니다

명으로 하였습니다. 인생님을 비롯한 모든 c님들께서도 대화명에 대하여 좋은 뜻을 담았을 것인데요 기회 있으시면 소개 한번 해 주실래요. 끝으로 우리 40-50대 음악방송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각자 좋은 뜻으로 대화명을 갖게된만큼 각자의 대화명에 담긴 좋은 뜻으로 삶의 경계를 삼는다면 사이버 공간의 예절이 많이 나아지리라고 믿어 진답니다. 물론 지금도 40-50대 음악방송 사이버 공간의 예절은 다른 어떤 사이트보다 이용자들의 예절이 풍부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인터넷 세상의 40-50대의 사이버 공간의 예절에 대하여 정보통신의날 을 맞아 우리모두 다시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 이름:행복36 (ui0989@shinbiro.com) (37 남)© 2001/5/3(목)
17:31 나의 경험 1년간

저는 작년 이맘때 인터넷이라는거는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물론 컴 만진대는 오래 되었지요. 그동안 바보 상자만 만졌나 봅니다. 간단한 워드나 그래픽 같은거로 명암이나 인쇄 하던내가 인터넷을 어떻게 알겠어여, 그러나 접하게 되면서 난감하더군요. 아이디는 뭐고 비밀번호는 뭐단말인가.. 이런거 초차 몰라습니다 한심한일이지요.

그래서 두달간동안 제가 인터넷을가입한 신비로 샤크안에서만 놀았습니다.. 그러고보니 한게가 있어서 싫증이 나는 찰라 이웃에 사는 형님 벌이쥬 집에 놀러 오셨어여. 그러더니 컴 앞에서더니 세이에 들어 가지 뭐예요 전 세이가 뭐하는곳인지도 몰랐죠 알고보니 채팅이더군요 저는 채팅을 말로만 들었지 한번도 접해보지를 못했답니다 정말 내가 멍청한 세대라는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켜만 보고있었쥬 아니 그건그렇지만 갈생각을 안하는거 있쥬 저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어느때나 마찬가지로 혼자 있고 싶어 쥬쥬 그경하는거도 별로여구여 혼자서 킁킁 대는 그형발은 한마디로 골볼견 이었쥬..나는 속으로 생각했쥬 저래서 바람 나는거 아냐 라고 걱정이 되더군요.. 하야간 12시간만에 그형발

이 벌어지다보니 아이들이 잘못배운 부분까지 오히려 어른 들이 따라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예를들면 국어 문법을 무시한 단어들을 그대로 배워 사용하지요. 방가여,추카추카,안뇽,안냐세여등등..... 모두가 한글 사용법을 정면으로 뒤집어 놓은것인데도 어른들은 아이 들을 따라서 똑같이 익숙해져가는 안타까운 순간들이기도 하지요. 우리 민족의 당연한 과제인 인터넷문화의 정보통신 시대에 뒤떨어진 40-50대를 위하여 그래도 신지식인중의 신지식인이시며 40-50대의 인터넷 문화의 향상에 선구자적인 노력을 하고계신 인생님에게 정보통 신의날을 맞아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해 봅니다. 사이버 공간의 대화명. 각자의 생각하는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사이버 공간의 대화명 은 다양하면서도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자주 바꾸어 버리는경우를 볼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인듯 합니다. 옛날 선인들께서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본명이외에 스승님이나 동료, 선배등이 호 를 지어주어 부르기도 하였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짓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뜻에는 본인의 이상,성격,기호등이 내포될수 밖 에 없었고 자신의 호를 갖은분은 그 뜻으로 삶의 경계를 삼아 세상을 이롭게 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조 당대의 최고 명필이셨던 한호 선생님의 호는 석봉으로 본명보다 호가 더 유명하신 분이지요. 그런가 하면 민족의 지도자 이셨던 김구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호를 지으셨는데 백정(白丁)과 범인(凡人)에서 한글자씩 따온것인데 이는 가장 미천한 사람까지 나와함께 애국심을가졌으면하는 순수함의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사이버 공간에서 각자 사용되고있는 대화명이 꼭 옛 선인들의 호 와 비교할수는 없겠지만 대화명 본인의 인격이 나 자존심 기호등이 내포되어 있는것많은 사실이겠기에 우리모두 그 좋은 뜻으로 삶의 경계를 삼았으면 한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막동 이라는 대화명을 갖고 있는데 저의 역대 조부님들을 알아보는 보첩등 기타 문헌을 공부하다가 가장 마음에 남는 분이 8대 조부님이셨고 묘소가 있는 선산의 이름이 대막동이라 이 조부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화명을 대신하였기에 이 조부님에 대한 명예가 있기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절을 다하고자하는 뜻을 담아 대화

전... 컴을 통해서... 참 많은걸 배운 사람입니다. 제가 컴을 시작하면서... 우리 애들이... 마우스로 그림도 그리고 타블릿으로.. 그림도 자유롭게 그리구... 그런걸 볼적마다...참 좋아여.....

이젠 율애들이 저보다 저 컴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하구요. 시간을 정해놓고.... 컴과 생활을 한다면..... 보다 가치있는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채팅방에 와서.... 대화만 하던 사람들이 어느날 물어와요.... 테그좀 가르쳐주어요. 그럼... 가르쳐주면..... 바로.... 인용을 해서... 게시판을 스크롤 되는 글을 올리구... 노래도 삽입 하는걸 보면 참 이쁘고 대견들해요. 우리 40대 나이에.... 컴을 이만큼 다룬다고 한다면 그건... 쉬운일이 아니랍니다. 제발들 이상한..... 신문지상에 떠드는 그런 부류로 보지 말아 주었으면.....좋겠네요.

전 컴을 통해서... 많은걸 배운 사람... 그러므로 율애들도 같이 컴으로 숙제도... 해가는 첨단생활을 하는 식구들입니다. 컴이 제 친구 이구요..... 제 노래방 이구요. 놀이감 이네요..... 물론 컴이 제 용돈도 충당해주고요. 컴을 충분히 활용화 하여.... 자기것으로 만듭시다.

홈페이지:<http://my.netian.com/~shsw1864>

◎ 이름:대막둥 (lkh3805@hanmail.net) (42 남) 정보통신의날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대화명

우리나라 오천년 역사이래 처음있는 교육의 역류현상. 컴에 관한한 많은걸 부모가 자식에게 배워야 하는 세상. 처음부터 부모 세대에 먼저 확실하게 컴교육이 이루어 졌다면 언론의 사회면에 자주 보도되는 인터넷으로인한 사회문제는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이시대의 40-50대,뒤늦게 컴을 배운다고 하지만 대부분 전문지식을 얻기위한 정벌에의한 교육이아닌 어께 넘어로 우선 배우게 되고 어설픈 실력으로 성인이라는 이유로 성인사이트나 둘러보고 채팅방의 접속으로 잡담이나 불건전한 대화 내용에 익숙하여진다면 이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컴과 인터넷을 배우게 되는 기현상

통신을 해도.... 자기것으로 취하면 되지 않을까요
채팅방에서...노는건.... 한때 입니다. 계속 채팅만 하는건 아니랍니다.
인터넷에 들어와 있어도.....작업을 하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싶네요.
저역시.... 컴을 통해서.... 용돈을 벌기도 합니다.
취미 삼아... 노래를 좋아 하다보니..... 시제이 도 하구 있구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팝송도... 회원님들이 신청을 하면 멘트를 하면
금방 쪽지가 오죠..... 와우... 발음 좋으네요
그럼....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한동안 친구들 만나는것도
자재 하면서.... 매일 시간제 방송도 해보았구요
그래픽 공부를 하면서..... 명함도 만들었구요.....
홈페이지도 만들구.....남의 회사 카테고리도 관리해주면서
매달 돈도 받아보았구요...

이젠 컴이 저의 친구이자.... 애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집안일을 소홀한가 하면 그것 또한 아니죠
밤잠을 못자더라도..... 성격이 모나서 인지... 깨끗해야
무슨일을 할수 있거든요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그런것만 절대 아니라는걸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신문에서... 요즘 주부들이 인터넷 중독증 이라고 할때마다 화가 나요....
왜들 본인들 기준에 남들 잣대질 하는건지.....

이젠 우리 주부들.... 본인들 스스로 자제하고 생각할줄 아는 나이인데
몇명의 사람들로 인하여 도매금으로 넘어가는것 같아서....
참 기분이 그럴때가 많아요

우리네중년들도 컴을 익숙하게되려면 자주접해야되는데 그길을 쉽고도 명료하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인생님과여러c.j님들이하시는데 생각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님과 c.j님들께 항상 고마움을느낍니다.

나역시 컴에더욱더 가까이해서 젊은이들 못지않게,아니더나아질수있도록 노력 할겁니다.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할수있다는걸,아니다시한번 주역이될수있다는 걸 ,그게공상이아닌 실제상황이란 걸보여줄겁니다.4050님들,우린 다같이 할수 있다는걸 외쳐봅시다.

아니,다함께 동참하여 꼭이루어냅시다,40,50 님들이여,우리한번해 봅시다.

끝으로 인생님,정말수고하십니다.워라말로는 표현못하겠군요.

두고두고 인생님의 취지와 노고를 잊지않겠습니다

◎ 이름:상아 (yeowool@kornet.net) (42 여 주부) 컴은 이제 나의 친구가 되었어요

지난 대학1년때..리포트 쓰는게 싫어서 타자학원을 다니면서 배운 실력으로 결혼후 처음으로 도스로 시작해서 들어가는 8비트 짜리 컴으로 워드를 시작 하면서...아이들이 자라면서 집도 커지구 그러면서 이사한 기념으로 삼성 그 린컴퓨터를 구입 그당시는 꽤 고가를 주고 샀는데.....전 그때 우울증에 사로 잡혀 매일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을때.... 어느날 우연히 애들아빠가 유니텔 을 설치해주고.... 전... 그날 부터...통신에서 살았죠 그렇다고.... 살림을 팽개 치고... 통신을 한건아니구요 전용선을 달아놓고.....병원을 다녀오고... 집안일 하면서 제가 방을 만들어놓고...나갔다 오면...님들이 와서 남긴 이야기 들 이 그대로.. 남아있죠..... 전 그걸 저장해서 책 읽듯이... 잤었어 했구여..... 그 러면서... 어느날.... 그래픽 프로그램이 있다는걸 알게 되면서..... 친구랑 같 이... 포토샵을 하게 되고... 일러스트레이터나모... 드림위버...플래시. 코렐드로 우 를 하면서...역시... 신문에서 인터넷 중독중이다 보다 하고 떠드는걸 볼때 마다 왜들 기준을 자기들 기준에서.....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 니다.

인터넷이라는 학문을 확실하게 배우고 노력하여 이시대의 진정한 인터넷의 주인공이 됩시다.

◎ 이름:맘보 (soad6742@netian.com) (48 남 자영업)◎
2001/4/17(화) 01:57 공감하면서 다시한번더 외쳐봅니다

두서없고 정리되지않은 미흡한글이지만 여기 게시판을 접하고 나서 나름대로 한마디하고파서 몇자 남길까합니다.

정말 컴을 얘기할때마다, 항상 뒷전에서 듣고, 아님 남의얘기로만 치부해버리던 얼마전까지의날,생각하며 그래,이거야 우린,아니 난 할수있어 라고다시한번속으로나마 굳게 다짐을해봅니다.

컴은 사고나서 나도 할수있다면 좋을텐데 리는생각은 했지만 애들이하는것만 보여한걸을 뒤에서관망만 하고있을때였어요. 아는 사람중에 나하고같은 나이 의사람이 컴에서 무언가를 하고있었는데,궁금해서 들여다보니까,바둑을 두고 있었어요,그리고 게임도한다는 얘길듣고는,나도해보겠다고 몇가지를 배워두고,또 메모까지적어와서는, 애들이없을때 컴앞에앉아 시도해봤는데,참에 생각보다쉽게되더라구요. 근데 그계계가가되어서,사이트 찾는것과 검색하는것등을 하나씩해나가다가,채팅을하게되었어요.근데 그때까지만해도 타자를 빨리익히기 위해서는,채팅이 좋다고해서 해보자라는생각밖에 없었는데 우연히 네티에서,들어간방이 4050음악세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인생님의 추진하는일도알게되었고,마침 3월25일행사도 듣게되었어요.해서여기제주에서 거기로가서 내눈으로직접보고 또같이우리방 식구들도같이참여하였답니다. 너무나 가슴에와닿는게,인생님이부럽기도하고 한편으론 경외감까지생기더군요.이렇게 우리-한국의 경제를 이끈 주역들이라해도 과언은아닐겁니다- 에게다시금 중추역할을 할수있는 길 을제시해주시게요. 그렇습니다. 난 단언하는데 우리가 다시한번 중추역할을 충분히해낼수있다고확신합니다. 단지 우리네가접해보지않던 컴이란 것에 주눅만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님이 이끌어나가시는 4050방송이 더욱더우려러보입니다.

을 두서없이 게시판에 인터넷에 관한 공부라 생각 하며 적어 올려 보립니다. 요즘 사이버 공간에 미들넷족 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유행이 될정도로 40-50대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 범위를 넓혀 간다는 희소식이 들려 옵니다. 인터넷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이도 조금의 관심만 있다면 우리 40-50대에게 가장 편안함의 마음을 열어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40-50대를 위한 음악세상의 사이트와 운영자이신 인생님을 비롯 한 CJ님과 관계자 분들께 인터넷에 관련한 무에서 유를 열어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40-50대는 기존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사회 경제적 지위의 절정기에서 국가 경제 위기로 인한 세기의 아픔의 변화도 겪었으며 우리 시대를 책임져야하는 세대 이기도 한데 뒤늦긴 했지만 그간의 인터넷에 관한 소외감을 떨쳐내고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네티켓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40-50대의 인터넷에 관한 관심은 그동안 신세대들에 의해 좌우됐던 사이버 공간이 시간은 다소 걸릴지라도 점차 균형을 맞추어 갈것이며 새로운 네티즌 문화를 만들것이며 국적 불명의 인터넷 언어를 순화하는데도 도움이 될것이며 10-20대들이 구축한 사이버 영토를 더욱더 비옥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가볍고 감각적인 인터넷 문화를 일신하는것은 우리 40-50대 즉 미들넷 세대의 또다른 책임이 될수도 있겠지요.

40-50대 음악세상 사이트를 찾으신 모든 미들넷 분들께서는 인터넷에 관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인생님께 문의해 보십시오. 40-50대가 인터넷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신분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노력을하고 계시는 이시대의 참다운 존경을 받는 분이랍니다. 40-50대가 이시대의 인터넷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신 인생님을 비롯한 40-50대 음악세상의 모든 CJ님들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40-50대에게도 인터넷은 생활의 일부이자 하나의 학문이며 노력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끝으로 40-50대 미들넷님들이시여!

해 한다는것이죠. 참고로 저의 홈도 아직 미흡하고 배워야 할점이 많지만 책 한줄 안보고 학원에 안다녀보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혼자 배워 마우스 하나로 지금의 홈을 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님께 한가지 건의 사항인데요 홈페이지 관련 누구나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하나 개설하시면 홈페이지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군요.

위 홈페이지란에 저의 홈을 링크시켜 놓았으니 한번 구경 와 보세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홈페이지:<http://hoparrow.com.ne.kr/main.html>

◎ 이름:대막동 (lkh3805@hanmail.net) (42 남 직장인) 인터넷의 주인공
미들넷의 첫걸음

어젯밤 인생님이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0-50대는 게시판의 글을 읽는데도 인색하고 게시판에 글을 쓰는것은 더욱더 인색하다고 하시면서 40-50대가 인터넷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 정말로 공감이 가는군요. 우리 40-50대가 N세대나 X세대라면 망설임없이 누가 읽거나 말거나 평가를 하거나 말거나 생각 나는대로 그때그때 한두줄 이라도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중년인데다가 인터넷 경험도 이제 시작이니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는것은 쉽지가 않지요. 우리가 음악을 신청하며 한두줄 적은 사연을 CJ님들께서 정성을 다하여 소개하여 주시고 음악이 끝나면 또 코멘트를 붙여서 이야기 하여 주시고 그러하신 CJ님의 정성에 음악을 신청하였던 분은 웬지 꼭 그 CJ님 방송시간에 음악이 신청하여 지듯이 만약 게시판에 우리들의 글이 두서없이 올라온 짧은 글일지라도 정규 음악방송시간 중간중간에 소개하여 주시고 코멘트를 주신다면 인터넷의 초보인 우리들에게도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되어 게시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40-50대의 인터넷에 관하여 어디서 들은 이야기와 저의 생각들

한번 파고 들어보아졌단 생각으로 지금의 홈페이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흥미를 잃고 뭘할까 방황한것을 자주 언급한 것은 주위에 이런 과정을 누구나 경험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더 나은 개인의 재능을 그냥 물어버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것을 극복한 과정을 설명해 봤습니다.그리고 그동안 인터넷 사용중 느낀점을 몇자 적고자 지금까지 저의 인터넷 경험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이란 거의 클릭하면 어데던지 갈수가 있으니 미리 겁먹고 움츠릴것 없다는거와 어느분야던지 빠져드는 분야가 몇개월가다 그게 충족되고 나면 허탈해지는데 그럴때 마다 더 상위의 어려운 문제들을 발견하고 흥미를 갖고 정진한다면 조금씩 실력이 늘게되고 컴에대해 궁금한것은 컴에 모든게 다 있다는것입니다 이말은 무슨말인가 하면 가령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고 가정할 때 회사의 홈페이지나 개인의 홈페이지등에 모든 자료들이 다있다는것이죠 검색엔진을 잘 활용하면 어데던지 가고자 하는곳을 다 찾을수 있습니다.

가령 태그를 배우고자 하면 검색엔진에 태그라 쳐서 넣으면 태그를 다룬 개인 홈페이지가 주~욱 하고 나온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면 그동안 실력이 부족 늘은것을 발견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부딪혀 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한 10년 배우고도 제대로 구사를 못하는것이 실전이 아닌 이론만 따진 교육때문이듯이 컴도 책만 본다거나 학원만 다닌다고 해결될문제는 아닌것 같더군요 물론 체계적으로 배운다면 더 좋지만 실전위주로 자주 컴을 다뤄보야 자기의 실력이 된다는것이죠

마침 음악세상이 내건 이번달의 주제도 개인 홈페이지를 갖자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모든 분들도 홈페이지에 관심을 갖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느낀 또 한가지중 홈페이지는 실력이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한게 아니란것이죠실력이 미흡한 흠은 그런데로 더 초보들에게는 그만큼 쉽게 이해할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것이죠, 10대 들은 자기의 흠을 알리는데 무척 적극적인데 비해 우리 기성세대는 옛부터 자기 자랑은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와 교육을 받은 탓인지 자기의 흠을 알리고 글을 올리는데 어색

고려고 하는데 왜? 시작을 누르냐고 묻는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듯이 저도 첨에 이런정도로 컴에대해선 무지했었죠 그럼 저의 인터넷 경험담을 시작합니다 ^^ 도움이 되시길~~~

컴맹이란 조금함과 시간 때우기 용으로 무작정 컴을 사다놓고 혼자 카드깡을 한지 3개월 이전 뭔가 해보야 겠다는 조금함으로 무작정 쳇을 시작했고 다행히 전에 텔레타이프를 쳤던 경험이 있던터라 타자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던 관계로 첨의 두려움보다 조금 쉽게 적응을 했습니다.

그러길 한 3~4 개월 그러다 태그란걸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그란 그림을 올리는걸 태그로 아시는분들이 많을겁니다 그러나 태그란 무척 다양한것이죠 지금의 세이에선 그림 태그만 되지만 그때만 해도 세이 챗방에선 거의 모든 태그가 허용이 되던때였죠 참 신기하더군요. 그래서 태그를 배우려고 태그방엘 가서 구경하다 펍(폭탄)을 맞길 수십번.. 오기가 생기고 한편으로는 신기하더군요 태그란 주로 10 대들이 많이 배우고 할때 었죠

그러나 알고 보니 컴에서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란게 이런 태그들이 모여서 한페이지를 구성한단걸 알았고 나도 배워 보잔 오기로 발전을 했답니다

태그를 배우려면 일단 복사를 배워야하는데 뭐든지 전혀 기초가 없는 상태가 제일 알려주기 힘들 듯이 물어도 물어도 안 알려주고 설혹 알려줘도 뭔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수가 없고해서 복사방법을 배우는데만 1 개월이 흐르고....

이렇게 태그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홈페이지를 무료로 주는 회사의 만들어진 홈을 꾸미는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거란 자신감이 들어 제일 기초적인 홈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태그를 수집하다 보니 어데다 저장할수도 없고해서 처음엔 자료를 그냥 모아놓는 목적으로 시작했죠 한번본 신기한 자료나 사이트를 다음에 찾아 가기란 그리 쉬운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얼마후 다시 흥미를 잃고 방황하다가 미디어 플레이어를 링크 시키는 음악방에 취해서 다시 몇 개월이 흐르고 그러다 또다시 흥미를 잃고 방황을 하던차 지금의 윈앰 방송을 알고 다시 몇개월...그러다 또다시 흥미를 잃고 방황하던차에 전부터 기초적인 홈을 조금씩 발전시키고 운영하던걸 본격적으로

부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를 든다면 한정된 자료 검색정도만 하곤 그외엔 전혀 킴을 대할 용기가 없었습니다.(워드사용은 6~7년 했지만..) 그러나 어느날 문득 호기심에 들어간 사이트가 자바게임 오목이었답니다. 게임을 하면서 대화도 나누곤 하였지만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곤 하면서도 계속자리를 차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용기를 내어 다른사이트에 둘러본다고 찾은 곳이 MSN4050 음악세상이었습니다. 다른분들 대화 내용을 보고 있노라니 서로 대화를 통해 킴도 배우고 가르쳐 주고 하는것을 알게 되곤 궁금한점을 묻기도 하고,때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대화내용을 보곤 킴을 배우면서 차츰 용기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낮을 가리는 (이나이에 낮가림이라면 우습지만..) 저로서는 얼굴 없는 대화 챗이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모른답니다. 부족한 것은 많지만 나름대로 필요한 자료를 찾아 가면서 많은 도움을받고 인터넷에 매달려 보내는 시간이 하루일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질릴 떠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중독중에 빠졌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이 많은 정보의 바다-인터넷세상을 돌아보기엔,또 내것을 만들기 위해선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젠 주위의 사람들에게 챗에 대해 나쁜것이라는 인식에 맞서 설명을 해주며 챗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킴을 대하면서 인터넷세상을 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주제넘는 짓일까요?여러분들 주위의 모든분께 용기를 주십시오... 인터넷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단지 가전제품의 스위치를 사용하는것과 같다고 ...단,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두서없는글 주절 주절... 끝까지 읽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일이 있길 빕니다

© 이름:야자수그늘 (hjgyeong@hanmail.net) (39 남 자영업)

킴을 끄고싶는데 왜 시작버튼을 누르라고 하나요??? 우스게 소리중 킴을 끄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 물으니 일단 시작버튼을 누르세요 하더래요

가입과 탈퇴야 본인의 의사로 하는것이니 드릴말이야 없었지만 전 인터넷이 야말로 글로써만 대화하는 장소고 나이의 벽을 허물수 있는- 젊은사람의 생각을 접할수있는 가장 편한 대화의 통로라 여기지요 항시..살아온 經驗두 좋지만 젊은이들과의 對話에서두 배움은 있다구세살아이에게서두 어른으로써 미처 깨달지 못한 慧眼을 발견할수있듯이 조금만 餘裕의 幅을 넓혀서서 그들의 생각을 접할기회를 같았음 싶어서 이글올린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4050방에서 의견을 내기에는 조금 적다할나이인지는 모르지만...인터넷을 통한.챗이나 써핑모두가 人生의 배움을 넓히기 위한 旅程에 마주치는 한 길목인지두 모르니 실생활에서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그 들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저역시 십대방에서 강퇴당한 경험두 있지만...또한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 배움을 얻은적두 많아서....어떤 일관된시각으로만 어린사람을 보지않았으면 싶어서 이글올립니다. 죄송합니다.

處世엔 讓一步하고 爲高하나니 待人엔 寬一分이 是福이니 實利的 根基니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양보하는것은 고상하다고 여기니...한걸음 물러나는 것을 곧 한걸음 나아가는 근본이 된다. 사람을 대우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더 너그럽게 대함이 복이된다..채근담에 나오는 글이랍니다.

◎ 이름:깊은물 (cleanestwater@lycos.co.kr) (43 여)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감히 이자릴 차지하다니 ... 안녕하세요? 이글을 보시는 모든분들 안녕하시리라 믿습니다.인터넷을 통하여 얻을수 있는것은 첫째 용기였답니다. 과연 내가 컴을 다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아직은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습디만... 특히 가정 주부들의 관심이 많아야 할 것같은데 안타깝게도 기피를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이유인즉, 컴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특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물의를 빚고 있는 챗에 대한 나쁜 인식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챗에대한

인생님 도와주세요, 인생님이 이런 음악방을 하나더 운영하여 주시면 어떨까 하구요(49,999999세만 되어도 못들어오게하는 늙은이들의 방), 전 가끔 태그를 이용해 챗방을 열어 이들과 대화와 음악을 통하여 그런데 상기 태그로는 늙은이들이 좋아 하는 옛노래 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winamp방송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시험해 본 결과 정상인데(물론 IP주소도 알려 주었죠) 연산이 안된다구 나온데요, 전 가끔 태그를 이용해 챗방을 열어 이들과 대화와 음악을 통하여 그런데 상기 태그로는 늙은이들이 좋아 하는 옛노래 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winamp방송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시험해 본 결과 정상인데(물론 IP주소도 알려 주었죠) 연산이 안된다구 나온데요, 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정규방송은 못하지만 그래도 잠 못이르는 진정한 50이상의 분들과 음악을 들으며 추억이나 더듬을까 합니다.

winamp를 쉽게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끝.

◎ 이름:명아주 (alaneige@hanmail.net) 學而是習之 不亦說乎?

전 아이학교에서 하는 컴교육을 통해 인터넷을 알게되었고 신문에 소개된 사이트 주소를 찾아다니며 서핑을 하다가 야후에서 우연히 챗이란것을 알게돼 지요 하루에 한두시간 잠깐 들어가 구경하는정도로 하다 조카소개루 세이를 알게돼서 한 삼개월 챗의 즐거움을 마음껏 즐겼지요 . 지금 현재는 주로 음악링크만 가져다 들고 (가끔 홈페이지에 노래신청두하고요)...친구와 주고 받는 메일과 제가 운영자로 있는 카페(요리에 관계된것입니다) 거기에 올릴 精報檢索과 필요한 곳.서핑정도로 컴을 이용한답니다. 제가 세이에서...대화방에 있을때 아 이건 잘못된거구나 느꼈던제가 加入했던 동호회방은 주로 30~40대가 主軸을 이루었는데 가끔 여기에 20대나 10대가 들어와 그냥 음악만 듣는경우가 있었지요, 물론 사전에 시삽이나 방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온경우였고 제생각으로 어떤 실례되는 글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단지 나이만을 이유삼아...강퇴를 시켜버리는 분들도 계셨고 심한경우엔 나이 어린 사람을 받아들이는이유만으로 동호회에서 脫退하는경우도 보았답니다.

40-50대 인터넷 경험이야기

40-50대가 인터넷 세상을 접하면서 겪는 이야기들은 40-50대인 우리들이 공감가는 인터넷 세상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으며 인터넷을 하면서 겪는 우리들의 자그마한 아픔들이 묻어 나오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앞에 주눅들은 우리들 스스로 격려하고 컴맹이라는 수식어에서 과감히 벗어나 당당한 모습의 40-50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들 스스로 경험하는 인터넷세상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은 분들이 나누어 주기를 바래 봅니다.

◎ 이름:홍진섭 (pawool@sayclub.com) 인터넷상에서 갈곳 없는 노인들 전 sayclub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올해 61세로 대화명을 "빼울임당"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사람으로써, 인터넷상의 대화방과 대기실을 다녀보니요즘 컴의 보급률이 높아 저보다도 연세가 높은 많은 분들이 마땅한 갈 곳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여러곳의 나이든 동호회의 가보면 일예로 4050방에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30-40대들이 주류를 이루어 50을 넘긴 사람들은 이들과는 대화 내용이나 듣는 음악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어울리기 힘들고 또 버릇없이 구는 젊은이들두 있어 대화방이나 음악방에 들어가기가 두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라의 경제성장에 가장 공헌이 큰 50-60대의 사람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슬프기두 하답니다, "우리들이 지네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하고 말입니다, 나이들어 컴을 잘못 다루는 것두 책피한데 "그것두 몰라여?"하는식의 면박하는 것두 봤지요, 그리고 날뜨거운 대화내용을 보기에두 민망하구여, 따라서 진정한 늙은이들의 모임방이 필요하다구 생각했습니다.

◎ 이름:목련화 ◎ 2001/9/9(일) 17:39 예쁜 딸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 우리 예쁜 딸 생일 축하한다 *****

지금쯤은 생일을 미리 당겨서 친구들과 생일파티 한다고 밖에서 왁자지껄 떠들고 있겠구나... 이제 초등학교이런 단어보다는 청소년이란 말이 더 어울리는 나이가 되었네... 지선아! 언제 커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겠나.....?

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벌써 커서 이제는 생일파티도 친구들과 하고만 하겠다고 하니.....정말로 세월이 무상하구나..

탈없이 커서 이제는 엄마보다 키도 훌쩍 커버린 우리딸 지선아..! 약간 새침한것만 빼면 나무랄때가 없는데.....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의 지선이가 되었으면 하는게 ... 엄마의 바램이란다..... 지선아~~~~~!

엄마는 물론이고 아빠는 우리 딸 하면 껌뻑 넘어가는것 너도 잘 알지...?

우리 모두 너를 무지 싸~랑 한단다.... 남은 초등학교시절 좋은 마무리 하고 더욱더 어여쁜 여학생으로 성장하여 주어라..... 예쁜 지선이가 13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항상 팔쥐 엄마라고 했지콩지야....

*****cj 님 우리 딸 생일이 9 월 10 일 이랍니다..

축하해 주세요..... 학원에 갔다오면 들을수 있도록 오후 8시 30분쯤 되어서 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신청곡은.....?

베이비복스의.....인형처럼 강타의.....북극성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른 어느 게시판보다 '축하합니다 게시판'에 우리 가족들의 우리 친구들의 축하할 일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슬픈 일보다는 즐거운 일이 더 많은 우리 40-50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40-50대 가족들의 많은 축하 사연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면서...

◎ 이름:터구리 ◎ 2001/8/7(화) 13:38 축하음악 신청입니다

시제이님, 이 글과 노래 아침 9시쯤에 들려 주시면 백골난망이겠습니다. 듣고 출근하려고요. 8월 8일은 우리 집 첫째 딸이 태어난 날입니다. 효심이 깊어서인지 마늘의 체질이 그래서인지 애 안 먹이고 쓸까닥하고 세상에 나왔지요. 그때 전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출산예정일에 맞춘 휴가때문에 일을 어느 정도 정리하려고 회사에 막 출근해서 아마도 한참있어야 되겠거니 하고 분주했는데 느닷없이 상황 끝이라는 장모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좀 어처구니 없더군요. 남들처럼 대기실에서 왔다갔다도 해보고 줄담배도 뽕뽕거릴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은 나머지 애 둘도 그랬으니 효심이라기 보다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기는 수월하게 나온 놈이 너무 쉽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 다음부터 생뿔을 부리더군요. 밤낮을 바꿔 노는건 기본이고 그러다 한번 자려면 지 할머니, 외할머니가 업고 동네 한바퀴 돈 다음 게심치레된 놈을 도닥거리길 한참해야 인심쓰듯이 잡니다. 그럼 식구들 모두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했었죠. 오죽했으면 제가 이불장에 집어 넣었을라구요. (본인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러저러해서 지금은 저만큼 커져가지고는 지 혼자 잘난 척은 다하고 뺨대기는 좀 뺨대야 말이죠. 들리는 말로는 상대할 남자 녀들이 없대나 뭐래나 그래요. 각설하고, 짧게 축하를 하렵니다.

사랑하는 딸아, 먼저 네가 이만큼 크기까지 보살펴주신 집안 어른들께 감사하거라. 특히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항상 맑고 밝게 생활하거라. 그리하여 너만의 세상에서 마음껏 활갯짓을 하려므나. 엄마와 아빠는 네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너만의 세상에서 보람차고 행복해 하는 네 보습을 바라보련다.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네 생일을 축하하는 아빠가.

◎ 이름:미씨공주 (남)◎ 2001/8/5(일) 19:42 장한 아들~~~빠팅

아들애! 장한 내 아들이 대상은 아니지만 동상을 받은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mbc,고려대 주최 전국경시에서 동상을 받아 실망하는 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사랑하는 아들 화이팅~~~~~

◎ 이름:스모키 (남)◎ 2001/7/22(일) 23:00 사랑은행님의 생일을 축하 드립니다

가인님 안녕하세요..7/23 00:00 시 이후로 생일 축하곡을 띄워 드리고 싶네요 7/23일 오늘 생일을 맞이하시는 사랑은행님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4050방에서 많은 시를 주셔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38 번째 맞이하는 사랑은행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cliff richard - congratulations 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행님 더욱더 많은 시를 올려 주시고 행복한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이름:사랑하는 ◎ 2001/7/26(목) 09:58 우리공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안녕하세요. 88년 그때도 상당히 무더웠던것으로 기억되네요. 예정일을 꼭 채우고 건강하고 예쁜모습으로 엄마품으로 다가오던날 처음에는 딸이기에 할머니께서는 서운해하셨지만 돌아가시기전까지 많이 사랑해주셨지요...

"아름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건강하고 예쁘게 아름답게 생활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는 엄마와 함께할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같이 할 시간이 많아지리라 생각된다. 우리 공주님 화이팅~"

오늘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될것 같지요. 인생님! 건강조심하세요.

생일 축하곡으로 괜잡은진 모르겠네요 . 감사합니다

◎ 이름:갈루아 (여)◎ 2001/7/26(목) 09:17 울 아들 생일 축하해..

인생 아저씨...오늘도 변함없이 수고하십니다..내일(7월 27일)은 울 아들 여덟번째 생일입니다..요즘은 말도 잘 안듣구..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는 알밋고 때려주고 싶지만..동생 잘 돌봐주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에는 너무 예뻐보입니다.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기만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인생 아저씨가 전해주세요.. 신청곡:만화영화 노래 파워 디지몬.... 송시현-꿈결같은 세상...가수는 모름-부모

◎ 이름:갈루아 (여)◎ 2001/7/7(토) 08:29

예쁜 여시 유진아...건강해라..생일 축하해..

신청곡...혜은이 - 파란 나라 양희은 - 아름다운것들 송시현 - 꿈결 같은 사랑
오전 9시 반쯤에 틀어 주세요....꼭!꼭!꼭! 울보 천사님...오늘도 살짝 문을 두
드려봅니다. 오늘이 제 둘째아이 여시 딸 유진이 두돌이 되는 날입니다. 정
말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래 신청합니다. 태어난지 3주만에 신
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갈때...얼마전에 갑자기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갈때..정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날거 같습니다. 언제나 씩씩하고 예쁘고 아주
건강하게만 자라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요즘 같이 음악을 들을때 경쾌한 음
악이 나오면 춤을 추며 흥얼거리는 모습이 너무 이뻐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울보 천사님 외 모든 씨제이님
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이름:박지훈 (남)◎ 2001/7/8(일) 09:30 사랑하는 동생의 시원이의
생일

저의 동생 시원이의 생일입니다 11시쯤에 생일 축하곡 들려 주셨으면 합니다.
생일이 되니 지금까지 잘해주지 못한것이 정말 미안하네요. 말로 표현하지 못
한말 여기도 써서 올립니다. 시원아! 정말 미안하고 사랑한다.

◎ 이름:창원달님 (여)◎ 2001/7/12(목) 09:21 비올레타님. 생일축가곡부
탁합니다

비올레타님.안녕하세요 개국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생일축가곡부탁합니다인생
님.비올레타님.현장생방송진짜수고많이했어오. CJ 님들..항상감사합니다 7월
15일에별님51살.생일축가곡부탁합니다. CJ 님들..항상수고하시구..건강하세요

◎ 이름:민트,,이쁜이 (여)◎ 2001/6/27(수) 09:13 능소화님의 따님 정 선주양의 생일 추카하며~

파란나라~~해은이 하이~~잘 ~모닝~~ 수고하시네여~ 씨제이님~~~
능소화님의 따님 정선주양의 생일 추카할려고 사연 뒹웁니다~~이쁜 선주양 의~~생일 추카 추카~이쁘고 깜찍한 아가씨로 커주길 바라며~~ 장미의 계절에 태어난 선주의 생일을 진심으로 추카하면서 민트 이모하고,,이쁜이 이 모하고 추카해드릴께여 좋은 하루되요~능소화 엄마가 없슴,,선주양이 없는 거 알죠,,엄마 , 아빠한테 잘해요~이쁜딸 멋진딸이 되길바라며~~개성있고,, 나만이 할수있는 일을 하나개발해서 진짜로 성공할수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추카 추카~~!!!!
핑클의 ~~~ 당신은 모르실꺼야~~최불암~~아빠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요~선주가 학교에서 오는시간이 몇시인지 몰라도,,오후3시쯤에 노래 올려주 셔요

◎ 이름:바우 (여)◎ 2001/6/29(금) 11:23 아가! 생일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딸아~ 네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기도 하고 우릴, 아빠, 엄마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준 날이구나. 고맙구나...우리, 자식으로 태어나 줘서... 건강하고, 지혜롭 고...슬기로운 청 소년으로 자라주길...이제, 어린이로선 마지막 생일이고 내 년부터, 너도 청 소년의 대열에끼게 되겠구나....오늘...함께 잊어주고 싶었는 데. 미안해서 어찌니? 엄마가, 상갓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아주 많이

◎ 이름:김영선 (남)◎ 2001/7/2(월) 20:58 장한아들

MBC미디어 와 고려대학 공동 으로 실시한 전국경시대회에서 전국7등을 한 아들에게 축하 하고 싶어요~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대상을 받도록 노력 해주길 바라면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받는다 고 하면서 오늘을 기다렸거든요. 모든분님들 우리 딸아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 해주세요.(ㅎㅎㅎ) 그리고 축하곡은요저녁 9혹시에 부탁드립니다. 신청곡은요김건모의 짱가로 보내 주세요 초등학교이지만 실험 기간이라서 9시 돼서 집에 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고 하십시오.

◎ 이름:우리백조 ◎ 2001/6/25(월) 15:15 을 신랑 생일이예요..

울신랑 생일인데요...항상 우리가족과 그리고 맡아들로써...시댁식구에게 신경 쓰느라고 많이 지쳐합니다. 남들이 그러지요...효자라고..하지만 저는 이 효자가 싫었어요. 토요일되면 항상 시댁으로 가는 남편을.....다른 가족들은 들로 산으로 놀러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래서 바가지도 많이 D었는데...지금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의 모습을 보고 부모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이 먹었을때 우리 아이들도.. 아빠처럼 우릴 보러 오겠지요? 이것이 산교육이라 생각하면서...위안을 삼는 답니다~~~~~가브리엘님~~~~생일축하해요. 항상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보시기에 이쁜모습 보이고 살아요. 마음 비우고...항상 기쁨이 가슴에 가득하길~~~~

7시 30분쯤 들려주세요...술 못마시는 남편을 위해서.. 포도주와 안주를 준비 했거든요.음악들으면서.....건배할께요..

◎ 이름:민트 (여)◎ 2001/6/26(화) 00:00 6월26일 오늘은 선아의 35 번째생일입니다.

선아야 생일 축하해!! 만남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언제나 자매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어 너무 기쁘다. 내가 켈로 먼저 축하곡 보내주려고 선수를쳤다. 잠도 안자고 날짜 넘어가길 기다리고 있다가 축하음악 보낸다. 형부도 생일축하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어. 다시한번 생일 축하해. 오늘은 신랑이랑 같이 친정 어머니 아버지 찾아뵙고 큰절해야겠네....

신청곡 1. 부모-양희은 2. 김종환-당신의 생일날에 3. 가람과 댜- 생일

◎ 이름:허일구 (남)◎ 2001/5/16(수) 17:28 축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축하해 주실래요.... 5월17일이 제가 정식으로 어른이 된 날이
요. 그러니까 12주년 결혼 기념일 입니다요.....
홈페이지:<http://www.firechal.com/h590113i>

◎이름:바우 ◎ 2001/5/23(수) 11:50 버드님, 축하합니다
네티, 386, 3번방에서 가끔뵈는, 송버드님의 생신이, 5월 21일 이었답니다.
음력으로4월 28일이 되네요. 사이버...친구로, 무지막지하게 축하드리고,건강
하시고, 행복하세요. 앞으로도, 사이버에서의 좋은 친구로 남고 싶습니다...
아이디가, 아마도chirro.....가 될것 같은데.....맞는가 모르겠지만....앞으론 대
명보다, 아이디를 기억하는 습관, 드려야 겠네요. 남은 인생 행복하세요.네티
친구 바우가 드립니다

◎ 이름:별가람 (남)◎ 2001/6/14(목) 00:11 딸아이가 독서감상문 최우
수상을 탔습니다
제 딸이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교내 독서감상문 경시대회에서 1학년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축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유일한 공립 고등학교인 원곡고등학교는 안산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1학년 500명 중 1등을 하여, 학교
대표로 안산시 경시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제 딸에게 노래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담은 "백만 송이 장미(심수봉)"를 들려주
고 싶습니다. 시간은 16일 토요일 밤 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 키우는 것
이 힘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즐거울 때도 있어서 부모 노릇을 하는가 봅니다.

◎ 이름:나운아씨 ◎ 2001/6/25(월) 08:07 딸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딸아이의 생일 이거든요 육월달부터 달력애다가 동그라미 해두고서는매일 기
다리던날이 바로 오늘이거든요. 생일이 육이오라고 친구들 한테 놀림도 간혹

축하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족들의 생일로부터 크고 작은 즐거운 일들이 있다.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의 행복하고 축하하고 즐거워야 할 일들을 소개하는 게시판으로 축하합니다. 게시판을 운영해 왔다 많은 분들이 아직 몰라서 참여를 못하고 있지만 이 게시판은 우리들의 즐거운 일들을 축하 해주는 게시판으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

생일을 축하 해주고 입사를 축하해 주고 합격을 축하하는 코너로 24시간 생방송으로 40-50대 음악세상 가족들과 그기쁨을 함께 나누는 코너로서 자리를 잡기를 바란다

이 게시판에 그동안 소개되었던 축하 사연을 소개 해본다.

◎ 이름:깊은물 ◎ 2001/3/29(목) 20:54 축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자리를 빌어 작은아이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첫자리를 차지 하게되었군요. 지금 수련회에 간 관계로 이자리에 함께 하지 못해 아쉽지만 밝고 건강한 아이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아이의 생일을 축하 하고자합니다 이시간 마음으로 축하의 메세지가 전달 되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여러분들 다같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악신청은 신청란에 했습니다.... 멀리 아이한테까지 들릴수 있도록 힘차게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40-50대 음악세상 우리들의 이야기는 평범한 우리들의 삶을 소개한 글들로 다 실을 수 없음을 안타까워 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 게시판글들은 분기별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단행본으로 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는 펴온글은 올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이야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코너는 CJ분중에 가인님이 맡아서 방송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며 추천작가 게시판에 여울샘님은 40-50대 음악 세상 가족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